" 쓰읍, 하아.. "

특유의 화려한 장미문양이 새겨진 금색 망원경 사이로, 음흉한 눈동자가 일그러져 보인다. 투명한 렌즈 너머 무슨 그렇고 그런 상상을 하는 것 마냥, 어둡게 가라앉은 녹색 눈동자는 어느 한곳에 시선을 고정시켜 움직일줄을 모른다. 마치 생선을 눈 앞에 둔 고양이마냥 입을 헤 벌린채 당장이라도 그곳을 향해 달려들 것만 같은 모습이, 꽤 예쁘장한 여자의 모습을 추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뭘 그리 보길래 이런 표정을 지을꼬. 그 음험한 시선을 따라가보니.

단아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저택 속, 활짝 열려진 창문에.

" ..래서, 이번 달의 예산이... "

꽤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훤칠한 미남이 보인다.

깔끔하게 뒤로 넘긴 올블랙의 머리, 쌍꺼풀은 없지만 짙은 눈매 속에 담긴 밤하늘 같은 눈동자. 내 콧대 높소, 하고 당당히 자랑해도 될 정도로 높은 콧대에 각진 입매의 소유자. 그래, 프란틸 제국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 미래가 유망하다는 젊은 공작, 레쉬블 프라이티아 펙티르 공작이다.

여자는 공작저의 3층 창문에 두꺼운 밧줄을 달아 그것을 타고 2층에 있는 공작의 집무실을 몰래 엿보고 있었다. 하악. 우리 공작님은 심각한 모습도 멋있어. 여자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중얼거렸다.

" ... ! 설마! "

그 숨소리에, 무언가 눈치챈듯 펙티르 공작은 나누던 이야기를 중단하고 제 앞에 있던 기사의 칼을 뽑아 몸을 뒤돌며 창문을 향해 검을 집어던졌다.

쉬익, 부욱.

날카로운 검이 무언가 굵은 것을 가르는 소리가 나며,

" 꺄아아악! 우리 공작님 검 던지는 것도 너무 멋있어.. ! 역시 저랑 결혼해ㅈ... ! "

쿵.

어떤 여자의 비명소리와 뒤이어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공작은 얼굴을 험악하게 구기며 제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쓸어올렸다. 그리고 짧게 욕짓거리를 내뱉었다.

" ...끌고나가. "

" 예. "

공작의 씨근덕거리는 목소리에, 기사는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었다.

며칠뒤. 제국의 꽃이라 불리는 에스티론 백작가의 외동딸, 루블라일 리브 에스티론이 공작 저에 숨어들어갔다 '또' 병실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이 제국 내에 퍼졌다.

" 흐크흡, 흡... "

루블라일은 붕대 투성이인 몸에도 아랑곳 않고, 이불을 세게 끌어안으며 뚝뚝 눈물을 흘렸다. 촉촉히 젖은 눈동자와, 파르르 떨리는 하얀 속눈썹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그를 간호하고 있던 시녀들과 시종들은 저절로 먹먹해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제 주인이 미쳤다는 건 뼈저리게 알고 있긴 하다만, 그래도 저 얼굴로 저렇게 애처롭게 울면 괜히 주인이 불쌍해진다. 시녀, 에스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주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 아가씨.. 속상하신건 알지만 그 몸으로 그렇게 세게 끌어안으심 상처가 덧나요... "

" 흑, 그치만, "

그렇게 차갑게 날 내치는 공작님이 얼마나 멋있는데.. ! 너무 감격스럽단 말야... !

울먹거리면서 뒷붙여진 말에, 시녀들과 시종들의 얼굴이 급속도로 썩어갔다. 그리고 제 주인이 혹시 그 유명한 피가학적 변태, 흔히 마조히스트라 불리는 사람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며 슬금슬금 그녀의 방을 나갔다. 탁.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내 방 안에는 루블라일 그녀만이 혼자 남았다.

" 다들 왜 공작님의 멋짐을 모르는 걸까? 하아.. 공작님이 3D라니... 대학 붙은거 다녀보지도 못한건 좀 아쉽지만, 실물 공작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뭐 대수인가. "

루블라일은 제 하얀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중얼거렸다. 그래, 그녀의 말이 뭔가 이상하다 느꼈으면 정답이다. 그녀는 원래, 대한민국의 유명한 S대에 다니게 되었을, 신은하라는 예비 대학생이었다. 그전에 판타지 로맨스 소설"붉은 색으로"의 덕후였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붉은 색으로"의 서브 남주, 레쉬블 프라이티아 펙티르 공작의 미친 덕후였다. 소설, "붉은 색으로"는 꽤 많은 2차 창작물들을 생성하는 덕, 아니 팬층이 형성되어있던 인기 많은 소설이다. 하도 인기가 치솟아서, 여주 뒤치닥거리만 잔뜩하다 결국 제 손으로 메인남주와 짝사랑하는 여주를 이어준 불쌍한 서브 남주, 펙티르 공작의 외전이 애니메이션화가 된 적이 있었다. 짝사랑하는 여주를 제 손으로 직접 다른 남자와 이어줄 때의 공작의 심정이랑, 그 후 여주를 잊기 위해 일만 하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그 짧고도 짧았던 애니메이션을 봤던 은하는.

" 커헉, "

치였다. 그것도 아주 세게.

소설에서 그 외전을 봤을 땐, 펙티르 공작이라는 소형차가 가볍게 스치고 지나간 느낌이었다면.

부웅쾅!쿠앜쿵쾈쾅쿵쾅!

애니메이션의 펙티르 공작은, 트럭 10대로 치다 못해 그녀를 즈려밟고 지나갔다. 소설 특유의 그 절절한 감정을 어찌나 그리 잘 표현했던지. 그날 은하는 공작에게 풍덩 빠졌다. 그리고 덕질을 시작했다.

마치 덕질을 위해, 덕질만을 하기 위해, 덕질 아님 다 필요없는 삶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주위에서는 그런 그녀를 이렇게 표현하곤 했다.

' 맙소사... '

그래. 그 모습은 보는 사람마다 탄식을 내뱉을 정도로 끔찍했다.

무슨 그가 없으면 삶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의 모든 행동은 펙티르 공작으로 인해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그가 온리 펙티르 알러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사건은 터졌다.

소설 "붉은 색으로"의 두번째 외전이 출간된 것!

심지어 두번째 외전도 펙티르 공작의 외전이란 것!

펙티르 빠순이 은하는, 그 두번째 외전에 자신의 지갑을 바쳤다. 테잌 마이 머니! 은하는 기쁨에 울부짖으며 책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은하는 쓰러졌다. 왜? 표지의 공작이 너무 잘생겨서. 그거 가지고 왜 쓰러지냐고? 그는 진정한 진성 오타쿠니까. 그녀는 폭행당한 자신의 심장을 부여잡으며, 한글자 한글자 소중히 눈에 담았다.

그리고 그날 책을 찢어버렸다.

아, 물론 표지 빼고.

그렇게 소중한 책을 왜 찢었냐 묻는다면.

" 공작이 주거써! 공, 크흑, 작님이.. ! 죽었.. 죽.. 죽... 아냐! 안죽었어! 아냐, 아냐 시발! 작가 새끼야 아니지? 아니지!? 그래 아닐거야. 아냐. 우리 공작님이 왜 죽어. 하하 다 조까쇼! "

그렇다. 레쉬블 프라이티아 펙티르 공작은, 여주를 잊지 못하고 끈임없이 괴로워하다 결국 자살했다. 아니 시발 작가양반.. ! 이거 구라지요? 진짜 구라지요? 최애캐가 고인캐라니! 심지어 자살이라니! 그녀는 찢어진 종잇조각들을 붙잡고 그렇게 오열했다. 며칠 밤낮을 새며 끈임없이 울기만 하던 그녀는, 어느날 실이 끊긴 인형마냥 픽 쓰러졌는데.

" 얽? "

눈을 떠보니 소설 "붉은 색으로"의 속, 제국의 꽃이라 불리우는 에스티론 백작가의 외동딸이자 메인남주 황제를 짝사랑하던 루블라일 리브 에스티론의 몸속에 빙의했습니다. 띠용...

여튼 각설하고, 가족은 딱히 없어 전생에 미련이 딱히 없던 그로서는, 행운 중에 행운이었다. 심지어 공작이 죽지 않은, 두번째 외전의 전쯤에 빙의를 했다. 2D 최애캐가 내 눈앞에서 살아움직여요.. ! 감격, 희열, 환희. 공작이 죽지 않고, 제 앞에 온전히 살아있단 것에 온갖 감정에 휩싸인 그는,

" 아가씨. 펙티르 공작님께서 오셨습니다. "

" 헐 미친! 들어오라고 해! "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주워놓고! 우리 백작가 전속 화가도 불러서 그림도 그려놓음 더 좋고!

진성 오타쿠에서 진성 스토커로 업그레이드 했다.

문 안에서 들린 당당한 스토커 발언에, 공작은 얼굴을 굳혔다. 에스티론 백작 가의 상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았다면, 병문안이고 나발이고 저 미친 여자부터 썰어버렸을텐데. 새삼 공작은 울고 싶어졌다.

" ... "

" ... 에스티론 영애, 전에는 결례가 많았습니다. "

이불을 뒤집어쓴 채, 제 초록빛 눈동자만 내놓고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 그의 행태에 공작은 구겨질려는 얼굴을 간신히 피며 그에게 넌지시 사과를 던졌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 아래 싱그러운 잎사귀마냥 맑은 녹빛의 눈동자, 은은한 진줏빛 피부. 또 그 살결을 부드럽게 감싸안은 새하얀 머리카락. 공작은 눈 같이 하얀 머리카락을 보자마자 아. 하고 짧은 소리를 토해냈다.

나중에 늙어서 흰머리 생겼다고 찡찡 거릴 일은 없겠군.

비록 대부분이 이불로 인해 가려져있지만, 그래도 제국의 꽃이라 불려지고 있는 여자를 향해 진성 고자 같은 감상평을 내놓은 공작은,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만 데록데록 굴리는 루블라일을 보며 얼굴을 구겼다. 아니, 이 여자는 예의란 걸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건가. 사람이 말을 하면 돌아오는 답이 있어야지. 저 행동은 대체 뭐란 말인가. 이렇게 병문안을 올 때마다 저 여자가 자신에게 말을 하는걸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 루블라일의 행동들에 공작은 기가 막혔다. 다행히 코는 안막혔다고 한다.

자신의 저택에 뻔뻔하게 침입할 때는, 예의 그 하악.. 이라던지 결혼... 이라던지 잘만 짓걸이던 입이 어째서 자신이 앞에 있음 이렇게 쉽게 다물어지는지. 공작은 쯧, 하고 가볍게 혀를 찼다. 그 소리에 루블라일의 몸이 흠칫 떨렸다.

한편 루블라일은 제 딴에는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원래 어둠 쪽에서 스토킹.. 이 아니라 덕질을 하는사람은 뒷공작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잘할 자신이 있지만, 스토킹의 대상, 아니 덕질의 대상이 눈 앞에 떡 있으면 정작 아무말도 못하는게 스토커.. 아니 덕후다. 거야 당연히,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이상 자신이 뒤에서 뭔 짓을 하는지 자각을 하고 약간의 쪽팔림을 느낀다. 그런데 앞에서 당당히 뭘 말할 수 있을리가. 이미 실존해 있는 사람을 스토킹.. 이 아니라 덕질을 하는 시점에서 뭔 양심이 있나 물을 수도 있지만 원래 덕질의 세계는 심오한 거다. 정말 쪽팔려 하는 부분에서 뻔뻔해야 할 때도 있는 거고, 아님 전혀 엉뚱한 부분에서 부끄럼 탈 때도 있는 거고.

" ... "

물론 자신이야 공작하고 미친듯이 대화하는게 꿈이긴 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덕질을 하며 그의 말만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달까. 이미 예의를 차려야한다는 생각은 저 구석에 처박아뒀다. 덕질이 사람의 생각을 멈추게 한다. 공작의 구겨진 얼굴을 본 루블라일은 이불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악! 학! 공작님의 구겨진 얼굴 너무 잘생겼어..

" 이런 미.. "

친.

이불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루블라일에, 공작은 튀어나오려던 욕설을 간신히 멈췄다.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저 미친 여자는 또 저를 가지고 음험한 생각을 하는게 틀림없었다. 공작은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예의고 나발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변태한테서 어서 벗어나야한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뼈저리게 박혀있는 예절 교육에, 공작은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도망칠려는 와중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그녀의 방을 나섰다.

" .. 허억! "

시종, 시녀 구분없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무언갈 찾는듯 하다 자신이 벌컥, 하고 방문을 열며 나타나자 기겁하며 자신들의 손을 등 뒤로 감추기 급급한다. 공작은 제 괴물 같은 시력으로, 언뜻 그들의 손에 들려진 몇가닥의 검은 머리카락들을 보았다.

.. 나도 나지만 너네도 참 거지같이 산다...

알아요, 저희도..

공작의 측은한 시선과 시종, 시녀들의 체념한 시선이 조용히 마주한다. 공작은 그들의 손에 들려진 제 머리카락을 찝찝하게 바라보았다가, 거친 숨을 몰아쉬던 루블라일이 생각 나 한시라도 바삐 이 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걸음을 재촉했다.

" 하아, "

공작은 휴식 겸 처리하던 서류를 잠시 미뤄두고, 소파에 제 몸을 뉘였다. 서류 처리하랴, 그 여자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경계하랴. 그 외에도 일은 많지. 몸이 두개여도 모자랄 판이다. 이렇게 쉬면서도 그 미친 여자가 언제 올지 몰라 경계하고 있어야한다니. 제 꼴 참 우습게 되었다.

루블라일에 대한 공작의 평은 굉장히 안좋은 편이다. 차라리 지나가던 똥개의 평이 훨씬 좋을정도로, 그녀에 대한 그의 감정은 정말, 정말, 정말 좋지 않다. 거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다들 알다시피 그녀의 열렬한 공작 스토ㅋ.. ㅣ...ㅇ.. 덕질이 한 몫 하고 있고, 원래 그녀가 황제 테이거스 제이티그 엑시아를 짝사랑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루블라일은 황제 테이거스를 매우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랑에 눈이 멀어 황제의 연인이자 공작이 사모하는 여인, 하네르 리아를 그토록 괴롭혔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물론 황제가 그 사실을 안 이후 격노하여 약 한달 간 루블라일을 자택에 근신처분 시킨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랬던 그녀가, 한달 간의 근신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저를 스토킹하며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꾼 건 꽤 오래 전의 일이었다.

" ... "

그는 그런 그녀를 의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토록 사랑했던 황제에 대한 미련도 없이 갑자기 저를 열렬히 쫓아다닌다? 말이 되지 않았다. 아마 황제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무언가 뜯어낼 것이 있어서 그리 행동 하는 것이겠지. 스토킹에, 자신이 사모하는 여인을 괴롭혔고, 갑자기 바뀐 의심스러운 태도. 그가 그녀를 좋아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 ... "

툭툭, 공작은 제 검지로 탁자를 두드리며 얼굴을 구겼다.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무릎은 찢어져서 상처가 나고, 온몸이 오물로 더럽혀져 서럽게 울음을 쏟아내던 하네르의 모습이.

자신이 사모하는 여인을 울린 그녀를, 그가 좋아할 이유 따윈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

" 뭐? 파티? "

팥파라랕팥팥티? PARTY? 피 에이 알 티 와이? 레몬 소주, 난 테킬라, 넌 모히ㅌ.. 아니 이게 아니라. 파티라고?

" 네, 요번에 황제 폐하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파티요! 벌써 2주 뒤네요. 근데 아가씨. 몇달 전부터 폐하의 탄신일 파티, 기대하지 않으셨.. 아. 이제 공작님을... "

펙티르 공작이 루블라일의 병문안을 왔었던 것도 벌써 한달이 지나고, 괴물 같은 회복력을 자랑하는 루블라일은 제가 모은 공작의 검은 머리카락들을 쓰다듬다, 제 시녀 에스나의 말에 기함을 토했다. 이런 뭬친. 파티라뇨. 난 춤은 1도 모르는데. 어어어쩌지. 어쩌지!

" 아가씨는 제국의 꽃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엄청난 춤실력을 갖고 있으니 작년 폐하의 탄신일 때처럼 아름다운 춤을 보여주시겠죠? "

" .. ? 난데스까 개소리데스요? "

" 네? "

ㅇ.. 아니. 말이 헛니왔어.

루블라일은 소심하게 뒷말을 덧붙이고는, 제 시녀의 반짝이는 눈을 피해 방에서 벗어났다. 루, ㄹ, 루루블라일이 춤을 잘췄었나? 그랬었나? 미쳤다. 나는 춤추는 방법 같은거, 아예 모르는데! 미친. 제국의 꽃이 알려주는 새로운 춤이라고 확 짜라빠빠나 춰버려? 으아아! 루블라일은 제 결좋은 하얀 머리카락을 쥐어뜯을듯이 세게 쥐며 소리없는 비명을 질렀다. 아니 이런 여드름 같은! 그렇다고 파티를 쨀 수도 없잖아! 황제의 탄신일이라는데! 저번처럼 공작님의 저택에 쳐들어가서 또 2층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어? 잠깐, 2층에서 떨어져?

황궁 파티 하루 전+평소처럼 공작님의 저택으로 가 공작님 스토.. 덕질+공작님의 귀여운 화난모습 Get+2층에서 떨어지던가 아님 공작님이 멋지게 공격함=다침=파티안감=개이득?

어? 진짜 개이득인데?

그냥 평소처럼 멋진 공작님의 스ㅌ.. 아니, 덕질만 하면 파티에 못가는거 잖아? 다쳤다고 하면 되니까! 헐. 대박. 난 천잰가봐.. ! 루블라일은 제 천재성에 감격하여 입을 틀어막았다. 또 파티 하루 전날이면, 마지막 최종점검을 하기 위해 모든 귀족들이 파티날에 입을 옷들을 입어보니까.. 굳이 파티에 안가도 파티에 간 공작님을 볼 수 있단거잖아?

미쳤나봐. 어쩜 이렇게 똑똑할 수 있지?

크윽.. ! 덕질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좋아! 완벽해! 이제 모든 계획을 다 세웠다!

루블라일은 하늘을 뚫고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뭐, 저녁에 황제가 찾아온단 소식에 그 기분은 지하끝까지 추락했지만.

" ? 황제새ㄲ, 아니. 폐하가 여길 왜 오신데.. ? "

" 그거야 저도 모르죠! 백작님과 백작 부인님은 상단 운영 덕에 베트론 영지에 계시니, 아가씨께서 저택 안에 혼자 계시는걸 아실텐데.. ! 아가씨한테 뭘 요구하실려고 오는거 아니에요? 헉. 세상에, 아가씨.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응접실로... ! "

저기 너나 마음 단단히 먹는게 좋지 않을까..

곧바로 쓰러질 사람마냥 패닉 상태에 빠진 에스나를 보며, 루블라일은 진정하라는듯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런 루블라일의 손길에, 에스나는 화들짝 놀라더니 잠시 루블라일을 보며 멍때리다, 이내 화병의 위치를 바꾸라는 시녀장의 호통에 그에게 인사를 하곤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 어라. "

진정하라고 토닥여줬는데 왜 놀라지? 헉. 설마 내 손에 뭐 묻었나? .. 아닌데. 요상하네. 루블라일은 이해할 수 없는 에스나의 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응접실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시간 뒤 방문하겠다는 황제의 편지에 집사, 시녀장, 시종시녀들 할 것없이 전부 바쁘게 뛰어댕기는데, 저 혼자만 느릿느릿 걷는 꼴이 퍽 웃겼다. 음. 황제가 올 때 예법이 뭐였더라. 저택의 대문 앞에선 집사와 시녀장이 세번 절하고, 저택의 주인은 응접실의 방문 앞에서 황제를 기다렸다가 황제가 시녀장의 안내를 받고 응접실에 도착하면 허리를 90도로 두번 숙이고 인사하는 거였나. 음, 하도 거지 같은 예법이여서 나도 모르게 외워버렸네. 예법에 대해 곱씹는 동안, 어느새 응접실의 방문 앞에 도착했다. 황제가 올 때까지 약 한시간 정도. 할짓도 없어 방문 옆의 벽에 조용히 기댔다.

아니, 갑자기 왜 황제가 온담.. 공작님 컬렉션이나 볼려했더니. 머리도 묵직하고. 루블라일은 제 머리 위에 치장된 작은 다이아몬드들을 검지로 톡, 쳤다. 으. 이거 몇개만 떼면 안될려나. 너무 무거운데. 제법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던 그녀는, 결국 아무도 안보는 틈을 타 불편한 머리장식을 잠시 뺐다. 황제가 올 때 다시 끼면 되겠지. 그리 안일하게 생각하던 그는, 갑자기 저택 밖에서 들리는 우렁찬 소리에 손에 들고 있던 다이아몬드 범벅 머리장식을 놓칠 뻔했다.

" 제국의 태양이 영원히 빛나길! "

... ? 님, 한시간 뒤에 온다면서요... ?

이, 이 위험하고 무거운 머리장식을 지금 바로 어떻게 끼라고?!

루블라일은 소리 없는 비명을 내지르며, 어떻게든 머리장식을 다시 끼우기 위해 이미 개판이 되어버린 자신의 머리 위에 억지로 끼워맞추기 시작했다. 이런 망할 황제! 약속 시간 한시간 전에 와서 뭘할려고! 나 엿맥일라고!? 제발, 오다가 자빠져라. 제발 천천히 걸어와라!

...그런 루블라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황제 테이거스 제이티그 엑시아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응접실을 향해 오고 있었다.

" ... "

" ... "

황제, 테이거스는 한번도 본 적 없는 루블라일의 모습에 미간을 찌푸리며 제 앞에 있는 얼그레이로 목을 축였다. 조금 부스스하며, 아무런 장식없는 그의 하얀 머리카락. 언제나 자신의 앞이면 목이 부러지진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수많은 보석들을 제 머리 위에 달고 나오곤 했는데. 어째 오늘은 아무런 장식이 없다. 심지어 묘하게 흐트러졌다. 저 여자가 미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미쳤을 줄은.. 아님 이것도 그건가? 요즘 공작을 스토킹하면서 본인, 테이거스에게 그 흔한 '밀당' 짓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이런 수수한 모습까지 보이며 좀 더 심도깊은 밀당짓을 부릴 줄은. 하하. 깜찍하다 못해 끔찍하군.

그렇다. 그는 지금 루블라일이 하는 스토ㅋ.. 아 아니 공작 덕질을 순전히 그, 테이거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밀당 짓이라 굳게 믿고 있다. 우리의 공작 대덕후 루블라일이 들으면 자진모리 장단으로 황제를 두들겨 팰 수도 있는 엄청난 믿음이었지만. 뭐, 근데 어쩔 수가 없지 않나.

그동안 루블라일이 테이거스에게 한 말, 행동들을 보면 루블라일은 정말 황제를 미친듯이 사랑하고 있다는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으니. 그 깊은 마음이 금방 공작으로 갈아탈 리 없다는 건, 테이거스 스스로가 아주 잘알았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물론 그건 전의 루블라일 얘기고. 공작 대덕후의 영혼이 들어가 새롭게 바뀐 루블라일은, 황제 같은건 1도 관심없었다! 진짜 1도! 0. 00001만큼도!

" ... "

그래서 현재 루블라일은 죽을 맛이었다. 예법에 딱딱 맞게 대하고, 응접실에서 맛깔나는 차도 대접했는데 이놈의 황제놈은 말이 없다. 그냥 할짓 없어서 왔을리는 없고, 분명 무언가 용건이 있는데 말이 없다. 계속 차만 마시고 있다. 왜죠. 어째서죠. 말이 안나올정도로 차가 맛있어서 그러나, 싶었지만 황제가 뭐하러 황제겠나. 분명 황궁에서 지금 이 차보다 훨씬 맛좋고 질좋은 차가 한가득 있을텐데 싶어 처음의 생각은 단박에 날려버렸다. 그럼 왜 말이 없지? 루블라일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쓰읍, 나 예법 틀린거 없는데.. 아니지. 아니야. 이때쯤에 스토리에 뭔가 있었나... ? 이런 시부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책도 우리 최강간지 공작님 나오는 부분만 달달 외우다싶이 보고 다른곳은 그냥 대충 훑어봤는데!

아냐, 한번 기억해보자. 얄팍한 기억력을 뒤져서 좀 어떻게 해보자.. 그래...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분명.. 공작님이 물마시고.. 공작님 샤워씬도 나왔고... 황제와 여주의 알콩달콩함에 공작님이 밤에 술마시고... 어흑, 공작님 밤늦게까지 술마심 건강 안좋아지는데.. 여튼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공작님이 이미 정인이 있는 사람을 계속 사랑하면 어떡하냐고 자책하고.. 아니 이런 못마땅한! 공작님 얘기 밖에 생각이 안나잖아.. ?! 아냐. 내 잘못이 아니야. 애초에 지금이 본편 다 끝나고 외전 때인데 외전에서 거의 공작님 시점으로 밖에 안나왔다고! 내 잘못이 아ㄴ.. !

" 요즘은 하네르를 건들지 않더군. "

" 아닙니다! "

" ... ? "

" ... ? "

?... ? ... ?

깊게 생각에 빠져있다가 황제의 말에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하네르를 뭐? 안괴롭혀? 아니 이 물음표만 가득한 상황 어쩔거야! 맨날 무표정만 고수한다던 황제의 표정도 왠 미친년보듯 바뀌었잖아.. !잠시만, 잠시만. 돌아가라 머리머리! 애초에 하네르, 여주 얘기가 왜 나왔지? 나 뭐 했었나? 내가 한 건 공작님 덕질 밖에 없는데. 그럼 전의 루블라일이?

... 아.

펙티르 공작으로만 이루어졌었던 루블라일의 뇌가,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소설 "붉은 색으로" 루블라일 리브 에스티론 그녀는 엑스트라다. 악녀 짓 조금 하는. 이 조금이 메인 악녀에 비해서 조금이라는 거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조금은 아니다. 뭐, 보통 로맨스 소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악독하게 따라붙어 흑막까지 자처하며 여주를 괴롭히는 스케일 엄청난 메인 악녀가 있다면, 그 외에 메인남주나 서브남주가 푹 빠진 여주를 질투해 자잘자잘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루블라일은 그 자잘자잘 쪽에 속했다. 근데.. 그 자잘자잘을 하필이면 이제 메인악녀가 어느정도 체념해 악녀짓을 확 줄인 시점에서 해가지고... 눈에 확 띄어서 황제와 공작한테 찍힌 케이스. 그 덕에 근신도 했었다. 근신이 끝난 뒤, 속알맹이가 바뀌어서 여주고 황제고 그냥 펙티르 공작 덕질만 하고 있지ㅁ..

" .. 그럼, 지금 그 대답은 짐이 모르게 그를 괴롭히고 있었단 건가? "

루블라일이 머릿속으로 상황정리를 하던 도중, 으르렁거리는 듯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루블라일은 분노했다!

" 아니요!?! "

무슨 그런 미친 소리를! 한달 내내 공작님 보기도 바쁘건만 여주 괴롭힐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감히 황제한테 빽 소리를 지른 루블라일은 순간적으로 제 소리에 저가 놀라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헉.. 황제한테 소리를 질렀다.. 조때따...

" ... "

그리고 황제도 놀라따..

정말 웬만해선 페이스 안깨지는 테이거스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미친 상황에 당장 눈앞에 있는 루블라일의 피부에 찻물을 양보해줘야할지 아니면 제 허리춤에 차고 있는 칼에게 어여쁜 제국의 꽃의 모가지를 4분의 4박자에 맞춰 썰어주는 영광을 줄 것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물론 이런 테이거스의 생각이 표정에 다 드러난 것인지, 루블라일은 전생의 덕후력을 살려 생각나는 프란틸 제국의 예법이란 예법과, 변명거리를 전부 쥐어짜내어 황급히 말하기 시작했다.

" 죄송합니다, 폐하. 오랜만에 소녀가 태양 같이 찬란히 빛나는 폐하의 존안을 뵙게 되어 그만 긴장이 극심해져 실수로 혀를 씹어 그만 큰 목소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늘과도 같은 넓은 마음으로 이 미천한 소녀의 실수를 용서해주심 안될까요.. ? "

근데.. 예법이 이게 맞는가 몰라.

슬쩍, 눈치를 보는데 황제의 안색이 영 썩어있다. 그래도 왠지 아까 전엔 '요 미친년을 어떻게 족쳐야 잘족쳤다고 소문이 날까?'의 표정이었다면 지금은 '그래.. 이런 애 족쳐봤자 나만 더 피곤하지...'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루블라일은 제 생명이 연장되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안도감에 잠시 옅은 숨을 내뱉는 것도 잠시, 냉큼 황제가 치고 들어온다.

" 오늘따라 굉장히 미ㅊ.. 아니, 정신이 없어보이는군. 무슨 일이라도 있나? "

분명 저놈 미친소리까지 나왔다. 미쳐보인다고 말할려했어. 황제의 대사만 보면 마치 친애하는 신하의 정신상태를 염려해주는 자애로운 주군의 대사였으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미친년 대하는 듯한 태도에 대사의 버프가 놀라울정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런 자애로운 듯 자애롭지 않은 폐하의 말씀에 루블라일은 이걸 무어라 답하나, 싶어 잠시 입을 다물었다.

" ... "

" ... 소녀가 사실, 최근에 몸을 다치는 일이 자주 있어 그 아픔에 정신을 제대로 챙기지못한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폐하. "

솔직히 본인이 공작 덕질하느라 공작저 계단에서 굴렀네, 2층에서 떨어졌네, 덕질하던거 걸려서 도망치다 공작 소유의 마차에 머리를 박았네, 하는 소문.. 이 아니라 사실이지만, 그런 거대한 소문들을 황제가 못들을리 없었으므로 그는 이해한다는 듯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 그럼 하네르한테 딱히 뒷수작은 부리지 않는단 말이군. "

아이고 그럼요 폐하! 뒷수작 앞수작 개수작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답니다! 어느정도 확정 지은 듯한 황제의 말에 루블라일은 만면에 안도의 미소를 띄우며 마음같아선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하고 싶었지만, 앞에서 헛소리를 나불댄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양심 상 우아하게 한번 고개를 숙이며 읊조렸다.

" 그분께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요. 그것에 대해 너무 송구스러워 감히 그분의 드레스 끝자락도 바라보지 못했답니다. "

" ... 흠? "

제 말에 흥미롭다는 듯, 나직히 소리를 내는 황제를 보며 루블라일은 앗싸! 또 한번 생명 연장의 소리가 들린다! 라고 마음 속에서 파티를 열며 신명나게 춤을 췄다. 고마워, 덕후인 나 자신! 얼마나 읽어댔음 이렇게 위험에서 쏙쏙 빠져나가는 예쁜 말만 골라서 하니!라며 자축하던 것도 잠시!

" 그렇고 송구스러우면, 직접 그의 얼굴을 보고 사과해야하지 않겠나. "

" .. 네? 네. 그렇죠. "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하네르를 괴롭힌 건 아니지만, 일단 '루블라일'로 지내기로 한 이상 하네르에게 사과는 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제법 많이 했었다 어떻게 하면 그녀가 무서워하지 않게 다가가 사과할 수 있을까, 라고 나름 구체적인 대책도 했었고. 그런데 왜.. 갑자기... 저 말을.. 황제님께서.. 꺼내.. 시는지? 왠지 모를 불안함에, 찻잔에 담긴 얼그레이와 황제의 턱 끝만 바라보던 루블라일은, 이어진 황제의 말에 기함을 토해낼 수 밖에 없었다.

" 그럼 이번 짐의 탄신일 기념 연회에 그녀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하게. 만약 아프다던가 아프다던가 아프다던가 하는 핑계로 연회를 빠졌다간... "

알지?

황제는 뒷말을 잇지 않고 수려한 얼굴로 미소를 지어보였다.

" 아, 오랜만에 제국의 꽃의 어여쁜 춤도 보고싶구만 그래. "

" 이런 엑스칼리버! 빌어먹을 퍼피퍼피! "

으아악! 아아악!어아아아!

쨍그랑!와장창!혼돈! 파괴!망각!

" 아가씨! 진정하세요! 무슨일을 당하신 거에요!? "

" 영웅은 춤 따윈 추지 않는다네! "

" 아니 대체... ! "

평생 소리 한번 크게 안 내본 아가씨가,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내뱉으며 뭐 어디 지나가던 파괴신한테 몸이라도 빌려줬는지 주위의 물건이란 물건은 다 파괴하자 놀란 그녀의 시녀, 에스나는 필사적으로 저가 모시는 아가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다른 고용인들은 혹시 루블라일의 기행을 소문낼까 거의 다 내보내고, 제법 충심이 깊은 소수의 몇몇 고용인들이 에스나와 함께 그녀를 말리고 있었다.

그렇게 다 부시는 와중에도 공작 관련 물품 만큼은 기스 하나 안내는 무지막지한 절제력에 감탄한 것도 잠시, 또다시 시작된 루블라일의 발작에 에스나는 그녀의 드레스를 부여잡고 루블라일을 말리기 시작했다.

"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

춤도.. 추지... 못한다네...

황제의 파티 초대 협ㅂ.. ㅏ..ㄱ, 아니 권유를 빙자한 명령을 받은 일도 벌써 5일 전. 즉, 파티까지 남은 기한은 9일. 그 동안 미친듯이 움직이면서 저택 내의 고용인들의 눈을 몰래 몰래 피하며 도서관이라던가, 근처의 귀족 공용 도서관이라던가 아님 서점이라던가에 계속 쏘다니며 프란틸 제국의 춤에 대한 서적이란 서적은 다 뒤져보고, 나름 혼자 연습도 해보았으나..

정말 놀라울 만큼!

" 개판이네... "

이게.. 춤인지... 파리의 날갯짓인지.. 앗.. 눈물이 흐르네... ?

루블라일은 허탈한 웃음을 터트리며, 제 방 침대에 처참한 모습으로 널부러졌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건 아니었다. 일단 몸뚱아리가 춤의 선도주자였던 이의 몸이라 그런지, 유연성은 뛰어났으니. 하지만 문제는 바로,

" 이렇게까지 박자가 안 맞을 수 있는 것도 재능이 틀림없어. "

그렇다. 박자였다. 뭐 대충 동작 같은 건 열심히 외워서 어느정도 평타는 되는 것 같았는데, 선천적인 엇박자의 본능이 자꾸 춤의 박자를 제멋대로 웅냥냥냐해버렸던 것이다. 아... 이거 연습할 시간에 적어도 공작님을 161361번 정도 보러갈 수 있었는데... 그래.. 역시 반역을 일으키자.. 황제의 목을 치자...

누가 들으면 순식간에 목이 날아갈 만한 소리를 내뱉으며, 루블라일은 제 곱디 고운 얼굴을 사정없이 구겼다. 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구하면 좋으련만. 하지만 제국의 꽃이 춤을 못춘다는게 알려지면... 으어아어어아... 그렇다고 파티 때 춤을 안추면 그건 그거대로 맛깔나게 까일 것 같고. 전에 여주 하네르가 춤 못춘다고 뒷담도 까버렸단 말이다.. 물론 전의 루블라일이. 그런데 그런 루블라일이 춤을 못춘다면. 루블라일 왜그랬어! 왜그랬냐고! 그렇게 함부로 뒷담까다가 인생 조져지는거 몰라?! 그것도 여주 뒷담을 까고 말이야! 왜그랬어!

" 진짜 어쩜 좋지. "

루블라일은 한숨 섞인 말을 내뱉으며 포근포근한 이불에 제 얼굴을 묻었다. 내가 과연 9일 안으로 춤을 다 완벽히 익힐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잠시. 너의 걱정은 보들보들하고 포근포근한 내가 겟또 해버리겠다는 이불의 유혹에 피곤했던 의식을 날려버린 채, 루블라일은 느릿하게 눈을 감았다.

아, 공작님 보고 싶다.

" 폐하! "

경악 어린 외침이 응접실 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 큰 소리에도 불구하고 테이거스는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거만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 모습에 복창이 터지는지, 펙티르 공작은 제 잘생긴 미간을 찌푸리며 한번 더 소리 높여 그를 불렀다.

" 폐하!그건 말도 안됩니다!제가 어떻게 그 여자랑.. "

" 황명이다. "

" ... "

불만이고 나발이고 황명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씹어먹어버린 테이거스는 제 새파란 눈을 펙티르 공작에게로 향하게 했다. 황명이란 말에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기세가 퍽 사나웠기에 테이거스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제 입술을 달싹였다.

" 하네르를 위해서다. "

" 그녀를, 위해서요? "

" 그럼, 당연하지. 그 여자가 하네르한테 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그냥 거길 활보하게 두나? 자네가 옆에 딱 붙어서 감시해야지. "

당사자인 루블라일이 들었으면 아니 쉬바 무슨소리세요 저 춤추기도 바쁜데 걔 괴롭힐 시간이 어딨어요 환장하겠네; 라고 말하며 억울해할 상황이었으나 그런 루블라일의 심정따위 이 곳에 있는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다. 루블라일이 여기 없는게 천만다행이었다.

테이거스가 제 손을 까딱거리자, 그의 손짓에 공작은 숙였던 고개를 들어올리며 제 앞의 주군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잔인한 주군이었다.

자신의 연인을 짝사랑하는 신하를 제거하지 않고, 그 연심을 끝까지 이용해먹으려는 주군이라니. 거기에 이용당하는 자신도 참 웃긴 꼴이었지만. 어쩌겠는가, 그녀를 위해서라는데. 밤하늘 같은 눈동자가 흐려졌다. 펙티르 공작이 지그시 두 눈을 감으며, 평소처럼 무심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답한다.

" .. 알겠습니다. 루블라일 리브 에스티론에게 파트너 신청을 하고 오겠습니다. "

" 그래, 자네만 믿겠어. "

황제는 만족스럽게 웃어보였다.

한편, 에스티론 백작저에서는 한 통의 편지로 인하여 저택의 모두가 개박살이났다.

" 페펙프페펙티르 공작 각하께서.. 이이이번 탄신일 연회에서 아가씨를 파파파트너로 삼고 싶으시다고.. 여여연락을... "

" ? "

" ? "

루블라일도, 에스나도, 주위에 있던 고용인들까지. 신분을 뛰어넘은 뛰어난 감정 공유를 보여주며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그게 뭔 헛소리냐는 표정을 얼굴 위로 드러냈다. 특히 루블라일의 표정이 제일 강력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게 대체 무슨 미친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이건 꿈이 아닐까? 꿈이.. ㅇ.. ㅏ.. 닐.. ㄲㅏ... ?

열심히 현실부정을 하고 있던 제 아가씨에게, 편지를 읽던 시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다.

" 그그그러니,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내일 오후 6시 경에 펙티르 공작가에 찾아와주실 수 있겠냐고고곡고.. 마마마차를 미리 보보보내주신답니다... "

히엑!

루블라일은 결국 참지 못하고 숨넘어가는 소리를 내고야 말았다.

좃됐다.

다시 생각해봐도 좃됐다.

다급하면서도 섬세하게 제 얼굴을 어루만지는 손길들을 가만히 느끼며 루블라일은 생각했다. 입술 위로 촉촉한 무언가가 스쳐지나갔다.

" 와! 아가씨, 무슨 색을 발라도 다 어울리세요! "

알아, 젠장!

거울 속 끝장나게 예뻐보이는 미인의 얼굴을 보며 루블라일은 얼굴을 험악하게 구겼다. 옆에서 시녀들이 화장 다 망가진다며 식겁하는 소리가 귓가에서 웅웅댄다. 그렇다, 이 준비의 시작은 바로 어제. 펙티르 공작의 파트너 신청 때문이었다. 그 신청 때문에 시녀들은 제국의 꽃이 아니라 제국의 별로 만들어드리겠다며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가벼운듯 하지만 끝내주는 화장과 간단한 듯 하지만 끝내주는 악세서리와 드레스로 루블라일을 중무장시키고 있었다. 아, 참고로 말하자면 제국의 별이란 말에 루블라일은 자신을 하늘로 보내버릴 것 같은 호칭은 그만두라고 외쳤었다.

" 아가씨, 표정이 왜이렇게 안좋으세요? 어디 안좋으신 곳이라도... , "

시녀들은 아니, 그렇게 스토킹하던 공작님하고 파트너가 되었는데 아가씨 표정이 대체 왜 그렇게 구리세요? 란 물음이 담긴 눈빛으로 루블라일을 바라보았다. 루블라일은 억지 미소를 지어보이며, 딱히 몸이 안좋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공작님을 뵌다니 너무 긴장되서 표정이 안좋아지나봐! 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숲의 녹빛을 머금은 눈동자에 물기가 얼핏 보이자, 시녀들은 세상에 너무 긴장되셔서 눈물까지 나오나봐... 라고 중얼거리며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제 양 발을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아래로 향했다. 귓볼 아래에서 루블라일의 눈색과 똑 닮은 페리도트 귀걸이가 그 움직임에 따라 느릿하게 흔들린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옅게 멍든 발. 어제 공작의 파트너 신청 연락을 듣자마자 방에 틀어박혀서 죽어라 춤연습을 한 결과물이다. 춤실력은 여전히 절망이었지만.

" 역시 좃됐어... "

" 네? "

" 호호호. 혼잣말이란다, 혼잣말... "

프란틸 제국의 파티에서는 춤을 추는 시간이 총 4번이나 있는데 그런 파티에서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최소한 첫 춤과 마지막 춤. 즉, 4번의 춤을 추는 시간 중 최소 2번 이상의 춤을 같이 추는 상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파트너가 하는 일은 많았지만 루블라일에겐 그딴거 1도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춤 때문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정말 사랑하는 공작님과 파트너가 된다는 건 대대손손 축하해야할 일이 맞지만 문제는 뭐다?

내가 춤을 못 춘다!

그런데 원래 몸주인이 환장하게 춤신춤왕이었댄다!

빌어먹을!

억누를 수 없는 비통함에 루블라일은 혼자 있고 싶으니 다 나가달라며 시녀들을 물렸다. 탁,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 쓰으으으으으읍하아어아.. "

지옥에서부터 끌어올린 절망의 한숨소리가 방안에 퍼져나갔다. 아니 애초에, 공작과 본인이 파트너라니. 원작 작가가 뒷목을 잡고 탭댄스를 출 일이다. 원래 황제의 탄신일 기념 연회에서 공작은, 루블라일이 아니라 메인 악녀와 파트너를 맺었었는데. 황제가 악녀의 감시 목적으로 공작에게 명령을 내렸.. ? 감시 목.. 감.. 시... 목.. 적... ?

" 뭐라고! "

루블라일은 의식의 흐름대로 책내용을 생각하다가, 불현듯 스치는 생각에 몸을 벌떡 일으켰다. 감시 목적? 감시 목적? 서서섣설석서서설마 나를? 감시 목적으로? 왜왜왣왜! 내가 이몸에 들어온 이후로 여주를 괴롭힌 적도 없고! 얼마나 청렴...

" 잠시만... , "

차마 청렴하다고 말하기엔 저지른 짓이 좀 많았다.

" ... "

...정말 많았다.

루블라일의 머릿속엔 21세기였다면 벌써 경찰서에 제 2의 집을 차릴정도의 본인이 했던 수많은 스토킹.. 아 아니 덕질을 위한 행동들이 순식간에 스쳐지나갔다. 조금 후회가 됐다. 보통의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조금정도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짓들을 하지 않았겠지만 최애의 앞에 이미 그녀의 도덕은 3분의 2정도 소멸한지 오래였다.. 그렇다. 글러먹은 인간이란 소리다.

" ... , "

본인 스스로 글러먹은 인간이라고 정의를 내리자, 조금 마음이 아파왔으나 어쩌겠나. 이미 실컷 덕질한 것을!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펙티르 공작 콜렉션을 향해 시선을 옮기며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보기로 했다.

1.개쩌는 공작님이 어째서 보잘 것 없는 나를 파트너로 삼았을까? 물론 감시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메인 악녀가 성녀로 탈바꿈한다는 것과 동일한 확률이다.

" ... 자꾸 거머리처럼 쫓아다녀서 파트너를 맺은 다음 몰래 뒤에서 쓱싹할려고... ? "

가능성 있다.

... 가능성이 있어서 슬퍼졌다. 물론 쓱싹하는 공작님도 환장하게 멋있을 거란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제국의 모두가 알테지만, 쓱싹대상이 나라는 건 역시 슬펐다...

그렇게 오만 상상을 하고 있던 것도 잠시, 똑똑. 하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루블라일은 생각하던 것을 멈추고 문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 에스나입니다. 공작가의 마차가 도착해서 이제 슬슬 나가보셔야할 것 같아요. "

덜덕덜그럭.

안그래도 불길한 상상을 하던 와중에 마차가 도착했댄다. 루블라일은 울상을 지으며 괴로운 목소리로 답했다.

" 알았어. 나갈게. "

" 미쳤어도 제국의 꽃은 역시 제국의 꽃인가보다... "

" 어.. 그러게... , "

펙티르 공작가 휘하의 기사인 애그스와 트레르는 에스티론 백작저에서 걸어나오는 루블라일을 바라보며 멍하니 중얼거렸다. 새하얀 머리카락에 물결처럼 얹어진 페리도트의 녹빛과, 가녀린 몸매를 감싸안듯 하늘거리며 떨어져내리는 연보랏빛의 드레스가 언뜻 애처로워 보이는 루블라일의 표정과 미치도록 어울렸다. 요 한달 간 펙티르 공작저에 몰래 찾아와 공작을 바라보며 하악하악거리던 그 영애가 맞는지 순간 의심이 갔다. 트레르는 자기 표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 와.. 미친놈... 너 입꼬리 올라가는거 못생겼으니까 얼굴 자제 좀 해라. 제국의 꽃 얼굴봤다가 니 얼굴 보니까 너 너무 심하게 생겼다. "

애그스의 덕담에 트레르가 웃으며 답했다.

" 이새끼가? "

애그스와 트레르가 최대한 무표정을 유지하며 멸망의 입으로 단원 간의 전우애를 다지던 것도 잠시, 어느새 루블라일이 앞까지 당도해 조용히 왼손을 내밀자 빛의 속도로 제 옆의 애그스를 몸빵으로 멀리 날려버린 트레르가 루블라일의 손을 잡고 마차 안으로 에스코트했다.

야!

애그스는 트레르의 거친 몸빵 덕에 추하게 구르며 소리없이 울부짖었다. 트레르는 그 처절한 울부짖음을 새침하게 외면하고 마차 문을 닫았다.

옆에서 누가 욕을 먹든 구르든 못생겼든 간에 그런거 따윈 하나도 신경쓰지 않는 쿨한 마부는 고개를 앞으로 향했다. 뒤이어 쫙, 하는 마부의 찰진 채찍 스냅과 동시에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 공작저에 도착했습니다. "

한참을 마차 밖 풍경을 바라보며 제 목숨이 안녕하여 공작님의 빛나는 얼굴을 조금이라도, 아니 기왕이면 평생 더 볼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던 루블라일은,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기사의 에스코트를 받고 마차에서 내렸지만, 심장이 민족의 한을 담은 박자로 두방망이질치고 있었다.

하도 덕질하느라 학생 시절 학교 등교하듯이 들락날락 거린 어마무시한 크기의 대저택. 분명 익숙할만도 하건만, 정식으로 초대되어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 그런건지 아님 하필 파트너 얘기로 오게되어 그런건지 아님 두가지 이유가 모두 해당되어 그런건지 여전히 심장은 열심히 팔딱거리며 제 존재감을 끝내주게 드러내고 있었다. 꼿꼿한 자세로 또각또각 들어가기 시작하자, 공작저 내의 고용인들이 모두 놀란 눈을 하고 루블라일을 바라보았다.

아니, 댁이 왜 정문으로 들어오세요?

공통의 의문이 담긴 눈빛들에 루블라일은 어마무시한 심적 데미지를 입었다. 그,.. 그 저 물론 제가 담도 넘고 뒷문으로 뺑 돌아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무 타고 올라와서 들어오기도 했지만요.. 앗 쓰레기잖아... ,

뜬끔없는 자기반성을 시전하며 루블라일은 강제 현자타임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 현자타임도 길게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 허어어! "

그렇다. 루블라일의 이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 알겠지만 펙티르 공작이 등장해버렸다.. 그녀를 옆에서 안내하던 애그스는 순식간에 환상에서 깨어나버렸다. 맞다.. 이 영애 제국의 꽃 이전에 미친 사람이었지... 옆에서 들리는 헉헉 소리에 애써 시선을 고풍스럽게 자란 나무에 두는 모습이 애처로울 지경이었다. 뒤에서 따라오던 트레르는 마치 사실 산타할아버지는 없어 라는 얘기를 들은 5살 아이마냥 충격 받은 얼굴을 하고있었다. 그런 제 기사들의 모습을 본 펙티르 공작은, 작게 한숨을 내뱉으며 루블라일을 향해 제 손을 내밀었다.

"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티론 영애. "

미쳐 오빠 존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덜그럭거리는 움직임으로 공작의 손을 맞잡은 루블라일은 속으로 열렬하게 외쳤다. 루블라일은 장갑을 끼지 않아서 다행이다, 덕분에 쩌는 공작님의 쩌는 가죽장갑의 감촉을 느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남몰래 히죽거렸고 펙티르 공작은 오늘 장갑을 껴서 정말 다행이군.. 하마터면 이 여자와 맨손으로 악수할 뻔 했잖아... 라고 생각하며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엇갈리는 생각 속에, 저택 내부로 들어서자 분주히 움직이던 시녀와 시종들이 하던 것을 멈추고 정갈한 자세로 허리를 굽혔다. 하지만 루블라일은 봐버렸다. 허리를 굽히기 전,

아니, 왜 댁이 당당히 저택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하는 표정들을.

... 젠장! 여태까지 하던 짓이 있으니 무어라 말도 못하겠다. 루블라일은 필사적으로 무표정을 유지했다.

" 영애, 이쪽으로. "

유지하려고 했다. 공작님의 스윗러블리보이스가 귓가에 정통으로 때려박히기 전까지는. 누가봐도 흐헿헤헤 웃으며 풀어진 얼굴을 제법 바보같았다. 정말 다행히게도, 루블라일의 미모가 커버를 쳐주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바보같이 보이지는 않았다. 주위의 고용인들은 '그럼 그렇지... '하는 눈빛으로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 루블라일을 힐끔거렸다. 펙티르 공작은 골때린다는 얼굴이었다.

홍홍홍.

주위에서 어떻게 보던 간에 정통으로 맞은 펙티르 공작님의 스윗러블리 보이스에 헤롱헤롱 상태가 되어버린 루블라일은 원래 장착하고 있던 두꺼운 낯짝에 시야까지 흐려져 남의 시선따윈 신경쓰지 않는 강력한 덕후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펙티르 공작의 안내에 따라 공작저 내의 고용인들의 뜨거운 눈빛을 받으며 넓은 저택의 복도를 거닐던 것도 잠시, 고풍스러운 문 앞에서 잠시 멈춘 공작은 느릿하게 문고리를 잡고 이내 문을 열었다. 은은한 카모마일향이 코끝을 간질인다. 방금 갓 내린 차의 향인 듯 하다. 루블라일은 그 향에 다행히 헤롱헤롱 상태에서 조금 벗어났다.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에 루블라일은 조심조심 소파에 몸을 기댔다. 드레스가 사락거리는 소리가 제법 거슬렸다. 미치겠네! 루블라일은 내적비명을 3단고음으로 내질렀다.

#공작님과\_단둘이\_응접실\_내심장\_살아있니? 같은 상황에 오만 오감이 민감해지며 난리를 치고 있었다. 그런 루블라일의 복잡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펙티르 공작은 예의 그 무심한 얼굴로 얇은 책자를 루블라일에게 건네었다.. 루블라일은 쓰빠씨빠 가가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외치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책자를 건네받았다. 루블라일이 책자를 받는 걸 빤히 바라보고 있던 공작은, 이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제 입술을 달싹인다.

" 영애. 이번 폐하의 탄신일 연회에서 파트너인 저희가 같이 입을 옷의 테마를 마담 오스자르알에게 부탁하여 몇가지 추려왔습니다만, 그 중 마음에 드시는 것을.. "

" 저, 저기. "

" 예. 말씀하십시오. "

개미 다리털마냥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루블라일이 공작의 앞에서 인간의 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공작은 그 목소리를 귀신같이 듣고 냉큼 답했다. 마담 오스자르알이 추려준 테마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인가? 하긴, 미친 여자이긴 하지만 제국의 꽃이니 옷에 대한 기준이 더 까다로울 수도 있겠군.

루블라일이 하악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숨을 고르며 할 말을 천천히 고르는 동안, 공작은 그녀가 제 말을 끊고 저를 부른 이유를 단숨에 추측하며 결론을 내렸다. 마담 오스자르알에게 다른 테마들을 추천받아볼까, 라고 생각하던 것도 잠시.

" 저.. 죄송한데 파트너 신청 거절하러 왔어요. "

... ?

엗... .?

루블라일의 작은 목소리에, 공작은 굉장히 띠용한 얼굴로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 거절하러 왔습니다, 파트너 신청. "

이번엔 제법, 큰 목소리로 재차 말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루블라일도 비통함에 숨넘어가기 직전이었다. 물론 본인도 공작님 손 잡고 딴따란딴 춤 추고 싶었지만 지겹도록 말했듯이 문제는 뭐였냐면 루블라일이 춤 실력이 절망이란 것이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황제새끼님의 탄신일 연회까지 D-8. 지금부터 양 발을 희생시키며 연습하면 평타는 칠 지는 모르겠으나.. 제국의 꽃이 평타라뇨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오만 귀족 가의 영애들이 비웃는 모습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녔다.

혼자 망신을 당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파트너인 공작님까지 싸잡혀 망신을 당하는 일 같은 건 죽어도 일어나선 안되었다. 최애를 같이 망신 주는 덕후가 된다니 그럴 바엔 차라리 황제 머리채를 잡는게 나았다.

"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공작은 순식간에 당황한 기색을 정돈하고 제법 싸늘한 얼굴로 물었다. 루블라일은 그 와중에도 와.. 싸늘한 얼굴도 환장스럽게 잘생겼다... 라고 생각하며 미리 구상해두었던 진실 섞인 구라를 내뱉기로 했다.

" 제가 이번 폐하의 탄신일 연회에 가는 이유는.. ㅎ..아 아니, 리아님께 사죄를 드리기 위해 가는 것이에요. "

버릇처럼 하네르라고 여주의 이름을 말하려다, 여주와 루블라일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단 것을 깨닫고는 급하게 말을 바꿨다.

" 그런데 파트너와 춤을 추며 연회를 즐긴다니, 그건 일단 사과하러 가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냥 간단하게 하네르에게 사과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다. 솔직히 하네르 앞에서 춤을 추든 뭘하든 소설 속 내용대로라면 천사 같은 하네르는 전부 이해하고 여주인공 특유의 긍정파워로 1도 신경 안쓸테지만, 내가 춤을 못 추니 그냥 사과만 하고 호다다닥 튀는게 신상에 이로웠다. 줴국의~~꼬취~~~추눈 춤더~~~보구싶구뫈~~~이라는 황제의 목소리가 귓가를 아른거렸으나, 그 춤이 필수 항목은 아니었으니 아 조까쇼 하고 파티 출석'사과'탈주 단계로 빠르게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원래는 춤 안추고 그냥 돌아가면 어마무시한 쪽을 당할 거 같아서, 어떻게든 추고 갈려했으나 공작과 파트너를 맺고 춤을 추는 쪽이 두배의 쪽을 공작님에게 안겨드린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파트너 없이 혼자 가 사과만 하는게 최선이라고 결론내렸다.

" ... "

루블라일의 의견을 들은 공작의 표정은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 대체 무슨 속셈이지? '

한편 펙티르 공작은,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애초에 루블라일이 파트너 신청을 '거절한다'라는 선택지 따윈 생각조차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앞에서 음흉한 시선으로 저를 훑어내리고 있는 루블라일은 신경 쓰이지도 않았다.

물론 파트너없이 연회에 가는 귀족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법 혼자 가는 걸 즐기는 귀족들도 있었다. 하지만 보통 영애나, 영식도 아니고 무려 제국의 꽃이 파트너 없이 황제의 탄신일 연회에 간다니. 입방아 찧기에 아주 좋은 일이었다.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사과 하러 가는 사람 태도 운운하는게 정말로 수상했다.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단 걸 알긴 알았지만 제국의 꽃이라는 위명과, 황제 폐하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밀당 짓에 자신의 존재가 필수불가결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놓친게 대체 무언인가?

루블라일이 뒷목 잡고 뒤로 자빠질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줄줄이 하고는, 공작은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의도는 짐작조차 가지 않았지만, 자신은 반드시 그녀와 파트너가 되어야만 했다.

사과를 한다 해놓고, 하네르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에.

아니, 애초에 사과를 제대로 할 거라고 전혀 기대 하지 않았다. 폐하의 앞에서 사과하겠다 말했으니, 사과를 하긴 할 것이나 대충 시늉만 할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분명 사람의 속마음을 잘 파악하는 하네르는 상처를 받겠지. 공작은 복잡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제 앞머리를 거칠게 쓸어올렸다. 루블라일은 그 모습을 보고 헛숨을 들이키며 차를 마시려고 들어올렸던 찻잔을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다시 내려놓았다.

허으아어억..

루블라일의 입술을 비집고 튀어나온 거친 숨소리가 조용한 응접실을 울린다. 그 숨소리에, 펙티르 공작은 퍼뜩 정신을 차린 듯 단단히 결심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 영애. "

진중하고 나직한 목소리가 묵직하게 내려앉는다.

" 허어억, 네,네,넫넨네... "

" 영애께서는 저와 파트너가 되기 싫으신겁니까? "

" 아뇨?!?! 전아까말했듯이파트너와함께춤을춘다는등의연회를즐기는행동을하면사과하러가는사람의태도가아니라고생각해서그러는겁니다공작님과파트너가되기싫다뇨어떻게하늘이거꾸로뒤집혔다는말과동일한말씀을!물론그것도귀엽지만! "

공작이 싫냐는 말에 급속도로 흥분한 루블라일은 공작 앞에서 역대급으로 놀라울 정도의 언어 구사력과 자신의 본심을 보여줬으나, 그걸 말한 장본인도 들은 사람도 각자의 상념에 빠져 하나도 자각 못했다.. 그렇다. 딴 생각하느라 못들었단 얘기다. 여튼 공작은, 다시 한번 제 앞의 그녀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 영애가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시면, 그 후의 행동은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을 겁니다. "

완벽한 개소리다. 공작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으나 왠지 당황한 것 같은 그녀의 모습에 개소리를 밀고 나가기로 했다. 애초에 그녀의 파트너 신청 거절 이유가 너무 옳은 소리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가 없었다.

" 그, 그, 그치만, 사사사과를... "

" 영애께, 제 존재가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습니까? "

" 히에에엑! "

당연히 '황제 폐하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밀당 짓'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뜻으로 말했지만, 말의 앞부분을 신명나게 잘라먹은 채 내뱉은 말이 루블라일에게 얼마나 지대하고 환장스러운 영향을 끼쳤는지 펙티르 공작은 꿈에도 몰랐다. 루블라일의 전신이 잘게 떨리고 있었다.

" ... "

하얀 얼굴이 아프진 않은가 싶을정도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푹 숙인 고개에 따라 흘러내리는 백색의 머리카락이 더욱 도드라져보였다. 예쁜 드레스 자락이 다 구겨질정도의 힘으로 꽉 쥐고 있었던 두 손을, 이내 바람빠진 풍선마냥 탁 놔버리고.

" ...~ "

뻐끔뻐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던 루블라일은 이윽고 아주 작게 들릴듯 말듯한 목소리로 간신히 속삭였다.

" ... 파트너 신청, 받아들이겠습니다. "

최애캐한테 이런 말을 듣고도 그냥 돌아서는 덕후가 전세계에 존재할 리가 없었다. 여전히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한 루블라일은, 울상을 짓고 있었다.

이 외전은 본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크리스마스하면 산타고 산타 하면 무단 침입이지! "

고로 난 공작저로 가겠다! 그럼 이만!

주위 사람이 붙잡을 틈도 없이 산타옷에 수염까지 붙인 루블라일은 히히힉 웃으며 냅다 마차에 타 마부를 재촉했다. 마부는 반쯤 해탈한 얼굴로 마차를 출발시켰다.

그렇게 한참을 마차를 타고 가던 중 저 멀리 펙티르 공작저가 보이자 마차에서 냅다 뛰어내린 루블라일은 스턴트맨도 울고 갈 환상의 파쿠르 실력을 보여주며 우다다 공작저를 향해 뛰어나갔다. 마부는 익숙하다는 듯 천천히 마차를 몰아 제 아가씨 뒤를 쫓아갔다.

굳건한 체력으로 웅장한 저택 앞에 당도한 루블라일은, 선물 자루를 들고 익숙하게 구석의 담장을 넘어가며 바닥에 소리하나없이 착지하곤 그림자에 몸을 숨겨 스르륵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모 닌자 만화의 주인공 감이 틀림없었다. 그렇게 어느새 응접실까지 도착한 루블라일은 응접실 안에 아무도 없단 걸 확인하고는 마치 뱀처럼 스샤샥 응접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급하게 선물 자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다.

" 스으으으읍하아ㅏ... 공작님 스멜... "

음훗.

냄새를 실컷 맡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괴상한 웃음 소리를 낸 루블라일은, 막 응접실로 들어올려던 펙티르 공작과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다.

" ... "

" ... "

" 메.. 메리.. 크라스마스... ? "

" 나가. "

" 넵. "

그렇게 무단 침입을 한 지 5분 만에 루블라일은 쫓겨났다.

+

" ..이게 다 뭐야? "

루블라일을 쫓아낸 후, 선물 자루 안에 가득 담긴 선물 상자들을 보며 공작은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렸다. 무슨 변태 같은 선물일지 짐작 조차 가지 않았다. 그냥 버릴까하다가, 호기심 많은 고용인들이 버리면서 몰래 선물 상자를 열어보고 충격을 받을까 저어되어 공작은 최대한 조심히 선물 상자를 열어보기로 하였다. 그렇게 비장한 얼굴로 리본을 풀어내리고, 상자를 열자..

" ! "

하네르의 천사표 미소가 가득 담긴 사진들이 우르르 쏟아져나왔다. 사진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테이블 밖으로 사진들이 떨어질려는 찰나...

" 안돼! "

공작은 놀란 듯 두 눈을 크게 뜨며 세상 누구보다도 다급하게 외치며 몸을 날려 사진들을 모두 잡아챘다.

" ... 단순히 미친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

똑똑한 구석도 있었군. 역시 제국의 꽃인가...

루블라일에 대한 공작의 인식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한 기적적인 순간이었다.

" 으아아! "

환장할 황제의 탄신일 연회까지 D-7! 루블라일은 눈을 뜨자마자 우렁찬 목소리로 아침을 시작했다. 그 우렁찬 소리는 저택 전부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한 하녀는 그 소리에 굉장히 깜짝 놀라 에그머니나! 하며 접시를 깨먹었다고 한다. 시녀와 시종들은 심각하게 지금 베트론 영지에 계신 에스티론 백작 부부께 연락을 넣어 아가씨의 정신 상태를 확인해 줄 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야하나 토론했다. 아 총집사님이라면 해결해주셨을텐데. 하필이면 주인님들과 함께 영지로 떠나셔서... 아 맞다 그랬지... 모든 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안타깝다는듯 탄식했다.

한편 고용인들이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는 루블라일은, 이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사람이 되어있었다. 어제 그렇게 펙티르 공작의 폭탄 발언으로 저도 모르게 파트너 신청을 수락한 뒤, 옷의 테마까지 골라버리고 멍한 정신상태로 백작저로 들어갔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공작님 얼굴에 홀려 수락하면 안될 것을 수락해버렸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잘생겼는데 누가 수락을 안해 안하는 녀석이 있다면 제거해버리겠다...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을 보내다가, 갑자기 살심을 느끼게 된 루블라일은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래. 그렇게 잘생겼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수락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리고...

' 영애께, 제 존재가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까? '

" 워메, 쓰바... "

으흐윽 다시 생각했더니 심장 빠개질 것 같았다. 아니, 이미 벌써 빠개졌을지도 몰랐다. 루블라일은 자신의 가슴께를 부여잡으며 생각했다.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연회에서 잘생겼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공작님 망신을 주지 않기 위해선 내가 뭘 해야한다?

춤이고 뭐고 다 씹어먹어서 사교계를 조져놔야한다!

며칠동안 어떡해 내 춤실력 너무 절망이야.. 그냥 여주한테 사과만 하고 얼른얼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후 나도 참.. 이라고 말하던 네거티브하고 연약한 루블라일은 이제 없었다. 전투력 861619768616170의 진성 덕후만이 그곳에 있을 뿐이었다. 녹빛의 눈이, 마치 횟집의 사시미칼마냥 싸늘하게 번뜩였다. 루블라일은 침대에서 벗어나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전쟁에 나가는 장군마냥 비장하게 연회용 댄스설명책 5권을 집어들었다.

" 휴..., "

시녀 에스나는 제 아가씨의 침실 방문을 걱정스럽다는 눈빛으로 흘끔흘끔 바라보았다. 그걸 옆에서 알아챈 에스나의 동료, 필피는 왜그러냐며 어디 아프냐며 상냥하게 에스나에게 말을 걸었다.

" 으응.. 아니. 어디 아픈 건 아닌데 우리 아가씨, 요즘 계속 방에 틀어박히셔서 안나오시잖아. "

" 아... 맞아. 식사도 아주 간단히 준비해서 방으로 올려보내라고만 하시고. "

필피는 그 마음을 알겠다는 뜻으로 탄식했다. 며칠 전, 갑자기 아가씨는 밖에 나가오겠다며 모두가 경악할 정도로 책들을 잔뜩 대출해오더니 그뒤로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다. 고용인들이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식사를 그녀의 방으로 가져갈 때 뿐이었다. 언뜻 제 아가씨가 들고 온 책들의 제목을 본 이가 있었는데, 그것들의 대부분은 춤에 관한 책들이었고, 또 중간 중간 귀족들의 계보에 관련된 책과, 예법에 관한 책들도 있었다고 주절주절 떠들어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아가씨가 무슨 책을 가져오셨는지 알게 되었다.

아니 그런데 대체 왜 제국의 꽃씩이나 되시는 우리 아가씨께서 그런 책들을?

고용인들은 의문을 가졌다. 자고로 제국의 꽃이라 하면은 사교계의 정점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이거늘. 예법이면 예법, 춤이면 춤. 주위에 딱히 적이라 할 이도 없을정도로 처세술도 완벽한 아가씨가 대체 어째서 저런 책들을 다시 보고 있냐는 얘기였다. 그것도 어마무시한 양의.

물론, 황제의 연인이었던 하네르를 질투해 한번 일을 그르쳐 제국의 꽃의 위치가 크게 흔들릴 뻔 하긴 했지만.

" 아니 잠시만, 우리 아가씨 설마... "

그거 아니야? 초심을 잃지말자?

필피는 무언가 번뜩 떠오른 듯 말했다. 그 말에 에스나는 퍼뜩 고개를 들었다. 필피와 에스나는 무언가 크게 깨달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 맞아, 그때 리아님을 건들인 건 명백히 사교계의 정점이 할 일이 아니긴 했지. "

" 그건 그래. 뭐 하나 특출난게 없었던 사람이라면 모를까, 명백히 황제 폐하의 총애를 받고 있던 분이었는데. 평민이긴 했지만. "

작은 목소리로 제법 신랄하게 제 주인을 평가하고 있던 필피와 에스나는, 이제 아가씨가 왜저렇게 처음부터 공부하고 계신지 납득한 듯 만족스럽게 웃어보였다. 그래.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초심을 다잡고 완벽한 제국의 꽃의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거야. 역시 아가씨. 다 조질 준비가 되신 분이다!

황제의 탄신일 연회까지 이제 딱 3일 남은 상태. 루블라일은 뭐가 단단히 들린 사람마냥 끊임없이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거리며, 때때로는 거울을 보며 방긋 웃기도 하고, 무표정을 짓기도 하는 둥 여러가지 표정을 지으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도 했다.

" ... "

에스나는 아가씨의 식사를 트레이에 가지고 방에 들어왔다가, 그 모습을 보곤 침통한 얼굴로 조용히 생각했다.

' ... 필피.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봐. 그냥 우리 아가씬 미치신 것 같아.. '

에스티론 백작저는 새벽부터 난리가 났다. 시녀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루블라일의 방에 들락날락거렸다. 시녀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친다.

" 마도구 B 58번을 가져와!"

" 네! "

시녀 중 하나가 잽싸게 튀어나와 방 밖을 나선다. 루블라일은 제 머리를 매만지는 손길을 느끼며 방 밖으로 나간 시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도구 B 계열이 미용 관련 물품이었던 것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58번이 정확히 뭐하는 물건이었는지 생각이 안난다. 피어오르는 궁금증에 고개를 쭉 내밀고 방 밖을 쳐다보다가, 주위의 시녀들에게 타박을 맞았다.

" 아가씨! 아직 다 화장 안끝났어요! "

" ㅇ, 어! "

까 깜짝이야...

어마무시한 시녀들의 분노에 루블라일은 그냥 짜져있어야겠다싶어 고개를 원위치로 돌려놓은 후 얌전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지그시 두 눈을 감자 제 얼굴 위로 무언가가 계속 스쳐지나가는게 느껴졌다. 그러기를 한참, 누군가 우다다 달려오는 소리에 슬쩍 눈을 떠보자.

" B 58번 가져왔습니다! "

고데기 모양과 비슷한 모양의 마도구가 우웅 소리를 내며 가동하고 있었다. 고데기였군, 이라고 궁금증이 해결됨과 동시에 시녀들이 다시 한번 루블라일을 둘러싸자 마치 깡패들에게 삥을 뜯기는 선량한 시민1이 된 듯한 기분에 루블라일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그런 제 아가씨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시녀들은 전투적으로 마도구 B 58번을 루블라일의 머리카락 끝부분에 가져다대며, 이내 머리카락의 끝을 구불거리게 만들고 있었다.

오... ,

시녀들의 환상적은 손놀림에 생머리였던 제 머리카락에 모두가 바라는 자연스러운 컬이 생성되기 시작하자 루블라일은 내적감탄을 내뱉었다. 여기는 장인 군단이었다. 기립박수를 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한참을 부산스럽게 움직이던 시녀들은 와 우리 작품 좀 봐 존나 완벽해 하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더니, 이내 허리를 숙이며 동시에 말했다.

" 치장이 끝났습니다, 아가씨. "

" 그래. "

아까의 전투적인 기세는 어디가고, 평소처럼 순둥순둥한 시녀들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돌아가는 것을 보며 루블라일은 생각했다. 오늘 연회가 끝나고 보너스 좀 챙겨주자! 역시 참된 현대인의 훌륭한 결론이었다. 시녀들이 들었다면 괴성을 지르며 쌈바 춤을 췄을 생각을 마친 루블라일은, 제 앞의 거울을 보며 느릿하게 제 표정을 굳혔다.

21세기 현대인의 감정조절 능력을 보여주겠다, 다짐하며.

.

.

.

그리고 그 다짐은 30분만에 박살났다.

" ~~ ... ~ "

뻐끔.. 뻐끔...

" 네, 앞에 계신 분이 공작 각하가 맞으세요. "

" ~~~ . ... "

뻐 뻐끔 뻐끔 뻐끔..,

" 네. 아가씨와 옷의 테마를 맞추셨으니까요. "

루블라일의 희열에 가득 찬 뻐끔거림을 기가막히게 해석하는 에스나의 모습에 펙티르 공작의 옆을 호위하고 있던 트레르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기립박수를 쳤다. 루블라일은 혼절하기 직전의 상태로 간신히 두다리로 서서 버티며 제 앞의 공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 ~! "

뻐뻐버끔! 뻐끔뻐끔!

" 저도 아가씨의 마음 알아요. 그런데 이제 슬슬 마차를 타고 황궁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아가씨. 안그럼 연회에 늦으실 테니까요. "

뻐끔뻐끄음,...

승낙의 뜻이 담긴 뻐끔거림을 선보이던 루블라일은, 저를 짜게 식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공작과 눈이 마주치자 제 속에 있는 심장이 현란한 탭댄스를 추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아! 이게 정녕 인간인가!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이가 정녕 인간인가! 요정이고 엘프고 다 쪼사놓을 아름다움이다!

루블라일은 글썽이는 눈으로 공작을 올려다보았다. 울망울망해지는 녹빛의 눈동자에, 공작을 제외한 주위의 모두가 탄식했다. 역시 제국의 꽃, 환장할 성격의 소유자지만 그만큼 환장스럽게 아름답다! 그런 모두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루블라일은 여전히 글썽거리는 눈으로 공작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모습에, 펙티르 공작은 나직히 한숨을 내뱉으며 루블라일을 향해 제 손을 내밀었다.

" 에스티론 영애, 오늘 하루 영애를 에스코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 ..네... "

루블라일은 뭐에 홀린 사람마냥, 멍하니 제 손을 공작의 손 위에 겹쳤다. 공작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끌며, 펙티르 공작가의 문양이 새겨진 마차로 그녀를 이끌었다. 멍을 때리며 공작이 이끄는대로 졸졸 쫓아가던 루블라일은, 갑자기 퍼뜩 정신을 차린 듯 다급하게 뒤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 공작님 머리카락 좀 주워놔... ! "

그 끝내주는 속삭임에 루블라일의 뒤에 있던 시종시녀들은 허탈한 한숨을 내뱉었으며, 공작은 이 여자가 또.. 란 뜻이 담긴 표정을 지어보였다. 루블라일은 이제 됐다며 얼른 마차로 가자는 듯 호다다닥 걸음을 빨리했다.

황궁의 연회장으로 향하는 길. 시종의 안내에 따라 펙티르 공작은 루블라일을 에스코트하며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다. 황금빛으로 꾸며진 길을 따라가며, 묘하게 긴장한 듯 굳어있는 루블라일의 모습에 공작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 왜 긴장하는 거지? '

한번도 연회에서 긴장한 모습따위 보여주지 않던 여지다. 물론, 한달 전 근신 이후로 이것저것 바뀐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연회에서 이 여자가 긴장하는 모습을 볼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공작의 고개가 조금 옆으로 기울어졌다. 숨기지 못한 의아함이 그녀에게 까지 닿았는지, 루블라일은 공작을 흘긋 쳐다보더니 한차례 잘게 몸을 떨고는 이내 몸에 힘을 뺐다. 공작은 예의 상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있습니까? "

" 아뇨, 단지 좀 긴장되어... "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왜 긴장을 해? 공작은 다시 한번 의아함을 느꼈다. 그러고는 루블라일의 모습을 제 눈에 담았다. 정말 끔찍하지만, 파트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과 같은 느낌의 옷을 입은 루블라일의 모습은..

무슨 옷을 입어도 제것처럼 소화해내고, 본인은 의식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항상 나비처럼 나붓이 걷는 걸음걸이. 꼿꼿하게 정면을 바라보는 눈. 뭐, 표정은 전과 달리 이곳을 처음보는 사람마냥 묘하게 어색했지만. 공작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툭 던지듯 말했다.

" 여지껏 그랬듯, 제국의 꽃다운 모습이니 긴장하지 마십시오. "

" ... ! "

긴장으로 굳어 있던 루블라일의 얼굴이, 탁 펴지며 놀란 기색을 여실히 드러낸 채 공작을 쳐다보았다. 그러기를 잠시. 루블라일은 처음으로, 음흉하다거나 뻣뻣하게 굳은 얼굴이 아닌,

" 감사합니다! "

활짝 웃는 얼굴로 공작을 바라보며 외쳤다. 그러고 무언가 속사정이 바뀌기라도 했는지, 확실히 긴장으로 굳은 얼굴이 아니라 제대로 결심이 선 듯 단단한 얼굴로 표정을 바꾸었다. 공작은 두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그 빠른 변화를 보고있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게 했다.

어느덧 연회장의 문 앞까지 도착하고. 그들을 훌륭히 안내한 시종은 연회장의 문을 열며 제 목소리를 높였다.

" 레쉬블 프라이티아 펙티르 공작 각하와 루블라일 리브 에스티론 영애께서 입장하십니다! "

수십개의 눈동자가 그들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루블라일은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환하게 미소짓고 있었다. 그 천사 같은 미소에, 모두 홀린 것만 같은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작 옆에 있는 공작은 자신을 향한 그녀의 뜨거운 눈빛과 헉헉거리는 숨소리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지만. 그런 공작의 사정은 안타깝게도 묻혀졌다...

우아하게 구불거리며 내려오는 하얀 머리카락, 귓가에서 어른거리는 푸른 빛. 올리브 색의 드레스 위에, 주홍빛의 화려한 자수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마치 보석가루를 뿌린듯 드레스 밑단이 조명에 반사되어 빛을 흩뿌렸다.제 머리카락과 같이 새하얀 양 뺨은 언뜻 분홍색을 띄고 고개를 돌려 제 옆의 파트너에게로 향했다.

" 아..., "

누군가 나직히 탄식했다. 제국의 꽃도 환장할 노릇인데 옆의 펙티르 공작이 한술 더 뜨는 상황이었다. 깔끔하게 넘긴 흑빛 머리카락, 검은색인지 남색인지 모를 가라앉은 눈빛은 꼿꼿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루블라일과 같은 올리브색 웨이스트 코트의 소매에는 은빛의 화려한 자수가 자리잡고 있었다. 웨이스트 코트는 공작의 몸매에 딱 맞게 매끄럽게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 조졌다.. "

헤헤!

루블라일은 저도 모르게 흫헿 웃어보였다. 그 바보같은 웃음에 감탄에 가까운, 경악의 시선이 사라지고 이내 그들의 표정에 떠오른 묘한 비웃음이 잠시 루블라일의 심기를 거슬리는듯 했으나. 루블라일은 방긋 웃어보였다. 공작님과의 커플룩으로 인하여 자애로움이 5561646164679배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 부처였다. 모두가 자신을 흘긋흘긋 바라보며 기분 나쁘게 킥킥거려도,

호호 짜식들 지랄 한번 쌈박하게 하네 라고 생각하며 쿨하게 넘길 줄 아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던 것도 잠시, 루블라일은 입이 근질거리는지 답답한 기색을 여실히 드러내며 작게 한숨을 뱉었다. 근데 얘들아 우리 공작님 오지지않니,,? 이 끝내주는 옆태를 봐,,, 루블라일은 여기 있는 모두에게 공작님의 쩌는 점 8616766161919566461가지를 말하고 싶은 걸 참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다가도, 본인이 여주에게 사과하러 이곳에 온 것이란 걸 드디어 상기해내어 연회장 이곳저곳을 쓱 둘러보았지만 하네르의 머리카락 한가닥도 보이지 않았다.

황제랑 같이 맨마지막에 같이 올려나싶어, 루블라일은 일단 이 순간을 즐기기로했다. 연회장의 가운데로 슬쩍 걸음을 옮기자, 나이 상관없이 모두 루블라일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삐뚜름한 웃음을 매단 채로. 이 못된 사람들! 시비털기 위해왔구나! 루블라일은 직감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슬프게도 틀리지 않았다.

" 안녕하세요, 에스티론 영애. 오랜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렇듯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니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네요. "

너 한달 간 근신 받는거 아니였냐? 너 벌의 의미는 뭔 줄 알아? 왤케 때깔이 곱냐?

첨부터 강력한 한방이 루블라일을 후려갈겼다. 루블라일은 근처에 보이는 공작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 네, 벨리엇 영애. 오랜만이에요. 조금 간소하게 꾸며봤는데.. 제 모습을 보고 행복해지셨다니 정말 기뻐요. 영에께서도.. 정말 한결 같으시네요. "

어 난 별짓 안해도 때깔 고와서~ 넌 언제나 그렇듯 평범하네~

중간에 말끝흐림 효과와, 루블라일의 은근한 미소가 제법 드라마틱하게 드러났다. 앞의 벨리엇 영애의 볼이 영애 자신의 머리카락마냥 새빨게지는걸 실시간으로 목격한 루블라일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가 옆의 또다른 영애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 호호호, 간소하게 꾸미셨다고요? 역시 제국의 꽃! 간소해도 너무 우아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은 간소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처럼 아름다우신게 뭔지 잘 아시는 걸까나? 저도 비법 좀 알려주세요! "

개쩌는 미남 황제 폐하를 죽어도 쫓아다닐땐 언제고, 이젠 차이니까 또 기가막히게 다른 미남 쫓아다니네? 그것도 재주다 나도 좀 알려줘봐라.

와... ,

루블라일은 저도 모르게 속으로 감탄했다. 루블라일을 향해 아부를 떠는 것 같으면서도 저렇게 끝내주게 돌려까다니. 열심히 공부 안했으면 아무것도 못알아듣고 헤헤 거리다 올 뻔했다. 대답할 말을 떠올리고 루블라일이 애써 미소지으며 답하려는 순간,

" 테이거스 제이티그 엑시아 황제 폐하와, 폐하의 약혼녀이신 하네르 리아님 입장하십니다! "

시종의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달싹거리던 입술을 다물고 희번뜩 눈을 뜨며 문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황제의 에스코트에 따라, '붉은 색으로'의 여주 하네르 리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 어,, ? "

주위의 의아한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루블라일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펙티르 공작님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머리카락은 가슴께에서 찰랑이고 있었고, 밝게 빛나는 노란 눈동자가 순한 눈매 아래에서 긴장한듯 도록도록 굴러다니고 있었다. 루블라일은 그 모습을 보고 덜그럭거렸다. 옆의 영애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건 신경도 쓰지 않았다.

나나나나.. 나...

나... ,

나 어떡해...

나.. . .

단순히 서브남주 취향인 줄 알았는데,

...

흑발..이.. 취향인가봐...

여주 하네르 리아가 루블라일의 마음 속에 차애로 들어서버린 환장스러울 순간이었다.

아무런 자수도 없었지만, 연한 하늘빛 드레스 위에 하얀 레이스가 마치 눈이 내리듯 드레스 밑단으로 올수록 더욱 풍성해졌다. 그 드레스의 주인은 긴장한듯 뻣뻣하게 움직이다가, 이내 영롱한 호박빛 눈동자를 제 연인을 향해 움직인다. 그 눈을 마주한 황제는 기쁘다는듯 입꼬리를 끌어올려 환하게 미소짓는다.

누가봐도 행복해지는, 풋풋한 연인들의 모습을 보며, 공작은 익숙한

공허함이 제 몸을 갉아먹는걸 느꼈다. 손끝이 잘게 떨려오자, 펙티르 공작은 느릿하게 양 손을 감싸쥐며 애써 평온을 가장해보였다. 그러던 것도 잠시, 황제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다.

" 이렇게 많은 이들이 짐의 탄신일을 축하해주러 오다니, 짐은 굉장히 기쁘오. "

그 목소리에 홀 안의 모든 귀족들은 머리를 숙이며 예를 표했다. 공작도 그들을 따라 머리를 숙여보였다. 완벽히 마무리하지 못한, 묘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가려졌다. 공작은 다행이라고 조용히 생각했다.

" 다들 고개를 들어. 오늘은 그리 딱딱하게 굴고 싶지 않은 날이니 말이야. "

다행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고개를 들라는 명에 공작은 제 아랫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다가, 제 근처에 있었던 루블라일이 고개를 들다가 제 주군과 눈이 딱 마주치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그리고 그녀와 눈을 마주친 주군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얼굴로 웃어보이는 모습도.

" 아 참, 그렇지. 오늘 연회에 참석한 이들 중에.. 내 약혼자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참석한 이가 있다지? "

" ! 테이! "

하네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약혼자의 소매를 잡았다. 황제는 저를 애칭으로 부르는 연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는 제 파란 눈으로 루블라일을 꿰뚫듯 바라보며 한음절, 한음절 매섭게 뱉어냈다.

" 그리 사과하고 싶다고 내게 애원했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넬리에게 지은 무례를 사과하고 싶어서 안달났겠지. 내 친히 기회를 주지. 당장 나오게. "

황제가 그 주인공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안다는듯 귀족들이 눈이 모두 루블라일을 향했다. 루블라일이 황제 폐하의 약혼녀를 질투하여 잔꾀를 써 하네르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은 준 일은, 다들 알고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구석에서는, 그런 루블라일을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공작은 조용히 황제와, 루블라일을 번갈아바라보았다.

황제는 지금 작정하고 루블라일을 망신 주고 있었다. 그녀를 보호할 에스티론 백작 부부가 이곳에 없으니 대놓고 이러는 것이겠지. 파트너란 작자인 자신도 단순히 그녀를 감시할 목적으로 파트너 자리에 있는 것이고. 봐라,루블라일도 자신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걸 아는지 수치심에 새빨개진 얼굴로 우두커니 자리에 서있는 것 아니겠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가 취할 행동은 두가지다.

이곳에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지금 멍하니 서있는 저 자리에서 간신히 사과의 말을 몇마디 내뱉거나.

둘 중 무슨 행동을 하든 하네르가 상처받을 것은 자명했다. 그녀는 진심인지 아닌지 간파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니까. 공작은 상처받은 표정의 하네르를 떠올리며 표정을 굳혔다. 제 주군께서는, 어차피 루블라일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일부로 이러신게 틀림없었다. 어차피 뭐가 됐든 하네르가 상처 받을 것이라면, 루블라일에게도 그만큼 상처를 입히고 싶었던 것이겠지. 공작은 싸늘해진 얼굴로 뻣뻣하게 굳어있는 루블라일을 쳐다보았다.

도망치면 다시는 황궁의 연회에 발을 들일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례를 끼치는 것이고, 어줍짢게나마 사과의 말 몇마디를 내뱉으면 아슬아슬하지만 제국의 꽃이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지. 지금 그녀의 모습을 보면 그 같잖은 사과의 말 몇마디조차 내뱉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 도망치겠군.

하, 공작은 한숨을 내뱉었다. 주변의 비웃음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황제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오로지 하네르만이 루블라일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안절부절할 뿐이었다.

또각.

웃음 소리 속에서, 선명한 구둣소리가 울려퍼졌다. 도망가는구나! 모두가 흥미진진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루블라일은 우아하면서도, 빠르게 하네르에게 다가갔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하네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내 하네르의 앞까지 다가간 루블라일은,

" 죄송합니다. "

정확히 하네르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말을 내뱉었다. 어딘가에서 헉, 하며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자고로 귀족은 황족에게만 고개를 숙였다. 하네르는 황제의 약혼자이긴 하지만, 아직 평민이었다. 황제와 하네르가 들어왔을 때, 이곳의 모든 귀족들이 고개를 숙인 것은 그곳에 황제가 있었기 때문이지, 하네르한테 고개를 숙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루블라일의 미친 행태에 모두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 제가 한때 무례를, 아니, 무례 같은게 아니죠. 그때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

주위에 모든 이가 수군거릴 정도인데, 사과를 받는 하네르는 어떠할까. 하네르는 안그래도 큰 제 눈을 크게 뜨며 어버버거리고 있었다.

" 솔직히 지금 저를 보고있는 것도 무서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짓들을 했으니까.. "

루블라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끝을 흐리며 할 말을 고심하고 있었다. 황제는 놀란듯, 멍하니 루블라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 그러니까, 리아님이 저를 다시는 보고싶지 않으시다면, 평생동안 사교계에 얼굴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말 뿐인 사과따위는 하고싶지 않아요. "

쨍그랑!

누군가 들고있던 잔을 놓쳤다.

와 이게 뭐다냐 진짜.

한편, 루블라일은 죽을 맛이었다. 하네르 앞에 고개를 숙이며, 솔직하게 하고싶은 말을 했다. 평민인 하네르에겐 귀족식 돌리기 화법보다는 그냥 돌직구로 날리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말했는데...

어째 분위기가 싸하다.

루블라일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여 여주야 내가 잘해줄게 내 입으로 꺼지겠다고는 했지만 멀리서라도 널 보고싶어... 젠장!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 앞에서 영원히 꺼져서 고통받는게 피해자를 위한 길이긴 했다. 뭐, 현재의 루블라일이 아니라 전의 루블라일이 가해자였긴 했지만. 루블라일은 억울해서 숨넘어가기 직전이었다. 루블라일 너 왜그랬니? 니가 일 저질러놓고 가버리면 다니?

아니, 솔직히 '붉은 색으로'의 공작님 외전 애니화 때, 펙티르 공작님을 제외한 캐릭터들은 잘나오지도 않았고,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작붕파티였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볼 때도 작화가 끝내주게 붕괴 온 여주한테는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아니 실물이 이렇게 예쁘단 얘기는 안했잖아요... ,

으흑! 루블라일은 울음을 삼켰다. 진짜 아까 황제새끼의 소매를 잡으며 당황하는 모습은 끝내주게 귀여웠다. 진짜 완전 프란틸 제국 째로 부셔버리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런 상념도 잠시, 제 앞의 여주에게서 떨리는 목소리가 튀어나오자, 루블라일은 두 눈을 흡! 하고 떴다.

" 저, 저기 에스티론 영애. 고개를 들어주세요. "

" 네! "

루블라일은 냉큼 고개를 들며 제발꺼지라고하지말아주세요제가스스로꺼지겠다고는했지만제발요멀리서라도보게해주세요님제차애인데요님제차애에요제가의도한건아닌데반해버렸습니다민폐인거아는데자비를 이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 흑... "

" ?! "

그렇게 기도한 것도 잠시, 샛노란 눈동자에 물기가 어리며, 이내 눈물 한방울이 떨어지자 루블라일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에 덜그덕거렸다. 제 근처에 있던 공작님도 충격받은듯한 얼굴로 하네르를 바라보고있는걸 목격했다.

좃됐다.

내가 사과하는 것조차 무서웠구나.

우는 모습도 예뻤지만, 그 우는게 자신을 향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자마자 루블라일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내 손으로 차애와 최애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 와 진짜 쓰레기잖아? 루블라일은 덜덜 떨리는 손끝을 제 등뒤로 숨겼다. 사과한다고 하지 말 걸. 그때 황제한테 무슨 핑계를 대서든 이곳에 오는게 아니였는데. 어떡하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던 그때,

" 에스티론 영애. 제가 이 황궁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어요. "

" ..네? "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네르는 띄엄띄엄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녀의 옆에 있던 황제가 놀란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하네르를 바라보고 있었다.

" 그, 러니까 저는.. 제가 평민이니까... 그... "

" 넬리! "

황제가 다급하게 외치며 그녀의 말을 막았다. 하네르는 괜찮다는듯, 테이거스에게 간신히 미소지어보이며 다시 제 앞의 루블라일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루블라일은 어벙벙한 기분이었다.

" 솔직히, 제가 지금의 폐하의 약혼녀란 자리에 있는 것도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것에 대해 뭐라해도.. 제가 분수에 맞기 않게, 욕심을 낸게 맞으니까, 제가 다 감수... "

" 무슨 소리에요. "

싸늘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차갑게 가라앉은 루블라일의 얼굴에, 황제는 얼굴을 찌푸렸고, 공작은 루블라일의 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뛰쳐나온 순간.

" 그딴 걸 감수해야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랑, 또는 저같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행동은 그냥 폭력이에요. 당신이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던, 맞지 않는 행동을 하던 간에. "

" 에, 스티론 영애? "

" 감수하지 마세요. 화내세요. 당신은 피해자고, 나는 가해자니까. 솔직히 가해자인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끔찍하고 위선으로 보이겠지만, "

" 아, 아, 아니에요! "

하네르는 다급하게 루블라일의 말을 끊어냈다. 그녀는 잠시 루블라일을 멍하게 바라보았다가, 이내 펑펑 눈물을 쏟아내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 그,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영애가 처음이에요. 테이도, 그냥 이해하라고만 했는데... "

" 뭐요 시발? "

하네르의 폭탄 발언에 루블라일은 세상에 다시 없을 쓰레기를 보는 눈빛으로 황제를 바라보았다. 황제는 고장난 사람처럼 어법버버거리다, 무언가 퍼뜩 생각이 났는지 간신히 말을 내뱉을려고 했으나...

" 자네, 방금 시ㅂ... , "

" 피해자한테 이해하라고 했다고요? "

" 아니 방금 시ㅂ... "

" 진짜로? 피해자한테? 이해를? "

" 시.. ."

" 와. 대박이네 진짜. "

" ... "

루블라일의 무자비한 팩트공격에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흥. 루블라일은 새침빵꾸하게 고개를 돌리며 황제 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다. 물론 황제니까, 여러 귀족들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어느정도는 봐주는게 맞으면서도.. 그걸 피해자한테 굳이 가서 네가 이해해야 해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기에 루블라일은 황제 새끼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황제 새끼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건 루블라일 뿐 만이 아니었나 보다.

" 폐하께서, 정말 그러셨단 말입니까? "

누가봐도 나 지금 빡쳤는데 주군이고 나발이고 멱 좀 따도 됩니까? 하는 공작의 표정에 루블라일은 새침빵꾸한 표정을 유지해야한다는 걸 잊어버렸다. 이럴수가... 화난 얼굴도 잘생겼군... 새삼 또 한번 감탄을 하던 찰나에, 하네르의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 레, 레브. 전 괜찮아요. 폐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셨잖아요. 그쵸? "

그래도 제 연인이라고, 불꽃 같은 실드를 치는 그녀를 보며 루블라일은 안쓰러움을 느낌과 동시에,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공작님의 애칭에 크흑! 하고 심장을 부여잡았다. 애칭도 레브래 이렇게 완벽할 수가 정녕 사람의 애칭인가? 레브레브레브f레브렙렙레브 나도 불러보고싶다!

하지만 그런 루블라일의 격한 내적갈등따위는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은 채, 심각한 분위기로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었다.

" 저는, 폐하께서 누구보다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 "

" 그건... "

메인남주와 서브남주의 치열한 공방전에, 어느새 귀족들은 루블라일이 평민에게 머리숙이며 사과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흥미진진한 얼굴로 팝콘을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동안, 아까 전의 루블라일마냥 팩트 공격으로 황제를 후려치던 공작이,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 모습을 본 황제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하네르에게 나직히 속삭였다.

" 넬리, 내가 정말.. 당신을 상처 입혔었군. 미안해. 앞으론 당신에게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야. "

" 테이.. 전 정말 괜찮아요. 테이는 황제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단 거 알아요. "

넬리! 테이!

결국 격렬한 애정행각을 보여주며 끝이 난 공방전에, 팝콘을 씹던 귀족들은 에잉 머야... 하고 김이 팍 샌 얼굴을 하며 먹던 팝콘을 근처의 시종들에게 넘겼다. 루블라일은 하네르와 테이거스의 절절한 외침에 핫! 하고 정신을 차리며 제 옆의 공작을 바라보았다.

" ... 어, "

분명 무표정인데, 왠지 울 것 같은 얼굴.

쓰빨 존나 귀엽 아 아니 이게 아니라! 달래줘야하는데! 너무 귀엽 아니 미친 이게 아니라!

루블라일은 제 안의 2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것을 느끼며 덜그럭거렸다. 그러다 이내, 이 세상의 용기를 모두 끌어모아 공작의 팔을 제 검지로 콕 찔렀다.

" ... ? "

" 아, 아니 저기. 음... , "

근데 막상 할 말이 없어, 결국 타겟을 제일 만만한 황제로 잡기로 했다.

" 폐하, 이제 슬슬.. "

루블라일이 슬쩍 말끝을 흐리며 황제를 쳐다보자, 황제와 하네르는 그제서야 아! 소리를 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귀족들이 자신들의 애정행각을 짜게 식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것 같았다. 한껏 민망해진 황제는, 큼큼 헛기침을 하며 제 목소리를 높였다.

" 넬리의 상처 입은 마음도 괜찮아졌고, 에스티론 영애와 새로운 우정도 맺었으니 이제 온전히 짐의 탄신일을 기뻐할 수 있겠군. "

? 우 우정이요? 누구랑 누가요? 그게 설마 님이랑 저는 아니죠? 하네르 말하는 거죠? 님은 아니죠... ?

증발해버린 주어에 격한 혼란을 느끼던 루블라일은, 황제가 악단을 향해 느릿하게 손짓을 하자 드디어 빌어처먹을 댄스타임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경악하며 파바박 뒷걸음질 쳤다.

이제 슬슬이란게 이 상황을 정리하란 거였지 광란의 댄스파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황제는 손짓했고, 그 손짓에 악단들은 악기를 잡았으며, 귀족들은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의 파트너와 손을 맞잡는 광경에 루블라일은 조용히 제 양쪽 발에게 애도를 표했다. 안녕, 왼발 오른발. 너희들과 함께해서 즐거웠고... 모르겠다 내 연습을 배반하지말거라 건방진 육체야...

그렇게 애도를 빙자한 협박을 하던 것도 잠시, 뭔가 싸하게 굳은 듯한 얼굴의 공작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자, 루블라일은 애도를 멈추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에 제 손을 포개었다. 현란한 바이올린의 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춤의 시작이라는 듯 공작이 루블라일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오늘은 내가 춤신춤왕이다!

루블라일은 자기세뇌를 시도하며, 두눈을 번뜩였다.

" 미친 거 아냐? "

누군가 나직히 속삭였다. 부드러운 선율 속에서 튀어나온 그 속삭임에, 춤을 추던 모두가 동의한다는 듯 전부 한 커플의 귀족을 바라보았다. 펙티르 공작이야 뭐, 원래 정석대로 각에 맞게 잘 춘다고 정평 나있었고, 에스티론 영애도 제국의 꽃인 만큼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춤 실력이긴 했는데... ,

" 원래.. 춤을 저렇게 췄었나... ? "

예전의 느낌이 살랑살랑, 마치 나비가 추듯 부드럽게 가벼운 느낌이었다면...

" 좀... "

고양이처럼 재빠르고, 유연한 느낌의 춤에 모두가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역시 제국의 꽃.. 한번 일이 터졌다고 흔들릴 사람이 아니였구나. 여지껏 추던 방식과는 전혀 색다른 방식에,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계속 추던 방법을 바꾼다는게 전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녀는 해내었다. 한달 간의 근신 처벌에 대한 논란을 뛰어난 실력으로 짓밟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춤이었다.

..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으나.

' 죽것다 젠장! '

정작 당사자는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다.

공작은 그런 그녀를 리드하며, 환장하겠단 얼굴을 하고 있었다.

" 그... "

" 허으억, 허어억, 네에흑? "

" 아닙니다. "

누가봐도 뒤지기 일보 직전의 얼굴에, 공작은 루블라일에게 말을걸려다 쿨하게 포기하기로 했다. 공작은 그녀가 좀 더 편하게 춤을 출 수 있도록, 그녀의 허리를 아까전보다 더 힘주어 잡았다. 그런 대박 스킨십 이벤트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루블라일은 안무 맞추기 바빠 이 엄청난 이벤트를 눈치 챌 수 없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다... ,

공작은 조용히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춤을 추는 방식을 갑자기 바꿔서 힘들어하는 건가? 가능성 있었다. 하늘하늘하고 부드럽게 추던 것을, 무언가 절도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바꿨으니 힘들만도 했다. 처음엔 자신과 파트너를 하기 싫다고까지 한 여자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할려는지 이해가 갈듯 말듯 아리송했으나, 순간적으로 비틀거리는 루블라일의 모습에, 공작은 하던 생각을 멈추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던 팔로 아예 그녀를 들어올리며 빙그르르 돌았다.

" ! "

워메 쓰바!

워, 원래 이 부분에서 들어올리는게 아닐텐데,,?

지옥의 연습으로 인하여 제국춤에 대한 이론만큼은 이곳에서 1등인 루블라일은, 그것을 기민하게 눈치챘다. 공작님이 착각할 리도 없고. 그렇다면.. . .,

" 지져스.. "

이.. 친절하고 잘생긴 사람... .!

분명 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눈치채고 미묘하게 동작을 바꾼 것이 틀림없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착할 수가? 아 참 공작님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지 나도 참!

그렇게 루블라일이 감동의 물결 속에서 허우적대는동안, 공작은 빨리 이 춤이 끝나길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다. 제 아래에서 들리는 헉헉거리는 숨소리때문에 점점 미쳐갈 지경이었다. 분명 힘들어서 내는 숨소리가 맞긴 맞을 텐데, 지난 날 그녀가 제 뒤를 밟으며 내었던 음흉한 숨소리와 겹쳐서 들렸기 때문에 꽤나 힘들었다. 끝나라 끝나라 끝나라 제발! 퍽 그녀와 떨어지고 싶으면서도, 몸에 벤 그의 젠틀맨 태도는 착실하게 힘들어하는 루블라일을 배려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동안 각자의 생각에 빠져 춤을 추던 것도 잠시, 첫번째 곡이 드디어 끝났다. 기적 같은 휴식시간에 루블라일은 내적환호를 3단고음으로 내질렀다. 공작은 5단고음으로 질렀다.

파트너에 대한 예를 담아 가볍게 서로에게 목례한 뒤. 루블라일은 바로 방금 전 일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려고 했으나 펙티르 공작을 선망하는 젊은 영식들이 루블라일과 공작의 사이를 갈라버렸다.

아니 이놈들이!

넘쳐나는 괘씸함에 루블라일은 실수인 척 영식들 중 한 놈의 발등을 제 하이힐로 무자비하게 조져줄까 하다가, 방금 전 극악의 댄스로 다리에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아버렸다. 그녀는 그냥 두번째 곡이 시작되기 전까지 테라스에서 쉬기로 단숨에 결정내버렸다.

그러고 테라스에 갈려고 했는데... ,

" 에스티론 영애! 방금 전 그 춤은 대체 무엇인가요! "

" 세상에, 영애. 저는 영애가 아비니시안 고양이인줄 알았어요! 팔레티느 춤을 그렇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추시다니! "

" 역시 제국의 꽃이세요! "

..?

아까 전 자신에게 호호 웃으며 귀족식 조리돌림 화법을 구사하던 이들은 어디가고, 갑자기 무슨 신을 만난 사제들마냥 호다닥 달려오며 칭찬 퍼레이드를 펼치는 사람들의 모습에 루블라일은 제 안의 위장이 스트레스성으로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 것을 느꼈다. 아 저기 다들 이러지마십시오..

그런 루블라일의 속마음은 싸그리 무시한 채, 그녀의 주위에는 벌써 인간형 우리가 형성되고 있었다.

" 에스티론 영애! "

" 영애는 정말... "

" 춤이... ."

제.. 제발 조용히해!

자신을 둘러싸고 외치는 소리들에 드디어 위장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탭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히힉! 주인놈! 감히 스트레스를 받다니! 고통을 주마! 성대도 없는 위장의 목소리가 루블라일의 머릿속을 울렸다. 심지어 양쪽 발도 고통을 호소하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한다.

이곳을 빠져나가고 당장 테라스 전용 소파에 앉아있고 싶었지만, 벌써 3중으로 쳐 진 인간 우리에 루블라일은 눈물을 머금고 테라스를 포기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강제 현자타임을 맞이한 루블라일은 허허 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이들의 말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러던 것도 잠시, 3중 인간 우리가 뭔가 술렁이며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어, 뭐지 싶던 찰나.

" 영애. "

" ! "

그 우리를 뚫고 들어온 공작님이 자신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이게.. 뭐지... ?

내가 너무 힘들어서 보는 환상인가...

엄청난 놀람에 눈을 깜빡일 생각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공작이 부드럽게 루블라일의 손을 잡아끌며 3중 인간 우리를 한번의 손짓으로 와해시켰다. 젊은 귀족들은 흥미진진한 얼굴로 루블라일과 공작에게서 조금씩 멀어졌다.

" 고곡, 공작님... ? "

" 많이 힘들어보이셔서 끼어들었는데, 영애께 실례가 된 건.. "

" 아뇨 아뇨 아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본 것도 잠시, 젠틀맨 정석의 대답에 루블라일은 격하게 감동했다. 이럴수가... 잘생기고 마음씨 고운 사람... 공작은 이제 최애를 넘어서 자신의 은인이었다. 감시 목적으로 본인에게 억지로 파트너 신청을 한 것일텐데. 이렇게 친절하게 구해주시다니, 역시 천사가 틀림없다.

" 이제 정말 테라스ㄹ, "

뽬빠아밤!

" ... ? "

이제 정말 테라스로 가서 쉴 수 있게 되었네요! 공작님 정말 감사하고 잘생기셨습니다! 라고 외칠려던 것도 잠시. 두번째 곡이 곧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트럼펫의 우렁찬 소리에 붉었던 루블라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아니 이런 시부랄. 무슨 이딴 타이밍이 밀려오는 엄청난 분노에 오조오억개의 욕설들이 입에서 뛰쳐나갈려는 순간.

" 영애. "

" 네? "

" 두번째 춤 신청, 하러올려는 분들 같습니다만.. "

예?

공작의 부름에 방긋 자동미소를 선보였으나, 이어서 들려온 말에 저절로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4번의 춤 중 첫 춤과 마지막 춤은 필수적으로 파트너와 추는 거지만, 두번째 세번째 춤은 다른 이와 자유롭게 출 수 있었다. 물론 파트너와도 출 수 있긴 있었지만..

" 여웅웨. 줘와 환궉 가취 추쉬궸숩뉘꽈! "

" 이런 미ㅊ... "

어디서 느끼남 강의법 책이라도 팔리고 있는 건지, 버터인간의 정석이 나타나 자신의 화려한 혀굴림 능력을 어필하며 제게 손을 내밀자 루블라일은 경악스러움에 위장이 주인! 고통을 주마! 하며 다시 탭댄스를 추는 것을 느꼈다. 세상에, 저 발음을 교정해주고 싶은 남자는 제 눈앞의 이 새끼가 처음이었다.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루블라일은 내뱉었다.

" 아뇨. 다른 분이랑 출게요. "

" ... ! "

강력한 직구에 버터인간은 무너졌다. 으흑! 뤠이뒤! 그렇돠면 돠음울 귀약화궸숩뉘돠! 아련하게 눈물 몇 방울을 흩날린 채, 그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 대찬 까임의 현장에, 루블라일에게 춤 신청을 하려던 몇몇 영식들이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저렇게 까이긴 죽어도 싫다는 표정들이었다. 루블라일은 이제 춤이고 뭐고 쓰러져서 자고 싶다는 표정이었다. 그 기색을 기민하게 눈치 챈 공작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나직히 한숨을 내뱉으며 루블라일에게 손을 내밀었다.

" 영애. 두번째, 세번째 곡도 저와 함께 추시겠습니까? "

" ! "

네네ㄴ넫네네!

공작의 물음에 격한 긍정의 끄덕거림을 선사한 루블라일은 그의 손을 냉큼 붙잡았다. 공작은 찌푸렸던 미간을 피더니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고 우아한 발걸음으로 연화장의 가운데...

가 아니라 테라스로 왔다.

뭳?

아 아니 저기 우리 춤은요?

아예 테라스의 커튼까지 쳐버리며 연회장 안에서 이곳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공작의 행동에, 루블라일은 공작님으로 인하여 마비상태였던 뇌가 갑자기 미친듯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공작님이 자신에게 파트너 신청을 한 이유가 ONLY 감시목적이었던 것이 파바박 떠올랐다. 뒷목이 서늘해졌다.

. . ...

..

... 쓱싹타임인가?

내내내가 오오오늘 역시 시시실수를 많이해서 더더더이상 참아줄 수 없없억없었나봐... ,

덜그덕.

덜그럭더덛덕... 거리는 움직임으로 공작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보고만 있던 루블라일은, 이내 공작이 손을 뻗자 다급하게 외쳤다.

" 피곤하실테니 여기 소파에 앉ㅇ, "

" 앞으로완전착하게살테니까부디한번만자비를! "

" ? "

" ? "

싸늘한 정적이 둘 사이를 스쳐지나갔다.

" ... . "

" ... "

한참동안 어색한 침묵이 지속되는 가운데, 루블라일은 공작의 제안대로 조용히 걸음을 옮겨 테라스의 소파에 살포시 앉았다. 공작은 왜 갑자기 루블라일의 입에서 목숨구걸의 말이 튀어나왔는지 고민하느라 그녀가 소파에 앉은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공작이 제 반듯한 콧잔등을 찌푸리며 고민할동안, 루블라일은 공작의 찌푸린 얼굴을 보며 제 전신을 휘감았던 쪽팔림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 착하게 살테니 자비를? '

하지만 공작은 굉장히 심각했다. 아니 아무리봐도 피곤해보이고, 미묘하게 발도 절뚝거리는 거 같아서 쉬라고 데려왔는데 대체 왜저러는 거지?

공작이 고민'골때림 단계를 거쳐가고 있을 때, 루블라일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 그, 근데 저희 춤은... "

" 아, 그건 어차피.. 이번 연회의 주인공은 폐하와 하네르님이니까. 저희가 빠져도 무방하다고 봅... "

니다. 라고 말하려던 공작은, 갑자기 퍼뜩 떠오른 생각에 입을 다물었다. 그러곤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루블라일을 향해 물었다.

" 피곤해보이셔서, 모셔온 거였는데 혹시 춤을 계속 추고 싶으셨던 걸 제가 눈치도 없ㅇ"

" 아니요!? ! ! ! "

" 아 네... . "

...

그 짧은 질문과 대답이 끝나고, 테라스는 또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극악의 어색함이 둘 사이를 강타했다. 아니 나름 친.. 해진 건 아니지만 제법 익숙해져있을 서로일텐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어색할까... 누가 옆에서 보기라도 했다면 으윽 내가 다 어색해! 라고 외치며 통곡할만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었으나, 간신히 입술을 달싹이며 튀어나온 루블라일의 목소리에 공작은 퍼뜩 고개를 들었다.

" 저, 아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

춤 출 때도 그렇고 아까 다른분들 사이에 끼었을 때 구해주신 것도 그렇고... 잘생겼고.. 아 아니.

새하얀 볼을 발갛게 물들이고선, 감사를 표하다 종국엔 또 헛소리로 마무리하는 그녀의 모습에, 방금 전의 목숨구걸도 여태껏 그랬듯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헛소리였나. 라고 생각하며 공작은 긴장으로 인하여 굳어있었던 몸에 힘을 풀었다.

" 그건 딱히 별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하네르님께서 영애의 진심 어린 사과로 인하여 기뻐하셨으니까요. "

평소와 같이 헛소리만 늘어놓는 루블라일의 모습에, 공작은 저도 모르게 굳이 안해도 될 말까지 내뱉고 말았다. 본인도 말하고 아차 싶었긴 했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담을 순 없었기에 나직히 끄응 앓는 소리를 내며 슬쩍 루블라일을 향해 시선을 던졌는데.

" ? "

울듯말듯 울망울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녹빛의 눈동자와 따악 마주쳤다. 공작은 저절로 움찔, 하며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했다. 아니 대체 내 말의 어느 부분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지? 공작은 떨리는 눈동자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제 앞의 영애의 감정선이 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편, 루블라일은 개찌통이 뭔지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하

네

르

님이

영애의 진심 어린 사과로 인하여 기뻐하셨으니까요.

' 아 실화냐! '

이 순애보를 어쩌냐며 루블라일은 속으로 오열했다. 사실 겉으로도 조금 울었다. 하네르가 기뻐했다고 자기 스토.. 아니! 덕후까지 감싸안는 공작의 행동이, 너무 찌통스러워서 아까 전과는 다른 의미로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자신의 학창 시절, '붉은 색으로'를 읽으며 영원히 닿을 리 없는, 하네르를 향한 공작의 애정 어린 말과 행동들을 보며 눈물 지었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졌다.

아... ! 완전 귀여운 하네르는 아직도 공작님이 본인을 짝사랑하는 것조차 모른다고요! 친구로서 좋아하는 줄로만 안다고요! 공작님은 바보야!

으흐윽!

절로 애통한 소리가 잇새로 새어나왔다. 그 소리에 공작님이 놀란 듯한 얼굴을 하더니,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신에게 내밀었다. 주인과 똑 닮은 새카만 색의 손수건이었다. 하네르 앞을 제외하고, 언제나 똑부러지게 행동하는 공작은 드물게 우물쭈물하며 속삭이듯 루블라일에게 말했다.

" 가, 갑자기 왜 우시는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무언가 잘못 말... "

" 어허어어ㅓ엉! 공작님은 친절바보예요! "

그리고 그 말에, 루블라일은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쳐버리고 제대로 통곡했다. 자기도 힘들면서! 이와중에 자기탓하면서 나 챙기고! 바보바보ㅠㅜㅜㅜㅜㅠ! 나같음 황제 벌써 찌르고 여주랑 결혼했을텐데!

황제가 들었다면 아니 이 미친영애가!반역이다!라며 목이 댕강댕강 날아갈 법한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고는, 루블라일은 공작의 손수건을 부여잡고 계속 오열했다.

이거.. 좀.. 데자뷰 아닌가?

루블라일은 최대한 조용하게 훌짜작거리며 미치도록 어색해진 상황에 눈동자만 데구르르 굴렸다. 아까보다 56161946배는 어색해진 기분이었다. 그래도 손에 공작님의 손수건만큼은 소중하게 쥐고 있었다. 그렇게 눈치만 슬쩍 슬쩍 보던 와중, 곤란한 표정의 공작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루블라일에게 제 손을 내밀었다.

" ... 영애. 이쯤이면 4번째 춤도 끝날 때쯤이니, 이제 슬슬 돌아가도록 할까요. "

" 앗. 네... , "

숨막히는 어색함에 루블라일은 소심하게 대답하며 공작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녀를 부드럽게 에스코트하며 테라스의 문을 열려던 공작은 잠시 멈칫하더니, 루블라일에겐 들리지 않을정도로 나직히 중얼거렸다.

" 친절바보... ? "

퍽 시무룩한 모습이었다.

" 내가 이렇게 너희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외로워서다. "

" ? "

" 노.. 농담이야. "

뭔 지랄이신지? 라는 뜻이 가득 담긴 시녀, 시종들의 눈빛에 루블라일은 소심하게 뒷말을 덧붙였다. 이 불손한 녀석들! 농담 좀 할 수 있지! 속마음으로만 잔뜩 화를 내고는, 루블라일은 큼큼 목을 가다듬었다.

" 그.. 어머니, 아버지는 베트론 영지에서 언제쯤 돌아오시지? "

" 1년에서 2년정도 걸리실 거라 예상됩니다. 아가씨의 후계자 수업 겸 해서 아예 몇년 간 그 영지 쪽에서 계신다고 전해들었어요. "

어니 개이득!

사실 한달 간 근신처벌 때 쯔음부터, 지금까지 루블라일은 이 몸뚱아리의 부모님 되시는 에스티론 백작 부부를 한번도 뵌 적이 없기에, 만약 뵌다면 대체 행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집 안에 틀어박혀서 연구나 해볼까 했는데, 다행히 그 시일은 꽤 늦춰진 듯 하다. 루블라일은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골치 아픈 문제는 늦춰줬으니, 루블라일은 단숨에 본론을 꺼냈다.

" 호위기사 소세리랑, 주엔을 데려와. 오늘 평민들이 연다는 야시장 좀 가게. "

" 네에?! 야야, 야시장을요!? "

시녀 중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다가, 본인도 자신의 목소리에 놀랐는지 헙. 하고 입을 다물며 루블라일의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했다. 루블라일은 그 반응에 별 말 않고 어깨를 으쓱였다. 전의 루블라일은 보통 귀족 영애들과 성격이 비슷했으니, 평민들의 행사 따위엔 아예 관심도 없었겠지. 그리고...

" 그, 그렇지만 고작 호위기사 둘만 대동하기엔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가씨. 아! 물론 소세리 경과 주엔 경의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

'붉은 색으로'의 서술을 보면, 야시장의 끝나갈 무렵엔 술에 취한 양아치들과 쓰레기 같은 놈들이 이곳저곳에 시비를 털러 다닌다 했으니, 귀족 영애가 가기엔 꽤나 위험할 법도 했다. 하지만,

" 공작님이 오늘 그곳에 가신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

아... 이 스토커가 또...

루블라일의 비장한 목소리에, 모두가 납득한 듯 탄식을 내뱉었다. 시종들의 안절부절한 기색에, 시녀들은 포기하라며 그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 너무 우르르 가면 공작님한테 들킬지도 모르니, 난 딱 소세리와 주엔만 데려가겠어! "

아뇨.. 그.. 공작님은 아가씨 혼자만 가도 눈치채실 걸요... 시녀와 시종들은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갈려는 말을 간신히 삼키고는, 명을 받들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루블라일은 뿌듯하게 웃었다.

" ~♪ "

퍽 수수한 차림을 한 루블라일은, 제 뒤에서 저를 짜게 식은 눈으로 바라보는 소세리와 주엔을 무시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황제의 탄신일 연회가 끝나고 정확히 7일 뒤, 야시장에서 발생하는 공작님 전투씬 이벤트를 놓칠 수는 없었다. 나름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오지는! 마도구에! 공작님의! 지리는! 모습을! 저장해놔야지!

" 너만 믿는다. 내 사랑스러운 P 3번... "

갓 나온 따끈따끈한 영상 녹화용 마도구를 소중하게 껴안으며, 루블라일은 바삐 걸음을 옮겼다. 캬, 밤하늘도 시커먼게 공작님 찍기 좋은 날이군!

정말 범죄자스러운 생각을 하며, 루블라일은 야시장의 입구로 발을 디뎠다.

" 헉... "

그리고 그녀는 야시장 입구서부터 제 심장의 안전에 대해 걱정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 이럴 수... 가. "

공작님의 오지는 뒷태를 바로 발견해버렸기 때문이었다. 스토킹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딱 그꼴이었다. 루블라일의 뒤에 조용히 서있던 소세리와 주엔은 질린 얼굴을 하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우리 아가씨 이쯤되면 첩자해도 되지 않을까?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루블라일은 호위기사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아주 익숙한 몸놀림으로 근처 상점에 제 몸을 빠르게 숨겼다.

" 첩자의 귀감이 틀림없다.. "

주엔과 소세리는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제 주인을 빤히 바라보았다. 루블라일은 그런 그들을 보며, 입모양으로 크게 나랑... 모르는 사람인 척 하고... 대충 주변에 아무대나... 돌아다님서... 사고싶은거 사고... 그래라... 너네 주머니에 내가... 은화랑 동화 두둑하게 넣어놨응께... 라고 얘기했고, 소세리와 주엔은 방금 전 자신들의 말을 철회했다.

" 첩자는 개뿔이 저분은 완벽한 주인님이다. "

" 인정한다, 주엔. "

루블라일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이 151621616575854퍼센트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역시 사람의 호감을 올리는 제일 빠른 방법은 현금이었다. 많은 액수의. 그렇게 호위기사 2명은 빠르게 시선을 교환한 뒤, 루블라일의 명대로 철저하게 그녀를 모르는 척 하며 야시장에 나온 신상들을 휩쓸기 위해 호다닥 움직였다. 루블라일은 그 둘을 보며, 뿌듯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 새끼들.. 돈 줬다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네... '

그러던 것도 잠시. 저 앞에 보이는 공작님의 뒷태가 야시장에 놀러나온 사람들로 인하여 잘 보이지 않게 되자, 루블라일은 희번뜩 눈을 뒤집어 까고 암살자도 울고 갈만한 발놀림으로 슈슈슉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재빠른 손놀림으로 마도구 P 3번을 조심스럽게 가동시켰다.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P 3번은 철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조그만 렌즈로 공작님의 뒷태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 아유, 요 예쁜 것! '

에스티론 백작 부부가 운영하는 대 상단 덕분에, 최신식 기능의 마도구 P 3번이 아주 재빠르게 제 손 위로 떨어졌다. 얼굴도 모르는 이 몸뚱아리의 부모님 되는 백작 부부에게 애정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루블라일은 에스티론 백작 부부에게 마음 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며, 느릿하게 공작님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꽈악,

" 어? "

누군가가 제 손목을 붙잡는 것을 느낀 루블라일은 두눈을 크게 뜨고 뒷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 손목 가녀륀거 봐라앍! 이히힉끄흑, 나 이사아앙한 사뢈 아닌데 이 오뽜랑 쪼오오기 가서 짠 하까? 웅? "

" 이 미친새끼 아, 아가씨! 얘가 아가씨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데 좀 놀아주세요~ "

지옥의 술꾼 듀오를 만나버렸다. 면상들도 지옥이었다.

" 허.. "

제 손목을 놓지 않으며 혀가 꼬부라진 상태로 헛소리를 내뱉는 놈이나, 말릴 생각은 안하고 다 이게 남자의 순정이라며 부추기는 놈이나 아주 환장할 노릇이었다.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주인의 명령에 아주 충실했던 소세리와 주엔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 아니 대충 주변에 있으랬지 누가 야시장의 상점이란 상점은 다 털라 그랬냐고! '

밀려오는 괘씸함에 주었던 돈을 회수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고 있던 루블라일은, 다시 한번 제 손목을 죄어오는 힘에 상념에서 깨어났다.

" 어? 내가 말이야 여기서 좀 유명한 사람인데~!~!~! "

" 아 그러시구ㄴ.. ? "

간신히 쥐어짜낸 0.01퍼센트의 친절로 무어라 대답을 해주려던 루블라일은, 무언가 싸늘한 기분에 뒤를 돌아봤다.

" 듣고이쒀?놰과~~~~ "

" ... "

" 쥔쫘 이상한 짓할려는그에 아니고~~ "

" ... "

... 공작님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머리가 싸하게 식었다. 그것을 깨닫자마자 루블라일은 옆에 있는 상점의 가판대에 진열되어있던 특제 술병을 쥐어들고, 단숨에 앞의 개자식의 대갈빡을 내려쳤다.

개자식은 단말마도 내뱉지 못한 채 처참하게 쓰러졌다.

...

시끌벅적했던 야시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개자식의 친구 개자식2는 상황파악이 안되었는지 쓰러진 제 친구를 경악 어린 얼굴로 바라보며 어버버거릴 뿐이었다. 주위에 있는 상인들과 놀러온 사람들도 놀라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루블라일은 깨진 술병을 손에 쥔 채, 희번뜩 거리는 눈으로 개자식의 친구에게 겨눴다.

" 지금 너희의 행태로 인하여, 옘병 제기랄. 내 사랑을 놓쳤다. 목숨으로 갚아야할 것이다. "

" 히익! "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기겁한 소리를 냈다. 개자식2는 덜덜 떨다가, 쓰러진 제 친구를 버리고 냅다 튀었다. 눈물나는 우정이었다. 루블라일은 싸늘한 시선으로 도망가는 개자식2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착잡함에 한숨을 내뱉으며 상점 가판대에 술병 값 은화 3개를 올려놓았다. 그 손짓에 상점 주인은 히익히이익 허이익 소리를 내며 냉큼 은화 3개를 제 주머니에 쑤셔넣었다. 그러는 와중에,

" 영, 애... "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어? 뭔가 목소리가 익숙하다 싶더니..

" ... "

공작님이었다.

펙티르 공작은 골때림으로 인하여 제 머리가 댕댕댕 울리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야시장 입구 때부터 저를 쫓아오는 은밀한 기척이 느껴져 설마설마 했더니, 루블라일 그녀였고, 중간에 질 나쁜 녀석들에게 걸린 모습이 발견되어 빠르게 달려가 구해줄려던 찰나..

쨍그랑!

질 나쁜 녀석1의 대갈빡이 명쾌하게 깨지는 장면을 목격해버렸다. 심지어 질 나쁜 녀석2는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여 쫓아내버렸다. 무시무시하면서도, 통쾌한 장면이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 야시장 한복판에서 해버려서였을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였다.

" 사람이.. 죽었어! "

아니 아직 안죽었다.

행인1의 외침에 공작은 속으로만 대꾸하며, 조심스럽게 루블라일의 어깨를 잡아끌었다. 루블라일이 허어억 하고 헛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녀를 끌고갈려고 했던 개자식들 2명은 말리지도 않아놓고, 화난 그녀가 대가리를 깨버리자 그제서야 수군대는 모습에 공작의 반듯한 미간이 사정없이 찌푸려졌다.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다. 공작은 루블라일의 귓가에 나직히 속삭였다.

" 영애, 물론 영애가 하신 행동은 아주 올바른 정당방위지만.. 목격자가 너무 많습니다. 뒷처리는 제가 할 테니, 일단 이곳을 벗어나죠. "

" ㄴ, 넥넫네네.. ? 공작님과 함께라면 지구를 벗어나도 좋아요... "

의미모를 헛소리와 함께 자신의 의견에 동의한 루블라일의 모습에, 공작은 헛소리 부분만 쿨하게 스킵하며 제 뒤의 기사들에게 눈짓했다. 공작의 기사들은 충실한 모습으로 자신들만 믿어달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 자, 그럼 이리로. "

루블라일을 부드럽게 에스코트하며, 공작은 야시장을 벗어났다. 그렇게 야시장을 벗어나고, 공작은 루블라일을 근처의 벤치에 앉히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 영애, 혹시 호위기사는 대동하지 않은 채 나오신 겁니까? "

" 아, 아뇨 그.. 데리고 나왔긴 나왔는데... "

" 나왔는데? "

" 돈을 주고 뭐 사면서 대충 주변에 있으랬더니, 너무 신나서 멀리까지 가버렸나봐요. "

" 이 개, "

" 예? "

" 아닙니다. "

공작은 불꽃처럼 튀어나갈려던 상스러운 말을 간신히 참아내었다. 호위기사라는 자식들이 호위 대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시시덕거리고 있었다니, 공작가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면 필히 황실에 말해 기사 작위를 박탈해버렸을 것이다.

항상 저를 쫓아다니며 헉헉거리고, 전에 황제의 탄신일 연회에서 자신에게 친.. 절바보.. 라고 말한 루블라일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건 아니었다. 무려 에스티론 백작 영애가 받을만한 대우가 아니었단 말이다. 공작은 한숨을 내뱉으며, 무어라 말할려고 한 찰나,

" 아, 아, 아가씨! "

" 허어어엉 아가씨 괜찮으세요!?! "

후드를 뒤집어 쓴 채, 기사로 보이는 장정 둘이 엉엉 울며 아까 도망쳤던 개자식2를 피떡으로 만든 채 질질 끌고 오는 모습에 할려던 말을 잊어버렸다. 개자식2를 끌고 오느라 불끈 쥐고 있는 손에는 누가봐도 아 이거 제 피가 아니라 이새끼 피입니다 하는 모습의 피가 적나라하게 튀어있었다.

" 소, 소세리.. ? 주엔... ? "

옆의 루블라일도 멍하게 그 기사 둘의 이름을 읊조릴 뿐이었다.

루블라일이 뚝배기 브레이커 칭호를 얻었습니다.

소세리가 소세지 칭호를 얻었습니다.

" 허어으어어엉! 아가씨 저희가 끄흡흑헉 아가씨 위험한 줄도 모르고으흑흐읍 "

" 저희는 쓰레기입니다흐그흑허어어엉! "

" 죽.. 여줘... "

순서대로 주엔, 소세리, 개자식2의 말이었다. 루블라일은 급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에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루블라일이 손짓 발짓으로 왓.. 왓 뻐킹 헤픈.. 이란 뜻을 표현하자 이곳에서 유일한 정상인인 공작은 통곡하고 있는 호위기사 둘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싸늘한 얼굴도 환장스럽게 잘생겼다며 루블라일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 주인을 두고 어디서 뭘하고 있었지? "

당장 너희의 행동 1에서부터 10까지 다 말하지 않으면 조져버리겠다는 뜻이 가득 담긴 공작의 표정에, 소세리는 겁에 질려 딸국질을 하기 시작했고 그나마 침착한 성격의 주엔이 울음을 꾹 참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 그.. 아가씨의 명대로 아가씨를 모른 척하며,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있었는데.. 신상에 눈이 돌아가서... 아가씨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뒤늦게 아가씨가 보이지 않다는 걸 깨닫고 사람들에게 혹시 후드를 뒤집어 쓴 여자를 보았냐고 물어보았는데, 어떤 개자식 하나가 아가씨를 끌고 갈려고 했고, 나머지 하나는 그걸 부추기다가 화난 아가씨의 응징에 의하여 도망쳤다는.. 얘길 듣고... "

" 끅, 그러고, 끄흑, 아가씨가 왠 잘생긴 남성 분과, 끅, 홀연히 사라지셨, 끅, "

" 내가 마저 얘기할게.. 소세리.. 여튼 그런 얘기를 듣고 아가씨를 찾는 길에 사람들이 알려준 또다른 개자식을 발견해버려서 목숨은 붙여놓은 채 끌고 왔습니다... "

말을 마치자마자 자신들이 미쳤다며 벌을 내려달라며 통곡하는 둘이 모습에, 공작은 두통으로 인하여 미간을 찌푸렸고 루블라일은 드디어 사람의 말을 내뱉을 수 있게 되었다.

" 잘했어. "

" 예? "

" 영애, 그게 무슨... "

욕을 먹어야 할 상황에, 칭찬을 내뱉자 기사들과 공작은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했다. 뭐지? 뭐지? 소세리와 주엔이 서로 시선교환을 하던 찰나,

" 억! "

" 목숨만 붙여놔서 정말 잘했다! 내가 마음대로 건들 수 있잖아! "

누구보다 발랄한 얼굴로 있는힘껏 개자식2를 걷어찬 루블라일은 뿌듯하게 외쳤다. 한번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는지 꽤 여러번 걷어찬 다음에, 소세리와 주엔쪽으로 도다다 달려가 공작님에겐 들리지않을정도로 소근소근 귓속말을 했다.

" 저새끼랑 저새끼 친구가 붙잡느라 공작님 뒷태를 제대로 못찍었었거든... "

" 아.. 아 네... "

화난 부분이 거기였냐고요!

분위기상 차마 걸 수 없는 태클에 소세리와 주엔은 마음 속으로만 크게 외쳤다. 그러다가도, 짐짓 엄한 루블라일의 눈빛에 찔린게 많은 둘은 움찔했다. 루블라일은 야무지게 주먹을 쥐고는, 소세리와 주엔의 머리에 지옥의 꿀밤을 선사했다.

" 헉! "

너 너무 아프다!

매서운 손길에 눈물이 다시 한번 찔끔 나왔으나, 귓가를 때리는 루블라일의 목소리에 나왔던 눈물이 쏙 들어간다.

" 내가 대충 주변에 있으라고 했지, 언제 물건 사느라 시시덕거려도 좋다고 했어? 내가 줬던 돈 다 내놔. "

나 지금 공작님 뒷태 못 찍어서 예민해.

진짜 예민해보이는 제 아가씨의 모습에 소세리와 주엔은 얌전히 돈주머니를 내놓았다. 루블라일은 그 돈주머니들을 냉큼 껴안고는, 새침빵꾸하게 흥! 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을 옆에서 전부 지켜본 공작은 황당함에 잠시 말을 잃었으나, 이내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하고는 루블라일에게 말을 건네었다.

" 영애, 지금 여기서 한명 더 제거하셔도 뒷처리는 가능하니 마음 편하게 제거하셔도 됩니다. "

내용은 전혀 침착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선고에 아까 죽여달라고 할 땐 언제고, 살고싶었던 개자식2는 눈깔이 뒤집어져 파닥거리기 시작했다.

" 아, 아뇨! 고고고곡고공작님이 저저절 위해서 제거까진 안하셔도 돼요! 그냥 잘못 놀리는 저 혀만 어떻게 좀 하면... "

" 아 그런가요? "

정말 침착한 얼굴로 어마무시한 소리를 하는 두 귀족의 모습에 개자식2는 소리없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공작은 주머니에서 연락용 마도구를 하나 꺼내더니, 마도구의 버튼을 누르며 조용히 읊조렸다.

" 현 상황은? "

" 영애께 위해를 가한 녀석을 생포했습니다. 아직 의식은 불분명하지만, 바로 경비대로 압송할 예정입니다. 주변 상인들의 입막음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

" 위해를 가하도록 부추긴 녀석도 붙잡았다. 영애께서 이 녀석의 형벌을 정하셨으니, 압송 후, 경비대에게 그대로 전하도록. "

" 어떤.. ? "

" 혀를 뽑아라. 지금 야시장 근처에 위치한 공원 입구에 있다. "

" 네, 알겠습니다. "

" 영애, 이제 안심하시고 자택에 귀가하셔.. 도... 될.. 거 같... ? "

" 신이시여... "

어느정도 일이 해결되었으니 이제 루블라일을 집에 보내려고 했던 공작은, 자신의 새하얀 볼을 붉힌 채 갑자기 신을 찾는 그녀의 행동에 이제는 익숙한 골때림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왜.. 왜 또... 정말 이유모를 행동에 공작이 어버버거리는 것관 달리, 소세리와 주엔은 루블라일의 기행에 대한 까닭을 바로 알아챈 것인지 표정이 굉장히 평화로웠다.

" 방금 설렐만하긴 했지.. "

" 응.. 안그래도 본판 얼굴과 목소리가 뛰어나시니... "

호호..

손녀딸이 옆집 교회오빠를 몰래 바라보며 설레어하는 장면을 목격한 할머니마냥 그 둘은 허허롭게 웃고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루블라일은 계속 볼을 붉힌 채 신을 찾고, 소세리와 주엔은 허허 웃고, 개자식2는 기절하고, 공작은 혼자 의문상태가 되어 두통을 느끼는 상황은 공작의 기사들이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렇게 지옥의 개자식 듀오를 경비대로 보내버리고, 공작은 자택까지 에스코트해드리겠다며 루블라일을 이끌었다. 하지만 루블라일은 공작의 뒤에서 걷고 있었는데, 왜 뒤에서 걷고 있냐고 묻는다면 옆에서 에스코트할려던 공작을 말리며 부득부득 우기고는, 기어코 공작의 뒤에서 걷는 루블라일 그 자신 때문이었다. 루블라일은 뾱뾱뾱 공작님의 뒤를 쫓으며, 히죽히죽 올라가는 입꼬리를 주체하지 못했다. 아! 아까 못봤던 뒷태를 이렇게 보냐고! 무슨 이런 행운이 감사합니다! 새하얀 볼은 발갛게 변한 채 바뀔 생각을 않는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을 전부 지켜본 기사 소세리, 주엔과 애그스, 트레르는 무언가 할 말이 많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음... 너네 아가씨는.. 뭐랄까.. 한결 같네... ? 어.. 응... 한결같으시지...

그들은 무언가 진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렇게 각 귀족가에 속해 있는 기사들끼리의 강력한 유대감을 느끼는 동안 루블라일은 엄청난 행복감을 만끽하며 걷다가, 갑자기 무언가 퍼뜩 떠올랐는지 핫! 하고 두 눈을 번쩍 떴다.

' 아니아니아니,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백작 저로 가버리면 그 엄청난 전투씬은!? 야시장 안에 있어야만 일어나는 사건인데?!?!?! 우리 공작님이 야시장 구석에서 5대 1로 다 발라버리는 그 전투씬은!?! '

어닛 이럴수가!?

루블라일은 밀려오는 아찔함에 그만, 발을 헛디디며 비틀거렸다. 그리고 그 비틀거림을 기민하게 눈치 챈 공작은 냉큼 뒤돌아 그녀의 팔을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공작은 갑자기 비틀거리는 루블라일의 모습에 놀란 것 같았다. 루블라일은 공작님이 팔을 붙잡았다는 사실에 정신이 팔려 놀란 공작의 얼굴은 보지 못 했다.

지져스!

루블라일은 전투씬 그딴거는 머리에서 치워버리고 쾌재를 불렀다.

" 영애, 괜찮습니까? "

루블라일이 행복에 겨워있는데에 반해, 펙티르 공작은 놀란 기색을 숨길 수가 없었다. 당차게 개자식의 뚝배기를 깨고, 개자식2를 신명나게 걷어찬 모습을 봐서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 저저저, ㅈ, 전 괜찮습니다... "

아무렇지 않긴 무슨, 말 더듬는 것을 보아라. 레쉬블 프라이티아 펙티르. 아무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지만, 방금 큰 일을 당한 사람을 제대로 에스코트조차 못하다니 공작은 일그러지는 제 얼굴을 막을 수가 없었다. 정작 루블라일은 붙잡힌 제 팔을 보며 헉헉거리고 있었지만.

" 하아, 영애. "

" 네네네느눼!? "

이것 봐라, 또 말을 더듬는다.공작은 이걸 어찌해야하나, 라고 생각하다 한숨을 푹 내뱉으며 조근조근 말을 하기 시작했다.

" 에스티론 영애. 오늘 일어난 일은..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작은 말을 꺼내자마자 제 혀를 깨물고 싶었다. 아니 유감이라고 생각해서 어쩔건데!? 밤하늘빛 눈동자가 잘게 떨렸다. 퍽 잘못 들으면 비꼬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에 공작은 다급하게 수습하기 시작했다.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혹시 영애의 심신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 어! 에스티론 영애님의 심신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거, 저 알 것 같은데요! "

공작이 누구보다 빠르게 수습을 하던 와중, 뒤에서 그 얘기를 듣던 공작 저 소속 기사 트레르가 번쩍 손을 들며 외쳤다. 그 외침에 주위의 모두가 띠용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오히려 그는 관심이 본인 스스로에게 집중 된 것이 뿌듯했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큼큼, 헛기침을 했다.

" 아이 참. 사실 이거는 에스티론 영애님과 단 둘이 남았을 때 몰래 거래할려던 거였는데... "

거래... ?

의미심장한 트레르의 단어선택에 모두가 제 머리 위로 물음표를 띄우고 있던 그때. 트레르는 제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고는 한참 뒤적거리더니, 이내 음후후훗! 하는 음흉한 웃음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꺼내었다.

아무런 문양도 없는, 심플한 생김새를 가진 검은색의 손수건이었다.

" 손수건... ? "

루블라일의 덕후의 촉이 찌릿, 하고 곤두섰다.

트레르는 과장된 몸짓으로 손수건을 휘날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 이것은! 단순한 손수건이 아니라! 무려 레쉬블 프라이티아 펙티르 공작 각하의 땀! 을! 닦고! 3일동안 빨지 않고 묵혀둔 아주 귀중한 손수건이랍니다! "

털푸덕.

루블라일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 뭐? 공작님의 땀을 닦고 3일 동안 묵혀둔 손수건.. ? 얼마야! 얼마면 돼! 집을 팔아서라도 사겠어! "

" 그만해! 이 미친 여자야! "

개판이 되었다.

" 으흐흫흡흑흫흐흐흐..., "

이힉이히히힣힉! 이히힉!

결국 트레르에게 금화 3개를 건네고 공작님의 땀을 닦은 손수건을 쟁취해 낸 루블라일은 누구보다 가벼운, 붕방붕방거리는 발걸음으로 에스티론 백작 저에 들어왔다. 루블라일은 똥꼬발랄하게 저택의 문을 열어재꼈다. 그런데 어째, 묘하게...

" 뭐야. 분위기가 왜이래? "

싸늘한 저택의 분위기에, 루블라일은 음흉하게 웃던 것도 잊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런 루블라일의 말에 고용인들은 흠칫 몸을 떨었다. 당혹스러움에 두 개의 녹빛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던 찰나, 시녀 중 하나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루블라일에게 고했다.

" 저어... 아, 아가씨.. 편지가 왔습니다. "

" 이 밤 중에? 왠일이래. 누군데? "

루블라일은 밤 중에 편지를 보낼 정도면 진짜 급했나보다, 에스티론 백작 부부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라고 생각하고는, 입고 있었던 후드를 벗으며, 시녀에게 내밀었다. 시녀는 받으라는 후드는 받지 않고, 울상을 지으며 루블라일의 의문에 답했다.

" 메, 메쉬트 킨 조이날 후작 영애께... "

툭...

그리고 허망한 얼굴을 한 채, 내밀었던 후드를 그대로 바닥에 떨궜다.

메쉬트 킨 조이날. 소설 '붉은 색으로'의, 명실상부한 메인 악녀의 이름이었다. 여주인 하네르를 아주 악독하게 괴롭힌.

제기랄, 어쩐지 오늘 운이 너무 좋더라.

눈 앞이 캄캄해졌다.

이 외전은 본편과 0.2퍼센트정도 관련있습니다.

오늘은 초콜릿과 사랑의 날이라는 발렌타인 데이의 '이틀 전'이다.

대형 이벤트의 이틀 전 답게, 에스티론 백작 저택 전체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이리 들썩이느냐 묻는다면,

" 난 아가씨가 초콜릿을 만들다 태워버린다에 은화 3개. "

" 나는 만들다 집어던지신다에 은화 5개! "

바로 도박때문이었다!

백작 저의 고용인들은 돈 내기를 하며, 시녀 필피에게 제 동전들을 내밀고 있었다. 이 내기의 진행을 주도한 필피는 올라오는 자본의 냄새에 껄껄 웃으며 동전들을 받아들었다. 그런 필피를 바라보던 시녀, 에스나는 한숨을 폭 내뱉고는 필피를 제 팔꿈치로 쿡쿡 찔렀다.

" 필피.. 도박 주도는 좋지 않아... "

" 에이, 에스나! 괜히 그러지말고~ 다들 즐거워하잖아! "

" 그, 그렇지만... "

능글거리는 필피의 모습에 에스나는 설득하는 걸 포기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 모습을 본 필피는 방긋! 하고 웃어보이더니 다들 어서 돈을 걸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난 아가씨가 한번에 성공한다에 은화 1개! "

" 성공하시겠어? 난 주방 터뜨리신다에 은화 2개! "

그리고, 내기엔 '"""아가씨가 만들다가 실패한다"""" 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뭐, 그도 그럴게, 자신들의 아가씨는 요리 한번 해본 적 없는 전형적인 귀족 아가씨였으니. 변수라면, 최근에 아가씨의 성격이 많이 유해졌다는 것과, 공작 각하 한정 지옥의 스토커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가지고 갑자기 요리실력에 무언가 이상이 일어날 리는 없으니, 모두가 우리 아가씨는 만들다 실패하실 거야! 라고 믿고 있을 때...

" 아가씨가 내려오신다! "

한 시종의 외침에 내기를 하던 고용인들의 입이 싹 다물렸다. 고용인들이 내기에 열기를 띄울 동안, 루블라일이 어느새 기상하여 준비하고는 1층으로 내려올려는 모양이었다.

누가봐도 앗 나 곧 사랑의 이벤트 직전이라 신났는데요! 하는 발걸음에 모두의 시선이 박혔다.

" 다들 좋은 아침! "

" 좋은 아침입니다, 아가씨! "

싱글벙글 미소를 띄운 채 계단을 내려오며 아침 인사를 건네는 루블라일의 모습에 일동 빠릿하게 허리를 숙이며 맞인사를 해보였다. 루블라일의 일어나란 소리에, 고용인들은 눈치를 보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모두가 기대감이 잔뜩 어린 눈빛을 하고 루블라일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어서 주방에 가서 초콜릿을 만든다고 하세요...!

어서 주방에 가서! 초콜릿을! 만든다고 하세요!

얼른! 주방으로 가서! 초콜릿 만들다! 실패하세요!

그런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닿은 것일까, 내내 잠자코 있던 루블라일의 입술이 달싹이더니, 소리를 내뱉었다.

" 마담 딜퐁프의 쇼콜라숍에 갈 거니까, 주엔 보고 정문 앞에 마부랑 대기하고 있으라해. "

... ?

띠용!?

" 아, 아, 아가씨, 초콜릿.. 직접.. 안 만드세요...? "

" ? 오잉? 맛있게 잘 만드는 전문가가 있는데 내가 굳이 왜...? "

" 엣.. ? "

" 엣... ? "

그렇게 고용인들의 내기는 전부 박살났다. 필피는 돈을 걷었던 바구니를 떨군 채 서글프게 통곡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의 모레. 대망의 발렌타인 데이에, 펙티르 공작은 저녁에 배달 온 마담 딜퐁프의 작품을 보고 경악에 찰 수 밖에 없었다.

" 대, 대체... "

왓 뻐킹 헤픈... ! 초콜릿이 몇개야... !

정확히 공작의 생일, 1월 30일이란 숫자에 맞췄는지 무려 130개의 초콜릿이 대문을 두드리며 공작 저에 발을 들였다. 심지어 초콜릿들은 전부 한입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크기였는데, 그 작은 크기의 초콜릿들은 모두 1월 30일의 탄생화인 매쉬 메리골드의 모습을 띄고 있었다.

공작 저 내의 고용인들은 그 초콜릿을 보며 마담 딜퐁프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선연하게 보였는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마담 딜퐁프.. ! 고생이 많아요... !

공작은 골때린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일단 120개의 초콜릿은 따로 시원한 곳에 보관하라 일러두고, 나머지 10개는 직접 들고 자신의 침실로 향하였는데, 싫어도 일단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인 선물을 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침실로 올라간 공작은 한숨을 내뱉으며 초콜릿을 빤히 바라보았다.

" 하아... , "

원래 단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로서는, 정말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선물이었다. 달달하면서도 눅진하고 텁텁하게 하는 초콜릿은, 정말... 예전에 하네르가 우정 초콜릿이라며 자신에게 초콜릿을 건네었을 때도, 구역질을 참아가며 억지로 꾸역꾸역 먹은 적이 있었다.

또 한번 제 입을 텁텁하게 할 달콤함에 속이 울렁거렸다. 두 눈을 질끈 감고, 초콜릿 하나를 입에 넣은 순간.

" 어? "

깔끔한 쓴 맛이 입 안을 휘저었다. 어.. 어? 잠시만, 이거 초콜릿 맞아... ? 잘못 만들어진 건가? 공작은 당혹스러움에 두 눈을 깜빡거리다가, 또다른 초콜릿 한개를 념, 하고 입에 넣었다.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입안을 맴도는 쓴 맛이었다.

" ... "

공작은 새삼, 생경한 눈길로 매쉬 메리골드의 모습을 한 초콜릿들을 내려다보았다. 하나 하나 정성들여 조각한 초콜릿. 마담 딜퐁프의 작품. 그리고 발송인은...

" ... 루블라일 리브 에스티론. "

심플하게 포장된 상자 위에 적혀진 이름을 눈치 챈 공작은, 멍하니 이름을 읊조렸다. 하긴, 자신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선물 공세를 할 사람은 그녀 밖에 없었다.

왠지, 묘해진 기분에 공작은 초콜릿을 한개 더 제 입 속에 밀어넣었다.

이 초콜릿은 확실히 맛있었다.

" 허헣.. 헣헣헣! "

껄껄껄껄!

귀족식 미사여구는 다 쓰레기통에 던지고 누가봐도 용건만 써있는 편지에 루블라일은 껄껄 웃다가,

" 끄흐으으으으으,,.. "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마냥 울어재꼈다.

메쉬트 킨 조이날.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악역!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황후, 또는 차선으로 공작부인이 되기 위하여 뒤지게 노력했으나 갑자기 끼어든 여주 하네르로 인하여 장래희망이 공중분해될 것 같자 하네르를 제거하기 위해

독살 시도 15번

마차사고 위장 살인 시도 28번

청부 살인 시도 8번

주변 사람 이간질로 왕따 주도 셀 수.. 없음...

하필이면 또 조이날 후작가 자체가 뒤지게 강력해서, 작위만 후작이지 재력이라던가 권한같은 것은 거의 공작가와 비등비등한 수준이라 여주를 그렇게 조질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멀쩡히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잘 살고 있다. 황제와 공작님의 노력으로 여주를 건드는 짓만 좀 주춤했을 뿐이지...

tlqkf!

루블라일은 영어로 욕설을 내뱉으며 편지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소설의 주인공은 하네르는 주인공의 행운 버프로 인하여 그것들을 전부 피해냈지만, 루블라일 본인은 아니었다. 좀 비중있는 조연이,,, 어떻게 메인 악역에게 대항하겠습니까.. ? 살 길은 오로지 하나였다.

왜 날 불렀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일단 심기 거스르지 않게 알아서 바닥에 기어다니자!

짜잔. 조이날 후작 저택입니다.

후작가의 저택이지만, 마치 공작가와 맞먹을 듯한 으리으리한 저택에 루블라일은 어젯밤의 제 다짐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질 수 있었다. 음. 루블라일! 절대로 나대지말자! 목숨이 소중하다면! 후작저의 집사장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누구보다 소심한 발걸음으로 응접실을 향해 걸어갔다.

집사장이 조용히 문을 열자,

굽이치며 내려오는 구불구불한 붉은색 머리카락과 새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메쉬트 킨 조이날이,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루블라일은 빤히 바라보았다. 루블라일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내 후작저의 집사장이 응접실을 나갈려는듯 걸음을 돌리자, 루블라일은 으아아 할아버지 나만 이 지옥에 남겨두고 가지마요! 라고 외치고 싶을 것을 꾹 참아야만 했다.

달칵.

응접실의 문이 닫히고, 이 안에는 메쉬트와 루블라일. 둘 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루블라일의 심장은 난타 콘서트의 비트로 거세게 뛰었다.

" 루블라일 리브 에스티론 영애. "

" 네, 넷... "

그리고 메쉬트의 부름에 인하여, 루블라일의 비트는 점점 더 빨라졌다.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은 큰일났다는 것을! '붉은 색으로'의 묘사에서 메쉬트 그녀가 기분이 좋을 땐 언제나 방긋방긋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는 묘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미소는 개뿔 인사도 없었다. 루블라일은 오늘 자신이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의 여부를 생각하며 내적으로 통곡했다.

" 영애는.. 뭐랄까, 생각이 없나요? "

뒤이어, 메쉬트의 신랄한 어조에 루블라일은 헛! 하고는 황급히 메쉬트를 마주보았다. 붉은 색 머리카락과 파란 색 눈이라는 화려한 색조합에 비해, 평범한 이목구비를 가진 메쉬트는 매섭게 눈을 치켜뜬 채 루블라일을 노려보고 있었다.

" 영애? 내가 물었잖아요. 생각이 없냐고. "

tlqkf tlqkf rotlqkf! 여기서 대답 안하면 죽음 뿐이다! 루블라일은 현란한 영어 욕설 실력을 마음 속으로 뽐내며, 누구보다 다급하게 대답했다.

" 생각이... 없나봐요... "

일단 메쉬트의 말에 긍정하자! 아 당신의 말은 옳습니다! 라는... 뜻으로... 대답하였으나...

" ... "

제기랄, 메쉬트의 표정이 더욱 사나워졌다. 왜.. 왜!? 왜!?!?!왜지! 루블라일은 밀려오는 두려움에 달달달 떨기 시작했다. 저 오늘 여기서 죽나요?

" 에스티론 영애. 못 본 사이에 많이 대담해지셨네요. 예전 같으면 제 말에 제대로 된 대답도 못하셨을 분이... 아. 펙티르 공작님과 야시장을 함께 다녔다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지금 이러는 건가요? "

아니 시발 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루블라일은 메쉬트의 정보 수집력에 오한을 느끼며, 덜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와 나보다 더한 스토커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루블라일이 어법버버!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자 그 모습을 바라보던 메쉬트는 피식, 하고 비웃음을 짓더니 입술을 달싹이며 다시 한번 말을 하기 시작했다.

" 제가 폐하와 공작 각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하네르 리아, 그 여자 때문에 망한 건 모두가 알텐데. 우리 사교계의 꽃이 왜 내 행동과 비슷한 짓을 하며 내 심기를 거스르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네요. 에스티론 영애는 아시나요? "

아.

메쉬트의 말에 루블라일은 드디어 왜 그녀가 잔뜩 화가 난 상태인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다.

" 내가, 실패한 걸, 감히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

이 메쉬트 킨 조이날이, 실패한 걸, 감히 네 따위가.

이를 갈며 나오는 험악한 목소리에 루블라일은 루블라일에게 한바가지 욕을 쏟아냈다. 메쉬트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걸 루블라일이 그대로 시도해서 날아가는 새 떼도 전부 떨어뜨려 조진다는 조이날 후작 가의 영애께서 자존심에 쩌적 금이 간 것이다.

그러니까 메쉬트는 지금 루블라일의 행동을..

' 이힉! 멍청한 메쉬트! 네가 못한 걸 이 오지는 루블라일이 해내보이마! 넌 거기서 새나 떨구고 있으세욧! '

.. 라고 받아들인 것. 루블라일에게 욕한 적은 많았지만, 이번만큼은 욕을 안할 수가 없었다. 맞은 편에서 분노한 메쉬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본 루블라일은 여기서 혀 잘못 놀리면 바로 자신이 독살행으로 가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 네까짓게 공작부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

와... 반말까지 나왔다... 저 반말의 의미는 어차피 곧 뒤질새끼니까 존칭따윈 생략하겠다는 조이날 후작 가의 가풍이었다. 루블라일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었.. 아니 잠깐. 공작부인!?

" 그게 무슨 폐하가 덤블링 하는 소리세요!?!?! "

버럭!

루블라일이 갑자기 소리를 메쉬트는 놀란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비열하게 웃으며 제 목소리를 높였다.

" 하하하! 이 건방진게, 지금 내 앞에서 소리를 질러? "

" 아, 아니 그게 아니라.. "

목숨 아까운 줄은 알아서 대번에 소심해진 루블라일은 제 볼륨을 급격히 낮추며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 저, 공작부인 같은 건 꿈도 안 꾸고 있는데요.. "

" 뭔 개소리야? 에스티론 영애. 요즘 오락가락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진짜 미쳤니? "

어흑!

화끈한 돌직구에 루블라일은 정신이 아찔해졌다. 이 미친 사람... 두려울게 없으니 말도 거리낄게 없구나...

" 그게 아니라, 저는 단순히, "

" 그래. 폐하는 그 빌어먹을 평민 년이 접수했으니 공작부인 자리가 좀 탐나보였겠어? 그런데 말이야. 이 메쉬트가 못한 걸 네가, "

" 아 전 그냥 공작님 잘생겨서 쫓아다니는 거라구요! 저의! 일방적! 쫓아다님! 공작님은 리아님만 보고있는거 영애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

으아!

결국 루블라일이 사자후를 내뱉었다. 분노로 번뜩이던 메쉬트의 파란 눈동자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 이게 끝까지 헛소리네? "

메쉬트의 속삭임에, 루블라일은 헙. 하고 제 입을 틀어막았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버렸다. 제국에서 제일 잘난 남자 둘인 황제 테이거스와 공작 펙티르가 모두 단순한 평민 하네르 리아를 사랑한다는 것은, 메쉬트가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실이었다.

" 살려주세요... "

무사히 돌아가긴 그르친 것 같다.

살려주세요! 라고 목숨 구걸을 한 이후, 메쉬트가 무어라 반응하기도 전에 귀족의 체면이고 나발이고를 다 벗어던진 루블라일은 응접실에서 뛰쳐나와 에스티론 백작 가의 마차까지 전력질주했다. 설마 귀족 영애가 맨발로 저택을 뛰쳐나갈 줄은 그 천하의 메쉬트도 예상못한 일이었는지, 다행히 루블라일은 붙잡히지 않았다. 왠만하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에스티론 가의 마부는, 아무리 그래도 제 아가씨가 맨발로 전력질주해오자 떡 벌어지는 입을 막을 수 없었는지 어버버거렸다. 마부의 옆에 있던 소세리는 벌써부터 게거품을 입에 물었다.

" 이,이럴... 이럴... 수... 가! 아가씨! 이게 무슨! "

" 긴 말은 필요없어! 당장 저택으로 돌아가! 조이날 영애가 날 죽일려고 해! "

" 헉! "

아가씨의 추태에 대해 무어라 말할려던 마부는, 그 유명한 조이날 후작 영애가 자기를 죽일려고 한다는 루블라일의 말에 식겁하며 고삐를 잡았다. 소세리는 반사적으로 검을 빼들었으나, 나도 이렇게 도망쳐나왔는데 네가 어떻게 조이날을 상대하냐! 라는 루블라일의 팩트 어린 외침에 다시 얌전히 검을 검집에 집어넣었다.

" 달려! 너의 실력을 믿는다! 살아서 돌아가자! "

" 네! "

마치 전쟁통을 연상케하는 비장한 얼굴로 외치는 주종의 모습에, 마부의 움직임에 따라 달리던 말들도 덩달아 비장해졌다. 스릴러 액션 활극 한 편이 벌써 다 완성 되었다.

" 헉... 헉... 허으억..헣흑헉... "

" 세상에! 아가씨! 꼴이.. 아 아니 상태가 왜 그러세요?! "

귀족이 아니라 거지라고 믿을 법한 루블라일의 몰골에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한 시녀, 에스나는 저절로 튀어나올려던 험한 말을 간신히 참아내었다. 설마 우리 아가씨가 리아님과 같은 길을 밟는 것인가! 무려 '그' 메쉬트 킨 조이날 후작 영애와 만난다고 할 때부터 조마조마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탄생하는 기분에 에스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황제의 연인이라 불리우는 하네르 리아가 메쉬트에게 밉보여 여러번 죽을 뻔 한 것은 시녀인 자신도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가씨까지 메쉬트에게 단단히 미움털이 박힌 것 같은 모양이다. 만신창이인 상태로 바닥에 엎어져 있는 제 아가씨를 황급히 부축하며, 에스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런데 이럴 수가. 만신창이어도 청초한 빛을 뽐내는 아가씨의 얼굴에 에스나는 눈물을 글썽이는 와중에도 감탄했다.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상에 딱 걸맞는 얼굴이다. 아가씨의 얼굴에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닌가보다. 그렇게 에스나가 루블라일을 부축한 상태로 멍하니 있는 동안, 루블라일에게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 나... 차 좀... 아.. 뭐든 좋으니까 차 좀... "

" 헉, 네. 아가씨! "

루블라일을 소파까지 부축한 에스나는, 얼른 차를 준비하기 위해 찻잎을 꺼냈다. 그렇게 한참을 분주하게 왔다갔다 한 에스나는 향긋한 향이 코끝을 간질이자 됐다! 하고 작게 외치고는 루블라일을 향해 도도도 걸어갔다.

" ... ? "

조금, 차 냄새가 이상한 것 같은데.. ? 기분 탓인가?

찻잔에 찻물을 따르던 도중, 무언가 미묘하게 원래의 향과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았으나 에스나는 에이 별 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마저 찻물을 따르고는 숙였던 허리를 세웠다. 루블라일은 찻잔에 손을 뻗었다.

" 아. 잠시만. "

루블라일은 갑자기 퍼뜩 드는 생각에 뻗었던 손을 거두고는, 근처에 있던 시종에게 명했다.

" 은막대기 가져와. "

" 아, 아가씨?! "

은막대기는 보통 자신의 차에 독이 섞여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귀족들이 애용하는 도구인데, 루블라일은 단 한번도 은막대기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런 루블라일이었거늘, 에스나가 차를 타오자마자 은막대기를 가져오란 말에 에스나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루블라일은 그런 에스나의 모습에 띠용한 얼굴로, 다급히 외쳤다.

" 널 의심하는게 아니야! "

" ... "

" 아! 진짜라니까! "

" ... "

환장!

이미 소리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는 에스나의 모습에, 루블라일은 뒷목을 잡았다. 네가 아니라 우리집 찻잎을 의심하는 거라고! 메인 악녀라면 벌써 사람 하나 써서 찻잎에 독 넣는 것 정도는 누워서 사람죽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라니까! 루블라일은 마치 바람 현장을 들킨 쓰레기마냥 구질구질하게 변명했다.

" 아가씨. 가져왔습니다. "

그렇게 화려한 변명 플레이 도중, 시종이 은막대기를 가져와 루블라일의 손에 쥐어주었다. 루블라일은 변명하던 것도 잊고 냉큼 은막대기를 찻 속에 넣고서는 파바박 휘저었다. 그러고, 꺼냈는데...

" 이런 염.. 병... "

" 헉. "

찻물에 담궈졌던 막대기의 부분이, 까맣게 변했다. 역시 메인 악녀. 독살 시도만큼은 끝장나게 빠르게 준비했다. 루블라일이 은막대기를 들고 멍하니 욕설을 내뱉는 동안, 주변에 있던 고용인들이 술렁이며 차를 타온 장본인인 에스나를 바라보았다. 에스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 아, ㅇ, 으아, "

아니에요!

에스나는 비명을 내지르며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주위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이 곱지 못 했다. 말이 목에 탁 걸려 나오지 않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어떡해. 어떡해. 말도 안돼... 날카롭게 자신을 찌르는 고용인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에 그저 바보처럼 반복해서 중얼거릴 뿐이었다.

" 왜들 그래! 에스나 그럴 애 아니잖아! "

친구이자 동료인 필피가 자신을 두둔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고용인들의 싸늘한 시선은 거두어지지 않았다. 두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졌다. 수근거림이 점점 더 커질 때쯤,

" 다들 조용히 해! "

루블라일의 사나운 외침이 울려퍼졌다. 순식간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에스나는 겁에 질려 덜덜 손을 떨었다. 루블라일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점점 에스나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내 루블라일이 제 앞에 서자, 에스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 너 아닌 거 알아. "

루블라일이 떨고 있던 에스나의 양 손을 꼬옥 감싸쥐었다. 에스나는 화들짝 놀라 울던 것도 잊고 루블라일을 바라보았다.

" 조이날 후작 영애가 날 불렀으니까, 내가 후작 저에 가는 동안 암살자 같은 거한테 시켜서 이곳저곳에 독을 뿌려놨겠지. 왜. 전에 리아님이 즐겨마시던 찻잎에도 독가루가 잔뜩 묻혀져있었던 사건 다들 알잖아. "

그러고보니...

고용인들은 하네르가 좋아하는 찻잎에 전부 독가루가 묻혀져있어 하마터면 하네르가 독살당할 뻔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 솔직히 여기 백작 저에서 나 암살할만한 간 큰 고용인이 어딨니? 그냥 주인가지고 내기할 고용인들은 많긴 많은데... "

" 헉. 아가씨 그거 아셨어요? "

내기 주도의 장본인인 필피가 경악 어린 목소리로 외치자 루블라일은 짜게 식은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 아니 그럼 내가 주방 가서 초콜릿 만들다 실패한다에 돈 건다는 녀석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는데 내가 모르겠어? "

웁쓰..

찔리는게 많았던 고용인들은 입을 다물고 눈동자를 데구르르 굴렸다. 루블라일은 그 모습들을 보며 잠시 험악한 표정을 짓더니, 한숨을 푹 내뱉고는 다시 에스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 여튼, 너가 한 짓 아닌거 아니까 그냥 오늘 방에 들어가서 푹 쉬어라. 놀랐겠다. 아까 부축해줘서 고마워. "

" 아, 아, 아, 아가씨... "

" ?! 아니 왜 더 울어!? "

" 허어어어엉! 아가씨 제가 평생 충성을 다해서 모실게요 으흐어어어엉! "

" 아! 콧 콧물 튄다 야야야! "

사락, 사락.

고요한 정적 속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울려퍼졌다. 언뜻 평화로운 분위기였지만 무언가 빠진 듯한 허전함이 느껴졌다. 그 허전함에 펙티르 공작가 소속의 기사, 애그스는 저도 모르게 멍하니 중얼거렸다.

" 요즘 에스티론 영애가 안오시네요... ? "

'안오신다'라는 점잖은 단어로 표현했지만, 요즘에는 담 넘어와서 몰래 공작님 안훔쳐보네요? 라는 의미가 담긴 말에, 서류를 넘기던 공작의 손이 멈췄다. 공작은 턱을 괴며 무심하게 말했다.

" 슬슬 좋아하는 척 하기도 질렸나 보지. "

" 예? "

뭐라고요? 좋아하는 척이요? 그게 뭔 개소리세요... ?

애그스의 띠용했다는 얼굴은 보이지도 않는 건지, 공작은 멈췄던 손을 다시 움직이며 부지런하게 일하기 시작했다.그 모습을 보던 애그스는 제 이마를 탁 치며 깨달음 어린 목소리로 아! 하고 외쳤다. 맞다. 공작님은 에스티론 영애가 아직도 황제 폐하를 연모하고 있어서 자신을 이용해 폐하께 소위 말하는 '밀당'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에스티론 영애 하는 걸 보면 누가봐도...

애그스는 제 주군을 흘긋 바라보고는, 차오르는 답답함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우리 주군은 바보야... 펙티르 공작은 그런 애그스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일할 뿐이었다.

" 아! "

그리고 루블라일은 안 가는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였다. 통한의 설움이 맺힌 울부짖음에 에스티론 백작 저는 비상이 걸렸다. 아이고! 시녀, 필피는 앓는 소리를 내며 시종 맥에게 다급하게 외쳤다.

" 맥! 전에 화가가 그렸다던 공작님 초상화는 어딨어?! "

" 젠장! 화가가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찢어버리고 다시 그린다고 했다니까! "

" 그 화가 미쳤나?! "

" 내 말이! "

그때 차를 통한 독살 시도 이후로, 식사에 독이 들어있는 경우는 허다했고 공작님을 스토커.. 아니, 보러 밖으로 나갈려하면 이 세상에 자객은 왜 이렇게 많은지 무슨 비내리듯 자객들이 쏟아져내려왔으며 간신히 어느정도 나갔다 하더라도 갑자기 마차들이 미쳐 날뛰며 전부 루블라일을 치려고 달려들었다. 루블라일의 민첩도가 늘었다!) 그래서 루블라일은 결국 약 3주동안이나 밖으로 나갈 수 없었는데, 공작님을 보지 못한지 벌써 3주씩이나 지나 루블라일은 간헐적으로 지랄.. 아 아니 발광을 했다.

" 아! "

" 어 어떡해 큰일났다! 이번 건 좀 오래 갈려나봐! "

" 아가씨 저러다 목 나가는거 아냐?! "

" 다들 진정해! 자 셋 셀게 모두 외쳐! 하나.. 둘.. 셋! "

""" 펙티르 공작님 외모는 세계제일! """

...

고용인들의 우렁찬 외침에 루블라일의 커다란 괴성이 서서히 작아졌다. 고용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뱉으며,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 일단 다른 화가라도 섭외해서 공작님 초상화 좀 그려오라 해! 빨리 그리면 그릴수록 좋다고! "

" 알았어! 그런데 아가씨 아직 점심 못드셨는데, 주방장님한테 말하러 갈게! "

" 어! 야야, 너는 공작 저 몰래 가서 공작님 머리카락이라도 주워 와! "

" 아 싫어! 나같은 일개 시종이 몰래 들어갔다간 바로 쓱싹이라고! "

" 이런 쓸모없는 녀석! "

서로에게 일을 분담하며 한참동안 투닥투닥 거리던 고용인들은, 이내 움직이던 걸 멈추고 다들 서로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하필이면.. 우리 아가씨가 '그' 조이날 후작 영애한테 찍혔다니... 아... 지친다... 안되겠다. 우리, 힘을 주는 마법의 단어를 외쳐볼까?

" 보너스! "

" 보너스! "

" 월급 두배! "

좋아, 오늘도 불태우면서 일해보자!

그들은 힘을 얻고는 결의를 다지며 각자 맡은 바를 다하기 위해 샤샤샥 흩어졌다.

.

.

.

똑똑똑.

" 아가씨, 들어가도 될까요? "

" 응... "

힘없이 중얼거리는 목소리를 기민하게 눈치 챈 에스나는, 조용히 문을 열며 루블라일이 먹을 점심이 담긴 트레이를 끌고 들어왔다. 방금 전 발광 때문이었는지, 루블라일의 하얀 머리카락은 부스스하게 이리저리 헝클어져 있었다. 에스나는 그런 루블라일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움을 숨기지 못했다.

" 아가씨... "

한동안 식사에 독이 들어있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루블라일은 그 누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여위어 있었다. 안그래도 가늘가늘한 팔다리가, 더욱더 가냘파져 보는 사람의 가슴 통증을 유발했다. 에스나는 스프에 은막대기를 살포시 담갔다가, 멀쩡한 은막대기의 모습에

안심하며 루블라일에게 스프를 건네었다. 루블라일은 에스나가 건네준 스프를 떠먹으며 멍하니 속삭였다.

" 공작님 보고싶다... "

" 크흑! "

아련함 max의 속삭임에, 에스나는 결국 버티지 못하게 제 가슴께를 부여잡으며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어쩜 좋아! 어느새 루블라일의 눈가에 매달린 눈물에 에스나는 또 한번 크흑! 하고 고통어린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이미 에스나가 들어오기 전에 한바탕 울었는지, 루블라일의 눈가는 발갛게 부어있었다. 개나소나 손수건을 들이밀며 울지마세요! 라고 말할 모습이었다.

루블라일은 그렇게 눈물 젖은 스프를 먹다가, 멍하니 고개를 돌려 시선을 옮겼다. 시선이 닿은 곳은 루블라일이 공작님 컬렉션을 모아둔 서랍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랍만을 바라보던 루블라일이 나직히 중얼거렸다.

" ... 참아. "

" 네? 아가씨? 뭐라고요? "

" .. 더 이상은 못 참아. "

약 3주간 여주 하네르가 당했던 온갖 환장스러운 암살 시도에 시달리고, 그 긴 시간동안 공작님의 얼굴 1초도 보지 못했다. 중요하니까 두번 말하겠다. 3주동안 공작님의 얼굴 끝자락도 못 봤다. 스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루블라일의 멍했던 녹빛 눈에 시퍼런 기색이 돌았다.

" 조져버리겠다... "

" 아 아가씨 살인은 안되요! 물론 그쪽이 먼저하긴 했는데! "

" 반드시 조져버리겠다... "

" 글렀다 이미 아가씨 귀에 아무것도 안들린다! "

에스나는 곧 아가씨가 살인을 할 예정이니 뒷처리 좀 해달라고 에스티론 백작 부부에게 편지를 보내야하나 걱정이 되었다.

조지겠다는 결심을 한 이후. 결행은 바로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다. 루블라일은 후드를 뒤집어 쓴 뒤, 혼자서 백작 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여태껏 했던 스토킹의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마침 백작가 저택 근처에 머무르고 있던 자객들은 3주동안 루블라일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 지쳐서 졸고 있던가 아님 자기들끼리 떠드느라 바빠 그 누구도 루블라일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중간중간 경비를 서고 있던 기사들은 눈치를 채고 무어라 말하려했으나, 서슬 퍼런 제 아가씨의 눈빛에 조용히 입을 닥치고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충성스러운 기사들이었다.

어둑어둑한 새벽에, 누구보다 빠르게 광장까지 나온 루블라일은 24시간 마차 대여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소문없이 뒤에서 튀어나온 후드 쓴 여인의 모습에 대여소의 주인은 허으하러헉! 하고 격하게 소리를 질렀다가, 냉담한 루블라일의 반응에 머쓱한 얼굴을 했다.

" 어디로 모실까요? "

" 조이날 후작 가에 간 다음에, 펙티르 공작 가로. "

" 헉! 조이날 후작 가는 위험수당 때문에 요금이 2배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 4배로 쳐줄테니 최대한 소리가 안나고, 빠른 마차로 부탁한다. "

비장함이 맴도는 루블라일의 말에 대여소 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키며 덩달아 비장해졌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귀족.. ! 왠지 큰 일을 해낼 것 같다!

" ... 우리 대여소에서 제일 좋은 마차와 제일 말을 잘 모는 마부로 모시겠습니다. 어이! 페튼! 요금 4배를 내신다는 손님이 계신다! 대신 조이날 후작 가로 가야해! "

" 뭐라고요! 제가 신의 컨트롤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쿠당탕!

요금 4배란 소리에 대여소 안쪽에서 마부 하나가 뛰쳐나오며 황급히 루블라일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요금 4배! 요금 4배! 요 금 4 배 ! 마부 페튼은 제 코끝에서 느껴지는 자본의 냄새에 눈을 번뜩였다. 그 믿음직한 모습에 루블라일은 뿌듯한 기색을 숨기지 못 했다.

" 정문에서 있기에는 무리일 것 같아서 후문 근처에서 대기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

" 응. 여기서 기다려. "

루블라일은 마차 문을 열며 소리 없이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루블라일을 에스코트 하려 손을 뻗었던 마부는 민망해하며 제 손을 다시 거뒀다.

" ... !? "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진 그녀의 모습에, 마부는 식겁하며 어버버거렸다. 무머멈먹머머머야?!

그런 당황한 마부의 모습 따위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던 루블라일은 스르륵 발걸음을 옮기며 아주 익숙하게 저택의 담을 뱀처럼 넘어갔다. 이 또한 여태껏 했던 스토킹 덕분이었다. 루블라일은 정원을 걸으며, 점점 머릿속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루블라일은 후드를 더욱 더 깊게 쓰며 느긋하게 움직였다.

다들 조이날 후작 가는 경비가 삼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안타깝게도 오산이다. 원작 ’붉은 색으로’의 서술에 따르면 하도 악명이 높은 조이날이다 보니, 그 누구도 얼씬거릴 생각을 못해 딱히 저택에 누군가 침입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경비가 느슨한 편이라는 것이다. 그걸 이용해서 남주 테이거스가 몇번 후작 가에 빅 엿을 먹였고. 루블라일은 웅장한 저택 앞에서 꾸벅 꾸벅 졸고 있는 소수의 기사들을 보며, 내적으로 개이득을 외치고는 건물의 뒷문의 문을 열었다.

문 관리도 똑바로 못 하는 기사들을 소유한 후작 가도 참 답이 없다고 생각하며 루블라일은 순조롭게 저택 내부에 침입했다. 루블라일은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메쉬트의 침실을 찾는 건 끝내주게 쉬웠다. 화려하게 보석이 덕지덕지 박혀 있는 문이 누가봐도 '앗 여기 메쉬트 방입니다^^'하고 존재감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루블라일은 손잡이 위에 손을 올렸다.

" ... "

손잡이가 소리없이 돌아가고, 문이 열렸다.

곤히 자고 있는 메쉬트의 모습이 보였다.

" 잠이... 오니... ? "

그 모습에, 루블라일은 저도 모르게 속삭였다.

" 내가 염병... 3주 동안 공작님을 못 봤는데... 넌... 잠이 오니... ? "

전남친st의 말투를 장착한 루블라일은 멍하니 중얼거리며, 여전히 꿈나라에서 신나는 여행을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메쉬트를 뚫어버릴 정도로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천천히 걸음을 옮겨, 메쉬트의 침대 바로 옆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본다면 르으허학! 하며 훼까닥 기절했을 호러틱한 모습이었다. 루블라일은 고요히 메쉬트를 내려다보며 뚝배기를 깨버릴까 한참동안 고민했지만, 상대는 메인 악역에 후작 영애였다. 아무리 그래도 귀족살인은 뒷처리가 복잡하니 아직 얼굴도 못 뵌 부모님을 귀찮게 하기엔 좀 그랬다. 그렇게 한참동안을 고민하던 루블라일이 내린 결정은...

.

.

.

" 야 어떠냐 어?! "

" 아아아악! "

누구에게나 먹힐 궁극의 공격, 머리채잡기였다. 한두번 잡아본 솜씨가 아닌지 루블라일은 능숙하게 머리 뿌리부터 휘어잡아 메쉬트의 빨간 머리채를 환장스럽게 흔들었다. 메쉬트는 자다 말고 느껴지는 격한 두피의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야했다.

" 뭐, 누구.. !?! 허! 너 미쳤어아억! "

" 3주동안 공작님 못보면 당연히 미치지! "

위 아래 위 위 아래아래 상하좌우다 이 자식아!

루블라일의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현란한 손놀림에 메쉬트는 5단 고음을 내질렀다. 모 가수도 울고 갈 만한 실력이었다.

" 아악! 그만해으어어아아! "

" 싫어! "

루블라일은 머리채를 흔들던 와중, 메쉬트의 거센 비명에 후작 저에 고용인들이 올까 잠시 걱정되었지만, ' 조이날 후작 저택은 중상모략을 꾸미기 위해 방음이 철저하게 되어있고, 또 고용인들과 후작, 후작 영애가 머무는 건물이 각자 달랐다. '라는 소설 속 묘사가 번개같이 스쳐지나가서 마음을 놓고 메쉬트를 조지기로 했다.

" 이거 안놔아!?!?!?! 악! "

" 내가 놓을 것 같아!?!?! "

메쉬트가 제 긴 손톱으로 루블라일의 팔을 할퀴었으나,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루블라일은 할퀴든 말든 신명나게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둘이 한참동안 단란하게 혈투를 벌였는데...

" 헉.. 흐억..헉... "

" 허어어윽.. 후어악... "

본디 귀족 영애인 둘은 저질 체력을 이기지 못하고 각자 방바닥에 처참히 쓰러져버렸다.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울렸다.

" 너.. 너... "

" 뭐... "

이제 거리낄 것 없는 루블라일은, 제 양 손에 쥔 빨간 머리카락들을 전리품처럼 흔들며 경악에 찬 메쉬트의 말에 간신히 대답했다.

" 네년 내가... 아침이 되면 반드시.. 죽일... "

" 아! "

또다시 시작된 살인 예고에 루블라일은 사자후를 내뱉었다. 당혹스럽게 두 눈을 깜빡이는 메쉬트를 보며, 루블라일은 새침하게 외쳤다.

"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갖고 싶으면 가져요 좀! 구질구질하게 괜한 영애 붙잡고 살해 협박 좀 그만하고! "

" ? 이 이제 와서 존댓말은 왜 쓰는데!? "

" 제 기분의 문제입니다! "

띠용한 메쉬트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는지, 루블라일은 몸을 방바닥에서 홱 돌려 천장을 바라보고는 불만스럽게 꿍얼꿍얼거렸다.

" 아니 왜 굳이 폐하 아니면 공작님이랑 결혼 해서 어렵게 지위 얻으려 해요? 결혼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데.. 어차피 조이날 후작 가엔 방계도 딱히 없으니 그냥 영애 아버지 하나만 어떻게 좀 하면 되는 문제 아ㄴ.. "

허...

루블라일은 말하다 말고 제 입에서 튀어나온 불꽃 같은 패드립에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다. 나나나도 참 아무리 후작하고 메쉬트하고 부녀간의 정은 개뿔 서로 뒤지게 싫어하는 사이라지만... 어 어떻게 이런말을... 루블라일 인성 다시 찾자.. 공작님을 못보니 인성이 자꾸 바닥을 치는 기분에, 루블라일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방 안이 조용했다.

응당 들려와야할 메쉬트의 분노 어린 외침이 들리지 않자 루블라일은 당황스러워하며 시선을 옮겨 메쉬트를 바라보았는데...

" 루블라일 리브 에스티론 영애. "

" ㅇ, 예? "

" 영애는 천재가 틀림없어요. "

" 예!? "

" 그래, 후작도 꽤 높은 지위였지.. 후작 부인이 아닌 후작. 하.. 영애. 우리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볼까요? "

...메쉬트는 끝내주게 기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다. 루블라일은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조이날 후작의 명복을 빌어줘야만 했다.

" 히에에엑! "

마부 페튼은 왠 거지꼴로 나타난 여자를 보고 식겁해 하이톤으로 비명을 질러댔지만, 곧 그 여자가 자신의 손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을 더듬었다.

" 소소솓손속손님, 어어어쩌다가... "

" 조이날 후작 가에 들어갔는데 이정도 꼴로 나왔으면 선방한 거지.. "

" 아 그건 그러네요... "

그렇게 말을 더듬다가도, 루블라일의 팩트 어린 중얼거림에 조용히 입을 다물었지만. 여튼 루블라일이 마차에 오르자, 마부는 펙티르 공작 저 방향으로 마차를 몰기 시작했다. 마부는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손님을 향해 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싶었지만 괜히 귀족들하고 깊게 얽혀 밤 중에 뒤지지 말라는 어머니의 명언을 떠올리고는 조용히 마차만 몰았다.

" ... ? 뭐야 왜 이렇게 따갑.. 아니 이럴수가!? "

그리고 루블라일은, 마차 안에서 갑자기 미친듯이 따끔거리는 제 양 팔에 뭐지 싶어 내려다봤다가 아주 화려하게 죽죽 할퀴어진 상처들의 향연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메쉬트 이 나쁜새끼야... ! 심지어 제법 많은 상처들에선 피까지 흘러내리고 있었다. 루블라일은 허.. 하고 탄식을 내뱉다가, 이내 에라이 모르겠다 싶어 등받이에 제 등을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렇게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을까.

" 저, 손님. 도착했습니다. 여긴 정문에서 내려도 되는 거지요... ? "

" 엉... "

제대로 눈을 붙인 것 같지도 않았는데 벌써 도착했다는 소리에 루블라일은 졸린 눈을 비비며 마차에서 내렸다. 아 이제 공작님 보러 간다! 루블라일은 순식간에 졸음이 가시는 것을 느꼈다. 루블라일은 폴짝 폴짝 발랄하게 뛰어가며 아주 익숙하게 담을 넘었다. 뾱뾱뾱 빠르고 조용하게 정원을 질주한 루블라일은 제일 커다란 나무를 발견하고는,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고는 다리에 힘을 주고 뛰어올라 나무를 붙잡고 재빠르게 나무의 중간 가지까지 올라가, 그 중 가장 두꺼운 가지에 자신의 엉덩이를 붙였다.

" 아우, 한바탕하고 와서 이거 가지고 지치네. "

가지에 걸터앉은 루블라일은 헉헉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리고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쌍안경을 꺼내고는 자신의 눈에 갖다 댔다.

" 다 자나? "

아직 동이 트기 전, 새벽이기에 저택의 불은 거의 다 꺼져있었다. 중간 중간 불이 켜진 곳도 있었지만 그 곳은 고용인들이 지내는 곳인 걸 알고 있는 프로 스토커 루블라일은 짧게 혀를 차며 몸에 힘을 풀었다.

" 동틀 때까지 기다리지 뭐... "

혹시 몰라 마부한테 돌아가라고 한게 신의 한 수였다. 루블라일은 나른하게 기지개를 피고는, 쌍안경을 주머니에 넣었다. 눈 앞이 가물가물했다.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밖에 나가지도 못 하고, 3주 내내 울며 별 난리를 다 피운 다음에 밤까지 새며 메쉬트와 한바탕했는데 졸리지 않은게 오히려 이상할 일이었다.

" 어.. 자면 안되는데. "

하지만 공작님이 일어날 때까지 버티려던 루블라일이었기에, 이 졸음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듯 오만상을 썼다.

" 자면 안.. 되..는... "

커어어어엌...

그렇게 루블라일은 앞으로 고꾸라져 가지에 머리를 처박고 골아떨어졌다. 가지가 두꺼워서 정말 다행이었다.

" 꺄아아악! "

오전 6시. 동이 막 틀 무렵. 펙티르 공작 저는 한 시녀의 우렁찬 비명소리로 아침을 맞이했다. 온 영혼을 담은 소울 어린 외침에 꿀잠을 자던 공작도 벌떡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기사들은 일사불란하게 두 팀으로 나뉘어 한 쪽은 시녀의 비명소리가 난 공작의 침실 옆방으로, 나머지 한 쪽은 공작의 침실로 향했다.

" 공작님! "

벌컥! 침실의 문을 연 기사들은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올리며 미간을 찌푸린 제 주군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하아... "

공작은 깊은 한숨을 쉬며 검지로 말없이 침실의 창문을 가리켰다. 그 손가락을 따라 창문 밖을 본 기사들은 아.. 하고 깨달음이 담긴 탄식을 내뱉었다. 기사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창문 밖. 어느정도 멀리 떨어진 나무에 한 여자가 가지에 엎어져 숙면을 취하고 있었는데 기다랗고 하얀 머리카락이 바람에 따라 스산하게 흔들려서 멀리서 보면 제법 호러틱했다. 시녀가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른 것도 이해가 가는 수준이었다. 3주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설마 새벽부터 와서 저기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줄은... 공작은 오랜만에 느끼는 두통에 제 이마를 짚었다.

" 저... 에스티론 영애는 어떻게 할까요? "

" 내가 깨워서 돌려보내지. "

공작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기사의 물음에 간단히 답했다. 기사들은 그 말에 경례하며, 다들 황급히 공작의 침실에서 후다닥 나갔다. 공작은 착잡한 얼굴로 창문 밖을 한번 보더니, 이내 잠옷을 벗었다. 사락. 옷이 아래로 떨어지며, 공작의 탄탄한 몸이 그대로 드러났다.

루블라일이 이 장면을 놓친 것을 알면 아마 한달 내리 통곡을 했을 것이다.

.

.

.

나무 앞에 선 공작은,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직도 잠을 청하고 있는지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공작은 또 한번 한숨을 내뱉고는 유연한 몸놀림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아무리 중간까지라도, 대체 귀족 영애가 어떻게 이 높은 나무를 오를 생각을 했는지. 몇달 전부터 미스테리였다. 공작은 나무의 중간까지 오르자, 아주 두꺼운 가지에 머리를 처박고 자는 루블라일을 발견할 수 있었다.

" ... "

공작은 루블라일을 깨울까 하다가, 괜히 깨워서 화들짝 놀래 나무 밑으로 떨어지느니 자신이 루블라일을 들고 내려가는거 더 안전할 것 같아 루블라일의 허리를 한팔로 휘감았다.

" ... ? "

왜 이렇게, 말랐지?

황제 폐하의 탄신일 연회 때, 그녀와 같이 옷을 맞추고 춤을 추느라 그녀의 허리가 꽤 얇은 편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째 그때보다 훨씬 더 허리가 가늘어졌다. 마치 몇주동안 굶은 사람마냥 비이상적으로 가는 허리에 공작은 미간을 찌푸렸다. 3주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것과 연관이 있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도 잠시, 일단 이 나무를 내려가야 한다는 걸 깨달은 공작은 루블라일의 허리를 단단히 잡고 조금씩 조금씩 신중하게 나무를 내려갔다.

" , "

쿵. 안전하게 착지한 공작은 이제 루블라일을 깨우기 위해 그녀를 뒤집었는데...

" ... ? "

그녀의 양 팔에 잔뜩 할퀴어진 상처와, 오랫동안 방치되었는지 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려 그대로 마른 것. 그리고 마치 병자처럼 헬쓱한 얼굴에 공작은 머리부터 싸하게 굳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습격당한 것인가?! 공작은 루블라일을 나무 밑동에 기대게 한 다음 코 밑에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대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다.

" 영애! 영애! "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공작은 밀려오는 당혹스러움에 다급히 루블라일을 껴안고 저택으로 달렸다.

" 조니를 불러와! "

공작은 저택의 문을 열고는 주치의를 불러 오라 큰 소리로 외쳤다. 제 품에 안긴 루블라일을 보고 당황한 듯한 고용인들이 자신의 명령에 주치의 조니를 찾기 위해 뛰어가는 것을 보며 공작은 초조하게 아랫입술을 짓씹었다.

" 대체 무슨 일입니까? "

기사, 애그스가 다급하게 물어보자 공작은 짧게 답했다.

" 누군가 에스티론 영애를 습격한 모양이다. 자는게 아니야. 기절했어. 아주 악질이야. 습격 후 나무 위에 던지고 간 것 같다. "

" 뭐라고요?! "

저택은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자신의 주인, 공작님을 스토킹하며 꽤 이리저리 귀찮게 한 그녀였지만, 계속 보며 어느새 미운 정이라도 들은 건지 그 소식을 들은 고용인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어떡해! 들었어? 에스티론 영애가 습격 당하고 누군가 나무 위에 버리고 갔대! 뭐라고?! 그게 사람새끼야!? 그렇게 일파만파 발빠르게 오해가 퍼지는 동안, 공작 저의 주치의 조니가 헉헉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다.

" 일단 가장 가까운 응접실로 가죠! "

조니는 제 가방을 끌며, 응접실의 문을 열고는 에스티론 영애를 소파에 뉘이라며 공작에게 손짓했다. 공작은 조심스럽게 루블라일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조니는 맥을 짚으려다 루블라일의 양 팔에 난 상처를 보고 식겁한 듯 외쳤다.

" 아주 깊게 할퀴었네요! 작정하고 상처입힐려고 한 모양입니다! "

" ... "

그 말에 공작은 일그러지는 얼굴을 막을 수 없었다. 에스티론 백작 가과 원한 관계에 놓인 가문이라도 있었나? 공작은 머리를 빠르게 굴렸지만 대상단을 운영하느라 모든 가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에스티론 백작 가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저었다. 그럼 영애와 개인적인 원한에서 발생한 습격? 공작은 대체 그녀가 누구에게 밉보였는지 곰곰히 생각했으나,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대체 어느 겁없는 자가 에스티론 백작 가와 사교계의 꽃을 건든단 말인가?아. 겁 없는 자라면... 딱 하나 알고 있긴 한데.

...메쉬트 킨 조이날.

' 나에게 공작 부인의 자리를 줘요! 대체 그 하찮은 평민 계집년보다 내가 못 한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조이날과 펙티르라면, 황족도 노릴 수 있는 거 몰라요? '

' 그 입 닥치십시오! 한번만 더 리아님을 그렇게 지칭한다면, 펙티르의 이름을 걸고 조이날을 박살내겠습니다! '

' 하! 황족을 노린단 말보다 그 계집을 욕한 것에 화가 나나요? 다들 미쳤어! 황제 테이거스도, 레쉬블 당신도! 그 년이 뭐라고! '

표독스러운 얼굴의 메쉬트가 떠올랐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메쉬트, 그녀는 황제 폐하와 자신의 계속된 압박에 발톱이 뽑힌 지 오래였다. 그리고 메쉬트가 루블라일을 건드릴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럼 대체 누구지? 공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나오지 않아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한참을 상념에 빠져있었을까, 귓가에 들려오는 조니의 목소리에 공작은 퍼뜩 고개를 들었다.

" 귀족 영애가 영양 실조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팔의 상처 뿐만이 아니라, 다리고 뭐고 할퀸 상처가 가득입니다! 분명 영애를 오랫동안 가둬두고 밥을 굶기며 일부로 괴롭힌게 틀림없어요! "

물론 조니의 가설은 다 틀렸지만, 지금 그 가설이 틀렸다는 걸 아는 이는 거의 기절하듯 꿀잠을 자고 있는 루블라일 밖에 없었다. 정말 눈물나는 일이었다.

" 중독 현상은 없나? "

" 다행히 없습니다만... 그, 공작님. "

" ? "

" 습격을 당하고 나무 위에 버려진게 아니라, 영애가 자력으로 어딘가에서 탈출해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공작 저 근처에 감금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

" 뭐라고? "

" 손바닥을 보니 다 까져있어서... 아마 나무를 타면서 까진 것 같은데, 영애를 감금한 범인이 여기까지 쫓아온게 아닐까 사료됩니다. 그래서 영애가 일단 높은 곳까지 올라오신게 아닐까요? "

조니의 머릿속엔 벌써 막장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듯 하다. 뭔가 그럴싸한 것 같으면서도, 좀만 더 생각해보면 완전 개박살난 추측이란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침부터 일어난 사건에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들은 이곳에 아무도 없었다.

" ... "

공작은 착잡한 눈으로 곤히 기절해 있는 루블라일을 내려다보았다.

" 대체 영애는... "

그렇게 무언가를 말할려던 공작은 말끝을 흐리다가, 이내 굳게 입을 다물어버렸다.

" ? "

여기가... 어디지요?

반짝, 눈을 뜬 루블라일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방의 풍경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 아니 진짜 여기가 어디지요? 내 마지막 기억은 나무 위였는데? 떨떠름해하던 루블라일은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아래를 바라보았다.

" 담요? "

왜 내 몸 위에 담요가 덮여 있으며 심지어 나는 소파에 왜 누워있는지... ? 혼란만이 가득한 머릿 속에 루블라일은 멍청하게 두 눈을 깜빡이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일단 확실한 건 이곳은 에스티론 백작 저택 안도 아니고, 조이날 후작 저택도 아닌 것 같... 근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 곳인데... 어... 뭔가 굉장히 익숙하고도 좋은... 냄새가...

" ! 어니! 공작님 냄새?!?! "

희번뜩!

루블라일은 이 곳에서 공작님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머리카락이 휘날리도록 황급하게 주위를 두리번두리번거렸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여긴..

" 응접실이네! "

캬!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봐! 역시 나야! ... 아니 이게 아니라. 나 왜 여기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맞췄다는 기쁨도 잠시, 루블라일은 왜 자신이 응접실에 있는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아 더욱 더 혼란스러워졌다. 자리에서 일어나 멀거니 있던 것도 잠시, 달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루블라일은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홱 돌렸다.

" .. 영애. "

" ...! ㄱ, ㄱ, 고, 고고공곡곱곰곡공작님!? "

나,난 아직 저 빛나는 얼굴을 볼 마음의 준비가!

갑자기 들이닥친 잘생긴 얼굴에, 루블라일은 직빵으로 심장에 무리가 오는 것을 느꼈다. 크흑! 루블라일은 제 가슴께를 쥐어잡으며 털푸덕 엎어졌는데, 갑자기 공작님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에게 다가오자 더욱 쿵쾅거리는 심장을 멈출 수가 없었다.

" 영애, 어디 이상이라도 있는 겁니까? "

" 시... 심장이.. "

" 심장이요? "

" 흐윽 공작님이 너무 잘생겨서.. "

" 아 네... "

공작의 짜게 식은 얼굴도 잘생겼다고 부르짖는 루블라일을 보며, 공작은 나직히 한숨을 내뱉었다. 공작은 루블라일을 빤히 바라보며 툭 던지듯 그녀에게 물었다.

" 양 팔의 상처는 어떻게 된 겁니까? "

" 아니 진짜 어떻게 뭔 표정을 지어도 잘생.. 예? 아.. 이거요? 이거... 하.. "

루블라일은 신나서 주절주절 떠들던 것도 멈추고 착잡한 표정으로 제 팔을 내려다보았다. 치료했는지 제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저절로 붕대 속에 감춰져있는 상처를 떠올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루블라일의 얼굴을 보고, 공작은 덩달아 착잡한 얼굴을 했다.

" 음... 이걸 뭐라해야하지. 승리의 상처? 영광의 상처? "

그러다가, 고심 끝에 나온 루블라일의 말에 공작은 인상을 쓸 수 밖에 없었다. 그게 뭔 개소리냐는 공작의 기색에 루블라일은 어.. 하고 말끝을 흐리더니, 이내 주절주절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공작에게 쏟아내었다. 루블라일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공작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

.

.

" 그러니까, 결론은 메쉬트 킨 조이날이 얼토당치도 않은 이유로 영애를 몇주간 암살시도했고 그걸 참지 못한 영애가 '단신'으로 조이날 후작 저에 갔다 이 말입니까? "

" 어.. 네... "

" 귀족영애가, 단신으로요? "

" 네..에... "

" 그 조이날 후작 저에? "

" ... "

매서운 공작의 기세에도 공.. 공작님이 날 혼내고 있어... 개쩔어.. 라고 헉헉거리던 것도 잠시, 사납게 눈을 치켜뜬 공작의 모습에 루블라일은 조용히 짜부라졌다.

" 물론 영애가 잘못했단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솔한 부분이 없진 않다는 거, 영애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

" 네... 그 그런데 나름 해피엔딩.. 아무것도 아니에요. "

" 무려 조이날이었습니다, 영애. 차라리... "

공작은 더 말을 덧붙이려고 하다 턱, 하고 무언가가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루블라일의 맞은 편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루블라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 아닙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영애 탓을 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군요. "

" ! "

아 아니 탓하셔도 되는데요 탓해도 잘생겼으니까!

루블라일은 차마 겉으로 말하진 못 하고 마음 속으로만 열렬하게 외쳤다. 그런 루블라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른지, 공작은 몸을 일으키며 루블라일을 슬쩍 보고는 흘리듯 말했다.

" 에스티론 백작 저에는 연락을 넣었으니, 여기에 느긋하게 있다 가셔도 됩니다. "

" ! 지지,ㅈ,진짜요!? 평생을 있다 가도 되나요! "

" 예? "

" 아닙니다. "

재빠른 공작의 정색에 루블라일은 황급히 말을 수습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렇게 잠깐의 어색한 정적이 흐른 후.

" .. 혹시 출출하진 않으신가요? "

" ... 네? 아, 네! 조.. 조금? "

" 식사를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그 말을 남기고 공작은 쌩 응접실을 나가버렸다. 공작의 뒷모습을 보며, 루블라일은 크으., 하고 안타까워했다.

" 내가.. 내가 저 엄청난 뒷태를... 찍었어야했는데... ! "

달칵.

" 한동안 제대로 식사하지 않으신 것 같아 스프로 준비했는데, 괜찮으십니까? "

" 네넷네넫네! "

그 그런데 우리 둘이 같이 먹는단 말은 없었잖아요!

루블라일은 스푼을 꽉 쥐고 긴장으로 인하여 덜그럭거렸다. 내.. 내 맞은 편에 공작님이 있다. 내 맞은 편에 공작님이 포크로 샐러드를 찍었다! 내 맞은 편에 있는 공작님이 입 안에 샐러드를 넣었다! 입을 오물거린다! 귀! 엽다!

아!

루블라일은 공작님의 치명적 귀여움에 자신의 심장이 조상의 얼이 담긴 풍물놀이 비트로 둠뽱탕뽱 뛰는 것을 느끼며 내적 사자후를 내질렀다. 이미 그녀의 손은 지진을 일으키고 있었고 자신이 스프를 먹는지 스프가 자신을 스프가 먹는지조차 가늠할 수가 없었다. 3주동안 그렇게 개고생을 했더니, 갑자기 이런 대형 행운 이벤트가 터지는 건가 싶어 루블라일은 신을 부르짖으며 감사 기도를 했다.

어떻게 입술을 오물거리면서 먹을 수 있지? 정녕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귀여움인가? 아 맞다 공작님은 사람이 아니라 요정인데 날개가 안달렸다고 자꾸 사람으로 착각하네! 아힣!

그렇게 루블라일이 행복한 기분을 만끽하며 우아하게 스프를 원샷 때리던 도중, 한 시종이 벌컥 식당의 문이 열고 들어왔다.

" 공작님! 황궁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

" 황궁? 발신인은? "

" 하네르 리아님이십니다! 리아님의 시녀가 직접 편지를 들고 왔어요! "

덜컹,

그 말에 공작은 곧바로 식사 하던 것을 중지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루블라일은 헉. 하는 소리가 저절로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며 잠시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바로 맞은 편에 있었기에, ' 하네르 리아 '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내내 무표정이었던 공작님의 얼굴이 환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전부 볼 수 있었다.

공작님의 밝은 얼굴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처음 보는 최애의 환한 얼굴이라, 기분이, 좋은데...

울렁.

" ... ? "

갑자기 답답해진 속에, 루블라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가슴을 통통 두드렸다. 내가 좀 급하게 먹었나?

펙티르 공작 저에서 신세를 진 것도 벌써 며칠 전. 에스티론 백작 저택은 황실에서 ' 하네르 리아 '가 보낸 편지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했다. 루블라일은 떨리는 손으로 아까 전에 보고, 또 전에 봤던 편지를 다시 보았다.

{ 루블라일 리브 에스티론 영애께.

안녕하세요, 에스티론 영애. 강녕하신가요? 갑자기 연락을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에스티론 영애와 좀 더 친목을 다지고 싶었기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봅니다. 혹 시간이 괜찮으실 때를 알려주신다면 황궁의 정원에서 다과를 함께하고 싶어요. 이 편지가 영애까 혹여 폐를 끼치는 건 아닐지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네요. 부담 갖지 말고 편히 답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허어어어어어! "

왜 왜 왜 왜 이렇게 귀여워!

루블라일은 침대로 폴짝 뛰어들며 기쁨의 환호성을 내질렀다. 황제의 탄신일 연회에서 하네르를 보고 폴 인 러브한 이후, 차애가 되어버린 그녀를 볼 수 없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게 왠 횡재란 말인가. 루블라일은 편지를 또 한번 읽고는 시시덕대며 올라가는 입꼬리를 멈출 수가 없었다. 이미 이 편지에 대한 답신은 벌써 보냈다. 답신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 아 불러주신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

.. 라는 내용이었다.

밀당에서 당기기 밖에 할 줄 모르는 루블라일 답게, 화끈한 내용이었다. 루블라일은 편지를 품에 안고는 행복에 겨워 히히 웃었다. 루블라일은 조용히 다짐했다. 차애가 자기랑 친해지고 싶다고 했는데 덕후된 도리로써 불도저가 뭔지 보여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 하네르에게서 내일 오후 2시 황궁 본관 쪽 장미 정원에서 뵈었음 좋겠다고 편지가 날라왔다. 루블라일은 또 한번 환호하며 방에서 희열의 댄스를 췄다.

흘끔, 흘끔.

옅은 노란빛의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입고 가볍게 머리를 땋아내린 루블라일이 빠르지만 나붓한 걸음으로 황궁 안에 들어서자 황궁 안의 모든 이들이 그녀를 흘긋 바라보기 바빴다. 화사한 미모와, 화사한 복장, 화사한 미소가 환장의 3박자를 이루며 루블라일을 바라 본 이들의 심장통을 유발했다. 물론 루블라일은 그런 사람들의 사정따위 알 바 아니었다.

통통 튀는 발걸음으로 안내를 맡은 시녀의 뒤를 따라가던 루블라일은, 장미 정원으로 향하던 도중 저 앞에 무언가 익숙하고도 잘생긴 뒷태가 보이자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 ... ? 영애님.. ? "

의아한 시녀의 물음에, 루블라일은 퍼뜩 정신을 차리다가도 퍽 다급했는지 다다다 시녀에게 말을 토해냈다.

" 저기 앞에 보이는게 펙티르 공작님이니.. ? "

" 네, 그렇습니다 영애님. "

" ... 공작님이 지금 장미 정원으로 향하시는게 맞...니? "

" 네. 왜냐하면 펙티르 공작님께서도 리아님에게 초대를 받으셨거든요. "

" .. .?!?!?! 뭐라! "

" 영 영애님?! "

격정적인 루블라일의 반응에 시녀가 당황했는지 영애님을 계속 외쳤지만, 이미 루블라일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여주야! 공 공작님도 초대한다는 말은 없었잖아! 이런 건! 어! 서프라이즈로 해줘서 고맙다 역시 내 차애다!

" 영, 영애님... "

" 아. 아냐, 아냐. 계속 안내해줘. "

간절한 시녀의 목소리가 이제서야 귀에 닿았다. 루블라일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푸르르 고개를 젓고는 최대한 담담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녀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저 앞에 공작님이 먼저 장미 정원의 입구로 발을 들이는 것이 보였다. 공작님.. 오늘 입은 옷이 정말 찰떡 같이 어울리시는군요... 저절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시녀는 뒤에서 들리는 허억허억 소리에 히익! 하고 겁에 질려 황급히 루블라일을 안내한 후 호다닥 사라졌다. 루블라일은 장미 정원으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 헉. "

코 끝은 간질이는 장미향에 루블라일은 저도 모르게 헛숨을 들이켰다. 빨간 장미, 노란 장미, 분홍 장미, 하얀 장미. 색색깔의 다양한 장미들이 한데 어우러져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장관이었다. ‘붉은 색으로’에선 항상 장미 정원에 대한 제대로 된 묘사가 없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장미에 시선이 팔려 멍하니 있던 것도 잠시, 조용히 제 손을 당기는 부드러운 손에 루블라일은 화들짝 놀라며 움찔거렸다.

" 죄, 죄송해요 영애. 제가 놀라게 했나요? "

시선을 내리자 커다래진 호박색의 눈동자가 제일 먼저 보였다. 하네르였다. 루블라일은 갑자기 들이닥친 크리티컬 히트에 어억, 하며 무너졌다.

" 에스티론 영애!? "

"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아님... 단지... 리아님이 너무 귀ㅇ.. 헉! "

그리고 하네르의 뒤엔 공작님이 있었다. 공작은 루블라일 이 곳에 온다는 걸 알고있기라도 했는지, 담담하게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최애캐&차애캐 콜라보에 저절로 정신이 아득해져 쓰러질려는 것도 잠시, 언뜻 뒤에 흩날리는 금빛 머리카락이 보였다. 황제 테이거스였다.

" 아 뭐야... "

" ? 영애 어째 내 얼굴을 보고 그런 말을 한 거 같... "

" 아휴 그럴리가요! 오랜만에 폐하의 얼굴을 뵈니 저 루블라일,너무 기쁘네요! "

전혀 기쁘지 않은 듯한 목소리로 대사를 읊은 후, 루블라일은 힐링을 위해 공작님과 하네르를 번갈아바라보았다. 황제가 왜 여기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애와 차애가 함께 있으니 자연스럽게 헤실헤실 얼굴이 풀어졌다. 하네르는 우물쭈물하더니, 용기를 냈는지 루블라일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고는 아기 토끼마냥 순하게 말했다.

" 영애, 그, 영애가 버터 쿠키를 좋아하신단 말씀을 들어서... 이번에 버터 쿠키를 많이 준비해봤어요. "

" 앗 정말요? 감사합니다, 리아님! "

물론 루블라일은 딱히 디저트의 불호 없이 모든 걸 잘먹었으나 오늘부터 버터 쿠키를 최고의 디저트로 삼기로 했다. 어쩌다 자신이 버터 쿠키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돌았는지는 전혀 이유를 몰랐지만. 루블라일은 하네르가 이끄는대로 아기자기하고 예쁜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다. 티 테이블 위에는 고양이, 토끼 등의 모습을 한 쿠키들이 가지런히 그릇 안에 제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제 마음에 드는지 안드는지를 보기 위해 열심히 눈치를 보는 하네르를 보며 루블라일은 아이구 귀여워라... 하는 훈훈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것도 아주 찰나였다. 제 옆에 자연스럽게 공작님이 착석하자 고장나버렸으니까. 루블라일은 덜덕덜덜그럭거리기 시작했다. 루블라일은 얼른 진정하기 위해 제 맞은편 대각선에 앉은 테이거스를 바라보았다. 음... 짜게 식는걸...

" 에스티론 영애, 아까부터 날 보면서 되게 미묘한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짐의 착각인가? "

" 착각이신 것 같습니다. "

" 그렇군... "

그렇게 오묘한 분위기를 시작으로, 이 자리가 기쁜지 붕방거리는 기색을 숨기지 못 하는 하네르가 이야기를 주도하며 그들은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

.

.

" ... 그래서 말이죠, 리아님... "

" 저, 저기. 에스티론 영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부탁드릴게 있어요. "

" 부탁이요? "

목부터 새빨게진 하네르의 모습에, 루블라일은 하던 말을 멈추고 의아함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옆을 흘긋 바라보니 공작님은 그런 하네르를 아주 사랑스럽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괜히 속이 답답해졌다. 요즘 속이 자주 답답해지네.소화제라도 챙겨먹어야 하나.라고 루블라일은 간단히 생각하며 다시 앞의 하네르에게 집중했다.

" 그러, 니까... "

" 네, 리아님. "

" ㅈ,저,저,절 리아말고, 네네넬리라고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

" ! "

저를 애칭으로 불러달라는 차애 앞에, 어느 덕후가 침착할 수 있을까. 루블라일은 쩍 벌어지는 입을 차마 가릴 생각도 못 하고 어버버거리다가, 이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 네네넥넨네넬리요!? 완전좋아요이럴수가먼저이렇게말씀해주셔서저는너무기뻐서허억억으헉헉저저저도루루루루브라고불러주신다면! "

" 영애.. 숨은 쉬면서 말하게. "

" 정말 기뻐요! 루브! "

환하게 웃는 하네르의 모습에, 루블라일은 어억 소리를 내며 자리에 다시 앉았다. 너무... 너무 귀엽다... 존재 자체가 힐링이다 진짜... 그렇게 속으로 하네르를 찬양하고 있었을까, 하네르의 작은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 그러고보니 레브하고 애칭이 비슷하지 않나요? 친우 두 분이 애칭이 비슷하다니! 루브와 레브. 정말 잘 어울리네요! "

" 퍼으헓! "

'잘어울린다','루브와 레브'이 두마디에 루블라일은 격하게 기침했다. 화끈한 열이 얼굴로 몰려오는게 느껴졌다. 고고공작님하고 애칭이 비슷하다니 세상에 얼굴도 못 본 저의 부모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것도 잠시. 어째 별 감흥 없어 보이는 공작님의 표정에 얼굴의 열기가 조금 가시는 것 같았다.

" 그런가요. 신기한 일이네요, 에스티론 영애. "

" 네? 아, 네... 그러게요. "

...정작 그 애칭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애칭은 커녕 성을 부르고 있단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듯한 공작의 말이 루블라일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게 했다. 루블라일은 머쓱해진 기분에 괜히 제 뒷목을 만지작거렸다. 갑자기 분위기가 미묘해졌지만, 왠지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하려는듯 분위기를 잡는 하네르의 손짓에 그 분위기는 금방 사라졌다.

" 있잖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 불렀답니다. "

" 중대한 발표요? "

" 네! 영애.. 아니, 루브. 좀 이르긴 하지만 루브와 친해진다면 이 자리를 빌어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물론 친한 친구인 레브한테도 해주고 싶은 중요한 말이죠! "

대체 뭐지?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듯한 하네르의 은근한 어조에 루블라일은 공작님을 덕질할 때의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공작님도 바짝 집중했는지,하네르를 뚫어져라 바라보는게 느껴졌다. 루블라일은 긴장을 풀기 위해 쿠키를 집어들고 한입 베어물었다.

" 저, 다음주 수요일에 테이와 결혼식을 올릴 거에요. "

" 드디어 넬리가 정식으로 내 비가 된다니, 난 정말 기뻐. 나처럼 행복한 남자가 또 있을까? "

" 테이도 참! "

툭.

루블라일은 먹던 쿠키를 떨궜다. 메인여주와 메인남주의 결혼식. 그 말에 루블라일은 여태까지 잊고 있었던 사실을 상기해냈다. 손끝부터 뻣뻣하게 굳어가는게 느껴졌다. 차마 고개를 돌려 옆의 공작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

쾅!

옆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반동에, 티 테이블이 잘게 떨렸다. 당황한 듯한 하네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 레브? "

" 속이 좋지 않아서 잠시, "

" 그럼 의원을 불ㄹ...레브! "

공작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네르가 붙잡기도 전에 장미 정원에서 벗어났다. 레브 속이 많이 안좋을까요? 글쎄, 그런 것 같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지 당황한 하네르의 소리와 공작이 왜 저러는지 알고 있는 듯 담담한 테이거스의 소리가 뒤섞여 루블라일의 귓가에서 웅웅댄다. 루블라일은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정신이 아득해졌다.

소설 '붉은 색으로'의 두번째 외전.

공작이 죽는 바로 그 외전.

... 공작은 정확히 하네르와 테이거스의 결혼식 일주일 후에, 하네르에 대한 연모의 감정을 없애지 못해 괴로워하며 자살한다. 내 최애캐가 고인캐라니! 하고 울부짖었던 기억은 어디다 처박았었는지.

" 이게.. 사는 건가? "

이게 정녕... 사는 거란 말인가?

그렇게 공작님이 가버린 후, 제정신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 루블라일 자신도 대충 말을 얼버무려 갖가지 이유를 갖다 대어 황궁에서 탈출했다. 그때 하네르의 시무룩한 얼굴이 걸렸으나, 정말 거기서 더 버틸 힘이 없었다. 그렇게 루블라일은 황궁을 벗어난 후에 바로 에스티론 백작 저택에 들어와 침대에 엎어진 상태다. 정신이 멍했다.

" 야... 어떻게 그걸 까먹지... "

내가... 내가 이러고도 덕후라 할 수 있단 말인가..

루블라일은 폭풍처럼 밀려오는 자괴감에 베개에 얼굴을 묻고 머리를 박았다. 쓸모도 없는 내 뇌세포! 죽어! 죽어! 그렇게 신명나게 자학을 하던 루블라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네르와 테이거스의 결혼식까진 10일정도 남았고.. 아니, 오늘은 곧 끝날테니까 9일정도. 그럼 염병 16일 뒤에 공작님이...

" 아 미쳤나! "

결혼식 일주일 뒤에 그 일이 발생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몇시, 어디서 그렇게 되는지까진 몰랐다. 왜냐하면 루블라일은 공작님이 자살했다는 대목만 보고 책을 찢었었기 때문이었다. 여태까지 그 행동을 후회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줄은.

울컥 올라오는 울음을 참지 못 하고 결국 루블라일은 눈물샘을 폭발시켰다. 이건... 이건 아니된다... ! 이건 아니된다! 차애의 행복과 최애의 불행이 함께하는 결혼식이라니. 이딴게 어디 있냔 말이다!

" 으흐윽! "

풀썩. 베개에 얼굴을 묻고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던 루블라일은 피곤함이 중첩 되어 그대로 자고 싶었지만, 공작님이 미친듯이 신경쓰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수 밖에 없었다.

.

.

.

" 헉! 아,아, 아가씨!? "

" 엉... "

다음날 아침, 시녀 에스나는 루블라일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절하고 싶었다. 아가씨.. 얼굴이... 얼굴이... 어쩐지 어제 나라 잃은 사람마냥 귀가하시더니... 에스나는 차마 뒷말을 이을 수 없었다. 루블라일은 그런 에스나의 낌새를 눈치챘는지, 쉰 목소리로 조용히 읊조렸다.

" 세숫물 좀... "

" 네, 네! "

에스나는 들고 온 따끈따끈한 세숫물이 담긴 대야를 루블라일의 앞에 내려놓으며 안절부절해했다. 진짜 무슨 일이시지? 루블라일이 심히 걱정되고 있었지만, 에스나는 급히 전할 말이 있었기에 걱정은 잠시 마음 속에 고이 넣어두고 세수하는 아가씨를 향해 넌지시 말을 건넸다.

" 아가씨, 사실 어젯밤 아가씨가 귀가하신 후에 리아님의 전령이 왔었는데요... "

" ? "

" 어제 아가씨가 너무 걱정되어서 오늘 오후에 이곳으로 오시겠다고... "

" 퍼어흡! "

루블라일은 세수하다말고 격하게 기침했다. 아 아니 황제도 그렇고 여주도 그렇고 왜 이렇게 서프라이즈 기습 집들이를 좋아해?

하지만 여주는 귀여우니까 용서한다.

" ... 빨리 준비해야겠네. "

" 네... "

짜잔, 그렇게 낮이 되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호다닥 달려가는 시곗바늘에 루블라일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건가하며 한탄하다가도, 하네르가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려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말 다행이게도, 루블라일의 몰골은 시녀들의 빛나는 노력으로 인하여 아침보다 훨 나은 상태였다.

" 루브! "

" 넬리. "

루블라일은 하네르를 최대한 반갑게 맞아줄려고 노력하며, 응접실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장렬하게 쓰러졌다. 왜냐,

" 꺄악! 루브, 괜찮나요?! "

" 으윽 양갈래 최고... "

하네르가... 졸라게 귀여운... 양갈래 머리를 하고 왔으니까!

루블라일은 아... 이 여자가 정녕 날 죽일려고 하는 구나... 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는 파스스 흩어져갔다. 그런 루블라일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종, 맥은 익숙하다는 듯이 루블라일을 부축해서 일으켜세우고, 소파에 앉게 했다. 핫! 루블라일의 정신이 돌아왔다.

" 호.. 호호! 잠깐 현기증이 났네요! 넬리, 여기 앉아요. "

" 현기증이요?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제가 눈치없이... "

"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걱정마요. 아팠으면 미리 넬리한테 연락 넣었을 거예요. 전 멀쩡해요. "

" 그럼 다행이에요..! "

그렇게 마주 앉은 둘은, 에스나가 내온 밀크티를 마시며 하나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 어제 그렇게 루브가 돌아가고 나서.. 괜찮은 건지 걱정되어서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찾아와버렸답니다. 아직도 폐가 아닐지 걱정이 되어요. "

" 폐라뇨. 넬리가 와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

근데 그만큼 속도 타고 있지만.

루블라일은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려는 말과 함께 밀크티를 삼켰다. 하네르를 보고 있자니, 자연스럽게 공작님의 생각도 같이 떠올라서 속이 울렁거렸다. 루블라일은 제 연약한 위장에게 내적으로 오만욕설을 다 쏟아부으며, 소파에 기댔다.

" 그러고보니 결혼식이 다음주 수요일이라고 했죠? "

" 네! "

하네르의 눈이 반짝, 빛났다. 세상의 모든 행복을 모으면 저런 얼굴일까 싶어 루블라일은 저도 모르게 울렁거리던 속이 진정되고, 힐링되는 마음을 느꼈다. 귀 귀여워... 치유된다...

" 그런데 준비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요... ? "

" 아, 2년동안 약혼 기간을 유지하면서, 테이가 조금씩 준비해둔 걸로 알고 있어요! "

" 아... "

어지간히 결혼하고 싶었군. 황제새끼...

볼을 붉히며 환히 웃는 하네르를 바라보며, 루블라일은 납득했다. 하긴, 2년동안 약혼 상태면 어지간히 괴로웠겠네.

" 그리고, 또 이번주에 테이는 온전히 결혼식 준비만 한다고 했으니까요! 다른 일들은 다른 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 착하신 분들인가봐요! "

" 아... ! "

자기 대신 부하들을 일의 노예로 부려먹다 못해 갈아버리겠단 뜻이었다.

루블라일은 조용히 황궁 행정부 소속 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역시 권력이 깡패였다. 아니, 잠깐. 그럼 당연히 공작님도... 일을... 할...

황제 이 개!

" 새! "

" 네? "

" 아 아니 창문 밖으로 새가 날라가네요... "

루블라일은 치미는 분노로 인하여 손이 떨렸다. 황제는 공작님이 하네르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염병 그 하네르랑 결혼식을 하기 위해 원래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공작님한테 떠민다고? 이 천하의 다시 없을 tlqkf새끼... 루블라일은 현란한 영어 욕설을 뽐내며 진정해볼려 했지만, 진정은 개뿔 오백년 치의 분노가 한꺼번에 차올라 숨이 거칠어졌다.

" 루, 루브? 얼굴이... "

" ...네? "

빡침으로 인하여 하네르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루블라일은 방금 뭐라고 말했냔 뜻으로 되물었으나, 차마 갈무리하지 못한 빡침으로 인하여 목소리 끝이 잘게 떨렸다. 하네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 역, 역시 몸이 안좋았군요! 어떡해! 제가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신나서! "

" 네? 아, 아니, "

" 미안해요 루브! 저, 저 이만 가볼테니까 푹.. 푹 쉬어야 해요! 알았죠!? "

" 엇 아 아니! "

차마 루블라일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하네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내가 친구에게 민폐를 끼친거야! 난 바보! 란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녀는 응접실을 뛰쳐나갔다. 루블라일은 허망하게 손을 뻗을 수 밖에 없었다. 어버버거리던 것도 잠시, 필피가 응접실 안에 들어왔다.

" 아가씨. 그, 리아님이 되게 안쓰러운 얼굴로 나가시던데... "

묘한 필피의 눈빛에, 루블라일은 다급하게 외쳤다.

" 아 아니야 내가 안그랬어! "

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게 맞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건 아니라고! 그 뒷말에, 필피의 얼굴이 더욱 더 요상해졌다. 루블라일은 착잡해졌다.

낮에는 하네르라던가, 고용인들이라던가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있었으니 어느정도 신경이 분산됐었지만 밤에는 오롯이 혼자였다. 공작님 생각으로 골치가 아팠다. 환장스러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댕댕댕 울렸다.

" 하... 이걸.. 이걸.. 어찌해야...어찌... "

루블라일은 테이블 위에 엎어져 많은 감정이 담긴 한숨을 내뱉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공작님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는 서랍장으로 향했다. 찬란하게 빛나는 컬렉션들을 보며, 루블라일은 느긋하게 눈을 끔뻑였다. 밤하늘 같이 어둡지만 예쁜 머리카락과 눈동자, 무심한 듯 새초롬하게 치켜올라간 눈매. 보는 사람 아찔할 정도로 잘빠진 눈썹. 치명적이게도 일자로 다물어진 입매... 공작님의 골때리도록 잘생긴 얼굴이 환상처럼 눈 앞에 어른거렸다.

" 아... 아, 아... 아! "

그 순간, 루블라일은 벼락처럼 깨달음을 얻었다. 난 바보야! 그냥... 그냥... !

" 결혼식 끝나고 계속 스토커.. 아 아니 쫓아다니면 되잖아!? "

까짓거 전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치밀하게 쫓아다니면 분명 현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캬! 루블라일은 자신의 천재성에 감탄하며 손바닥으로 제 이마를 탁 쳤다.

공작이 들었다면 조용히 뒷목을 잡고 쓰러질만한 이야기였다.

그렇게 루블라일이 골때리는 결심을 굳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호다닥 시간이 흘러, 대망의 결혼식 당일. 에스티론 백작 저의 시녀 군단은 막 동이 틀 무렵 새벽부터 루블라일을 꾸미기 위해, 방에 들이닥쳤다가 할 말을 잃었다. 이, 이게 다...

" 뭐야... "

며칠 전부터 아가씨가 종이와 잉크, 깃펜을 가득 들고 들락날락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 저... 저 무서워요... "

시녀 군단 중 막내, 베이가 공포에 질려 나직히 중얼거렸다. 방 안에는 무언가 가득 적힌 종이들이 벽에 붙어있던가 흩날리고 있었는데, 그 종이에는 펙티르 공작 저택 내부의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있던가, 평소 공작님이 자주 가는 장소, 또는 황제의 욕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종이들 사이에 파묻혀 루블라일은 기절잠을 자고 있었다. 손에는 깃펜이 꼭 쥐어진 상태였다. 뭔가 무시무시한 집념이 느껴졌다.

시녀장은 침착하게 앞으로 나와 반역죄로 간주 될만한 황제의 욕설이 가득 써진 종이들을 갈기갈기 찢어 베이에게 태우고 오라고 건네고, 공작 저택 내부와, 공작이 자주 가는 장소가 그려진 종이에도 손을 뻗었다가... 그림에서 보이는 엄청난 정성에 다시 손을 거뒀다.

" 그냥... 다음부터... 좀 자제해보심이 어떠냐고 내가 말을 건네보겠다. "

" 시녀장님... ! "

시녀들이 감동에 겨워 울먹였다. 시녀장은 차분함을 유지하며, 종이들을 한켠에 치워두라 하고 어서 아가씨를 깨워 치장 준비를 도우는게 어떻겠냐고 조용히 말했다. 시녀들은 그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 축하드려요! "

" 와아! "

" 만세! "

딱 오늘만 한해서, 황궁 정문 바로 앞까지 평민들에게 개방한다라는 명에 따라 평민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소리높여 국혼을 축하하고 있었다. 황후가 평민이란 소리에 다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지. 황후가 하네르였기에 이렇게 파격적인 황궁 개방을 한 것이겠지만... 혹시 모를 위협 때문에 황궁의 기사들이 3분의 2정도 동원되어 흥분한 평민들을 막으며 철저하게 황궁을 지키고 있었다. 뭐, '붉은 색으로'에선 무사히 결혼식을 잘 마쳤으니 딱히 별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나... 별 일은 후에 생기겠지. 루블라일은 침음했다.

차애의 결혼식이니, 축하해야할 일이 마땅하거늘... 루블라일은 차마 순수하게 축하해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 ... "

" ... "

제 오른편에 있는 공작님이, 누군가 툭 치면 울어버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 환장할 노릇이었다. 좋은 날인데 좋아할 수가 없다니. 루블라일은 반쯤 해탈한 사람의 자세로 허허 웃었다. 젠장.. 젠장 공작님... 공작님 울지마요... 나도 울 것 같으니까...우는 얼굴도 잘생겨서 좋긴 한데... ㅇ.. 아니 나 뭐라는 거야... 결혼식은 황궁의 정원에서 진행하는데, 귀족들은 그 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하얀색 의자에 모두 착석한 상태다. 안타깝게도 자리는 자유 착석이 아니었는데, 하네르가 두 친우분들끼리 맨 앞에 같이 앉아서 이 모습을 지켜봐주셨음 해요! 라고 소망하여 맨 앞 가운데, 공작님과 루블라일이 같이 앉게 되었고... 그렇기에 공작님의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이 루블라일의 눈에 또렷히 보일 수 밖에 없었다.

' 살려줘라 젠장... '

나는... 나는 버틸 수가 없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루블라일은 찌통으로 인하여 제 가슴께를 부여잡았다. 공작님 제발! 그 표정은! 물론 그 표정도 잘생겼지만! 내 마음이 찢어져요 아! 이 답답함을 누구한테 토로할 수도 없었으니, 루블라일의 찌통은 더욱 더 거세졌다. 하지만 이런 루블라일의 속도 몰라주는 야속한 새신부 새신랑은 신나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얼굴에선 꿀이 뚝뚝 떨어졌다. 얘두라..그거 알아...? 사랑은 아주 멋.찐. 거야. 너넨 모르겠지 후.. 라고 말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그런데 확실히 그렇게 자랑할 만한 모습이긴 했다.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올 법한 화사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으니까. 테이거스는 제 금발을 올백으로 깔끔하게 넘긴 채 금실로 화려한 자수가 놓여진 하얀색 웨이스트 코트를 휘날리며 애정을 가득 담은 눈으로 하네르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금실로 자수가 놓여진 하얀 웨딩드레스를 흩날리며, 베일 사이로 언뜻 보이는 하네르의 환한 웃음. 이건... 이건...

" ... "

아...!

루블라일은 결국 공작의 옆 얼굴을 다시 한번 봤다가, 미칠 것 같은 격통을 느꼈다. 공작의 얼굴은 마음 속의 무언가 무너진 사람마냥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 최대한 무표정을 유지할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일렁이는 눈동자와 잘게 떨리는 입가. 꽉 쥔 두 주먹까지. 덕후의 찌통을 유발하는 3박자를 고루 갖춘 최애캐의 모습에 루블라일은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저 쪽에서 결혼 중인 둘과, 맨 앞 하객석의 분위기가 천치차이다.

우중충한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박살내고 싶었지만, 정말 슬프게도 루블라일은 그런 힘은 갖고 있지 않았다. 크흑! 루블라일은 참담한 기분을 멈출 수 없었다. 또 한번 옆을 흘긋 바라보자.

' 헉, '

공작의 꽉 쥔 손이, 얼머나 세게 쥐었으면 이젠 덜덜 떨리기까지하고 있었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지져스 섹시... 핫! 이게 아니라! 우리 공작님 손바닥 다친다! 손톱 파고 들어서 아프겠다! 행동은 빨랐다. 루블라일은 '아프겠다'란 생각과 동시에, 제 손을 뻗어 공작의 왼 손을 감싸쥐었다. 흠칫, 전해져 오는 떨림과 함께 밤하늘 같은 눈동자가 루블라일에게 고정되었다.

레쉬블은 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는 느낌에, 저절로 손에 힘을 풀 수 밖에 없었다. 당혹스러움에 자신 옆에 앉아있는 그녀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저를 말갛게 올려다보는 녹빛의 눈동자에 속이 울렁거렸다. 루블라일은 자신과 달리, 담담한 모습이었다.

' 당신은 괴롭지 않습니까? '

라는 무례한 질문이 튀어나갈뻔 했다. 왜 루블라일에게 괴롭지 않냐고 물어볼려 했냐면... 그래, 루블라일은 황제 테이거스를 사랑하니까. 오죽 그를 사랑했으면 황제를 떠보기 위해 레쉬블 자신을 사랑하는 척까지 할 정도로.

분명, 그럴지언데...

루블라일은 자신처럼 아파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제 손을 감싸쥐며 위로하는, 지독히도 침착한 모양새. 레쉬블은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아주 무례한 짓이라는 것도 잊고 멍하니 그녀만 바라보고 있을까. 루블라일은 움직였다.

도닥도닥.

" ... ? "

루블라일은 자신의 손을 그대로 들어, 레쉬블의 손을 도닥였다. 힘내라는 듯이. 레쉬블은 그 손길에 울컥 하고 무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몸이 잘게 떨렸다. 레쉬블은 꾸역꾸역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고, 고개를 앞을 향하게 했다. 이곳저곳에서 축하의 말을 들으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하네르. 그리고 그런 하네르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주군. 정말 누가봐도 잘 어울린다며 고개를 끄덕일만한 한 쌍. 하... 저절로 입에서 탄식이 나왔다. 그 소리에 자신의 손을 도닥이던 손길이 멈췄다. 레쉬블은 멈춘 손길에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 아. "

입술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왔다.

루블라일은 묘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레쉬블은 깨달을 수 밖에 없었다. 괜찮은게 아니구나.

괜찮은 척 하고 있었구나.

레쉬블처럼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힘들텐데, 그녀는 괜찮은 척하며 레쉬블을 위로하기까지 하고 있었다. 그래. 괜찮을 리가 없었다. 짝사랑하고 있던 남자가 결혼하고 있는데 괜찮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심지어 하네르를 괴롭히기까지 할 정도로 사랑한 사람일텐데. 하네르를, 괴롭히.. 아니. 이건 이미 하네르가 용서한 일이니 나는 묻어두자. 레쉬블은 딴 곳으로 새는 생각에 지그시 두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왼 편에서 제 볼을 찌르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왜 애써 괜찮은 척 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있나.

동질감일까?

동질감이겠지...

동질감에 이어,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척' 하는 중인 남자에게 던져주는 작은 동정심일까? 귓가에 하네르의 맑은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레쉬블은 그 소리에 루블라일의 심리를 파악하던 걸 멈추고, 그냥 편안히 하네르의 웃음 소리를 듣기로 했다.

' 염병... 미친다... '

그리고 한 편, 루블라일은 두 눈을 감은 공작님을 바라보며 마음 속으로 오열했다. 이.. 하네르 밖에 모르는 바보... 순애보... 내 라임 쩔고... 아 이게 아니고!

진짜 어떡해?

루블라일은 방금 전, 저를 바라보며 흔들리던 눈동자가 잔상처럼 눈 앞에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누가 봐도 진득하게 상처 입은 사람의 눈. 허미 근데 그 눈을 내 최애가 하고 있네! 나름 위로랍시고 건넨 도닥임은 그에게 전혀 닿지 않았겠지. 루블라일은 울적해지는 기분에 조용히 손을 내렸다. 그러다가도, 짝! 하고 소리나게 제 양뺨을 내려쳤다. 정신 차려! 마음 굳게 먹는 거야! 공작님... 걱정마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공작님 꼭 살리고 해피하게 해줄게요 으흑!

루블라일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섬찟, 공작은 왠지 모를 오한에 몸을 떨었다.

" 간다. "

저택 내에 비장함이 맴돌았다.

" 지.. 진짜 혼자서 가시게요... ? "

" ... "

" 넷, 네 아무말도 안할게요... "

결혼식이 끝날 무렵, 하네르가 던진 부케가 루블라일의 팔에 맞고 튕겨나가 공작님이 그 부케를 받은 요상한 헤프닝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것 외에는 딱히 별 일 없이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다. 결혼식이 파하고, 루블라일은 저택으로 돌아와 대충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주 익숙하게 갈색 후드를 뒤집어썼다. 용감한 시녀장이 나서 스토.. 아니, 잠행은 좀 자제하시는게 어떨까요? 라고 물었지만 공작님 목숨 앞에 시녀장의 목소리가 닿을 리 없었다.

시녀장의 말을 무시한 걸로도 모자라, 혼자 가겠다 주장하는 루블라일의 말에 모두가 기절하기 일보직전이었으나...

" 딱 일주일만. "

" ... "

" 내가 딱 일주일만 나가고, 그 뒤로는.. "

그 뒤로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루블라일의 말에 집중했다.

" 딱 한달에 한번씩만 나간다. "

" ! "

마법 같은 한마디에 저택 내의 모든 고용인들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네 아가씨! 나가세욧! 하지만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 호신용 마도구 몇개정도는 챙기시고! 모 축구선수급의 태세 전환에, 루블라일은 얼떨떨했지만 뭐 좋은게 좋은 거지! 라고 긍적적인 제 생각을

뽐내며 저택을 나섰다. 루블라일은 이제 에스코트 따윈 받지 않고 마차로 폴짝 뛰어올라 탈 수 있는 신체 능력을 획득했기에, 쿨하게 점프하여 마차에 올라탔다. 마부도 에스코트할 생각 따윈 없었다는 듯 덤덤하게 마부석에 올라 마차를 이끌기 시작한다.

" 술집, 주황고양이 알지? "

"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가씨. "

루블라일은 부드럽게 움직이는 마차의 움직임에 만족스러워하며 자신의 품에서 수첩을 꺼냈다. 사실 아까 낮의 결혼식에서 공작님의 기사인 트레르(루블라일에게 공작님 땀 묻은 손수건을 판매한 좋은 녀석)를 발견하여 냉큼 주머니에 금화부터 찔러주고 오늘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의 공작님의 향후 행방을 물었더니 평민들에게 인기 만점인 술집 '주황고양이'로 향한다는 답을 얻었다. 심지어 에스티론 백작저에서 주황고양이까지의 길도 작은 종이에 약도로 그려주기까지했다. 루블라일은 그런 그가 너무 고마워 그의 주머니에 금화 한개를 더 넣어줬다. 트레르는 헤헤 웃으며 에스티론 영애께서 우리 공작님의 마음을 녹여주실거라 믿습니다! 라는 의미불명의 말만 남기고 떠나갔다.

여튼, 루블라일은 그 약도가 그려진 종이를 제 수첩 안에 껴놓고 있었는데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첩을 펼쳐 멍하니 약도만 바라보고 있었다. 짝사랑 하던 여자의 결혼식 후에 가는 곳이 술집이라니... 아... 마음이 아프다...

똑똑.

" 영애. 주황고양이에 도착했습니다. "

" ! "

루블라일은 문을 열고는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마부는 허허 우리 아가씨 뜀박질 끝내주는 걸..이란 뜻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가 대기하겠다며 마차를 구석으로 몰고 갔다. 루블라일은 뒤도 안돌아보고 화끈하게 술집의 문을 열어젖혔다. 문 근처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잠깐 루블라일에게 꽂혔다가, 후드를 뒤집어 쓴 모습에 흥미를 잃었다는 듯 흩어졌다. 그 와중에 루블라일은 술집에 들어서자마자 기민하게 덕후의 감으로 공작님을 발견했다. 공작은 검은색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진성 덕후의 앞에선 후드따윈 무력했다.

' 아! 구석에서 마시고 있잖아! '

하지만 루블라일은 공작님의 모습에 제 이마를 짚었다. 누가봐도 나...비참해욧...의 분위기를 퐁퐁 흘리는 공작님의 모습에 술집에 있던 몇몇 여자들이 흘끔거리는게 루블라일의 눈에도 보였다. 후드를 뒤집어써도 숨겨지지 않는 쌔끈빠끈한 뒷태의 남자가 흘리는 비참맨의 향기... 누가봐도 좋은 먹잇감이었다.

루블라일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우애애애앵!애애앵!비참한 미남쓰 껴안아주고싶애애애앵! 소리를 우렁차게 울리며 붉게 번쩍번쩍 빛났다. 원래 그냥 공작님 하고 좀 떨어진 테이블에서 술 한잔이랑 안줏거리 대충 시키고 지켜보다가 가야지! 라고 짰던 루블라일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일단 공작님 하고 다섯 걸음 정도 떨어진 테이블에 앉은 루블라일은 종업원에게 적당하게 높은 도수의 술 한잔을 시키고 고요히 공작을 바라보았다.

" 혼자 왔어요? "

" ! "

그리고 바라보기가 무섭게, 근처에 있던 밀빛 머리의 어떤 여자가 공작님에게 접근했다. 루블라일은 눈에 쌍심지를 키며 그쪽을 살벌하게 주시했다.

" 저기, 왜 말이 없어요? 술에 너무 취했나봐? "

" .. 혼자 왔습니다만. 용건이라도? "

술에 취한 듯, 잠긴 공작님의 환장섹시보이스가 루블라일의 귓방망이를 후려재꼈다. 왓 더 지져스! 루블라일은 너무 센 섹시력에 분노하던 것도 잊고 숨을 허덕이며 테이블에 엎어졌다.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 너무 외로워보여서.. 나도 모르게 달래주고 싶었다고 해야하나? 같이 마실래요? "

" 사양하겠습니다. "

" 그렇게 단칼에 대답하면 서운한데... "

"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온 것인데, 같이 마시자고 청을 받으면 꽤 곤란함을 느낍니다만. "

술에 취해도 공작님은 역시 공작님이었다. 예의바르지만 칼 같이 자르는 모습에 루블라일은 최종보스처럼 역시 내 최애군. 후훗. 하고 속으로 뿌듯해하며 종업원이 내민 술잔을 받아들었다. 루블라일은 술을 한모금 들이켰다. 맛이 꽤 괜찮았다.

" 척봐도 실연당한 것 같은데, 이럴 땐 혼자 궁상맞게 있는 것보단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게 더 좋을 걸요. 샌님. "

" 푸허흡! "

그리고 그 맛있는 술을 전부 뿜어냈다. 물론 시끌벅적한 술집이었으므로, 루블라일이 술을 뿜는 소리는 다행히 묻혔다. 저저저저저저젇저적 미미미미친 사람이 뭐뭐뭐라고 지지지지지껄인? 뭐라고? 지? 껄인? 궁상? 샌님? 새로운 만남? 척봐도 실연? 루블라일은 머리끝까지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 그리고 그건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

그러다가도, 싸늘하게 일갈하는 공작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루블라일의 열이 푸쉬식 식기 시작했다. 캬 역시 우리 순애보! 맞아!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지! 공작님은 일편단심 하네르 뿐이라고! 일편단심.. 하네르...

울렁.

" ? "

한모금 마신 술도 다 뿜어냈는데, 대체 왜 속이 울렁거리는지 모르겠다. 루블라일은 안되겠다. 역시 울렁거릴 땐 술이지! 라고 기승전술로 결론을 내리며 주욱 술을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시원한 술이 위장에 직빵으로 떨어져내려갔다.

" 어머. 귀여운 도련님. 그렇게 차갑게 구니까 실연당한거 아닐까나? "

" 케허흑! "

그러다가도 또 뿜었지만. 아니 저 여자 입이 얼마나 자유로운 거야 대체... ? 이쯤이면 공작님을 꼬실려 하는 건지 시비를 털려는 건지 구분도 안 갈 지경이었다. 루블라일은 슥 제 입을 닦으며 긴장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돌아올 공작님의 사이다를 기대했다.

" ... "

그런데 어째, 들리는 소리가 없었다. 루블라일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는 것을 느꼈다. 루블라일은 고개를 돌려 공작이 있는 쪽을 보았다. 후드를 뒤집어썼지만 얼굴 아래의 예쁘게 쭉 뻗은 입매와 유려한 턱선이 눈에 먼저 박혀들어왔다. 공작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이내 다시 입을 다물었다. 술잔을 든 공작의 손이 잘게 떨렸다. 마치 울음을 참는 사람처럼.

그 순간, 루블라일은 분노로 꼭지가 돌아버린다는게 뭔지 경험할 수 있었다.

탕!

루블라일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여자와 공작이 있는 자리로 걸어갔다. 루블라일의 두 눈이 희번뜩 빛났다.

" 야! "

사나운 여자의 목소리가 술집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다들 알다시피, 루블라일의 목소리였다. 술집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루블라일에게 꽂혔다. 밀빛 머리의 여자는 저를 사납게 바라보는 녹빛의 눈동자에, 갈색 후드를 뒤집어 쓴 이가 저에게 소리를 지른 것을 바로 알아챘다. 여자는 당황했는지 눈을 깜빡이며 루블라일을 쳐다보았다. 옆에 있던 공작도 놀랐는지, 멍하니 루블라일을 바라본다.

" 허... 이봐요. 술 취했으면 그냥 곱게 가지 그래요? "

여자는 루블라일을 술에 취한 진상 손님이라고 생각한 건지, 비웃듯 그녀를 아래 위로 훑으며 실소를 흘렸다. 그 시선에 루블라일은 오랜만에 조상 대대로 물려져 온 전투의 민족 한국인의 피가 들끓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루블라일은 어떻게 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아주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 내가 술에 취했으면 이렇게 곱게 입으로 떠들고 있을까. 너부터 저세상으로 보내줬겠지. "

" 뭐라.. "

" 아까부터 듣자듣자하니 못 듣겠어서 말한다. 누가 실연을 당해? 어! "

" 아니... "

" 내가 좀 자기한테 심하게 말한 거 같아서, 눈치보다가 사과하고 집에 데려갈려 했는데 왠 주둥아리 자유분방한 여자가 빡치게 하네! "

그렇다. 원래 말싸움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다.

루블라일은 그렇게 여자를 몰아붙이며, 여자가 그 무슨 말도 내뱉지 못 하게 했다. 술집의 사람들은 그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쳐다보며 팝콘을 주문했다. 술집 주인은 오르는 매출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 입 그렇게 놀리면 재미 없을 줄 알아. 알아들었어?! "

" 지금 무슨.. ?! 아ㄴ, "

" 자기야 뭐해! 가자! "

루블라일은 공작에게 손짓했다. 공작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지, 어버버거리며 루블라일의 손짓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작은 당혹스러운 듯 떨리는 눈으로 루블라일을 바라보았다가, 간신히 입술을 달싹여 소리를 냈다.

" 영ㅇ, 읍. "

" 쉿. 자기. 네 마음 다 알아. 사랑의 속삭임은 이따 집에 돌아가서 들려달라고. "

하지만 그 소리는 루블라일의 손으로 인하여 다시 목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평소 루블라일 같았으면 아 아닛 어떻게 공작님의 옥체에 이 미천한 제가 손을 댑니까! 라고 하며 벌벌 떨었겠지만, 지금의 루블라일은 약간 술 취함+매우 빡침 상태였다. 즉, 무적이란 소리다. 루블라일은 맨 정신이었으면 감히 해내지 못 했을 공작님 입 틀어막기 스킬을 시전하고는, 이내 자연스럽게 공작의 손목을 붙잡고 이끌었다. 물흐르듯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다.

어이! 예쁜 사랑하라고! 다음부턴 싸우지말고!

그렇게 술집 사람들의 훈훈한 덕담을 들으며, 루블라일은 공작을 손목을 잡은 채 박력넘치게 술집 문을 걷어차고 나왔다. 그리고...

" 죄조지죄죚죅죄송합니다! "

찬바람을 맞자마자 돌아오는 제정신에 루블라일은 공작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우렁차게 사과했다. 내 내 내가 무슨짓을?!?! 루블라일은 아직 알딸딸한 상태였기에, 허겁지겁 말을 쏟아냈지만 말의 두서가 없었다.

" 그, 원래 저도 그냥 눈에 띄는 술집이어서 술 좀 마시다 갈려했는데, 아니, 허, 고곡공작님 목소리가 들려서, 의도치 않게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 "

" ... "

공작은 묵묵부답이었다. 루블라일은 조급함에 두다다 또 한번 말을 내뱉었다.

" 자기야, 라는 호칭은 상황을 타파할려다 보니, 저어얼대 주제 넘게 공작 부인이 되겠단 포부는 아니고요... 좋긴 한데, 아 뭐라니! 저 진짜 진짜 공작님이 넬리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 으니까..요... "

울렁.

'공작님이 넬리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말을 내뱉으며, 또 한번 뒤집어지는 속에 루블라일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 아니 진짜, 왜 요즘 공작님이 하네르를 좋아한단 것만 생각하면 속이 이러지? 마치 질투하는 사람처럼!

" .. 어? "

잠시만, 뭐?

질투... 뭐... ?

덜컥.

무언가 내려앉는 느낌에 루블라일은 말하던 것도 멈추고 그대로 굳었다. 잠시, 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 미, 친. "

루블라일은 공작에게 변명해야한다는 것을 잊고 나직히 욕설을 내뱉으며 주춤주춤 뒷걸음질쳤다. 질, 투? 질투? 질투? 내가? 내가... !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앞에서 공작님이 무어라 말할려는듯 숨을 들이키는게 보였지만, 루블라일은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었다. 루블라일은 계속 뒷걸음질치다가, 공작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그대로 몸을 돌려 뜀박질했다.

" 에스티론 영애!? "

뒷통수에서 놀란 듯한 공작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루블라일은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레쉬블은 그런 루블라일의 뒷모습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 희대의 멍청이가 존재한다면.. 그게 바로 나 아닐까.. ? "

" 뭔 소리세요? "

" 아니야... "

헤헤.. 헤... 헤... 흐흑!

멍하니 웃던 루블라일은, 이내 오열했다. 그 기묘한 행태에 고용인들은 아가씨가 또 저런다며 익숙하게 무시하고는 각자 할 일을 하기 위해 루블라일 곁을 떠났다. 얘들아... 너네 너무 무심해... 루블라일은 볼 위로 무언가 흐르는 것 같지만 무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흐윽 이 현대인들! 이라며 우렁차게 소리치고는 냉큼 계단을 올라 제 방으로 들어가 세게 문을 닫았다.

" 파허... "

그리고 짜잔. 지옥의 현실자각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루블라일은 제 방문에 이마를 쾅쾅 박았다. 내가! 내가 질투를! 그것도 차애캐를 질투해! 정녕 사람새끼인가! 아! 왜 질투를?! 무엇 때문에 질투를!?!?!?! 공작님 때문에 질투를!

" 와아아악! "

내가 공작님 때문에 하네르를 질투했다아악!미쳤나봐아아악! 루블라일은 2분의 1박자로 현란하게 이마를 박아대며 괴성을 질렀다. 밖에서 고용인들이 ' 펙티르 공작님 외모는 세계제일! ' 이라고 소리쳤지만 안타깝게도 정신이 나간 루블라일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 흑, 흐흐흑... "

루블라일은 제 이마로 고문하던 방문을 놓아주고는, 욱씬거리는 이마를 부여잡으며 바닥에 엎어졌다. 푹신한 카펫의 감촉이 느껴졌지만, 지금의 루블라일로선 그 카펫의 감촉을 느낄 새도 없이 비통함에 빠져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 "

내가 최애캐를 현실로 하도 접해서 덕후의 마음가짐이 박살났나봐... 덕심이 이상하게 변질해버렸어...참고로 스토킹 한 시점부터 이상하게 변질했다는 걸 루블라일 본인만 자각을 못 하고 있다. 루블라일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몸을 돌려 벌러덩 바닥에 누웠다.

'붉은 색으로'의 서브 남주 레쉬블 프라이티아 펙티르. 서브 남주. 서브. 염 병 서브! 온리 여주 러브 서브남주!

" 아! "

또 한번 밖에서 '펙티르 공작님 외모는 세계제일!'이란 외침이 들려왔지만, 루블라일은 팡팡 카펫이 깔린 바닥을 내려치기 바빴다.

"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

나는... 그냥... 최애가 행복하길 바라는... 소소한 덕후였을 뿐인데... 내가.. 내가... 연애감ㅈ..

" 어아아아! "

공작님에게 연애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루블라일은 제 성량을 자랑했다. 고용인들은 그냥 포기했는지 밖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루블라일 자신의 목소리만 귓가를 웅웅 울리는 상황에서, 루블라일은 카펫에 얼굴을 박았다.

" 안돼, 안돼, 안돼... "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공작님은 서브 남주고, 영원히 하네르만 사랑할테니까. 애초에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서 외전에서 자살한 것 아니었나.

" ... 아. "

생각하고 나니 좀 많이 비참해졌다. 자신도 모르게 연애감정이 깊어지기라도 한 모양이지. 루블라일은 나직히 실소하며, 손을 들어 제 눈을 꾹 눌렀다. 정신 차리자.

" 공작님은 내 최애캐고, 나는 그냥 최애캐의 죽음을 막으려는 것 뿐이다. "

막 자각한 감정을 억지로 내리누르며, 루블라일은 자기세뇌를 시도했다. 그래, 중요한 건 지금 이 감정이 아니니까. 최애캐의 죽음을 덕후가 안 막으면 누가 막겠어! 이딴 감정은 얼른 공중분해 시키고 공작님 스토킹이나 열심히 하자!

뭔가 결론이 이상하게 난 것 같지만, 루블라일은 제법 정신을 차렸는지 벌떡 일어나며 화이팅 자세를 취했다.

1시간씩 쪽잠만 자며 버티던 것도 벌써 10일째. 루블라일은 지끈거리는 두통을 무시하며, 또 저택을 나섰다. 주위의 고용인들은 그러다 아가씨 쓰러진다며 울고불고 오만 난리를 피웠지만, 루블라일은 지옥의 철벽을 보여주며 눈썹 한번 까딱이지 않고 꿋꿋하게 마차를 타고 펙티르 공작 저로 향했다. 9일동안 공작님이 황궁'바로 자택 귀가의 길을 밟았기에 내릴 수 있는 길 선택이었다. 고용인들을 따라 마부도 걱정스러워 했지만, 루블라일은 담담하게 가라고 했다.

" ... "

지끈, 지끈.

계속되는 두통에 루블라일은 느릿하게 숨을 토해내며 오만상을 썼다. 아... 진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내가 공작님 일만 해결되면 집에 틀어박혀서 일주일 내내 잠만 잘 거야 진짜...

" 억! "

길가에 돌이라도 있었는지 덜컹거리는 마차에 루블라일은 생각 하던 것도 멈추고 격하게 신음했다. 아! 자동차는 언제 발명되는 거야! 마도구가 이렇게 많은데 자동차 한대 정도는 나와줘도 되잖아! 잠을 자지 못해 한껏 예민해진 루블라일은 신경질을 내기 위해 마차의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소리 쳤다.

" 돌 있는지 없는지 좀 잘 봐! "

" 헉, 네. 아가씨... 죄송합니다. "

마차를 모는 마부가 돌멩이 하나하나 살필 수 없단 사실을 알면서도, 루블라일은 치밀어오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단순한 분풀이라는 것 도 알고 있다. 루블라일은 괜히 마부에게 화를 냈나 찝찝했지만, 사과하기엔 이미 타이밍이 늦었기에 한숨을 푹 쉬고는 이번 달 말에 보너스나 넉넉히 챙겨주자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을 마치자마자, 밖에서 마부의 혼잣말이 들려왔다.

" 엥? 저 첨탑 위에 사람인가.. ? 별 일이네. 높아서 웬만한 사람들은 얼씬도 안하는데. 보수 공사라도 하는 사람인가... ? "

" ...?"

무언가 쎄한 느낌이 들었다.

루블라일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위쪽을 바라보았다. 올려다보는 목이 아플정도로 까마득한 높이의 첨탑. 그 중간쯤에 보이는 사람의 인영. 펄럭이는, 검은색 후드...

" ... "

루블라일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기에 있는 사람이 공작님이란 걸.

미친듯이 덜덜 떨리는 손을 무시하고, 루블라일은 마차를 세우라며 소리쳤다. 마부는 화들짝 놀랐는지 다급히 마차를 세우며 무슨 일이나며 제 아가씨에게 물었지만 들려오는 답은 없었다. 루블라일은 이미 마차에서 뛰어내려 첨탑을 향해 뛰고 있었으니까.

" 젠장, 젠장, 젠장! "

첨탑이었어! 그것도 공작 저 근처의!

루블라일은 첨탑까지 죽어라 뛰며 치밀어오르는 욕설을 참지 못했다. 마부의 혼잣말을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루블라일은 저절로 오싹해지는 전신에 고개를 푸르르 떨며 거세게 뜀박질 했다. 아무생각 없이 첨탑 앞에서 서서 계단으로 가기 위해 문을 열어재꼈다가, 퍼뜩,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올라갈동안 공작님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황급하게 품에 쓸만한 마도구가 없나 확인해봤지만,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안전하게 받아내는 마도구가 있을 리 없었다. 루블라일은 거칠게 제 머리를 헤집으며, 위를 향해 쩌렁쩌렁 소리쳤다.

" 거기 위에 있는 사람! 내가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

그리고 말을 끝내자마자, 첨탑 안으로 뛰어들어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두세칸씩 한꺼번에 뛰어오르며, 루블라일은 없던 힘도 짜내어 미친듯이 계단을 올랐다. 숨이 턱끝까지 차도 멈추지 않았다. 폐에 공기가 부족해 머리가 어지럽고, 배가 조이고, 심장도 쿵쾅거렸지만 루블라일은 멈출 수가 없었다. 아 염병 왜 엘리베이터가 없어! 루블라일은 불안함에 속으로 성질을 확 내며, 열심히 올라갔다.

일단 위를 향해 소리치긴했지만, 공작님이 들었다는 보장도 없었고 설사 들었어도 제 말을 따라줄거란 보장도 없었기에 루블라일은 미칠 것만 같았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루블라일은 아까 공작님이 서있었던 중간층까지 올라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루블라일은 테라스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 헉, 공, 작님.. "

루블라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한 단어를 쥐어짜냈다. 산소가 모자라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보자, 공작이 난간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 위험, 해, 요... 거기, 거기 있지말고... "

" 에스티론 영애. "

제법 날카로운 목소리가 루블라일의 말을 끊었다. 퍽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루블라일은 흠칫 놀라며 두 눈을 깜빡였다. 자신이 아무리 귀찮게 굴어도 이런 목소리는 들은 적이 없었기에, 루블라일은 더욱 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 영애. 이대로 못 본 척하고 뒤돌아서 다시 가십시오."

" ...네? "

" 못 들었습니까? 이대로, 못 본 척하고 뒤돌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

" 왜, 왜 그런 말을 해요? "

" 영애는 이미 눈치 채신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까요? "

밤바람에 후드가 펄럭이며, 공작의 싸늘한 얼굴이 드러났다. 밤잠을 설치기라도 했는지 짙은 다크써클에 퀭한 얼굴. 루블라일의 손끝이 뻣뻣하게 굳었다.

" 어차피 영애랑 상관 없는 일 아닙니까. "

" ... "

" 그냥 가십시오. 솔직히 이 말을 하는 것도, 매우 피곤하니까... "

" ... "

" 그러니 제발,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돌아가세요. "

공작의 목소리 끝이 잘게 떨렸다. 매우 지쳐보였고, 그 누구도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모습을 바라보며 루블라일은 소설 속 문장들을 봤을 때보다, 공작이 훨씬 더 괴로워했음을, 괴로워하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렇기에, 루블라일의...

" 싫어요! "

눈물샘이 펑 터져버렸다.

루블라일은 성난 들소마냥 공작에게 돌진했고, 공작은 갑작스레 일어난 상황에 두 눈을 크게 뜰 뿐이었다. 루블라일은 그렇게 돌진해서, 그대로,

"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왜! 허어어어어엉! "

" ?!?!? "

공작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다. 당혹스러운 공작의 표정은 보이지도 않는지, 루블라일은 눈물콧물 다 짜내며 자신의 엄청난 악력으로 바짓가랑이를 찢어버릴듯이 세게 쥐었다.

" 흐어허어어어엉! 가지마요 갈거면 날 밟고 가! 밟아도 좋긴 한데! 아니 이게 아니라! "

뚝뚝, 세상에서 제일 서럽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며 루블라일은 횡설수설 말을 쏟아내었다. 반쯤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중간중간 헛소리를 빙자한 진심도 튀어나왔지만, 다행히 루블라일과 공작은 그 말을 자각하지 못 했다.

" 으흐그흐흑! 절대 못 가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허어엉! "

"... 왜, "

정신 없는 울음소리 속에서, 나직한 속삭임이 들려온다. 톡. 위에서 물방울이 정수리에 떨어졌다. 루블라일은 고개를 들었다.

"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말리는 겁니까? "

레쉬블이 그녀를 내려다보며, 울고 있었다. 루블라일은 멍해지는 기분에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던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 당신은,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

감정이 북받쳤는지, 짧게 끊기는 말에 루블라일은 귀를 기울였다.

" 단순히 폐하의 마음을 끌기 위해, 좋아하는 척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않습니까... "

" ? 뭐요? "

" 그러니까, 영애는 전부터 폐하를 연모하고 있었고 그런 폐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저를 좋아하는 시늉을... "

" 뭐요! "

루블라일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레쉬블의 바짓가랑이를 내팽겨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물 맺힌 밤하늘 빛 눈동자가, 놀란 듯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루블라일은 그 강력한 공격에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으나, 방금 들은 헛소리를 다시 상기해내고는 그 미친 오해를 풀기 위해 입을 열었다.

"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요? "

" 아니, 그, 그냥 영애는 전부터 폐하를 연모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럴거라고... "

" 저 폐하 싫어하거든요?!?! "

" ? "

의문의 1패를 한 테이거스는 뒤로 제치고, 루블라일은 어이가 승천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에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 아니, 하,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폐하를! 하필 폐하를! 오해를 해도! 폐하를! "

" 저 저기... "

" 아니 어떻게 그럴수가!?!?! "

" 그... 그렇지만. "

" 그렇지만 뭐요!? "

레쉬블은 루블라일의 사나운 기세에 눈물이 쏙 들어갔는지, 볼에 남았던 제 눈물을 손으로 대충 쓸어내리고는 조심조심 말을 건넸다.

" 폐하를... 연모하고 있어서, 하네르에게도 그런 짓을 한 것 아닙니까. "

" ! "

아! 루블라일 이 새끼는 도움이 안되요!

루블라일은 자학 아닌 내적자학 쇼를 펼치며 하핫! 나의 스윗헕트! 황제새끼를 좋아한 건 전의 루블라일이랍니다 짜잔~! 서프라이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삐쭉 땡기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러는 와중에도 레쉬블의 환장할 말은 계속해서 들려왔다.

" 그리고 영애가 폐하를 연모하고 있다는 건 전부터 유명ㅎ... "

" 아 내가 좋아하는 건 공작님이라고요! "

".. ? ... ? "

" 헉. "

미친.

루블라일은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말은 내뱉고 난 후였다. 어버...어버버버... 루블라일은 입을 틀어막은 채 허망하게 서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 멍하니 바라보며 서있었을까, 드디어 루블라일이 내뱉은 말의 의미를 이해한 레쉬블이 무언가 말하려는듯 입을 뻥긋거리자 루블라일은 황급히 제 목소리를 높였다.

" 아아니! 연애감정 아니거든요?!?! 그 뭐냐 뭐시기 그! 단순한! 존경?!?! 경애!?!?! 아니 이 고귀한 단어들로 표현하기엔 내 마음이 쪼까 음흉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

팬심! 팬심! 젠장 팬심을 알아들을리 없지!

루블라일은 제국의 신조어 현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제 새하얀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 여 여튼 연애감정은 절대 아니니까요! "

" ... "

" 공작님이 넬리를 좋아한다는거 저도 알고 공작님도 알고 하늘이 다 아는데 어떻게 제가 공작님한테 연애감정을 갖겠어요! 가지면 그거야 말로 호구지 호구... 호...ㄱ... "

근데 내가 가졌네... ?

변명을 하다가, 갑작스레 맞이한 자각타임에 루블라일의 머리가 띵 울렸다. 내가... 가졌네... 내가...

" 쓰으으읍...하... "

루블라일은 착잡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쉬었다가 내뱉었다. 여전히 레쉬블은 그녀를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루블라일은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마인드 컨트롤을 시전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아니잖아!

레쉬블의 미친 오해 때문에 이야기가 이상하게 새긴 했지만, 원래의 목적을 상기해낸 루블라일은 멍해 보이는 레쉬블의 손목을 잡고 안쪽으로 이끌었다. 루블라일의 말이 뒤죽박죽 섞여 어지러워하고 있던 레쉬블은, 루블라일이 자신을 이끈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순순히 이끌렸다.

달칵.

" 앗, "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레쉬블은 그제서야 루블라일이 자신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왔음을 눈치챘지만 루블라일은 테라스로 향하는 문 앞에 떡 하니 버티고 서있었다.

" 큼,큼. 제 존경 어린 뜬끔없는 고백이 문제가 아니라... 공작님, 그... 방금 전 할려고 한 거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

" ... 그러니까 영애에게 있어서 저는. "

" 네? "

" 저는... 그, 경애하는 소중한 사람이란 겁니까? 제가 그런.. 시도를 할려고 한 것만으로도... 영애가... "

" 아까 저 눈물 콧물 다 짠거 못봤어요?! "

" ... "

단 한 문장으로 레쉬블의 입을 딱 막아버린 루블라일은 아까 전 난간에 기대고 있었던, 지쳐보이고 위태위태해 보였던 레쉬블의 모습은 전부 사라지고 단지 우물쭈물 거리며 묘하게 혼란스러운 기색이 미처 가시지 못한 레쉬블의 모습에 자신이 버럭 성질 낸 것도 잊고 아! 이 잘생긴 사람... 귀엽다! 라고 내적 오열을 하며 이마를 짚었다.

" 의도치 않게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애. "

" 음.. 그럼 이제 그런 건 다시는 안하시는 거죠? "

" .. 예. "

" 앞의 그 2초 정적은 뭔가요!? "

" 아니요, 그건... 잠깐 생각할게 있어서. "

미심쩍은 듯, 루블라일은 테라스로 향하는 문 앞에 더욱 단단히 서있으며 레쉬블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에 레쉬블은 정말이라며, 다급하게 말하고는 나직히 뒷말을 덧붙인다.

" 영애 덕에 엄한 생각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힘든 건 변하질 않네요. "

한숨과도 같은 말에, 루블라일은 심각한 격통을 느꼈다. 이.. 이 답없는 순애보 같으니라고... 루블라일은 레쉬블을 마주보며 또박또박, 천천히 큰 목소리로 말했다.

" 공작님. 음... 제가 뭐라 함부로 말하긴 어렵지만, 그냥... "

" 그냥? "

" 시간이 약이지 않을까요. 뻔한 말이긴 한데. "

이렇게 말하는 루블라일조차도, 정말 레쉬블이 하네르에 대한 연모의 감정을 잊을 수 있을지 긴가민가했지만 일단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먹히는 말을 던졌다. 레쉬블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 곰곰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 하지만 저는, 그 기약없는 기다림이 두려워서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

그래, 공작님이라고 그걸 몰랐을까? 단지 하네르에 대한 마음이 너무 깊어 도저히 언제 없앨 수 있을지 가늠조차 안갔으니까 그랬었겠지. 루블라일은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점점 우중충해졌다. 루블라일은 이런 분위기가 싫었기에, 짝! 하고 박수를 치며 퍽 발랄하게 외쳤다.

" ...그렇겠죠. 그럼 뭐, 잊을 동안 딴 생각할 틈도 없을 정도로 저랑 공작님이랑 환장하게 놀아볼까요?! "

" 네? "

" 아니 뭐, 세상은 넓고 놀 껀 많으니까... 괜히 우울해질 때 불러주시면 폐하의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데요! ...무우우울론 공작님이 저랑 노는게 재미없다고 생각되면... 어쩔 수 없는...거지만... "

이것저것 붕방붕방거리며 신나게 말을 늘어놓던 것도 잠시, 얼떨떨해보이는 레쉬블의 모습에 루블라일의 목소리가 슬그머니 작아졌다. 결국 의기소침하게 말을 마무리 한 루블라일은 슬쩍 레쉬블의 눈치를 보았다. 레쉬블은 작게 아, 소리를 내며 입술을 달싹였다.

"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 아 진짜요!?!?! "

빵긋!

루블라일은 급 태세전환을 하며 누구보다 환하게 웃어보였다. 아싸! 공식적 스토킹을 허락받았다! 그런 루블라일의 음흉한 속내를 눈치채지 못한 레쉬블은 여상하게 이어서 말했다.

" 영애는 이상... 아니, 유쾌한 면이 있으니 확실히 같이 있으면 주위가 밝아지니까요. "

" 헉 부끄러웟... "

공작님이 나..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니!

루블라일은 감격하여 흡! 소리를 내며 제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던 것도 잠시, 어느정도 상황이 마무리되었단 생각이 들어 루블라일은 이제 이곳을 벗어나자며 레쉬블에게 손짓했다.

" 얼른 내려가요! 이제 첨탑은 지긋지긋해... "

" 알겠습니다, 영애. 천천히 내려가세요. "

그 손짓을 바라보며 레쉬블은 루블라일을 따라 느릿하게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가도, 잠시동안 테라스로 향하는 문을 흘긋 쳐다보았다. 오늘은 정말 많을 걸 생각하게 되는 날인 것 같다며 혼자 실소를 흘리곤 다시 시선을 바로했다. 그런데...

" 에스티론 영애? "

10일동안 1시간씩 쪽잠만 자며, 하루종일 누군가를 쫓아다니기 위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그로 인해 한동안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15층 정도 되는 계단들을 뛰어 올라오고 울고불며 소리를 쳤다가, 이제 모든게 끝났단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

" ... 영애! "

쓰러진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던 루블라일이, 실이 끊긴 인형마냥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자 레쉬블은 다급하게 손을 뻗어 루블라일을 끌어당겼다. 콰당! 큰 소리가 나며 둘은 뒤로 나동그라졌다. 알싸하게 올라오는 고통에 레쉬블은 나직히 앓는 소리를 내고는 제 품 안의 루블라일을 살펴보았다.

" 에스티론 영애, 괜찮습니까? "

" ... "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대로 기절이라도 한 건지,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레쉬블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 아이고 아가씨! "

에스티론 백작 저는 한바탕 뒤집어졌다. 레쉬블의 품에 안긴 채 실신하여 돌아온 루블라일의 모습에 드디어 펙티르 공작이 지나친 스토킹을 참지 못하고 아가씨의 멱을 따버렸다며 시녀장이 대성통곡했다. 뒤이어 다른 고용인들도 줄줄이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아가씨 그래도 월마다 보너스 챙겨주는 착한 주인님인데! 그들의 오해에 레쉬블은 몇시간동안이나 그게 아니라며 해명해야 했다.

" 느으어어아어억... "

루블라일은 격하게 앓는 소리를 내면서 부스스하게 일어났다. 온몸이 찌뿌둥하고, 머리카락은 이리저리 뻗쳐 있고. 루블라일은 내가 잠을 험하게 잤나, 싶어 몸을 풀기 위해 기지개를 주욱 폈다.

우드드득.

" 어억! "

그리고 장렬하게 엎어졌다.

척추부터 찌잉, 하고 올라오는 고통에 루블라일은 찔끔 눈물이 맺혔다. 아니 아무리 잠을 험하게 자도 그렇지! 기지개 한번 폈다고 사람이! 이렇게 아플수가! 허으어억! 온몸에서 우득 뿌득 별 소리가 다 나기 시작하자 루블라일은 나 죽네! 하고 소리없이 앓으며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던 와중,

" 헉! 아가씨! "

에스나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며 루블라일을 보고 놀란듯 소리질렀다. 그러더니 멍청한 얼굴로 두 눈을 연신 비비다가 곧 펑! 하고 눈물을 터뜨리며 루블라일에게 달려들었다.

" 허어으어아아엉 아가씨! "

" 어억! "

에스나의 장렬한 몸통박치기에 루블라일은 심각한 데미지를 받고 쓰러졌다. 하지만 그런 루블라일의 사정따위는 봐주지 않겠다는 듯 에스나는 있는 힘껏 루블라일을 꾸아아악 껴안았다.

" 커헉.. 억... "

" 흐윽! 아가씨 3일이나 안 일어나셔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

" 영원히 못일어날 것 같... "

" 어머나! "

숨이 넘어가는듯한 루블라일의 한마디가 들리자, 에스나는 화들짝 놀라며 루블라일에게서 떨어졌다. 그러고는 우리 아가씨 죽으면 안된다며 또 한번 펑펑 울었다. 루블라일은 안그래도 죽겠는데 에스나의 때 아닌 통곡에 골때림을 느끼며 에스나를 토닥였다. 어느정도 에스나가 진정이 되자 루블라일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다.

" 그런데 내가 3일이나 못 일어났다고? "

" 네에, 3일 전에 기절한 아가씨가 펙티르 공작님 품에 안겨서 저택에 들어오신 걸 보고 시녀장님이 아가씨가 공작님한테 드디어 살해당하신 줄 알고 얼마나 우셨는데요... "

" 아니 뭘 또 울고 그... 뭐! 공작님 품에?!?! 안겨?!?! 내가?! "

" 네 넷... "

" 아이고! 내가 왜 기절해가지고! "

공작님의 지져스 스멜을 느낄 수 있었는데!

통한의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루블라일은 침대를 팡팡 내려치며 눈물을 훔쳤다. 에스나는 그런 루블라일의 모습을 보고 짜게 식었는지 제 볼에 남아있던 눈물자국을 제 소매로 꾹꾹 눌렀다. 그러고는 더 이상 루블라일의 행동을 보기 힘든 듯 얼른 아가씨가 드실만한 스프를 가져오겠다며 호다닥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에스나가 방 밖으로 나가던 말던 슬픔을 곱씹던 루블라일은, 이내 침대에 드러누웠다.

" 히힉. "

그리고 웃었다.

" 떼히히힉! "

또 웃었다.

누군가 본다면 드디어 미친거냐며 한 소리 할 모습이었다. 하지만 루블라일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옆의 베개까지 끌어안고 으흫흐흐학학! 하고 크게 웃기 시작했다.

" 공작님 살았다! "

작가새.. 아니 작가님 보이세요!? 내가 염병 작가님의 거지 같은 외전을 갈아엎었답니다! 보이세요!? 보이냐고! 내가 승리자다! 루블라일은 포효하고 싶은 기분을 어찌저찌 억누르며 침대 위에서 데굴데굴 굴렀다. 아 공작님 무병장수 만수무강이다!

" 에히히히히히힉! "

" ... "

" 엇... "

그리고 또 한번 희열의 웃음을 지었다가, 열린 방문 사이로 시종 맥과 눈이 딱 마주쳤다.

" ... "

" ... "

달칵.

루블라일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 에스티론 영애가 깨어나셨답니다. "

" ...그래, "

집사장이 전해 온 소식에, 레쉬블은 들고 있던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루블라일은 3일이나 잠들어 있었다. 무려 3일! 에스티론 백작 저의 시녀장에게서 들은 말은 더 가관이었다. 10일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으며 공작님을 쫓아다녔다고. 심지어 호위도 없이.

평소 같으면 자신을 쫓아다녔다는 말에 더 집중하며 불쾌함을 표현했겠지만, 희한하게도 일주일이 넘는 기간동안 제대로 된 식사와 수면을 취하지 못 했단 사실이 더욱 신경쓰였다.

... 혹시, 레쉬블 자신이 엄한 생각을 했다는 걸 눈치채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걸까?

데구르르. 레쉬블은 펜을 굴리며 퍼뜩 드는 생각에 제 미간을 사정없이 찌푸렸다. 그런 레쉬블의 불편한 심기를 눈치챈 건지, 집사장은 조용히 레쉬블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 누구한테 온 거지? "

" 리아님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

그 말에 레쉬블은 페이퍼 나이프를 들어 편지봉투를 뜯어내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결혼식 이후로 보지 못했으니 황궁으로 놀러오는게 어떻겠냐는 소리였다. 레쉬블은 가만히 편지의 내용을 바라보다가 이내 지그시 두 눈을 감았다. 말간 얼굴에 반짝이는 호박색 눈동자. 자신을 보며 환하게 짓는 미소. 정말, 보고 싶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하네르를 마주하기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밀려오는 씁쓸함에 픽 바람 빠진 소리를 내던 것도 잠시,

' 그럼 뭐, 잊을 동안 딴 생각할 틈도 없을 정도로 저랑 공작님이랑 환장하게 놀아볼까요?! '

퍽 발랄한 목소리가 불현듯 떠올랐다. 사교계의 꽃이란 영애가,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안하고 뛰어올라오느라 머리는 산발이 되어있었고. 그 와중에도 마치 자신과 레쉬블이 노는 것을 상상하기라도 했는지 얼굴은 반짝반짝 빛나서... 레쉬블의 얼굴이 저절로 부드럽게 풀어졌다. 그는 편지를 집사장에게 건네며 읊조리듯 말했다.

" 이번에 일이 있으니 다음에 가겠다고 해. "

" ... ! 예, 알겠습니다. "

꽤 놀란 것 같은 기색을 미처 갈무리 하지 못한 집사장은, 공손히 편지를 받아들었다.

" 하네, 아니. 황후.. 께선, 신혼을 즐기시는게 더 좋겠지. 나는 에스티론 백작 저에게 갈 채비를 하겠다. 연통을 넣도록. "

" ... 예. "

우리... 순애보 주인님이 드디어... .!

집사장은 에스티론 영애에게 무한한 감사를 마음 속으로 표현하며, 정갈하지만 빠른 걸음걸이로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 ... 뭐? "

" 이번에는 선약이 있으시기에, 다음에 오시겠다고... "

" 그, 그래.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

"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할 일인 걸요! "

하네르의 물음에 명랑하게 답한 시녀는, 이제 제 일을 보러가라는 하네르의 말에 허리를 숙이며 물러났다. 넓은 방에 혼자서 우두커니 서있던 하네르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커다란 호박색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혔다.

" 말도 안돼... "

서럽다는 듯이, 울먹이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퍼졌다. 하네르는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 레브.. 왜? "

레쉬블 프라이티아 펙티르는, 여태껏 단 한번도 자신의 말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단 한번도. 설사, 선약이 있더라도 전부 파토낸 뒤 누구보다 빠르게 자신에게 달려오는 친우였다.

처음 당한 거절에, 하네르는 어쩔 줄 몰라하며 그저 울 뿐이었다. 대체 그가 왜 거절한 건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 루브, 네 집에 갔군요... "

" 네에. 에스티론 영애가 몸이 안좋아서 쓰러졌었는데 3일만에 일어나셨대요! "

" 그래요? 난... 그것도 모르고. "

말을 전해준 시녀가 방 밖을 나가자, 하네르는 조용히 침대에 걸터앉았다. 레브가 루브를 걱정해서 간 것이니 당연히 둘의 사이가 좋아졌다고 기뻐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왜, 나보다 우선으로?

하네르는 아까 전 울었던 것 때문에 빨개진 눈가를 꾹 누르며 의문에 빠졌다. 그리고... 루브는 왜 나한테는 일어났다는 연락을 안준걸까?루브도 나랑 친구 아니였나... ? 레브도, 그냥 나한테 같이 루브네 집에 가자고 했어도 되는 문제 아닌가? 왜 굳이 선약이 있다고.. 날...

" 너무해... "

또 한번 눈물이 차올랐다. 하네르는 울렁거리는 속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 왠지 따돌려지는 기분이었다. 레브가 자신을 거절했고, 루브는 자신한테 일어났다는 연락도 해주지 않고...

" 테이가 보고싶어... "

결국 하네르는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곳은 에스티론 백작 저.

" ... "

" ... "

정적 속에서, 루블라일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리는 눈으로 제 앞의 레쉬블을 바라보았다. 아 오늘도.. 잘생겼다! 역시 공작님이다! 뒤지게 잘생겼다! 눈만 빼꼼 내놓은 채 샅샅이 레쉬블의 얼굴을 감상하였다. 당연히 하악허억거리는 거친 숨소리도 함께 했다. 레쉬블은 무언가 익숙한 데자뷰에 큼큼, 헛기침을 하며 루블라일의 주위를 끌었다.

" 에스티론 영애. "

" 네,넷. "

" 그.. 몸은 괜찮으신가요. 3일만에 깨어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 네! 쌩쌩해요! "

사실 영 별로였는데 공작님의 쩌는 외모를 보고 회복했답니다! 루블라일은 튀어나올려는 뒷말을 억지로 삼키고는 눈동자를 데구르르 굴렸다.

" 그럼 왜 이불을.. "

쌩쌩하다면서 왜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만 내놓고 있냐는 레쉬블의 타당한 물음에, 루블라일은 제 얼굴을 감싸고 있던 이불을 호다닥 내려놓았다. 왠지 직접적으로 레쉬블을 바라보면 공작님의 데드플래그 제가 뽑아재꼈다구욧~!~!~! 하고 감격하며 소리칠 것 같은 기분에 이불로 스스로를 제어하기 위해 방어막을 쳐놓은 거였으나, 공작님이 의문을 제기하자 바로 방어막 따윈 포기했다.

이불을 벗어던져 부스스해진 루블라일의 새하얀 머리카락을 바라보던 레쉬블은, 조용히 손을 뻗었다.

" 잠시. "

" ?!?!허뜨떠헉?!?! "

그리고 그대로 루블라일의 머리카락을 조심히 쓸어내리자, 루블라일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신박한 경험을 하며, 갓 잡은 생선마냥 격렬하게 파드득 뛰어올랐다. 그 격한 몸놀림에 레쉬블은 더더욱 놀라며 머리카락에서 손을 뗐다.

" 죄송합니다, 혹시 기분이 나쁘셨습니까? "

" 허브허...헙..흐억... "

안타깝게도, 방금 전의 크리티컬 어택으로 인하여 루블라일에게 대답할 여력따윈 남아 있지않았다. 루블라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 허억.. 그, 그냥 좀... 졸라게 설레.. 아 아니 놀라서... 흐허업...저얼대, 절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

아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루블라일은 울고 싶어졌다. 연애감정따윈 곱게 접어 하늘 위로 보내고 하핫 까짓거 최애랑 돈독한 우정 좀 쌓아볼까! 했는데 왜 자꾸 이런 공격을 가해서 자신의 마음을 디스코팡팡마냥 흔들어재끼는지.

물론 좋지만!

진짜 좋지만! 다시 한번 말하는데 뒤지게 좋지만! 너무 공격이 강력했다. 연애감정을 제거할려는 자신에게 있어서 좋지 않.. 은게 아니라 좋긴 한데 여튼 감정을 제거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했다. 루블라일은 한껏 열이 오른 제 볼을 양손으로 꾹꾹 눌렀다.

" 기분이 나쁘지 않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미리 말하고 정리해드려야겠군요. "

" ?!?! 뭐 뭐요! "

'앞으로'?!?! '''''앞으로'''?!?! 왜 왜 공작님이 앞으로도 제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건데요!?!?! 어!?!?!?! 아니 왜 이러세요 오늘따라!?!?! 누 누군가 공작님으로 위장하고 이곳에 들어온 건가!? 아니, 아니. 저 잘생김은 그 누구도 위장할 수 없는데!? 루블라일은 격한 혼란으로 인해 얼굴 전체가 화끈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급하게 손부채질을 하며 얼굴을 식히기 위해 부던히 노력했으나 머릿속에서 동동 떠오르는 '앞으로'란 글자에 계속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잠시만.. 혹시... 날 심장마비로 암살하기 위해?

그러던 와중, 퍼뜩 떠오른 그럴듯한 가설에 루블라일은 손부채질을 멈췄다. 가능성... 있어... 하긴 내가 오죽 쫓아다녔어야지... 공작님의 완전 쩔게 착한 성격 상 날 직접 죽이기핸 뭐해서 좀 행복하게 제거할 생각인가?

그렇게 루블라일이 레쉬블이 들었음 대체 뭔소릴 하는거냐고 기함할만한 상상을 할 동안, 레쉬블은 제 앞에서 부산스럽게 얼굴을 붉혔다가, 손부채질을 했다가, 또 갑자기 하얗게 질러던가 하는 루블라일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루블라일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지금 레쉬블은 그녀를 꽤 귀엽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존경한다고 외친 첨탑에서의 루블라일을 떠올리며.

그래. 존경한다는 사람이 머리카락을 정리해준다고 했으니 부끄럽겠지. 레쉬블은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으며 루블라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레쉬블 자신도 검술 스승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을 때 기쁘기도 하면서도... 이유 모를 민망함에 꽤 부끄러워했으니까.

물론 루블라일이 레쉬블을 존경이라는 순수하고 깨끗한 감정이 아니라 연애감정을 비롯하여 오만가지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백작 저 고용인들도 알고 공작 저 고용인들도 알고 지나가던 고양이도 알고 있었지만, 레쉬블을 루블라일이 첨탑의 테라스에서 '공작님에게 존경이나 경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만 귀신 같이 알아들어 그걸 철썩 같이 믿고 있었다. 루블라일이 알았다면 환장하겠다며 난리칠 이야기였다.

여튼, 그래서 그런지 레쉬블은 제법 따스한 시선으로 루블라일을 바라볼 수 있었다. 무려 여태까지의 스토ㅋ... 쫓아다닌 것도, 아! 에스티론 영애가 날 존경해서 그렇게 쫓아다닌 거구나! 하는 파워긍정의 힘으로 납득했기 때문이었다. 하네르의 말대로 루블라일과 친구가 될 생각도 가득이었다. 그렇게 레쉬블이 한참동안 생각을 하며 루블라일을 바라보던 와중에도 루블라일은 혼자서 바쁘게 얼굴색을 바꾸며 파닥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어렸을 때 키웠던 키티가 생각나 레쉬블은 또 한번 손을 뻗었다.

톡.

레쉬블은 키티를 쓰다듬었던 것처럼, 루블라일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다고 했으니 괜찮겠지. 레쉬블은 태평하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 어법.. 어버벅..어버버버버... "

그리고 루블라일은 고장났다.

끼이약

끼야아악

끼야어아아악

끼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루블라일은 내적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했다. 세계의 열이란 열은 다 끌어모아 얼굴로 쏠려 얼굴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머릿속은 어질어질했다. 아니 미친 공작님.. 공작님...공...작님... 어억...끼약...아아악... 이건...이건 너무...저에게...강력한...아악...

후욱후욱, 거친 숨소리가 입술을 비집고 튀어나갔다. 그에 루블라일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길이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느릿하게 움직였다. 루블라일은 딱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다.

" 고곡, 공... 공...곡고공...작...님... "

이러지...마세요...뒤질 것 같으니까...

차마 끝맺지 못한 뒷말을 삼키고는 루블라일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죽을 것 같았는데, 레쉬블의 잘생긴 얼굴까지 봐버렸다간 3423415167퍼센트 기절할 각이었다. 루블라일의 손이 덜덜덜 떨렸다. 아.. 안돼! 더 이상 쓰다듬을 당했다간 연애감정 잊기고 뭐고 다 작살내고 구애의 춤을 출 것 같다!

루블라일은 덜덜 떨리는 손을 위로 올려, 제 머리를 쓰다듬고 있던 레쉬블의 손을 턱 잡았다. 오지는 손의 단단함과 도드라진 손등의 핏줄이 느껴지자, 루블라일은 오매애애액! 하고 방정 맞게 소리지르며 레쉬블의 손을 내팽겨칠뻔 했지만 간신히 꾸역꾸역 참아내고는 레쉬블의 손을 잡아 끌어내렸다.

" 그그그, 그만, 쓰다듬어도, 될 것, 같아요... "

" ...아. 죄송합니다. 왠지 저도 모르게... "

" 아니 죄송할 것까진 없고 사실 나이스하긴 한데... "

제.. 제 심장이 연약한 탓입니다 공작님 사과하지마세요... 크흑! 루블라일은 눈물을 삼키며 레쉬블의 손을 놓았다. 단단했던 손의 감촉이 아직도 손가락 끝에 남아있어서 두쾅두쾅 뛰는 심장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 정녕 공작님은 손까지 잘생겼단 말인가... 어떻게 이럴수가... 감정 잊기가 가능하긴 하단 말이냐... 그렇게 루블라일이 급작스럽게 현실 자각 타임을 가질 동안, 레쉬블은 레쉬블대로 이유 모를 깨달음 타임을 갖고 있었다.

에스티론 영애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의 유형이로군.

헛소리가 잦은게 이상하긴 했지만, 그 헛소리의 마지막 말이 항상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 화법은 레쉬블 한정의 화법이었지만 레쉬블은 모르니 넘어가도록 하자. 여튼 루블라일은 같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기분을 유쾌하게 해주는데에 재능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하면 편안했다.

하네르와 대화할 때랑은 다르게. 하네르와 대화할 때는 항상 긴장을 곤두세우며 제 마음을 들키지 않게 억누르느라 온몸에 진이 다 빠졌었는데 루블라일과 이야기 할 때는 정반대로 굉장히 느슨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루블라일은 거센 심장의 비트로 죽을 것 같고 레쉬블은 평안함을 느끼는 기묘한 분위기가 방 안에 흐를려는 찰나...

쾅!

" 아가씨! 급보입니다! "

시녀장이 노크도 없이 방문을 거세게 열어젖히며 외쳤다. 다급한 시녀장의 얼굴에 루블라일도, 레쉬블도 화들짝 놀라 모두 그쪽을 쳐다보았다. 시녀장은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 무례를 저질러 정말 죄송합니다. 그... "

"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인데? "

루블라일로서는 무례고 뭐고 이 죽을 것 같은 분위기를 깨준 시녀장에게 감사한 기분을 느낄 뿐이었다. 루블라일은 쿨하게 시녀장의 무례를 용서해주고는 용건이 뭐냐며 되물었다.

" 조이날 후작님께서, 오늘 오전 중에 마차 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

" 뭬!? "

" 시신을 수습 후, 오늘 밤에 조이날 후작 저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니 모든 귀족분들은 참여를 바란다며 급보가... "

" 아니 이 미친 악역이 기어코! "

" ?! 영애, 조이날 후작의 사고에 대해 뭔가 짚이시는 바가.. ? "

" 아 아뇨.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

루블라일은 간접적으로 자신이 메쉬트에게 후작 암살 시도를 권했다는 걸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색을 끌어모아 루블라일은 계속해서 부정해야만 했다.

" 대체 어쩌다... "

" 마차를 이끌던 마부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말들이 통제를 벗어났대요. 마부가 원래 지병이 있었던 걸 숨기고 있었나봐요... "

" 세상에,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조이날 영애만 불쌍하게 되었네요. "

조이날 후작 가 소속의 집사장에게 안내를 받아 저택 안으로 발을 들인 루블라일은, 온통 검은색 옷을 입은 귀족들이 이곳저곳에서 소근대는 것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루블라일은 있는 힘껏 저들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으나, 자신의 목숨도 매우 소중한 루블라일이었기에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수근거리는 사람들 속, 메쉬트가 처연한 얼굴을 한 채 한 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루블라일은 보았다. 메쉬트의 입가가 씰룩거리는 것을.

' 아 미친... 기뻐하고 있다... '

심각한 골때림을 느끼며, 루블라일은 손으로 제 이마를 짚었다. 조문객으로써 온 것이니 무시할 수도 없고. 메쉬트에게 말을 걸어야한다는 사실이 루블라일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 이럴 때 공작님이라도 계셨으면 두려울게 없었을테지만, 안타깝게도 공작님은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 준비 후 이곳으로 온다고 했으니 공작님이 이곳에 도착하신다면 한참 뒤가 되겠지... 루블라일은 침을 삼키며 발걸음을 옮겼다.

" 조이날 후작님께 평안을. 영애, 안녕하세요. "

" 제 아버지께 평안을. 안녕하세요, 에스티론 영애. "

딸의 뒷수작으로 인해 가버렸으니, 조이날 후작이 평안해질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루블라일은 애써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인삿말을 건넸다. 메쉬트는 어째 루블라일이 자신에게 말을 걸자 묘하게 더 밝아진 얼굴이 되었다. 메쉬트는 퍽 다정하게 웃어보이며, 루블라일의 귓가에 나직히 속삭였다.

" 영애의 혜안 덕에 제가 많은 걸 얻게 됐네요... "

" 히이이익... "

뒷목부터 쫙 올라오는 소름에 루블라일은 덜덜 떨었다. 루블라일은 메쉬트의 시선을 피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 작전을 실행했다.

" 무,무,무슨 소리신지.. 모르겠네요 호호홋... "

" 어머, 그때 영애가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읊어볼까요? "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

그리고 작전은 실패했다.

루블라일은 제 눈에서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아아...메인 악역...메쉬트여... 당신은 너무 강력해요... 메쉬트는 루블라일에게 제법 친근하게 팔짱을 꼈다. 루블라일은 다시 한번 히이익 하고 공포에 질린 소리를 내뱉을 수 밖에 없었다.

" 에스티론 영애. 모두가 여길 주목하고 있는데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않길 바라요. 저와 당신은 이미 한 배를 탔고, 그냥 절 위로하는 척이나 하세요. "

" 무슨 영애와 제가 한 배를... 아,아니... 조이날 영애... 너무.. .심려치 마세요 조이날 후작은... 조조조좋은 곳에 갔을 겁니다... "

메쉬트의 헛소리에 루블라일은 저도 모르게 발끈하며 반박할려했으나, 시퍼렇게 뜬 메쉬트의 눈을 마주하고는 기계적으로 대사를 말했다.

솔직히 황제와 공작님을 꼬시지 못했다고 딸을 화병으로 내리치는 아버지가 좋은 곳에 갈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좋은 곳에 갔을 거라는 대사를 착실히 읊었다. 그런 루블라일의 태도가 마음에 들은 것인지, 메쉬트는 상큼하..게 웃을려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제법 안쓰러운 얼굴로 웃었다.

" 고마워요, 에스티론 영애... 영애가 위로해주니 힘이 좀 나네요. 아 참. 에스티론 백작님과 백작부인은.. ? "

" 아, 부모님께선 베트론 영지에 계셔서... 그 곳에서 조이날 후작의 평안을 바라고 있으시답니다. "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사망이었기에, 지방에 있는 귀족들은 위로의 편지만 보내고 장례식에 참석은 하지 않는다. 조이날 후작 저택 근처, 즉 수도의 귀족들만 참석하여 장례식을 진행해야했다. 아직도 에스티론 백작 부부를 마주하지 못한 루블라일로서는 다행인 일이었다.

" 그렇군요. "

루블라일의 말을 들은 메쉬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또 조문객이 왔는지 열리는 저택의 문을 바라보았다. 황제 테이거스와 황후 하네르였다. 메쉬트의 안색이 단박에 사나워졌으나, 이내 철저한 무표정을 고수하며 그들의 앞으로 갔다. 루블라일은 살았다! 라고 속으로 외치며 슬금슬금 팔짱을 풀고 메쉬트에게서 떨어졌다.

" 조이날 후작에게 평안을. "

" 제 아버지께 평안을. 제국의 태양이 영원히 빛나길. "

" 조이날 후작에게 평안을. "

" ... 제 아버지께 평안을. "

평민 출신인 하네르가 황제와 동등하게 후작을 낮추어 부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메쉬트의 말이 한박자 늦게 흘러나왔다. 미처 갈무리하지 못한 사나운 기세에, 하네르는 테이거스의 뒤로 숨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돌자, 모든 귀족들의 눈이 하네르와 메쉬트에게로 쏠렸다. 루블라일은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았다. 하네르와 메쉬트. 여주인공과 메인 악역... 둘은 지독할 정도로 상극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상극이라기보단... 살해 미수범과 살해 미수 피해자의 관계지만. 메쉬트 앞의 하네르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사람마냥 안색이 창백해졌다. 황후의 지위를 가졌으니 고위 귀족인 후작의 죽음을 위로하러 오지 않을 수는 없었을 터. 그래도 역시 무섭긴 무서웠는지 잘게 떨고 있었다. 그렇게 숨막히는 대치가 지속되는 와중, 테이거스가 손을 들며 주위를 끌어 팽팽한 분위기가 깨졌다.

" 아직 도착하지 못한 펙티르 공작과 벨리엇 백작은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니 슬슬 장례식을 진행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후작 영애. "

"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묘하게 후작 영애에 힘을 주어 발음하는 테이거스를, 메쉬트는 잠시 물끄러미 봤다가 미련없이 몸을 돌려 떠났다. 후작 영애 주제에 황후에게 덤비지 말라는 뜻이겠지. 루블라일은 탁 풀리는 긴장감에 뻐근해진 목을 가볍게 돌렸다.

" ... 루브. "

" 아, 넬리. "

장례식을 진행해야 하는 메쉬트가 떠나자, 하네르가 루블라일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말간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하네르의 모습을 쳐다보며, 루블라일은 저절로 편하게 풀어지는 마음을 느꼈다. 아이고 귀여워라... 하지만 아까 전 메쉬트의 기세 때문인지 하네르의 얼굴은 영 편치 못 했다.

" 루브. 저... 상담할게 있어요. "

" 뭔데요? "

우물쭈물 하는 하네르가 너무 귀여워서 루블라일은 누구보다 상냥한 어조로 물었다. 울 애기... 무얼 상담할려구... 내가 다 해결책을 제시해줄게 말만해... !

" 원래 항상 저를 우선으로 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저와의 약속을 깼어요. 그 친구에게 있어서... 저는 이제 소중한 사람이 아닌 걸까요? "

" 앗, 그거 공작님 이야기죠? "

" 헉! 티, 티가 났나요? "

하네르를 항상 우선으로 할 친구라면, 공작님 밖에 더 있겠는가. 루블라일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착실히 대답했다.

" 에이,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죠! "

" 어..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넌 메인 여주고, 공작님은 서브 남주니까.

그걸 떠올리자마자, 무언가 꽉 막힌 듯 답답해지는 속에 루블라일은 제 가슴을 두들겼다. 아! 루블라일 이 멍청아! 차애한테 질투하면 어떡해! 진정하자! 잠시 제 속을 다스리며, 루블라일은 태연한 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 그도 그럴게, 넬리는 지금 폐하와 신혼이잖아요! 공작님은 분명 다른 사람 핑계를 대서 두분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

" 그... 그런 걸까요? "

" 그럼요. 폐하와 그렇게 알콩달콩하는데, 그걸 어떻게 방해하겠어요! "

" 그렇구나... "

루블라일의 명쾌한 답변에, 하네르의 안색이 단번에 환해졌다. 루블라일은 그런데 하네르가 도대체 왜 이런 걸 묻는 걸까? 하고 잠깐 동안 의아해졌긴 했지만, 이내 그냥 친한 친구가 약속을 깨서 서운한 거겠지. 라고 단순히 결론을 내리며 시선을 바로 했다.

" 다행이다. 내가 우선이었구나... "

하네르는 볼을 붉히며, 행복한 듯 웃었다.

그렇게 조이날 후작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메쉬트가 자신이 후작 작위를 물려받겠다며 나서 한동안 사교계가 떠들썩했다. 처음에 황제, 테이거스는 기를 쓰고 반대했지만 메쉬트가 또 어디선가 기가 막히게 뒷수작을 부린 건지 결국 작위 승계를 인정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여자가 작위를 받는 일이 드문만큼, 메쉬트가 무려 후작 작위를 받았단 소식은 온 귀족이 들썩일만한 핫이슈였으나,

루블라일은 그것보다 배는 더 중요한 핫이슈에 반쯤 정신을 놓은 상태다.

" 헤힉... "

" 아가씨.. 그렇게 좋으세요? "

" 히히헤헤헤헥... "

그렇다. 레쉬블에게서 오늘 열리는 라넌큘러스 축제에 같이 가자고 연락이 온 것. 그때 루블라일이 첨탑 위에서 공작님이 딴 생각 할 틈도 없이 저랑 공작님이랑 환장하게 놀아볼까요? 라고 외쳤던 부분을 편지에 언급하면서 말이다.

루블라일은 연락을 받자마자 아 당근빳따가취가야죠! 를 외치며 행복에 젖어 뒹굴거리고 있었다. 라넌큘러스 축제. 소설 '붉은 색으로'의 본편에서 하네르와 테이거스의 첫만남이 거기서 이뤄졌었지. 수도의 광장에서 오만 꽃집들이 제 집의 라넌큘러스를 끌고와 광장이 라넌큘러스 꽃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 루블라일은 실실 웃었다. 그곳을! 내가! 공작님과! 잇쇼니! 간다고!

" 에헤헥! "

" 아가씨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쁘네요! 당장 오늘 오후죠? 공작님과의 데이트. "

" ~!~! 데데데데데덷데이트라니?~?~?!?~?!~! 그런거 아니야~!~!~! 누가 들음 오해하겠다~~~!~!~! "

에스나의 탁월한 단어선택에, 루블라일은 헤벌쭉 찢어지는 입을 어찌할 줄 모르며 누가봐도 환장하게 좋아하는 얼굴로 열심히 부정했다. 아니 뭐 라넌큘러스 축제에 대부분 연인들이 같이 가는 거긴 하지만! 호홋! 호혹! 아이! 아이 참!

" ~!~~~~!~! "

연인~!~!~!~!~ 아! 진짜! 연애감정! 없애야 하는데! 공작님이 안 도와주네! 하 참 정말 참! 루블라일은 자신이 떠올린 단어에 격하게 베개를 패며 부끄러워했다. 그 격한 부끄러움의 표현 행동을 바라보던 에스나는 옅게 웃음을 터뜨리며 노래하는 듯한 어조로 루블라일에게 말을 건네었다.

" 그럼 이제 슬슬 다른 시녀들까지 불러서 치장 준비를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

" 응, 그러자! "

" 오늘 축제에서 아가씨가 제일 예쁘게 보이도록 힘낼게요! 아니, 사실 안꾸미셔도 아가씨가 제일 예쁘시긴 하지만! "

" 그, 그그그렇게 말해도 보너스 안준다 너~!~!~~ 우리 에스나, 요즘 힘들지? 까짓거 이번달 월급 두배로 줄까? "

"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월급 두배를 노리고 한 말 같잖아요! 두배까진 필요 없고 한 1.5배면 될 것 같아요! "

" 아휴 요 깜찍한 자본주의자! 알았다! 그렇게 챙겨줄게! "

파하핫!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훈훈한 대화를 마무리하며, 그들은 후다닥 준비에 착수했다.

" 와...아가씨, 오셨나요 요정이 강림하셨나요... "

" 쩔어요... "

이번 축제에서 루블라일의 호위를 맡은 소세리와 주엔이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그도 그럴게, 지금 루블라일의 모습은 엄청났다. 연한 파스텔 톤의 분홍빛 원피스가 루블라일의 가늘고 하얀 발목 언저리에서 봄바람에 살랑이고, 원피스와 색상을 맞춘 듯한 핑크 토파즈 귀걸이와 목걸이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머리는 한쪽으로 땋았는데,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코랄빛 리본과 함께 땋아내려서 하얀색 머리카락 중간중간에 리본이 제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녹음을 먹은 두 눈동자는 기대를 가득 품고 반짝거린다. 그런 제 주인의 환한 얼굴을 보며 소세리와 주엔은 축제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연분홍빛 라넌큘러스가 사람으로 변한 것 같다며 서루 앞다투어 칭찬을 퍼부었다. 루블라일은 또 한번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 너희들도 보너스를 원하는군! 좋아! 준다 보너스! "

" 아 우리 아가씨 최고다! "

환희의 외침을 뒤로 하고, 루블라일은 어서 광장으로 가자며 마부를 재촉했다. 마부는 아가씨의 사랑이 대박 터지길 기원하며 말을 몰기 시작했다.

" ... 꺄아.. .악... .악... "

" 아가씨! 정신차리세요! "

그리고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하늘빛 셔츠를 바탕으로 루브라일의 악세서리와 같은 보석인, 핑크 토파즈가 장식 되어 있는 하얀 베스트를 입은 채 손을 내미는 레쉬블을 보고 루블라일은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아... !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리는 너란 최애... ! 이즈...퍼펙트! 루블라일은 호위기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실비실 몸을 일으켰다.

" 공작님... 오늘도... 잘생기셨군요... "

" ... 아,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애도 아름다우십니다. "

" 떠흑! "

조금 떨떠름해 보이는 레쉬블의 표정은 보이지도 않는 건지, 루블라일은 '영애도 아름다우십니다'라는 대목에서 침몰했다. 레쉬블은 그런 루블라일의 모습을 보며, 익숙하다는 듯 감격에 겨워 떨리는 루블라일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쥐었다. 루블라일의 입술 사이로 헉! 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축제를 즐기러 가자는 듯이 웃음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루블라일은 저절로 침을 꿀꺽 삼켰다.

...언제부터 공작님이 나를 저렇게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

루블라일의 귀에는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다.

라넌큘러스 축제는 귀족, 평민 상관없이 모두 광장에 모여 노는 걸로 유명한 축제였지만, 귀족이 즐기는 코스와 평민이 즐기는 코스는 달랐다. 흔히 더 고급지고, 비싼 점포에 귀족들의 발길이 잦은 편이다. 루블라일은 레쉬블의 에스코트에 따라, 그 비싼 점포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보며 신나게 축제를 즐겼다. 레쉬블과 루블라일의 호위기사들은 그들보다 좀 떨어져서 따로 축제를 즐겼다.

축제의 명물인 라넌큘러스 모양의 솜사탕도 먹어봤고, 광장의 한 가운데에서 하는 연극도 관람했으며, 또 라넌큘러스 꽃을 사 레쉬블의 귀에 꽂아주기까지 중간중간에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급작스러운 이벤트 등은 주로 평민들이 참여하는 추세라 참여할 수 없었으나, 멀리서 즐겁게 구경했다.

진짜 데이트의 정석이란 정석은 다한 것 같아, 루블라일은 빨개지는 볼을 막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레쉬블의 잘생김에 치명상을 입어 허억거릴 때는, 무려 그가 못말리겠단 말투로 장난까지 걸었었다.

" 계탔다 오늘... "

" 네? 영애, 뭐라하셨습니까? "

" 어... 오늘 진짜 행복한 날인 것 같다고요! "

"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사실 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연락을 드린 것 같아 영애가 불편해하진 않으셨을지 걱정이 되어서... "

" 아휴 아닙니다! 10초 안에 튀어나오라 해도 저는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공작님이 딴 생각할 틈도 없게 저랑 놀아보자고 말 꺼낸거였는데요! "

그때의 나! 입 잘 털었어!

루블라일은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끼며 헤실헤실 웃었다. 축제는 끝나지 않았고, 놀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었다. 루블라일은 어서 마저 축제를 즐기자며 레쉬블을 재촉했다. 레쉬블은 그런 루블라일을 묘한 눈빛으로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선선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오지는 미소에 루블라일은 또 한번 심장을 부여잡았다. 미쳐! 사람이 숨 쉴 틈은 주세요! 라넌큘러스 꽃을 귓가에 꽂은 채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짝사랑하는 남.. 아 아니, 최애캐는 너무 강력했다.

그렇게 루블라일은 거친 숨소리가 비집고 튀어나올려는 걸 간신히 심호흡으로 막아내고는, 레쉬블이 안내하는데로 따라 걸음을 옮길려고 하는데...

" 어! 루브! "

뒷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 ! 넬리! "

뒤를 돌아보니,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하네르와, 그녀의 뒤를 지키는 황궁 호위기사들이 여럿 보였다. 루블라일은 황제 새끼도 있나!? 하고 휘휘 둘러보았지만, 다행히 테이거스는 보이지 않았다.

" 루브, 레브! 여기서 보니 또 반갑네요. "

" 네, 저도요! 그런데... 폐하는요? "

" 아, 테이는... 오늘 너무 바쁘다고 해서. 저 혼자.. 나왔어요. 물론 뒤에 호위기사분들도 있으니 굳이 따지자면 혼자는 아니지만. "

그렇게 말하는 하네르의 얼굴이 너무 쓸쓸해보여, 루블라일은 저절로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아... 메인 남주 이 놈아... 어떻게 이런 날에 혼자 둘 수가... 나쁜놈아... 그리고 그 마음은 저절로 테이거스에 대한 빡침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와중, 제법 딱딱한 중저음이 루블라일의 상념을 깼다.

" 그간 강녕하셨습니까, 황후 폐하. "

" 떠허! "

맞다! 하네르 황후지!

흔히 생각되는 황후의 이미지와 굉장히 다른 하네르의 이미지에, 루블라일은 황궁의 기사들이 보는 앞에서 다짜고짜 하네르의 애칭을 부른 것을 후회했다. 아! 황제새끼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 황후 폐하라뇨... 레브, 우리 사이에 그런 딱딱한 호칭은... "

오해할 여지가 많은 말에, 하네르 뒤에 서있던 황궁 기사들이 헛숨을 들이키는게 루블라일에게까지 보였다. 루블라일은 기사들이 어줍짢은 오해를 하여 이 일이 황제의 귀에 들어갈까봐 불꽃 같은 실드를 쳤다.

" 아휴 그럼요! 두분 베스트프렌드 아닙니까! 절친절친! "

" 그, 그렇죠. "

루블라일의 말을 듣고 황궁 기사들이 아! 하고 이해한 기색을 비치는 것에 반해, 하네르는 어쩐지 떨떠름한 기색이었다.

" 그렇지만 황후 폐하는 폐하지 않습니까. 공작인 저부터 제대로 된 예를... "

" 레브. 저는... 절친한 친구에게까지 폐하란 소리를 듣기 싫어요. 루브도 제 애칭을 불러주는데.. "

앗 그건 저의 미스테잌...인데...

루블라일은 슬쩍 레쉬블의 눈치를 봤다. 괜히 저의 실수로 인하여 공작님의 예가 퇴색된 듯한 기분이었다. 레쉬블은 잠시 나직히 한숨을 내뱉더니 말을 덧붙인다.

" ... 그럼 하네르 님으로 하겠습니다. "

" 넬리,라고... "

" 하네르 님. "

" ... "

더이상의 양보는 못한다는 뜻이 담긴 단호한 목소리가 내려앉자, 하네르는 우물쭈물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루블라일은 레쉬블을 흘긋 바라보았다. 역시나, 표정이 안좋았다. 짝사랑 상대를 잊으려고 나온 곳에 그 상대랑 떡 하니 마주쳤으니. 저번 황제의 탄신일 연회에서 봤던 것처럼, 묘하게 아슬아슬해보이는 레쉬블의 얼굴을 눈치 채버린 루블라일은 미간을 찌푸렸다. 전 같으면 그냥 이 순애보!으흑!내 마음을 찢어놓는다!하며 속으로 오열했겠지만, 지금은 그에 대한 연애감정을 자각한 상태이니...

" ... "

저절로 우울해졌다.

루블라일은 휘휘 고개를 젓고는 밝은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루블라일, 정신 차려. 차애캐한테 질투 안하기로 했잖아! 그런 루블라일의 노력을 알아주기라도 하는 건지, 하네르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 그, 저, 실례가 안된다면 오늘 축제가 끝날 때까지 같이 다녀도 될까요? "

" 어... "

" 아! 호,혹시! 제가 방해하는 걸까요? 두분이서 데이ㅌ.. "

" 데이트가 아닙니다. "

레쉬블이 싸늘하게 말을 끊어냈다.

루블라일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 아니. 내가 상처 받을게 뭐가 있어. 공작님은 하네르를 좋아하고, 오늘 나랑 나온 건 그냥 하네르 생각을 잊기 위해 지인이랑 노는 거란 걸 알고 있으면서. 루블라일은 심호흡을 하고는, 평소처럼 말하기 위해 부던히 노력해야 했다.

" 데이트라뇨! 어유, 그런 거 아니에요! "

" 그렇군요... 그럼, 같이 다녀도 괜찮을까요? "

" 전 상관없습니다. "

" 저도 괜찮아요. "

" 와아! "

둘의 허락을 받아 낸 하네르는 아이처럼 맑에 웃어보였다.

그렇게 하네르의 왼편에 루블라일이, 오른편에 레쉬블이 다니는 형태로 광장의 이곳저곳을 쏘다닌 그들은 너무 돌아다녀 지쳤다는 하네르의 의견에 따라 한 야외 카페의 테이블에 착석했다. 오픈 된 형태의 카페라 그런지 광장의 모습이 전부 눈에 들어왔다. 흩날리는 라넌큘러스 꽃잎들, 즐겁게 웃으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훈훈한 장면이었다.

직원에게 각자 메뉴를 주문한 그들은 등받이에 편히 몸을 기댔다. 그러던 와중, 레쉬블은 반짝이는 연락용 마도구를 들고 잠시 연락을 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펙티르 공작 저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걱정이 되었지만, 재잘재잘 말을 걸어오는 하네르가 귀여워 루블라일은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있었다.

" 그러니까 테이가요, 거기서 저한테 뭐라했는지 아세요? "

" 뭐라고 하셨는데요? "

" 나의 작은새, 넬리. 축제는 내년에도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나요. 그냥... 저는 테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테이와 처음 만난 곳에서... "

" 세상에, 황제새.. 아니 폐하가 너무 무신경하시네요! "

하지만 훈훈한 미소는 잠시였다. 루블라일은 테이거스의 행태를 전해 듣고 분노하며 튀어나올 뻔한 욕설을 간신히 삼켜냈다. 위위위위험했다. 하네르의 뒤에는 황궁 기사들이 있다! 루블라일! 감옥으로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입조심하자!

여튼 하네르와 루블라일이 이야기의 꽃을 피울동안, 그들에게 한 남자가 접근했다. 루블라일의 호위기사들과, 황궁의 기사들이 그 앞을 막아섰다. 남자는 중무장한 기사들을 보고 겁에 질린 것인지 어... 하는 멍청한 소리를 냈다.

" 경들, 그 분께서 무언가 할 말이 있나봐요. 그 분 앞에서 비켜주시겠어요? "

그때 하네르가 부드럽게 그들을 만류했다. 분위기 상 소세리와 주엔도 물려야할 것 같아 루블라일은 뒤로 빠지라는 듯 그들을 향해 손을 휘휘 저었다. 황궁 기사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 하지만 황후 폐하, 수상한 자는 폐하께 접근시키지말아야 합니다. "

" 수상한 자라뇨! 그냥.. 무언가 할 말이 있어보이는 분인 것 같은데요. "

하네르의 변호에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기사들이 물러나자, 남자는 환해진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 어, "

" 마치 라넌큘러스의 요정 같은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주, 주제 넘은 건 알지만, 저, 받아주세요! "

루블라일에게 화려한 라넌큘러스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루블라일은 어버버거렸다. 앞의 남자의 차림새를 보아하니, 꽤 부유한 축에 속하는 평민 같았다. 겁없이 귀족에게 꽃다발을 내미는 걸 보아하니, 귀족과 교류하는 직업이라도 가진 듯 싶었다. 남자의 얼굴을 새빨갛게 달아올라있었다. 하네르는 자신이 더 기뻐하며 꺄! 하는 소리를 냈다.

" 세상에, 루브. 너무 로맨틱해요! "

" 으음... "

루블라일은 떨떠름했다. 신분을 떠나서 첫눈에 반했다며 초면에 다짜고짜 꽃다발이라니. 솔직히 공작님 스토킹 경력 1년 차인 루블라일이 할 말은 아니겠지만, 설레기는 커녕 불쾌했다. 남자는 축제의 분위기에 취해도 너무 취한 것 같았다.

" 죄송합니다. 제 취향 아니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

루블라일은 단박에 거절하며 받은 꽃다발을 다시 남자에게 내밀었다. 남자는 지대한 충격이라도 받은 얼굴이었다. 나름 호감형의 얼굴에 자신이 있었나보지. 하지만 루블라일은 오지는 미남 레쉬블의 얼굴 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었다. 후진하세요. 안 받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더니, 이내 시무룩한 얼굴로 꽃다발을 받고는 뒤돌아 터덜터덜 걸어갔다. 루블라일은 별 감흥 없이 턱을 괴는데, 갑자기 하네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 루브. "

" 네? "

" 왜... 거절하셨어요? "

" 취향이 아니니까요. "

" 그렇지만, 루브. 지금 딱히 연인도 없잖아요. "

" ... ?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

" 저 분은... 엄청난 용기를 내셨을 건데... "

"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잖아요. "

내 차애캐가 이상하다.

루블라일은 밀려오는 당혹감에 눈만 깜빡였다. 하네르가 왜 이러지?

" 정중하게 거절했다뇨! 단박에 취향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

" ... 취, 취향이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야... "

대화가 이상했다. 아니, 왜 하네르가 화내는 거지? 저 남자가 하네르의 지인이라도 되나싶을 정도로 열성적으로 남자의 편을 들어주는 하네르의 모습에 루블라일은 기묘함을 느꼈다.

" 좀 더 돌려말했어도 괜찮잖아요. "

" 그렇게 따지면, 아까 그 사람도 다짜고짜 초면에 저한테 반했다고 한 걸요. "

" 그만큼 루브를 좋아한다는 뜻을 표현한 거잖아요... 루브, 정말 너무해요. 그 분이 평민인만큼, 귀족인 루브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였을 텐데... "

" ? "

그건... 그냥 그 남자가 생각이 없는게 아닐까요...

루블라일은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루블라일의 뒤에 서있던 소세리와 주엔이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하네르를 살벌히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 하네르는 잠시 주춤했지만 말을 멈추지는 않았다.

" 루브.. 그 분이, 평민이라고 거절한 건가요? "

" 예? "

" 역시, 그렇구나... 연인이 없어도, 평민은 받아줄 수 없다는 건가요? 루브. 저는... "

" 아니, 넬리.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대체? 그럼 제가 오늘 처음 보는 남자에게 당장 사귀자고 했어야 했나요?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데? 단지 그 남자가 저에게 용기 내서 고백했다는 이유로? "

" 저, 저는... "

" 그게 오히려 그 남자에게 더 무례한 짓 아닐까요?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데 고백을 받아주다니. 기만하는 거잖아요. "

" 전... "

" 대체 무슨 일입니까? "

레쉬블이 어느새 연락을 다 하고 왔는지, 뒤에 공작 저의 호위기사들을 대동한 채 연락용 마도구를 품에 집어넣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하네르의 호박빛 눈에, 어느새 눈물이 차올랐다. 루블라일은 마치 제가 하네르를 겁박이라도 한 모양처럼 되자 두 눈을 크게 떴다.

" 전... 그냥, 그냥, 저랑 그 분이 겹쳐보여서... 미안해요. 루브. 마음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제가 다 망친 것 같아요. 저, 저 그냥 이제 가볼게요. 두분이서 축제 즐기세요. "

울먹이며, 두서없이 말을 쏟아낸 하네르는 말을 끝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의자를 박차고 저멀리 뛰어가기 시작했다. 황궁의 기사들이 황후 폐하! 라고 당황한 듯 외치며 그녀를 쫓아갔다. 레쉬블도 갑작스러운 사태에 놀랐는지 멍하니 두 눈을 깜빡이다가, 루블라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 에스티론 영애. "

" ㄴ,네? "

" 죄송하지만 하네르님과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잠시 여기서 기다려주십시오. "

누가봐도 울면서 뛰쳐나간 하네르가 걱정되어서 미치겠단 얼굴이었다. 루블라일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레쉬블이 몸을 뒤돌리곤 하네르를 쫓아갈려던 찰나.

" ... 가지마세요. "

루블라일은 손을 뻗어 레쉬블의 소매를 붙잡았다. 루블라일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린다. 루블라일은 무어라 더 말을 붙이기 위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딱히 더 할 말이 없어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 영애. "

" ... "

"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

소매를 붙잡았던 손에 힘이 풀렸다. 그대로 레쉬블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네르를 쫓아 뛰어갔다. 혹 하네르가 많이 상처를 받았을까봐 조급해보이는 뒷모습이었다. 아까 전 루블라일이 귀에 꽂아줬던 라넌큘러스 꽃이 레쉬블의 귀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졌다. 루블라일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쿵쾅거리던 심장이, 조용해졌다.

루블라일은 점점 작아지는 레쉬블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히 속삭였다.

" 돌아갈래. "

" 네? "

" 집으로 돌아갈래. "

" 아, 아가씨... "

주엔이 울먹였다.

루블라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세리는 안절부절하며, 주먹을 쥐었다풀었다 했다. 루블라일은 지나치게 담담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 마부 불러. "

" ... 영애? "

엉엉 울던 하네르를 달래고 황궁으로 돌려보낸 뒤, 루블라일이 기다리고 있을 카페로 다시 돌아온 레쉬블은 텅 빈 테이블의 모습에 허망한 얼굴을 숨기지 못했다. 뛰어오느라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레쉬블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호위기사들조차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어, 레쉬블의 뒤를 쫓아온 펙티르 공작 저 소속의 기사, 애그스와 트레르가 한탄하듯 말했다.

" 아! 주인님, 진짜... "

" 하... 뿌리치고 갈 때부터 조마조마하긴 했는데. "

그들은 헉헉 숨을 내뱉으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들의 의미심장한 말에 레쉬블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그들에게로 시선을 향했다.

" 그게 무슨 얘기지? "

" ... 맙소사. 진짜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

" 트레르. 너 지금 말 거칠다. "

황당하다는 듯 되묻는 트레르의 말을 들은 애그스가 조용히 지적했다. 트레르는 지적에 머쓱하게 뒷목을 긁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레쉬블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 죄송합니다. 건방졌습니다. "

" 아니, 됐다. 방금 전 한 말의 의미부터 말해. "

" ... "

애그스와 트레르는 조용히 시선을 교환했다.

루블라일은 찻잔을 들어, 그대로 차를 마셨다. 달달하고 향긋한 차향이 코 끝을 간질였지만 루블라일은 별 감흥 없이 목 뒤로 넘겼다.

" 어머? "

그러자 루블라일의 맞은 편에 앉아있었던 메쉬트가 웃기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 웃기지도 않아, 정말. 에스티론 영애 성격이었으면 차 안에 독 탄게 아니냐고 난리피웠을 텐데 그냥 아무생각 없이 마시는 거 보니 어지간히 머릿속이 어지러운가봐요? "

" 도돋독도도독탔어요!? "

커어헙!

루블라일은 메쉬트가 제 질문에 긍정의 표시를 한다면 당장 토해낼 생각인지 황급히 손을 들어 입을 가렸다. 메쉬트는 그런 루블라일의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어재꼈다.

" 내가 탔으면 영애는 벌써 저세상 가있지 않았을까요? "

" 그, 그렇겠네요... "

묘하게 납득한 루블라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메쉬트가 드디어 후작 작위를 승계받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연 티파티라고 해서 왔었는데... 티파티는 개뿔 메쉬트와 1대1 단란한 티파티 정원 데이트를 하게 될 줄은.

" 아. "

... 데이트.

그 단어를 생각하자마자, 며칠 전 있었던 일이 떠올라 루블라일은 찻잔을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메쉬트가 저를 주시하는게 느껴졌지만 루블라일은 손에 힘을 빼지 않았다. 뒤이어, 메쉬트의 웃음기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온다.

" 그러고보니, 에스티론 영애 제법 인기 있잖아요. "

" 무슨 소리세요? "

" 왜, 평민에게도 고백 받고. "

" ... "

그걸...또 댁이... 알고 있습니까...

새삼 조이날 후작가의 오지는 정보력에 대해 탄식을 하며, 루블라일은 말을 잃었다.

" 축제 이후로 거지 같.. 아니, 귀여운 황후 폐하와 그 철벽의 펙티르 공작에게 무수히 많은 편지를 받고 있다면서요? 대단해요, 에스티론 영애. 심지어 거기에 답신도 안보내주다니.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네요. 헛으로 사교계의 꽃이 된 건 아니군요. "

그걸.. 또 댁이 알고 있습니까..!

루블라일은 답답함에 입을 꾹 다물었다.

" ... 저는 후작님의 작위 승계 축하 티파티를 연다고 해서 와봤는데, 어째 손님이 저 밖에 없나요? "

루블라일은 이 주제에 대해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피력하며, 말을 돌렸다. 메쉬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봐주겠다는 듯 샐쭉 웃으며 루블라일의 물음에 답해주었다.

" 굳이 복잡하게 여럿 초대 할 필요가 있나요? 난 이제 후작인데. 별 볼 일 없는 것들의 눈치까지 볼 필요는 없죠. "

" 아니... 거 저도 그 별 볼 일 없는 것에 속하지 않을까싶은데요... "

" 어머!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제가 후작 작위를 얻게 된 것에 대해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영애한테 얼마나 고마운게 많은데요. "

" 허,허허허! 아휴! 누가 들으면 오해할 말을 자꾸 하시네! "

전 절대, 절대 선 후작을 조지라거나 그런 말은 한 적 없으니까요! 루블라일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메쉬트의 은근한 시선을 피했다. 이러지..말아요... 우리 그냥 아는 사람1의 관계로 돌아가줘요 제발...

" 저희 친한 사이 아니었나요? 그토록 쫓아다니던 펙티르 공작의 편지도 거절해놓고, 제 티파티 초대장에는 냉큼 오겠다고 답을 주셔서 영애랑 저는 절친이 된 게 아닐까 하고 기뻐했는데... "

" 그건... "

그리고 훅 들어온 공격에, 루블라일은 입술을 달싹였다. 오지 말 걸 그랬나.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쓸데없는 생각과 감정이 자꾸 울컥울컥 차올라서, 바람이라도 쐴 겸 메쉬트의 초대장에 기꺼이 가겠다며 답한게 화근이었다. 메쉬트와 1대1로 있을 줄은 몰랐고, 거기에다가 메쉬트가 자꾸 아픈 곳을 들쑤실 줄은 더더욱 몰랐으니.

" 요즘 일하러 황궁에 가는데 말이에요, 행정부 쪽을 지나치다가 펙티르 공작을 마주쳤지 뭐예요? 그런데 어째 얼굴에 수심이 가득──, "

탕!

루블라일이 거칠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루블라일은 짓씹듯 말을 내뱉었다.

" 황후 폐하가 우셔서 그러신 거겠죠. 유명하잖아요. 공작님께서 황후 폐하를 각별히 여기는거. "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비참한 기분을 숨길 수가 없었다. 루블라일의 속눈썹이 잘게 떨렸다.

" 세상에, 황후 폐하가 우셨나요? "

" 다 알면서 묻지 마시죠. "

제법 싸늘한 루블라일의 모습에, 메쉬트는 제 입꼬리를 위로 올렸다. 누가 봐도 나 꿍꿍이 있어요, 하는 얼굴을 보며 루블라일은 순간적으로 메인 악역을 상대로 너무 말을 막했나 싶어 헉. 하고 지레 겁을 먹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았다.

" 전에는 그렇게 황후 폐하를 귀엽게 바라보더니, 이번에는... "

" 지, 지금도 귀엽거든요! 황후 폐하는! "

제기랄! 그런데 내가 마음 정리를 못 해서 이러는 거지! 루블라일은 속으로 울분을 터트렸다. 메쉬트는 오묘한 표정을 지었다.

" 에스티론 영애? 영애가 말한대로 전 다 알고 있답니다? "

" 그런데요... ? "

" 황후 폐하께 그딴 쌉소리... 아니, 못된 말을 듣고도 귀엽게 보이세요? "

" 얼굴이 귀엽잖아요... "

" ... "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지? 라는 메쉬트의 눈빛을 직격으로 봐버린 루블라일은 머쓱해했다. 아 아니 왜... 귀엽게 생긴 건 사실이잖아... 귀엽게 생겼는데 애가 가끔가다가 좀 쌉소리 할 수도 있지...

" 뭐, 영애가 황후 폐하께 유감스러운 감정이 있다면 절친인 제가 조금 손봐줄 용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

" 아뇨괜찮으니까제발가만히있어주세요. "

그리고 누가 절친이에요 누가!

루블라일은 튀어나올려는 뒷말을 간신히 삼키고는, 한숨을 푹 내뱉었다. 하네르를 생각하니, 저절로 레쉬블이 떠오른다. 며칠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눈에 선했다. 가지말라며 붙잡은 자신과,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듯 단호하게 금방 돌아오겠다는 말.

...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라넌큘러스.

의외로, 집에 돌아가서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참 별일이지, 원래 공작님과 관련된 일이었으면 하찮은 일에도 펑펑 울고는 했는데. 희한하게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무언가 가라앉는 기분 때문에 식욕이 줄기는 했지만, 아예 끼니를 거르지도 않고. 고용인들과도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단지 좀, 전보다 무기력해졌을 뿐이었다. 멍하게 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뿐이었고. 그냥...

" ... 이곳에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

" 난 황후예요! "

덜컹,

루블라일은 화들짝 놀랐다. 무언가 갑자기 소음이 끼어든다. 메쉬트는 험악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쾅!

이어, 정원으로 향하는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나고, 하네르가 뛰쳐들어왔다.

" 루브! 루브, 여기 있어요? "

" ... 넬리? "

" 하! "

다짜고짜 남의 정원으로 쳐들어 온 하네르의 행태에, 메쉬트는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 황후 폐하, 지금 뭐하시는 짓입니까? "

" ... "

살벌한 메쉬트의 기색에, 하네르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어디서 용기를 얻은 것인지 말을 더듬으면서도 메쉬트의 말에 대꾸했다.

" 루브를 찾으러 왔어요. "

" 초대 받지도 않은 곳에, 무단 침입까지 하면서 말입니까? 제정신이세요!? 너희는 막지도 않고 무얼 했느냐! "

메쉬트는 하네르를 미처 말리지 못한 후작 저의 고용인들에게 매섭게 호통쳤다. 고용인들은 넙죽 바닥에 엎드려 앞다투어 메쉬트에게 용서를 구했다.

" 죄송합니다! 후작님! 어떻게든 폐하를 말려보려 했으나.. ! "

" 다 저희의 부족함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더욱 더 철저히... ! "

" 입닥쳐라! 너희 전원 짐싸들고 당장 여기서 나가! "

" 후작님! "

" 나가란 말이 안들리느냐!? 아님 짐조차 없이 빈 손으로 나가고 싶은가 보지! "

고용인들은 제발 한번만 자비를 베풀어달라며 필사적으로 빌기 시작했다. 절박한 그들의 모습에 하네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결국 하네르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 세상에, 조이날 영애! 어떻게 그렇게, 자비 없이 구실 수가 있어요! "

" 누가 영애입니까? 출신이 평민이면 황후가 되어도 귀족 계보도 못 외우십니까! "

" ...! "

신랄한 메쉬트의 비판에 하네르는 비틀거렸다. 루블라일은 사이에 껴서 어쩔 줄 몰라했다. 하네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단 침입을 해놓고는 감히 메쉬트에게 맞설 생각을 했는지. 황제도 대동 안 한 채. 황제가 없는 한 하네르가 메쉬트를 이길 일은 없었다.

" 미안해요, 후작. 그렇지만... ! "

" 그렇지만 뭐요? 그들은 해야할 일을 못했으니 해고 당한 것 뿐이랍니다. 감히 이 조이날 저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를 제 앞까지 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

" 무단으로 침입했다뇨! "

" 그럼 뭡니까? 저도 모르는 제 두번째 자아가 황후 폐하께 초대장이라도 보냈답니까? "

" 그... 그건! 전 황후라고요! "

" 요즘엔 황족의 의무도 지지 않는 사람을 황후 대우 해주는 법이라도 생겼나요? 그리고 아무리 황족이라도 특수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귀족의 집에 무단 침입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시는지요? 황후시면 제국법 좀 숙지하시길! "

루블라일은 하네르가 안쓰러우면서도, 메쉬트의 언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역시 메인 악역. 주둥이의 재앙 수준이 남달랐다. 팩트와 적절히 섞어 비꼬는 대는 도가 트다 못해 우주까지 뚫고 갔다. 그런 메쉬트를 감탄한 것에 대한 벌이었을까, 갑자기 화살표가 루블라일을 향했다.

" 루브는, 너무해요! 제 편지에는 아무런 답도 안해주고... 절, 절 죽이려 한 여자의 집에 오다뇨! "

" ? 아니, 저, "

" 전 루브의 친구가 아니었나요? 애칭을 허락해준 건 그냥, 그냥 억지로 허락해준거였어요? 왜요? 전 루브가 저에게 한 짓도 용서해줬는데! 왜 루브는! "

" 잠시만요 넬리, 너무 흥분했, "

" 루브가 테이를 좋아해서 저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한 것도, 전 다 용서해줬는데! 이제 테이에 이어서 레브도 뺏어갈려고 하고! 저, 다른 영애들께 얘기 다 들었어요! "

" ... ! "

지금 무, 슨 말을.

루블라일은 갑작스레 들이닥친 폭언에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뺏어? 내가? 뭘... ?

" 이봐요, 황후 폐하! 지금 무슨 소리를! "

메쉬트가 사납게 끼어들었지만, 하네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쏟아내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하다는 듯이 엉엉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 그렇게 남자가 탐이 났으면 미리 말을 해주셨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같이 친구가 됐다며 얼마나 좋아했는데! 루브는 레브 밖에 안보였겠죠! 하지만 레브는 절 좋아하니까! 항상 절 우선으로 했으니까! 조이날 후작과 저를 음해할려는 계획이라도 짠 건가요!? "

쨍그랑.

루블라일은 결국 찻잔을 바닥에 떨구었다. 루블라일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뭐지?

루블라일은, 새삼 생경한 눈으로 하네르를 바라보았다. 속은 뒤집어질듯이 울렁거렸지만 다행히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루블라일은 속삭이듯 하네르에게 말을 건넸다.

" 알고 있었어요? "

" 자신의 입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루브는 역시... ! "

" 아니, 그거 말고. 공작님이 넬리를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냐고요. "

" ... ! "

하네르의 눈이 커졌다. 눈꼬리에 매달려있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진다. 이 와중에도 귀여운 얼굴은 열심히 일했다. 루블라일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냥 하네르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하네르를 보니 공작님도 자꾸 저절로 생각나서 미치겠고. 그런 루블라일의 상념을 방해하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 루브! 지금 얘기의 주제를 바꾸지 말아요! 난 루브가 후작과 절 음해할려고 했는지 안했는지 추궁하기 위해서 말을 한... ! "

" 친애하는 황후 폐하야말로 에스티론 영애의 말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착각인가 봅니다? "

" 조이날 후작! "

보다못한 메쉬트가 빈정거리듯 끼어들며, 비웃는 얼굴로 하네르를 훑어보았다. 하네르의 얼굴이 새빨개진다.

" 후작은, 어찌도 그리 당당하신가요? 살인미수범 주제에! 아니지, 살인범이지요. 선 조이날 후작을 지금 당신이 죽인 것 같다고 테이가 말했으니까요! "

" 오, 황제 폐하께서 그리 말하셨답니까? 그런데 이걸 어째. 제가 제 아버지를 죽였다는 증거라도 있으세요? "

범죄자의 전형적인 대사 '너 증거는 있냐? 내가 증거 없는거 다 아는데 무슨 수로 입증하게?'라는 함축적 의미가 담긴 질문이 날라가자, 하네르는 분한 듯 아랫입술을 짓씹었다. 아무리 하네르가 날고 기어도 본투비 악역은 이길 수 없었다.

" 뭐, 여튼 아까 에스티론 영애가 얘기의 주제를 바꾼다면서 그리 화내실 땐 언제고, 이제와서 황후 폐하가 말을 바꾸심 어떡합니까. 아까 말씀하시던게 뭐였죠? 저하고 에스티론 영애하고 같이 황후 폐하를 음해할려고 했다고요? 에스티론 영애, 뭐라 말 좀 해보세요. "

" ... 뭘요? "

루블라일은 한숨을 내뱉듯 되물었다. 이 상황이 일어난 것도 고작 몇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루블라일은 벌써 정신이 너덜너덜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루블라일의 기색을 눈치챈 것인지, 메쉬트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노래하듯 말을 읊었다.

" 저랑 에스티론 영애가 황후 폐하를 음해하기 위해 만났다고 하시는데, 영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아무것도 안했으니 안했다고 말하는 수 밖에 뭐가 더 있나요. "

" 루브! 솔직히 말해주길 원해요. "

" ? "

아니...솔직히...말했는데... 뭘...

루블라일은 띠용한 얼굴로 하네르를 쳐다보았다. 물론 메쉬트에게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제안은 받았지만, 루블라일은 단박에 거절했다. 짜고 말고 할 것도 없었는데, 이 이상 뭘 어떻게 솔직히 말하라는 것인가.

" 루브가 왜 하필 제 주위에 있는 분들만 연모하게 된 건지는 저도 전혀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저를 음해할려는 계획을 짜다뇨.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놓으신다면 용서해드릴 의향이 있어요. "

" ? "

왓...뻐킹...헤픈...

이쯤이면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는지 의문까지 들었다. 루블라일은 한껏 피폐해진 정신에, 머리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루블라일은 무의식적으로 제 새하얀 머리카락 끝을 매만졌다.

" 루브, 왜 말이 없어요? "

" 아니.. 더 이상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해서 안했다고 말했는데 뭘 더 이상 어떻게 솔직해져요? "

" 전... 그래도 우리가 어느정도는 서로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

" ? "

" ... 루브는 정말로, 제 주위의 남자만 보고 온 거군요. 영애들의 말들이 다 맞았어. "

" ? "

이제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루블라일은 말을 하는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그런 루블라일을 가만 둘 위인이 아니었던 메쉬트가 또 한번 말을 꺼냈다.

" 어머, 에스티론 영애. 황후 폐하께서 저렇게 생각하신다는데? "

" 그래서요... "

"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

" 말이 통해야 말을 하죠... "

" ! 루브... ! 어떻게 그런 말을! "

" 아니 또 왜, "

말이 안통하니, 뭐하러 굳이 말을 하느냔 루블라일의 중얼거림을 기가 막히게 들은 하네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러고는 정말 상처받았다는 듯이 호박빛 눈동자에 다시 물이 차올랐다. 루블라일은 정말 이 의미없는 말다툼을 끝내고 싶었다. 너무 정신소모가 심했고, 솔직히 이젠 될 대로 되라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날려던 찰나.

" 후, 후, 후작님... "

아까 메쉬트에게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었던 고용인들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들이 말다툼을 할 동안 어디라도 뛰어갔다 온 건지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루블라일의 말에 부드럽게 휘어져있던 메쉬트의 눈가가 다시 뾰족해졌다.

" 아직도 짐을 다 추리지 못했나? 진짜 빈손으로 쫓겨나고 싶어서? "

" 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펙티르 공작님께서 혹시 후작 저에 방문할 수 있겠냐는 연락을 보내셔서... "

" ... ! "

루블라일을 포함한 셋의 움직임이 딱 멈췄다. 루블라일은 갑자기 떠오른 소설 속 내용에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레쉬블은 언제나, 하네르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녀를 구해주기 위해 다른 모든 일을 내팽겨치고 달려나가곤 했다. 그래서 메쉬트의 계획은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 자신에게로 달려와주는 레쉬블을 보며, 하네르는 정말 고맙고 소중한 친구로 여겼다.'

" 오시라고 해. "

웃겨죽겠다는 듯,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허락이 떨어졌다. 고용인은 메쉬트를 향해 공손히 허리를 숙여보였다.

" 너는 짐 안싸도 돼. "

" 네? "

" 계속 일해도 좋아. 어서 공작님한테 연락이나 넣지 그래? "

" ... ! 정말 감사합니다, 후작님! "

고용인은 아까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로 외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정원은 정적에 휩싸였다. 루블라일은 더 복잡해진 상황에 아찔함을 느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 수 밖에 없었다.

" 후작님, 왜, "

" 뭘요? 방문을 허락한 거요? 펙티르 공작님께 제 예쁜 정원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꿇릴 것도 없는데 제가 굳이 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 "

기다렸다는 듯 루블라일의 말을 끊고, 메쉬트는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얄밉게 답했다. 루블라일은 암살 위협을 받아 공작님의 스토킹을 못했을 때만큼의 화가 치밀었다. 전처럼 상하좌우로 메쉬트의 머리채를 현란하게 손봐주고 싶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신경쓰이는 일이 있었기에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하네르가 이겼다는 듯, 묘하게 만족한 얼굴로 웃고 있었으니까.

하네르가, 원래 저런 표정을 짓는 사람이었나? 루블라일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던 와중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 레브! "

" 오랜만이네요, 공작님! 그런데 허락을 하자마자 이리 빨리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허락한지 몇분도 안 된 거 같은데? "

" ... 실례되는 행동인 걸 알지만, 저택의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

공작님의 목소리였다. 루블라일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았다. 어째서인지 피곤해보이는 기색을 숨기지 못한 레쉬블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하네르는 환해진 얼굴로 레쉬블의 애칭을 외쳤다. 그러자 레쉬블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하네르와 눈을 마주친다.

" ... "

루블라일은, 멍하니 그 모습을 눈에 담았다.

" 레브, 마침 잘 왔어요. 저... 레브의 도움이 필요해요. "

"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무엇을 요구하던지, 다 들어주겠다는 듯한 목소리.

" 저... 정말, 이럴 줄 몰랐지만. 루브와 조이날 영, 아니 후작이 저를, 저를 음해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

환했던 하네르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마치 울음을 참는 듯이 말의 끝이 잘게 떨렸다. 누가봐도 안쓰럽고 사랑스러운 모양새였다. 하네르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 다른 영애들의 말을 듣고 설마설마 하긴 했는데... 저.. 저는, 루브와,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편지를 보내봐도, 제 편지에는 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필 조이날 후작이랑... 흐윽. 레브, 레브도 알죠? 조이날 후작이... "

" ... 듣고 있습니다. "

처음에는 그래, 솔직히 얼굴이 취향이었다. 예전부터 미인한테 약했으니까. 특히 날카롭게 생긴 미인한테. 소설을 읽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또 반복해서 소설을 읽고. 그렇게 보다보니 무슨 일이 생겨도 여주만을, 하네르만을 바라보는 곧은 눈을 좋아하게 되었다. 일편단심, 말은 쉽지만 결코 행동에 옮기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하네르가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아 아파하는 모습도 슬펐지만 좋아했고, 냉철한 얼굴이 하네르한테만 다정하게 변하는 것도 좋아했다. 루블라일은 분명, 그런 레쉬블의 모습에 반했었다.

" 황후 폐하. "

그래, 저 얼굴에 반했었다.

" 레브, 제발. 저 레브한테까지 황후 폐하란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

" ... 죄송합니다. "

그랬었는데...

" 하네르 님. 아니, 넬리. "

" 레브... "

난 분명 항상 하네르만을 바라보는 저 얼굴을 좋아했었는데. 루블라일은 느릿하게 눈을 깜빡였다.

" 넬리.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

" 응, 응. 해요 레브. "

내가 좋아했던 얼굴을 지켜보는게, 언제부터 이렇게 토할정도로 끔찍해졌지?

루블라일은 처참하게 일그러지는 얼굴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입을 틀어막았다. 안그랬다간 하네르를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고 레쉬블에게 소리칠 것 같았으니까. 연애 감정으로 바뀐 건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질투를 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해졌을 줄은. 레쉬블이 하네르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에 제대로 제어가 안 될정도로 빠져들었다.

"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

말 끝을 흐리던 레쉬블은, 이내 다시 한번 입술을 움직였다.

" 넬리. 이제 적당히 좀 하십시오. "

" ... 네? "

레쉬블은 무표정으로 하네르를 내려다보았다. 루블라일은 너무 놀라서, 울음이 터져나올 뻔한 것도 잊고 입을 크게 벌렸다.

" 레, 레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에요... ? "

하네르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다. 마치 절대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바뀐 것을 목격한 사람마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루블라일도 그런 하네르와 같은 심정이었다. 공작님이 하네르를 저런 표정으로 바라본다고? 왜? 어째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 넬리. 저는 항상 넬리의 순수한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

레쉬블의 담담한 고백에, 루블라일은 또 한번 놀랐다. 원작에서는, 단 한번도 레쉬블이 하네르에게 제 마음을 밝힌 적이 없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저 말을 하는 걸까. 심지어...

" 정말, 좋아했습니다. "

과거형이었다.

루블라일은 믿을 수가 없어서 제 손등을 확 꼬집었다. 알싸한 아픔이 손등을 타고 올라왔다.

" 레브. 정말 무슨 소리 하는 거에요! 재미 없어요, 이러지말아요. "

" 저는 그 순수한 모습으로, 당신이 폐하의 옆에서 누구보다 빛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편견없이, 공정하게 바라보는 당신이라면 다시 없을 숭고한 황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

넬리는 언제나 사람의 진심을 기민하게 파악했으니까요. 레쉬블은 그리 말하며, 옅게 웃었다.

" 그런데 아니었어요. "

" ... 레브? "

" 지금 황궁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

" 레브! 엉뚱한 얘기 하지 말아요! 지금, 에스티론 영애와 조이날 후작이 저를... ! "

" 넬리. 저는 조이날 후작을 아주 잘 압니다. 후작이라는 고위 귀족의 권력을 분산되는 가족도 없이, 혼자서 온전히 손에 쥔 조이날 후작이 이제와서 아무런 뒷배도, 입지도 없는 황후를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음해할려는 계획을 세울 리가 없습니다. "

" 어머!펙티르 공작님이 언제부터 저한테 이렇게 진한 관심을?청혼 하셔도 놀라지 않을테니 마음껏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줘도 좋습니다. "

" 후작, 전부터 느꼈지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재앙 덩어리입니다. "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네르의 주장을 부정하는 레쉬블의 말에 메쉬트가 깔깔깔 웃으며 한마디 얹자, 레쉬블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돌직구를 내뱉었다. 루블라일은 저도 모르게 히익, 하고 헛숨을 들이키며 메쉬트의 눈치를 보았지만, 레쉬블에게서 이런 말을 많이 듣기라도 한 건지 메쉬트는 어깨를 으쓱일 뿐이었다.

" 그럼, 그럼 루브는요! 루브에 대해선 뭐라 말하실 거죠? 루브는 전에도 테이를 사랑해서 저한테 못된 짓을 했었던 것. 잊지 않으셨겠죠. "

" 잊을 리가 없죠. "

무뚝뚝한 얼굴로 레쉬블이 고개를 끄덕였다. 루블라일은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을 뭔지 깨달았다. 내가 한 짓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이 상황에 와서 그 말이 대체 무슨 소용일까.

" 에스티론 영애는... "

레쉬블이 말끝을 흐렸다. 루블라일은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이 나와도 상처 받지 않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했지만, 그런 준비를 할 틈도 없이 레쉬블의 말이 쏟아져나왔다.

"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아닌 척 숨기고 있지만 얼굴에 다 드러나죠. 특히 사랑에 대한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절대로 숨기지 못합니다. 넬리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을 때도, 얼굴에 전부 보였었죠. 폐하를 연모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게. "

" ... ! "

루블라일은 손끝이 덜덜 떨렸다. 저를 흘긋 바라보는 메쉬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차마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도망치고 있었다. 최애캐이자 짝사랑하고 있는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더이상 듣고 있기엔 루블라일의 정신 상태가 못 버텼다.

이젠 정말 안되겠다 싶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갈려고 했다.

" 그러기에 더더욱, 에스티론 영애가 넬리를 음해할려고 한다는 소리가, 터무니 없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티론 영애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 저렇게 다 보이는데, 어떻게 숨어서 못된 짓을 합니까? "

" 고, 공작님? "

루브는 눈을 크게 뜨고 레쉬블을 바라보았다. 레쉬블은 그런 루블라일의 눈을 잠시동안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이내 시선을 돌려 하네르를 내려다보았다.

" 그러니 제발 말도 안되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엄한 사람을 몰고 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황후고, 언제나 이성적이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긴 하지만... 더 이상 한심한 모습을 보기엔 제가 많이 힘들군요. "

"... 레브! 어, 어떻게 레브가 저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부,분명, 루브와 조이날 후작이! 저를! 영애들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레브가 제 말을 안 믿어줄 수 있어요! 잠, 시만요. 레브!? 어디가요! "

하네르의 외침을 뒤로 하고, 레쉬블은 루블라일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루블라일은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 뒷걸음질쳤지만, 메쉬트가 그런 루블라일의 등을 팍 밀쳐 루블라일은 허우적거리며 레쉬블을 향해 몸이 기울어질 수 밖에 없었다. 레쉬블은 깜짝 놀라 루블라일을 잽싸게 붙잡았다.

" 조이날 후작. 함부로 남을 밀치는 고얀 버릇. 아직도 못고쳤습니까? "

" 요즘 절친 사이에서 유행하는 애정 표현이랍니다. 친구라고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친구 밖에 없는 공작님은 모르시겠지만요. "

루블라일을 일으켜 준 레쉬블이 사납게 중얼거리자, 메쉬트는 실실 미소지으며 그런 그를 조롱하듯 말했다. 레쉬블은 얼굴을 구기며 메쉬트를 바라보다가, 이내 마치 에스코트하듯 루블라일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는 그녀를 이끌었다.

" 레브! "

루블라일은 어어, 소리를 내며 멍청한 얼굴로 끌려갔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레쉬블이 하네르에게 막말을 했다. 레쉬블이 하네르에게! 그리고 하네르가 아무리 악을 쓰고 그의 이름을 불러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루블라일을 이끌며 정원에서 벗어났다. 루블라일을 어벙벙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원을 벗어나고는, 레쉬블을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루블라일의 몸이 저절로 떨렸다. 레쉬블은 그런 루블라일을 눈치채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 괜찮으십니까. "

" ... 네? 아,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아,니. 그. "

" 편히 말씀하십시오. "

" 그, 그... "

루블라일은 뜸을 들이며 눈동자를 데구르르 굴렸다. 그리고 아까 전부터 궁금했던 것을 내뱉었다.

" 왜그러셨어요? "

"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

" 왜, 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

저절로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왜 공작님이 내 편을 들어? 이거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야? 루블라일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레쉬블이 하네르에게 피해망상이라느니,한심한 모습 보이지 말라느니.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되는 거였다. 그 누구도 아닌, 레쉬블이 그런 말을 하네르를 상처입히는 말을 해서는 안되는 거란 말이다. 왜냐하면...

" 공작님은, 하네르를 사랑하잖아요.. ? "

여지껏 참았던 눈물이, 한방울 떨어졌다.

그렇게 자책하면서도, 레쉬블이 무어라 말 해줬음 좋겠어서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뭐라고 할까.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의 입에서 말이 나오진 않았다. 그저, 레쉬블은 다시 한번 루블라일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다.

또 한번 눈물이 핑 돌았다.

내 말 때문에 공작님이 곤란해진 거야. 어떡해, 괜히 말했어. 그냥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갈 걸. 속은 먹먹해지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침묵 속에 발걸음을 옮기고, 조이날 저택을 벗어났을 때.

" 영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 황후 폐하에 대한 마음을 아직도 다 지우지 못했어요. "

레쉬블이 천천히 속삭였다. 그 작은 속삭임을 들은 루블라일은 저도 모르게 레쉬블과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레쉬블은 뒤를 돌아 루블라일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 하지만 영애와 친분을 쌓으며 영애가 그럴 분이 아니란 걸 저 스스로도 알게 되었고, 또... 그때, 축제에서 나름 조언을 얻은 것도 있답니다. "

" ... 조언이요? "

자신을 믿어주는 말에 두근거리던 것도 잠시, 레쉬블처럼 완벽한 사람이누군가에게 조언을 얻었다는 말에 루블라일은 의문에 가득 차 되물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 여러가지로.. 네, 들은게 있습니다. "

레쉬블이 조용히 루블라일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루블라일의 눈가를 살짝 눌렀다. 루블라일은 움찔 몸을 떨었지만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다.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이내 손수건이 떨어지고, 루블라일은 참았던 숨을 내뱉었다. 레쉬블은 손수건을 접어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여상한 어조로 말을 건넸다.

" 자택까지 바래다드려도 괜찮을까요. "

" ... "

루블라일은 말없이 끄덕였다. 목이 메였기에,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편을 들어준 이유는 들었으니 방방 뛰며 좋아해야할텐데 희한하게도 울컥 하는 마음은 진정 될 생각을 안 한다.

" 아, 아가씨! 얼굴이! 언제나 그렇듯 예쁘시긴 한데 눈가가 왜이래요! "

그리고 레쉬블의 에스코트를 받은 채 에스티론 저택 안으로 들어온 루블라일의 얼굴을 보고, 고용인들은 아연실색했다. 그들의 시선이 바로 레쉬블에게로 꽂혔다.

댁이... 원인이지요... ? 우리 아가씨는 댁 관련 일이 아니면 울 일이 없으니까...

고용인들의 눈이 단번에 뾰족해졌다. 주인을 위해 공작이고 신분제고 그깟거 맞다이떠버리고 눈빛만으로도 조지겠다는 충직하고도 살벌한 뜻이 담긴 시선들. 특히 에스나의 눈빛이 제일 강렬했다. 레쉬블의 목울대가 움직였다.

" ... 바래다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때, 그 살벌한 분위기를 깨고 잠긴 듯한 루블라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용인들은 속으로 다같이 속으로 아! 라고 외치며 내적 비명을 질렀다. 분명 공작님 때문에 울고 지금까지도 우울한 거다! 그것도 엄청나게! 고용인들의 눈빛은 방금 전보다 2배정도 더욱 부정적으로 변했다. 레쉬블은 필사적으로 그런 눈빛들을 무시하기 위해 애쓰며 루블라일의 말에 답했다.

"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오늘 많이 놀라셨을텐데, 편히 푹 쉬셨음 좋겠습니다. "

" ... 네. "

많이? 놀라셨을텐데? 우리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레쉬블의 말을 듣고 격한 호기심과 의문의 불안함과 그걸 지켜보는 공작님을 보며 고용인들은 황급히 아가씨에게 하나둘 두다다다 붙기 시작했다.

" 아가씨! 저번에 아가씨가 맛있다고 하신 디저트를 맥이 사왔다지 뭐예요~ 드셔보실래요!? "

" 어머머, 얘! 우리 아가씨는 지금.. 아로마 테라피가 필요하실 거다! 다 비켜! "

" 너, 너네 왜이래 저번달 보너스 부족했니? "

" 아니 아가씨도 참! 그런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신다면 거절하진 않아요! "

" 필피 입 좀 다물어! 아가씨, 필피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

그렇게 고용인들이 루블라일에게 들러붙자, 레쉬블은 자연히 루블라일의 곁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고용인들의 수많은 제안 속에서 인사할 정신도 없어보이는 루블라일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레쉬블은, 이내 조용히 저택을 나섰다.

" 하아... "

레쉬블은 짙은 한숨을 내뱉으며, 사무실의 소파에게 깊게 몸을 뉘였다. 며칠 전, 축제에서 루블라일이 그렇게 가버리고 자신의 호위기사들과 나눴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녔다.

' 아니. 됐다. 방금 전 한 말의 의미부터 말해. '

말없이 시선을 교환한 호위기사들은, 뒤이어 천천히 입을 열었다.

' 솔직히 다른 거 다 제치고 데이트하러 나왔는데 다른 사람 쫓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

' 맞아. 심지어 공작님께서 먼저 데이트 신청하신 거면서. '

' ... 데이트? '

레쉬블은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 중얼거림을 기가 막히게 들은 트레르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 그럼, 연인들의 축제로 유명한 라넌큘러스 축제에 같이 가자고 한게 데이트지 뭡니까? '

'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스티론 영애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영애도 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 무례한 짐작은 그만두도록. '

' ... 그게 무슨... 조이날 후작가가 사람 한명도 안죽였단 소리세요... ? '

나름 돌려말했지만 개소리하지말라는 뜻이었다. 그 뜻을 알아들은 레쉬블은 미간을 찌푸리며 답했다.

' 영애가 직접 연애감정이 아니고, 단지 나를 존경한다고 말했어. '

' 아... ! 아! 이럴수가! 우리 각하! 별명이 철벽의 펙티르인건 알았지만 이정도였을 줄은! '

' 주인께 말하기엔 건방진 단어 선택이지만... 네 말에 동의한다... '

차례대로 트레르, 애그스가 탄식했다. 그들은 각자 고개를 절레절레 젓거나, 한숨을 내뱉으며 자신들의 답답함을 억누르지 못하는 듯 보였다. 굉장히 싸늘한 반응에 레쉬블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 공작님이... 황후 폐하 좋아하는 거 모든 귀족들이 다 아는데 그럼 거기다가 공작님이 좋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

' 맞습니다. 웬만큼 단단한 정신력이 아닌 이상 그거 그렇게 쉽게 말 못하죠. '

' 대체 무슨 소릴... '

' 아니 그런데, 말만 안했지 에스티론 영애님이 공작님 좋아하는 티 엄청 내셨는데 진짜 모르셨단 말입니까? 그걸 단순히 존경의 감정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진짜? 사교계에도 에스티론이 펙티르를 노린다는 말 엄청 많았는데? '

' 뭐... , 무, 슨. '

' 그런데다가 본인이 먼저 데이트 신청하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다니. 전 솔직히 그 자리에서 에스티론 영애가 공작님께 오만 욕을 다 하고 가셨어도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

툭. 레쉬블은 머리를 젖히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미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을 마음에 품는다는게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지 알고 있으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레쉬블 스스로의 마음을 추스르는 것조차 벅차 느끼지 못했던 것일까.

' ──감사합니다! '

황제 폐하의 탄신일 연회에서, 들어가기 전 자신을 향해 활짝 웃던 모습.

' 으흐그흐흑! 절대 못 가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

첨탑 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던 모습.

' 아 내가 좋아하는 건 공작님이라고요! '

그러다 이윽고 터져나온 외침.

' 공작님은, 하네르를 사랑하잖아요.. ? '

하네르에게 그렇게 심한 모함을 받고도 의연했었는데,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스스로가 상처 받았는지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모습.

" ... 나는 정말, 바보인가. "

레쉬블은 손을 들어 제 눈위를 덮었다. 아른거리는 형상들과 소리들로 인해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언제나 누군가의 두번째였던 레쉬블은, 저를 항상 첫번째로 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눈치챘다. 지독한 어지러움에, 잠이라도 자고 싶었지만 정신이 지나치게 또렷했다. 결국 또 한번 한숨이 터져나왔다.

막장주의

외전 신청 코멘트 중에서 본편에 나오지 않을 법한 외전들로 꾸려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1. 성반전

" 이이,이,익,이럴수가.. 펙티르 공작님...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 "

" 예, 감사합니다. "

남녀노소할 것 없이, 눈돌아가게 잘생긴 에스티론 백작가의 영식, 루블라일은 언제나 그렇듯 펙티르 공작의 외모를 찬양하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뒤로 빠졌다. 그러고는 마치 쑥쓰럽다는 듯 제 볼을 붉히며 헤헤 웃었다. 주위에 있던 영애들이 치명타를 맞고 쓰러졌다. 루블라일은 제 옆의 메쉬트를 바라보며 붕방거리는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말하기 시작했다.

" 조이날 영식! 진짜.. 공작님... 너무 쩌는거 같아요... "

" 예. 엄청나시죠. 댁 같은 스토커를 아직도 조지지 않았다니. "

" ! 스스스스토커라뇨!? 저저저는 다다단지 수수순수한 순수 순...순...수..순... "

차마 순수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말을 내뱉기엔 마음 속에 남아 있던 손톱만큼의 양심이 찔린 것인지, 루블라일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데구르르 시선을 옮겼다. 그러자 눈에 박힌 것은 밤하늘빛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고아한 모습의 레쉬블. 화려하게 세공된 사파이어 귀걸이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울리며 은은히 빛났다. 언제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조차도 잘생겼다며 루블라일은 떼흑! 소리를 내며 무너졌다. 그의 옆에 있던 메쉬트는 제 짧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확 쓸어올리며 한심하다는 듯 루블라일을 바라보았다.

" 대상단을 보유한 에스티론 백작 가의 후계가 제대로 청혼 할 생각도 못하고 어줍짢게 스토킹하는 꼴이라니... "

" 허어어어!? 큰일 날 소리를! 공작님은 감히 제가 넘볼 분이 아니랍니다! 저의 마음은! 단순한! 그런.. 어.. 음. 여튼 청혼 한다던가 연인이 되어주십사 청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

" 그럼 스토킹이나 하지마십시오. 보기 추하니까. "

떠윽!

메쉬트의 팩트 어린 말에 루블라일은 침몰했다.

" 조이날 영식은 말을 너무 험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후작과 똑 닮아가지고... "

" 뭐? "

" 아닙니다. 실언했습니다. "

목숨은 소중했던 루블라일이었기에 조용히 입을 닥쳤다. 메쉬트의 새파란 눈이 너무나도 무서웠다. 루블라일은 부산스럽게 눈을 깜빡였다. 그러던 와중, 이번에 사교계의 꽃으로 선정된 벨리엇 영애가 환하게 웃는얼굴로 루블라일의 팔을 붙잡았다.

" 에스티론 영식. "

" ? 아, 아. 네. 벨리엇 영애. 무슨 일이신가요? "

상단을 통한 거래 때문에 벨리엇 백작 가와는 어느정도 친분이 있었기에, 루블라일은 선선히 웃으며 상냥하게 물었다. 벨리엇 영애는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속삭였다.

" 저.. 영식이랑 꽤 친해져서 하는 말이니, 진지하게 들어주셨음 해요. 저와...정식으로 교제하실래요? "

" !? "

모두가 술렁였다. 루블라일은 잠시 눈을 깜빡이다 제 뒷머리를 긁적였다.

" 죄송합니다. "

단박에 나온 거절의 말. 귀족들은 또 한번 술렁이고, 벨리엇 영애는 얼굴이 새빨게지며 목소리를 높였다.

" 어, 어째서죠! 저 정도면 괜찮을 텐데! "

" 앗, 영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제 문제입니다. 전... 저는...

... 공작님 같이 잘생긴 분이 취향이라... "

그렇게 사교계에선 잘생겨보이는 스타일이 호다닥 유행했다.

" 미... 친. "

루블라일은 제 목에서 나오는 듣기 좋은 중저음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탄탄한 가슴, 오지는 복근, 졸라 잘생긴 얼굴. 커다랗고 핏줄이 도드라진 손. 거울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다. 손을 뻗어 거울을 더듬었다. 끝내주게 잘생긴 미남이 입을 헤 벌린 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멍청한 표정을 지어도 감탄할 만한 얼굴을 지닌 사람은 흔치 않았다.

" 미친... "

아무래도, 자신은 공작님의 몸 속에 뾱 하고 빙의한 것 같았다.

저절로 얼굴에 열이 쏠렸다.

" 역시.. 공작님이다. 이 완벽한 사람... "

부끄러웠던 것도 잠시, 저절로 훈훈해지는 미소를 막을 수가 없었다. 루블라일은 양심 상 감상은 여기서 멈추고 눈을 감은 채 제 몸...아니, 레쉬블의 몸 위로 상의를 껴입었다.

그리고 펙티르 공작 저에 연통을 넣고 쳐들어온 루블라일, 아니 레쉬블 덕에 펙티르 공작 저는 비상이 걸렸다. 그 에스티론 영애가 정식으로 연통을 넣고 공작 저에 발을 들이다니! 드디어 에스티론 영애가 우리 공작님에게 청혼을!?

그렇게 공작 저 내의 고용인들이 착각을 착실히 쌓을 동안, 응접실에서 마주친 둘은 서로를 착잡하게 바라보았다.

" ... 영애. "

루블라일의 거죽을 뒤집어 쓴 레쉬블이 말했다. 레쉬블은 제 입에서 청아하고 맑게 울리는 목소리가 나오는게 어색한지 목을 더듬었다. 루블라일은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입을 열었다.

" 공작님. "

굵직한 목소리가 나오자, 레쉬블은 흠칫 놀라며 루블라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레쉬블은 길게 드리워진 앞머리를 쓸어올리며, 한숨을 푹 내뱉었다.

" 하아. 어쩌다 이런 꼴이 된 건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영애는 짐작가는 바가 있습니까? "

루블라일은 제 얼굴로 오만상을 다찌푸리고 있는 레쉬블을 보고는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내.. 내 얼굴도 제법 예쁘군... 아니, 저 속 안에 공작님이 계셔서 예뻐보이는 건가...

" 모르겠네요. 이게 데스티니? "

" 예? "

" 아닙니다. "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드립을 치다, 싸늘한 녹빛의 눈동자를 마주하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아 그런데 진짜 확실히, 최애의 몸에 들어와서 기쁘긴 한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큰일이었다. 왜냐하면,,, 루블라일이 레쉬블의 이미지를 다 조져놓을 확률이 8616981661퍼 였기 때문이다,,,

착잡한 분위기 속에서, 레쉬블은 한숨을 내뱉었다.

" 솔직히 무슨 방도가 없으니, 그냥 서로의 흉내를 내며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군요. "

" ? 제가요? 공작님 흉내를요? "

" ... "

레쉬블도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단번에 조용해졌다. 두배는 더 착잡해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 그... 최대한 과묵하게 지내주세요. "

" 앗... 네... 맞아, 공작님은 제 흉내 내실 수 있으세요? "

루블라일은 큰 손으로 턱을 매만지며 물었다. 레쉬블은 잠시 멈칫, 하는 거 같더니...

" 허어어어ㅓㅓ어거어거억ㄱ어거! 고고곡ㄱ곡공작님! "

누가 봐도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었다. 루블라일은 입을 크게 쩍 벌렸다가, 이내 조용히 물어보았다.

" ... 제가 그렇게 많이 추했나요.. ? "

" ... "

무언의 긍정에, 루블라일은 또르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 헤헥... "

루블라일은 씰룩거리며 올라오는 입꼬리를 막을 수가 없었다.

레쉬블 한정으로 지옥에서 올라온 야생의 감이 발동되는 루블라일이었기에, 레쉬블이 자신이 가는 곳마다 뒤에서 몰래 쫓아온다는 것쯤에 벌써 옛날에 알아챘다. 하지만 최대한 모르는 척 하며, 제 볼일을 보는 것마냥 제 앞에 놓인 보석들을 쑥 훑어보았다. 그리고 태연한 척 보석상과 얘기를 나누었다. 가게의 유리창 너머, 저를 주시하는 시선이 느껴진다.

" 라벤더 제이드는 없나? "

" 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마 안쪽에 있을 겁니다. "

보석상이 가게 안쪽으로 사라지고, 루블라일은 홱 뒤를 돌아보았다. 레쉬블은 어느새 모습을 감춘 상태였다.

' 아이고 이 수줍은 많은 사람... '

거 앞에서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항상 찾으려 하면 이런다. 루블라일은 멋쩍게 웃으며 다시 시선을 보석쪽으로 향했다. 저 수줍은 많은 사람을 언젠가는 붙잡아서 끝장을 봐야하는데. 짧은 상념도 잠시, 보석상이 제 손 위에 은은한 연보랏빛을 띄는 제이드를 들고 왔다. 루블라일은 망설이지 않고 돈을 꺼냈다.

" 아.. 빠르다, 빨라. "

모르는 척 하고 레쉬블이 있는 쪽으로 갈려했더니, 바로 눈치채고는 모습을 감추었다. 루블라일은 오늘이야말로 끝장을 볼려 작정을 한 상태였기에, 이 숨박꼭질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다. 무슨 좋은 방도가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

" ... 어? "

저 멀리서, 밤하늘 빛의 눈동자와 마주했다. 루블라일이 얼빠진 소리를 낸 걸 들은 건지 레쉬블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그리고 뒤돌아 도망칠려는 것을 보고 루블라일은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 멈춰요! "

높인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우렁찼다. 그 기백에 레쉬블이 저도 모르게 기겁하고 멈추는 것이 보였다. 루블라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 허랴압ㅂ!"

" ?! "

쿠당탕탕!

몸을 날려 레쉬블에게 몸통박치기를 시전했다. 레쉬블은 엄청 당황한 얼굴로 날아오는 루블라일을 받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루블라일은 퍼뜩 고개를 들며 레쉬블의 양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외쳤다.

" 왜 자꾸 저 쫓아오세요? "

" 영, 영, 영애, "

레쉬블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누가봐도 얼굴에 '미밈미칮 들켰다'하는 얼굴이었다. 루블라일은 그런 레쉬블의 사정 따위 봐주지 않고 미친듯이 몰아붙였다.

" 저번에 산책할 때도! 상단 일 때문에 타 영지에 갔을 때도! 심지어 폐하를 알현할 일이 있어 황궁에 들어갔을 때도! "

" ... ! 다, 다 알고 계셨, "

더 이상 몰아붙였다면 울 기세였다. 레쉬블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루블라일은 흐으으읍, 크게 숨을 들이마쉬며 외쳤다.

" 왜! 자꾸 뒤에서 쫓아오냐고요! 저는 공작님의 잘생긴 얼굴, 바로 앞에서 보고 싶은데! "

" ?! "

생각치도 못한 말에 레쉬블의 눈이 크게 떠졌다. 루블라일은 졸라 멋있게 미소지으며 나직히 속삭였다.

" 애기야, 우리 오늘부터 1일? "

" ... ! 영, 영애... "

두근! 너무 멋있는 고백에 레쉬블은 두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으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 삶이여... "

그렇다. 루블라일은 지금, 현실자각타임을 갖는 중이었다. 새하얀 이불을 몸에 칭칭 두른 채 루블라일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 아 미친 거 아냐! "

팡파라팡팡!

격하게 몸부림치며 제법 자유로운 다리로 미친듯이 침대를 내려쳤다. 루블라일은 제 하얀 머리카락을 거침없이 쥐어뜯었다.

" 아니 하네르 사랑하냐고 왜 물어봐? 루블라일 미쳤니? 아주 그냥 아 제가 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님이 좋아한다는 하네르란 분이 너무 신경쓰이네요~!~!~! 라고 제국 전체에! 광고를! 해라! "

아!

입 밖으로 내뱉고 나니 더욱 더 진한 현타가 루블라일을 강타했다. 루블라일은 푹신한 침대 매트에 얼굴을 박으며 웅얼거렸다.

" 거기서 울긴 왜 우는데... "

공작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그냥 편 들어줬으면 아이고 헤헤 감사합니당! 하고 만족하면 될 것을 꼭 난리 맞을 욕심이 주제를 모르고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한다. 루블라일은 푸흐허흑, 하고 긴 한숨을 쉬었다. 편 들어줬는데 갑자기 질질 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그런데 착한 우리 공작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네...

마음까지 완벽한 사람...

결국 기승전레쉬블찬양으로 생각을 마무리할 때쯤에, 똑똑. 하고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루블라일은 힘없이 대답했다.

" 들어와. "

" 세상에, 아가씨... "

루블라일의 허락에 방문을 연 필피는 루블라일의 몰골을 보고 조용히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어, 뒷말을 덧붙였다.

" 인생에 대해 되돌아보고 계시나요? "

" ? 그걸 어떻게 알았어. "

" 음...이불로 온 몸을 칭칭 두르고 계셔서? "

" 난 너처럼 감이 좋은 꼬맹이는 싫어해. "

" ㄴ, 네? "

" 혼잣말이야. "

혼잣말처럼 안보이는데요...

소심한 필피의 항의는 쿨하고 넘기고, 루블라일은 또 한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공작님 얼굴 어떻게 볼까... 볼 수는 있냐 보자마자 쪽팔려서 3단점프해서 도망칠 거 같은데... 그런데 이 힘든 삶에 그 잘생긴 얼굴을 못보면 어떻게 살아가지... ?

" 아 참, 아가씨. 여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인님들께서 아가씨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저 멀리 있는 베트론 영지에서 보낸 거라 이제야 도착한 거 같네요. "

" ? 뭐요? "

흐름대로 의식을 보내고 있다가, 루블라일은 필피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소식에 두 눈을 홉! 하고 크게 떴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갑자기 루블라일의 부모님께서 왜!? 물론 언젠가는 대면해야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안그래도 멘탈 작살 난 상태에서 굳이! 이 타이밍에! 하지만 이런 루블라일의 마음도 몰라주는 필피는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루블라일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 ... "

루블라일은 인상을 팍 쓰며 그 편지를 받아들고, 레터 오프너로 편지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누가봐도 고급져보이는 편지지가 들어있었고, 내용은...

" 정신차려라.”

여기 베트론까지 네가 펙티르 공작을 노린다는 소문이 쫙 퍼졌구나. 펙티르 공작이면 좋은 남자지만, 너는 백작 위를 이어야하니까. 공작의 지위를 가진 남자가 에스티론 백작 저에 데릴사위로 들어올 일 따윈 없을테니 적당히 자작이나 남작 가의 남자 하나 데려오거라. 감히 백작 가의 재산을 노리지 않을만한 소심한 놈으로.

조이날 후작도 무사히 작위를 얻지 않았느냐. 너도 이제 슬슬 영애가 아니라 백작이 되어야지. 되지도 않는 거에 시간 쏟지 말고.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수업도 받아야겠구나. 빠른 시일 내에 교사를 보내마.

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네 어미가 힘들어하는구나. 알아서 잘 하고 다녀라.

" 이런 염... "

전생에서는 부모님이 없었고, 이번생의 부모님은... 굉장히 사람 열뻗치게 하는데 도가 튼 사람인 것 같았다. 안그래도 없었던 부모란 존재의 기대치가 더더욱 떨어졌다. 루블라일의 허락 하에 옆에서 같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필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 아, 아가씨. 주인님은 아가씨를 걱정하셔ㅅ.. "

" 아니! 어떻게 펙티르 공작님을 단순히 좋은 남자라고 표현해!? 좋은 남자 수준이 아니라 환장하게 잘생기고 엄청나게 좋은 사람인데! "

" 아.. 거기서 화나셨군요... "

필피의 짜게 식은 표정 같은 건 확인할 정신이 없었던 루블라일은 깊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편지를 바닥에 내팽겨쳤다. 편지의 내용을 보고 화난 것도 있었지만, 어느정도는 안심했다. 루블라일과 그녀의 부모님들은 그다지 친한 것 같지는 않았으니. 말하는 거 보니 앞으로 얼굴 맞댈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았다. 루블라일은 흠. 하고 작게 소리냈다.

백작이라. 공작님 앓는데 바빠 앞으로의 일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앗,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쓰레기가 된 기분인데...

그리고 레쉬블을 노릴 생각같은 거, 아예 안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정말 그와 결혼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다. 그도 그럴게, 레쉬블은 하네르를 좋아하니까. 아무리 레쉬블이 좋은 사람이어도 이건 절대 변하지 않을 불변의 법칙이었다. 저번엔 운 좋게 내 편을 들어줬다고 해도 하네르에 대한 마음을 접어서 그런 건 아니었지 않았나.

"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자폭하는 느낌인데.. "

" 네? 아가씨 뭐라고 하셨나요? "

" 아냐,아냐. 편지 고맙고 나가봐. "

" 네. "

꾸벅, 필피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방 밖을 나갔다. 루블라일은 손을 뻗어 바닥에 집어던졌던 편지를 주워들고는, 뭐에 홀린 사람마냥 여러번 편지를 읽었다. 계속 읽는 다고 해서 편지의 내용이 화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딱히 틀린 말도 없었다.

" ... "

그래, 빨리 마음 접는게 모두에게 좋을 테니까. 루블라일은 울렁거리는 속을 무시하고 편지에서 시선을 떼고 공작님 컬렉션들이 모여있는 서랍장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벌컥 열고 나갔다. 마침 필피는 바로 방문 앞에 있었다. 에스나와, 또 다른 시녀들과 함께 잠시 담소를 나누고 있었던 듯, 시녀 여러명이 말을 하던 걸 멈추고 루블라일에게 말을 건넸다.

" 어? 아가씨?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

" ... 저거, 다 갖다버려. "

" ...네? 저, 저것들은... "

" 빨리. 나 마음 바뀌기 전에. "

" 네에... "

시녀들은 루블라일이 검지로 가리킨 것을 보고 저것들을 버려야하는게 맞냐며 재차 물었지만, 루블라일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결국, 시녀들은 서랍장을 통째로 들고 밖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 ...아, 잠깐만. "

" 다시 방에 들이시겠어요? "

"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버려. "

루블라일은 공작님 컬렉션이 담긴 서랍장 안에서, 아무런 무늬도 없는 검은색 손수건만 꺼내었다. 시녀들은 여전히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컬렉션들을 전부 버리기 위해 서랍장을 들고 옮겼다. 시녀들이 점점 멀어지는 걸 확인한 루블라일은, 제 손에 들린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그때, 레쉬블의 호위기사인 트레르에게서 거금을 주고 산 손수건. 트레르의 말로는 레쉬블의 땀을 닦고 3일 동안 묵혀둔 손수건이라고 했었다.

" ...돈이 아까워서 그래. "

꽤 많은 돈을 트레르한테 줬으니까. 돈이 아까워서 안버리는 거야. 루블라일은 합리화를 하며, 손수건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사교계는 또 한번 뒤집어졌다. 한동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펙티르 공작을 졸졸졸 쫓아다니던 루블라일이, 마치 황제 폐하의 명으로 인하여 한달 간 근신 처벌을 받기 전의 모습처럼 완벽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루블라일을 티파티에 초대했던 귀부인들이나, 영애들이 입을 모아 떠들어댔기 때문이다.

근신 처벌을 받은 후에는 뭔가 발랄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딱 하네르를 건들기 전처럼, 정적이고 우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유명한 조이날 후작과 친하게 지낸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조이날 후작과 짜고 현 황후 폐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이제 와서 조이날 후작과 에스티론 영애가 황후를 건드려봤자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기에 그런 흉흉한 소문은 어느정도 사라졌다. 그리고...

" 아, 못해먹겠네 진짜. "

" 에스티론 영애. 곧 백작위를 승계받는다면서요. 자나깨나 입조심하셔야죠. "

" 친애하는 조이날 후작님, 우리 서로 까발릴 거 다 까발린 사이에 퍽퍽하게 굴지 맙시다. "

" 내 앞에서 이리 말할정도면 많이 피곤하긴 했나보네요. 아 참, 그 소문 들었어요? 저랑 블리가 황후 폐하를 해하기 위해 친하게 지낸단 소문이요. "

" 그 작자들 아직도 그러고 산답니까? 그리고 저 블리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어감 이상해! 네이밍 센스 왜그래요 도대체!? "

" 뭐라고요? "

" 아 헤헤 자나깨나 입조심 하겠다고요. "

그 소문의 당사자인 루블라일과, 메쉬트는 제법 친근한 기색으로 에스티론 백작 저에서 얘기를 나누며 차를 마셨다. 고용인들은 처음 메쉬트가 이 저택에 방문했을 때는 기절할 듯 놀랐으나, 메쉬트의 저택 방문이 이틀에 한번 꼴로 일어나니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이것저것 디저트를 내오며 제 주인과 메쉬트의 얘기를 들으며 즐겁게 웃기도 했다.

" 그래서? 블리는 펙티르 공작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

" 후작님. "

" 메시라고 부르라 했잖아요. "

" 후작님. "

" 말 안듣네? "

" 아휴 메시! 우리 서로 민감한 문제는 건들지 맙시다! "

나름 평화롭게 대화를 이어가던 것도 잠시였다. 메쉬트는 작정하고 루블라일을 털려는 듯, 지금 루블라일한테 있어서 제일 민감한 문제를 꺼내었다. 루블라일은 이리저리 딴소리를 하며 화제를 바꿀려 했지만, 메쉬트가 누굴까. 루블라일 엿먹이기에 최적화 된 인간이었다.

" 요즘 밀당하잖아요? "

" 그게 뭔 개.. 아 아니 이상한 말씀을. 밀당이라뇨? "

" 아니에요? 주인 반기는 개마냥 꼬리 흔들다가 갑자기 모른 척 피해다니길래 당연히 밀당인 줄 알았는데. "

" 허허 거 참 비유 한번 끝내주게 하시네. 그런거 아닙니다. "

" 그럼 뭔데요? "

으음...

루블라일은 슬쩍 메쉬트의 시선을 피하며 찻잔을 들었다. 불편해 죽겠고,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었지만 다 털어놓을 때까지 끈질기게 물어볼테지. 언제나 승자는 메쉬트였기에, 루블라일은 반쯤 포기한 심정으로 한숨을 내뱉듯 말을 토해냈다.

" 그거죠, 그냥 감정 정리. "

" 세상에? 왜요? "

" 왜긴요. 공작님께서 황후 폐하 좋아하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어줍짢게 제가 깔짝거려봤자 뭐가 좋겠어요. "

" 그래도 몇주 전에는 블리의 편 들어줬잖아요? 그 펙티르 공작이. "

" 아 그놈의 블리 진짜! ... 그건, 공작님이 너무 착해빠지셔서 한번 편 들어주신 거죠. "

" 누가요? 그 펙티르가? 착해? "

" 놀랍게도, 펙티르 공작님은 메시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착하시답니다! "

" 이럴수가, 그건 부정 못 하겠군요. "

루블라일에게 있어 다행히도, 이야기는 시덥잖은 주제로 넘어갔다. 한참을 그렇게 별별 일을 입에 올리며 나름 평화롭게 얘기하던 것도 잠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메쉬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얘기는 끝이 났다.

" 드디어 가시나요? "

" 너무 좋아하는데요. 표정 숨길 생각 좀 하죠? "

" 앗...너무 좋아서 그만... "

꺄악! 루블라일은 짐짓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제 양손으로 씰룩거리는 입가를 가렸다. 메쉬트는 그런 루블라일을 내려다보며 할 말이 많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씩 웃어보이며 손을 살랑였다. 루블라일도 방긋 웃으며 얼른 꺼지라는 뜻을 담아 빠르게 손을 흔들었다.

" 아, 맞아. "

" 빨리 안 가고 왜요? "

밖으로 나서려던 메쉬트가 뒤돌며 말을 건네자, 루블라일은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고 부루퉁하게 입술을 내밀었다. 메쉬트의 기세가 조금 사나워지자 바로 방긋방긋 웃었지만.

" 단순히 감정 정리를 위해서 펙티르 공작을 쫓아다니는 걸 멈췄다고 했죠? "

" 아니 또 그 얘기는 왜... 네, 네. 그렇습니다. "

" 블리, 그런데 있잖아요... "

메쉬트는 아주 대단한 비밀을 알려줄려는 사람마냥 의뭉스러운 웃음을 입에 걸고 루블라일의 귓가에 속삭였다.

" 그게 의도치 않은 밀당이 된 것 같네요. "

" ... ? 대체 무슨 소ㄹ, 아! 뭐야! 뭔 말을 하다 말고 가요! "

사람 궁금하게!

메쉬트는 제 뒷통수에 대고 소리지르는 루블라일을 가뿐히 무시하며 빠른 발걸음으로 에스티론 백작 저를 벗어났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차에 올라탄 메쉬트는, 요즘 황궁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척한 얼굴이었던 펙티르 공작을 떠올리고는 사악하게 웃었다.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가 제일 재밌는 거였다.

" 하아... "

요즘 레쉬블의 입술 사이로 나오는 소리 중에,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숨이 오늘도 여김없이 튀어나왔다. 레쉬블은 정리하던 서류를 내려놓고 제 미간 사이를 문질렀다.

" ... "

벌써 9번째다. 루블라일이 놀러가자는 제 청을 거절한게. 레쉬블은 거절의 답이 쓰여있던 루블라일의 편지를 떠올리며 또 한번 후, 하고 한숨을 내뱉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잡념을 떨쳐내기 위해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답답했다. 레쉬블의 시선이 저절로 탁자의 왼편에 놓여있는 작은 오르골에게로 향했다.

하네르가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선물한 이를 상징하듯, 오르골에는 검은색과 노란색의 문양이 한데 뒤섞여 화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레쉬블은 저절로 하네르를 떠올렸다. 언제나 순수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언제나 그녀는 저를 향해 말갛게 웃어보이곤 했다. 레쉬블이 자신의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기쁘다며. 레쉬블은 그런 하네르의 미소를 떠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개가 낀 듯 그 모습이 뿌옇게 흐려진 채 떠오를 뿐이었다.

" ... "

레쉬블은 오르골 쪽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검지로 문양을 쓸었다. 무언가 불안할 때 하네르를 생각하며 진정하기 위해 하는 버릇이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무리 오르골을 만져도, 술렁이는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뿌옇게 흐려진 하네르의 미소를 뒤로 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루블라일의 모습이 생각이 났다. 툭, 레쉬블은 오르골을 치며 생각에 잠겼다.

' 죄송합니다. 한동안 후계자 수업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따로 약속을 잡기에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

루블라일을 떠올리자 뒤따라 그녀가 보낸 편지가 같이 생각난다. 언제나 똑같은 문구의, 거절의 내용을 담은 편지. 아무래도 그때의 일 이후로, 계속 거절만 당하고 있었다. 레쉬블은 저절로 제 미간을 찌푸렸다. 어째서 갑자기 행동을 바꾼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레쉬블은 조용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저만은 바라보던 눈동자를 생각했다.

마치 눈 앞에 반짝이는 녹색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 레쉬블은 뒤로 몸을 젖혔다. 무리하게 뒤로 젖히니 의자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듯 끼이이익, 하는 소리를 내뱉었다. 그 소리가 거슬리면서도, 레쉬블은 몸을 바로 하지 않았다.

마음이 묘하게 허했다. 원래 이때쯤이면 이상한 숨소리를 내며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야 했는데. 최근 몇주간은, 숨소리는 커녕 그녀의 새하얀 머리카락 한 올 조차 발견하지도 못했다.

" 하, "

레쉬블은 제 생각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흘렸다. 머리카락조차 발견 못했다니, 마치 전에 루블라일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게 연상되지 않는가. 어째 반대로 뒤바뀐 느낌이었다. 레쉬블은 자신도 자각하지 못한 채, 루블라일의 시시각각 변하던 표정들을 생각하며 두 눈을 감았다. 그 표정들 중에, 레쉬블을 쳐다보며 새빨갛게 물든 얼굴이 태반이었다.

크게 확장된 동공, 빨개진 얼굴, 거칠어진 숨소리, 긴장했는지 덜덜 떨리는 말. 루블라일의 새하얀 머리카락과 대비되어 빨간 얼굴이 더욱 잘 보였었지.

... 그리고 최근 들어, 한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기도 했다. 레쉬블은 일그러지는 얼굴을 막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첫번째로 여겨주는 그 눈빛을 한번도 받지 못했더라면, 이걸 그리워하는 일도 없었을텐데. 레쉬블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주는 눈빛을 보여줘놓고, 그걸 자각하니 이제는 꽁꽁 숨어버렸다.

레쉬블은 언제나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 우정이든, 사랑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은 언제나 2순위였고, 레쉬블은 크게 욕심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첫번째가 아니란 걸 지독히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어줍짢게 욕심을 부려, 선을 넘고 모든 걸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루블라일에게 있어서, 레쉬블은 첫번째였다. 여태껏 자신이 왜 눈치채지 못 한게 이상할 정도로 그녀에게 있어서 그는 첫번째가 틀림없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한번도 부리지 않았던 기묘한 욕심이 자꾸 제 속을 들쑤셨다.

레쉬블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울렁거리는 속을 누르기 위해 천천히 숨을 들이마쉬었다. 레쉬블은 또 한번 한숨을 터뜨리며, 자세를 바로 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 레쉬블이 처리해야할 일은 많았고, 당장 오늘 중으로 황제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안건들도 수두룩했다. 황후, 하네르에 대한 불만이 가득 담긴 상소라던가... 뭐, 그런 것들.

일단은 황제와 상의해야 하는 일부터 해야겠다. 누군가와 떠들면 잡념도 사라지겠지. 레쉬블은 그리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 폐하. "

황제의 집무실에 도착한 레쉬블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제 앞의 이에게 인사했다. 일하러 온 것이니 긴 인삿말은 생략했다. 테이거스는 레쉬블에게 맞은 편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며 손짓했다. 레쉬블이 자리에 앉자, 테이거스는 휙휙 종이들을 무성의하게 넘기며 툭 던지듯 물었다.

" 안건은? "

" ... 황후 폐하에 대한 상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

레쉬블은 착잡한 심정으로 말을 꺼냈다. 레쉬블은 자신이 가져온 서류 중에서, 제일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테이거스의 책상에 턱 올려놓았다. 레쉬블은 제 사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며, 입을 열었다.

" 황후 폐하께서 처리하셔야할 일들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고 행정부에서 일하는 고위 귀족들에게 전부 넘어와 다들 불만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럴거면 황비나 후궁도 고려해보셔야하지 않냐,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황후 폐하의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도, 황후 폐하께서 공부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으시다며... "

" 레쉬블. "

테이거스가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레쉬블의 말을 끊었다. 레쉬블은 그런 테이거스를 고요히 바라보았다. 이내, 테이거스의 입에선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다.

" 앞으로 황후에 대한 상소문은 나에게 일체 언급하지 말도록. "

" 예? "

" 어차피 짐은 그녀에게 황후의 역할을 기대하고 이 황궁에 들인 것이 아니야. "

"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

황후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고 들인 것이 아니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 레쉬블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테이거스에게 물었다. 테이거스는 나른하게 웃으며 노래하듯 말했다.

" 고작 평민이 뭘 하겠나? 일은 뭐, 짐도 있고 귀족들도 있으니 딱히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일이 조금 더 늘어난 것 뿐이고. "

" ... 그런... 대체 황후에게 황후의 역할을 기대하고 들인게 아니라면, 무얼 위해 황후의 자리에 앉히신 겁니까. "

레쉬블은 가면 갈수록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제 주군의 모습에, 익숙한 두통이 머릿속을 괴롭히는 것을 느꼈다. 그런 레쉬블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테이거스는 여전히 웃으며 자신의 찬란한 금발을 쓸어올렸다.

" 인형. "

" ... 네? "

" 순종적이고, 귀여운 인형. 짐은 그걸 기대하고 넬리를 황후 자리에 앉혔네. 짐과 동등하게 맞먹을려 드는 여자는 별로여서 말이야. 조이날 후작이라던가.. 뭐, 그런 여자들. "

레쉬블은 지금 자기가 들은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레쉬블이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있자, 테이거스는 그런 레쉬블이 웃긴 건지 나직히 웃음을 터뜨렸다.

" 아니! 왜 새삼 놀랐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건가? 레쉬블 자네도 그런 모습에 넬리한테 반한 거였잖나! "

" 무, "

슨 헛소리를.

레쉬블은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으며, 제 주군에게 망발을 내뱉는 불충을 저지르지 않았다. 테이거스는 계속 말을 이었다.

" 평민에, 순종적이고, 적당히 애교 떨 줄 알고, 그 주제에 열등감은 있어서 주변의 영애들과 비교하면서 더욱더 자신을 가꾸고, 애정이 떠나간다 싶으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귀엽지 않은가? 애초에 그녀를 내 가까이에 둔 이유는 그것 밖에 없으니, 굳이 일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머리 텅 빈 귀여운 인형. 거기까지가 딱 그녀의 역할이니까. "

레쉬블은 들고 있던 나머지 서류들을 떨어뜨렸다. 팔랑, 팔랑. 검은 글씨로 빼곡하게 매워진 종이들이 집무실 바닥에 흩날렸지만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다.

" 그러니 그녀가 맡은 일에 관한 건... 레쉬블, 자네가 조금 더 수고해주면 좋겠어. 그대는 유능하니까 그것까지 해줄 수 있겠지? "

" ... 지금 폐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알고는, "

" ... "

" ... 예, 알겠습니다. "

그 이상의 참견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저를 싸하게 내려다보는 눈빛에 레쉬블은 꾸역꾸역 제 속마음을 삼키며 힘겹게 대답을 내뱉었다.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그런 레쉬블의 순종적인 모습에, 테이거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우며 덕담을 건넸다.

" 맞아, 자네도 어서 에스티론 영애를 붙잡는게 어때? "

" .. 네? "

" 루블라일 리브 에스티론. 지금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는데, 똑똑해지기 전에 당장 붙잡으란 말이야. 똑똑해지면 재미가 없지 않나. 그대한테 굉장히 맹목적이니, 이때 얼른 잡아야지. "

레쉬블은 저절로 제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 에스티론 영애라면, 분명 자네한테 설설 기며 지낼테니까. 새끼 개마냥 말이야. 지금이라면 적당히 멍청할 때니, 귀찮겠지만 살살 달래가며 순종적이게 만들── "

쾅!

레쉬블이 테이거스의 책상을 내려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 앞에 분노로 새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다. 뒷목이 서늘하게 당기면서,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자신의 주군이 심성이 고운 이가 아니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

양 뺨을 빨갛게 물들인 채,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던 루블라일이 떠올랐다.

점차, 제 안에서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주군이자 오래된 친우라는 사실이, 유리가 깨지듯 박살나며 사라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무언가 참고 있던게 터졌다.

" 다른 이를 모욕하는 것도 적당히 하십시오. "

간신히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언제나 군신의 선을 지키며, 한발짝 물러나있던 레쉬블의 모습이 망가졌다. 그는 항상 머리를 숙이며 무슨 명이든지 간에 따랐던 모습을 없애버리고, 제 주군을 사나운 눈빛으로 내려다봤다. 테이거스는 급작스레 변한 분위기에, 당황한 눈치였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ㅠㅠㅠ!

최근 루블라일은 얼굴도 뵌 적 없는 부모님의 말에 따라 지옥의 후계자 수업을 받는 중이었다. 경영, 경제 등을 포함하여 상단에 관련된 수많은 수업들을. 마치 헬국의 입시마냥 어마어마한 수업량을 자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블라일은 그 수업들을 완벽하게 해내었다. 경제학을 담당하던 교사 모 씨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루블라일이 이 무시무시한 수업들을 앓는 소리도 없이 올 클리어 시킨 이유 중에는, 전생에 한번 헬국 입시를 경험해봐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잊는다!

" 세상에! 에스티론 영애! 이 어려운 걸 한 문제 밖에 안 틀리다니! "

연애감정!

" 지져스! 뭡니까,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어디서 미리 공부하고 오신 거지요! "

돌아가자!

" 지금 당장 조그만 상단 하나 운영해도 문제 없겠습니다! "

퓨어한 덕후로!

... 상태였기 때문에, 루블라일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공부를 거의 마스터 한 후. 교사 한 분이 던지고 간, 아주 거대한 과제가 루블라일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 tlqkf... "

루블라일의 입에서 현란한 영어 욕설이 튀어나오게 만든 바로 그 과제!

" 아 황제 얼굴 보기 싫다고... "

한 귀족 가문의 수장이라면 누구나 한다는 황제한테 가서 영지 관련 서류 승인 받기!

" 으흑 황제 얼굴 보기 진짜 싫다고! "

" 아가씨 그러다 잡혀 가요... ! "

" 몰라 염병! 난 나보다 약한 자의 말은 듣지 않아! "

" 아니 아가씨! "

루블라일은 서류 뭉치에 얼굴을 처박으며 빡침을 숨기지 못했다. 혹 제 아가씨가 불경죄로 잡혀 갈까, 에스나만 안절부절 할 뿐이었다.

" 아가씨, 여태까지 잘 하셨잖아요! 이번 과제만 완료하면 에스티론 백작 가는 곧 아가씨 거라구요! "

" 필피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속물적인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

" 아 아니 말을 하다보니 좀 속물적으로 나오긴 했지만요... 여, 여튼 백작님께서도 아가씨가 후계자 수업만 잘 마무리하면 곧 작위를 넘겨주시겠다고 했었으니까요.. 네? 아가씨, 조금만 힘내세요... ! "

끄응.

필사적인 에스나의 설득에 루블라일은 작게 앓는 소리를 냈다. 그렇게 고민하길 한참, 루블라일은 이내 결심이 선 것인지 서류 뭉치를 소중히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 그래. 그냥 후딱 끝내고 올게! "

" ! 네, 아가씨! 얼른 마차 대기 시켜놓을게요! "

그렇게 짜잔! 황궁에 도착했습니다! 무언가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된 것 같지만, 지금의 루블라일은 테이거스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예민하므로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루블라일은 손에 곱게 들린 서류 뭉치를 흘긋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겼다. 황궁의 경비병이 그녀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이며 문을 열었다.

궁 안으로 들어서자, 마침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시종이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무슨 일이냐 물어왔다. 루블라일이 영지 관련 서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왔다고 간단히 답하자, 시종은 그녀를 황제의 집무실로 안내했다. 이윽고, 집무실의 문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왔는데...

" ? "

기분 탓일까? 집무실 앞을 지나가는 황궁의 고용인들이, 미묘하게 집무실 앞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가 간신히 발을 떼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집무실에서 흥미로운 소리가 들려온다는 듯이.

루블라일의 촉이 날뛰며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했다. 뒤에서 시종이 앗,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 하고 소심하게 외쳤으나, 그 소리는 루블라일의 고막에서 피융! 하고 튕겨져 나갔다.

... 제가 다 불민한 탓이겠지요!

레쉬블, 자네 미쳤나!?

그리고 집무실의 문 앞에 당도하자마자, 루블라일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공작님의 지져스 오지는 보이스와 황제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루블라일은 한달이 넘어가도록 듣지 못한 레쉬블의 음성을 듣고 순간적으로 아찔함을 느꼈으나, 그들의 목소리에서부터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뭐지? 왜 둘이 싸우는 거 같지?

그...은, 사람입니다! 물론 폐하... 서고 계시지만, 일단 사람으로써의 대우는 기본... ... 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고작 그것... 에, ... 건가?

그들의 목소리가 드문 드문, 끊겨서 들려왔다. 말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루블라일은 조용히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언제나 군신의 예를 다하던 공작님이 황제에게 화내는 이유는 단 하나겠지.

황제 개새가 공작님한테 하네르에 관해서 헛소리를 했다.

생각을 마치고 마음 한 구석이 울렁였지만, 애써 무시하며 루블라일은 주먹을 치켜들었다.

콰아카카오촤콸릿콰쾅쾈쾅!

모 겨울왕국의 어린 공주님이 울고 갈만한 리드미컬한 노크 실력에, 문 너머로 들려오던 소리가 뚝 멈췄다. 루블라일은 단단한 집무실의 문을 두드리느라 열심히 고통을 호소하는 제 손을 부여잡았다. 그렇게 정적 속에서 서있길 한참, 집무실의 문 너머로 테이거스가 누구냐고 짜증을 가득 담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 제국의 태양이 영원히 빛나길. 루블라일 리브 에스티론 입니다, 폐하. "

루블라일은 방정맞게 두드리던 노크와는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

...

..

... 들어오라.

" 네. "

긴 침묵 끝에, 드디어 집무실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루블라일은 집무실 안에 레쉬블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마음 정리를 위해 한달이라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그를 피해 다녔고, 그렇기에 지금 얼굴을 보는게 두렵지만... 저 뭔지도 모를 황제의 헛소리에서 고통 받고 있을 공작님을 구해내야만 한다. 루블라일은 심호흡을 하고 문고리를 잡아 돌려 문을 열었다.

" ... "

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레쉬블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차마 정리하지 못한 감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랜만에 보인 잘생긴 외모에 저도 모르게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으나, 어째... 레쉬블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눈 밑에는 언뜻 다크써클이 보이는 것도 같았고. 살도 전보다 더 빠졌는지 안그래도 베일 듯 날카로운 턱선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루블라일은 당혹스러움에 말문이 턱 막혔다.

진짜 황제 개새가 하네르에 대해서 말을 거지 같이 했나보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말이다. 자연스럽게 화가 났다.

루블라일은 종잇장처럼 구겨질려는 얼굴을 간신히 피며, 레쉬블에게 고정되어있던 시선을 떼고 테이거스를 바라보았다.

" 그간 강녕하셨습니까? "

" ... 그래. "

루블라일은 예법 선생님의 말을 따라, 짐짓 나긋하게 말하며 테이거스를 향해 서류를 내밀었다. 행동은 무척 자연스러웠으나, 루블라일의 속은 여러가지 생각들로 시끄러웠다.

얼른 승인 받고, 공작님을 이끌고 여기서 나가야겠다. 테이거스의 성격 상 자신의 헛소리를 철회할 확률은 거의 없을 테니, 더 이상 레쉬블과 테이거스가 언성을 높이며 싸워 봤자 레쉬블만 잔뜩 상처 받을 거다. 테이거스와는 달리, 레쉬블은 테이거스를 나름 친우로써 아끼고 있을테니까.

"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지. 서류 승인을 위해 이곳을 들른 것을 보면, 곧 모든 수업이 끝나겠군. 꽤 빠른 속도 아닌가. 대단해. "

" ... "

보통 다른 이들이 후계자 수업을 끝마치는 속도보다, 뒤지게 빨리 끝마치긴 했다. 오로지 공작님에 대한 연애감정을 지우기 위해서. 루블라일은 굳이 대꾸하지 않고 그저 테이거스를 향해 웃어보였다. 뒷통수가 따가웠다. 뒤에 있던 레쉬블이 그녀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았다.

" 에스티론 백작이 뿌듯해하겠군. 자식을 이렇게 훌륭히 키워냈으니. "

음. 루블라일은 떨떠름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다. 왜... 되도 않게 칭찬 세례를 하지? 그런 루블라일의 기색을 기민히 눈치챈 건지, 테이거스는 의뭉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루블라일은 순간 얼굴을 일그러뜨릴 뻔 했지만, 여태까지의 수업이 빛을 발해 무표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 그런데... 영애는, 그대로 백작 위를 물려 받을 생각인가? "

" ? 예. "

그러니 후계자 수업을 받죠.

너무 뜬끔 없는 질문을 듣고 루블라일은 황당함에 툭 던지듯 답했다. 테이거스의 미소가 더더욱 진해졌다.

" 그래? 유능한 신하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아무래도 짐은 친우가 걱정되어서 말이지. "

" ? "

의미를 모르겠다. 테이거스가 친우라고 칭할 이는 딱 한명 밖에 없는데, 제가 작위를 승계 받는 거랑 레쉬블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를 걱정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 걱정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을 꺼낸 의도를 몰라, 루블라일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 영애, 펙티르 공작을 제법 좋아하고 있지 않나. "

" ! 폐하! "

뒤에서 레쉬블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 짐이 말이지, 국혼을 올리고 나니까 말이야. 외롭게 혼자 있는 내 친우가 너무 걱정이 되곤 해. 영애라면... 공작을 연모 하고 있으니, 그를 잘 보필할 수 있지 않겠나. "

" 폐하, 입 다무십시오! "

" 레쉬블, 자네 자꾸 섭섭하게 이럴 텐가? 짐이 다 그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거늘. 에스티론 영애. 들어봐, 어줍짢게 여인이 작위니 뭐니 해서 무리하지 말고 공작의 옆에서 내조만 잘하는게 훨 편하지 않겠나? "

" 제발, 폐하! 에스티론 영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

" ... "

루블라일은 저가 들은 말이 뭔지 파악하느라 멍청하게 눈만 끔뻑였다.

레쉬블이 테이거스에게 화를 내고, 뒤이어 테이거스가 언성을 높이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귓가를 웅웅 울렸다. 그러길 한참, 이내 테이거스가 내뱉은 말의 의미를 이해한 루블라일은 입을 쩍 벌렸다. . 아니, 아니, 아니, 잠시만, 아니...

" 미, "

입술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갔다.

루블라일은...

" 미치셨어요!?!?!?! "

여태껏 배워온 예법따위는 공중으로 집어던졌다. 루블라일의 얼굴이 자신의 머리카락마냥 새하얗게 질렸다.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던 레쉬블과 테이거스가 벙찐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루블라일은 너무 화나면 목소리가 덜덜 떨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 아니, 아니, 하, 미친, 허... "

" 영... 영애? "

" 미친... "

루블라일은 심호흡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시전해봤으나, 장렬하게 실패했다. 루블라일을 뼈빠지게 가르쳤던 예법 교사가 눈물 지을 만한 일이었다.

" 아니 세상에 제가 공작님을 좋아한다는 걸 공작님 앞에서 밝히면 어떡해요!?!?! 아니 그리고 여인이 뭐 어째요!? 예!?!?!?! "

루블라일은 버럭 소리 치며, 분노에 찬 얼굴로 테이거스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 엄청난 기백에 테이거스가 움찔 몸을 떨었다. 레쉬블은 여전히 벙찐 얼굴이었다. 그래, 공작님이 놀라셨겠어. 단순히 팬1이 갑자기 자기를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연모하고 있다는데. 루블라일은 입에서 튀어나갈려는 수만가지의 욕을 참으며, 짓씹듯 말을 내뱉었다.

" 폐하가 속으로 뭘 어떻게 생각하든 제 알 바는 아니지만 남의 감정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

" 아, 아니... "

" 빡쳐... "

" ... "

너무나 절절하게 빡쳐 하는 목소리라, 테이거스는 말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다. 루블라일은 마른 세수를 했다.

" 승인. "

" 뭐? "

" 서류 승인, 해주세요. "

" 어, 어... "

팍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테이거스는 서류를 빨리 훑어내리며 인장을 찍었다. 루블라일은 모든 서류에 테이거스의 인장이 찍히자마자 서류 뭉치들을 낚아챘다. 테이거스가 무례를 따질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든 것 같기도 했지만 너무 화나서 머리가 지끈거렸고, 눈가에 열이 올랐다. 루블라일은 뒷수습은 미래의 자신에게로 맡기기로 했다.

공작님을 향한 연애 감정을 잊고, 단순한 덕후로 돌아가 공작님과 좀 친한 지인 사이라도 되고 싶었거늘.

시팔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황제새끼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작님 앞에서 제 감정을 말해버렸다. 레쉬블의 당황스러운 시선이 루블라일의 얼굴 위로 꽂혔다.

화악, 루블라일의 얼굴이 붉어졌다.

루블라일은 제 두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이게 뭐야.

애초에 제 감정을 그에게 고백할 생각도 없었고, 혼자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 3자가 제 마음을 까발릴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레쉬블을 잊어보겠다고 한달 넘게 오만 수업을 다 받으며 발악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스쳐지나갔다. 진짜,

진짜, 감정 정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려고... 내가... 내가 별 짓을 다했는데...

울컥, 무언가가 치밀어올랐다.

제 노력이 다 망쳐졌다. 안그래도 하네르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공작님한테, 제 문제로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차라리 레쉬블이 나쁜 사람이라 테이거스가 까발린 루블라일의 감정을 못들은 척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루블라일은 안다.

레쉬블은 착하니까, 루블라일의 감정에 대해서 결코 허투루 넘기지 않을 것이란 걸.

분명 하네르를 짝사랑하며 고통스러워했던 자신과 겹쳐 보며 루블라일에게 미안해하겠지. 그러고 루블라일을 볼 때마다 힘들어할 것이다. 루블라일이 레쉬블을 보며 레쉬블을 짝사랑 한다는 사실을 계속 떠올릴 테니까.

그렇게 레쉬블에 대해서 뭐든 알고 있는 루블라일이었기에, 더욱 그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루블라일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그대로 뒤돌아 황제의 집무실에서 뛰쳐나왔다. 이제 군신의 예고 나발이고 다 모르겠고, 그곳에 있으면 숨막혀 죽을 것이 분명해 루블라일은 테이거스와 레쉬블에게 인사도 없이 그곳에서 벗어났다.

" 에스티론 영애! "

한 박자 늦게 뒤에서 레쉬블의 외침이 들려왔으나, 루블라일은 뒤돌아보지 않고 황궁 안을 전력질주했다. 지나가던 고용인들과, 일이 있어 황궁에 들린 귀족들이 놀란 눈으로 그런 루블라일을 쳐다보았으나 루블라일은 지금 남의 시선 같은 걸 신경 쓸 수가 없었다.

원체 좋지 않았던 체력이었지만, 지금은 숨이 턱 끝까지 차도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다. 그렇게 미친듯이 달려, 정문에 다다른 순간. 뒤에서 저를 쫓아오는 지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루블라일은 황급히 문을 열어재꼈다. 그리고 완전히 황궁에서 벗어냐려고 했는데...

" ───루블라일! "

다급하고, 상냥하고,

루블라일이 좋아하는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서, 루블라일은 그 모든 행동을 멈출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하게 달려온 레쉬블이 잔뜩 흐트러진 얼굴로 루블라일의 손목을 붙잡았다.

기묘한 마음이 루블라일의 속에서 크기를 부풀렸다.

..그럴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레쉬블은 급하게 뛰어왔는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할 생각 조차 못한 채 무언가 복잡한 눈으로 루블라일을 바라보았다. 레쉬블은 머뭇머뭇거리면서, 무어라 말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도 미처 제 안의 생각을 다 정리하지 못한 듯 입술 사이로 나오는 소리는 없었다.

" ... "

" ... "

고요함이 맴돌았지만, 루블라일은 제 속에서 쿵쿵 크게 소리를 내며 오만 난리를 다 피우는 심장 때문에 그 고요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 말없이 쳐다보았을까, 이내 레쉬블의 입이 열렸다.

" 영애, 우선 갑자기 함부로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하여 사죄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

" 아, 아니요. 괜찮아요. "

루블라일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두 손에 힘을 꽉 주었다. 짧은 대화를 끝으로 또 한번 기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제 앞에 있는 레쉬블도 어쩔 줄 몰라 하는게 눈에 빤히 보였다. 루블라일은 눈을 질끈 감았다. 분명 하네르를 짝사랑하고 있는 자신과 겹쳐보여서 어떻게든 위로해줄려고 루블라일을 붙잡은 것이 틀림없었다. 아니 진짜 좀 이렇게까지 사람이 착할 필요가 있는 건지 루블라일은 덜덜 떠는 와중에도 심각하게 생각했다. 그런 루블라일 앞에서, 레쉬블은 계속 머뭇거리며 떨리는 눈동자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루블라일은 그 눈에 담긴 뜻을 눈치 챌 수 밖에 없었다.

제 속에서 크기를 부풀렸던 마음이, 조용히 부서져내렸다.

" 저.. 영애, "

" 공작님! "

그래서, 다급하게 레쉬블의 말을 자르며 새된 목소리로 외쳤다. 황궁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단숨에 모여들었지만 루블라일은 지금 그딴 시선들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루블라일은 더듬더듬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 그, 그러니까 폐하가 농담을 참 잘하시죠? 세상에, 제가 장단 맞춰드리느라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폐하가 공작님한테 장난 좀 치고 싶으셨나봐요. "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루블라일은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다. 머릿속에선 어떻게든 레쉬블을 속여 넘겨야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레쉬블은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그렇다면 최대한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 많이 놀라셨겠어요! 공작님 당황 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폐하 농담에 장단 맞췄네요! "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수 밖에 없었다. 아까 전에는 너무 당혹스러워 황제 앞에서 저도 모르게 본심을 밝혔지만,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그래, 한달 반 동안 공작님 안보며 개고생한 수련이 전혀 효과가 없진 않겠지! 루블라일은 평정을 가장하며 미소 지어보였다. 억지로 올라간 입꼬리가 아파온다.

" 그러니까, 영애의 말씀은... "

" 네, 장난이었어요. "

" ... "

루블라일의 대답을 끝으로, 레쉬블은 할말을 잃었는지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그 반응에, 불안함이 제 속을 좀먹기 시작한다. 루블라일은 여태까지와는 다른 이유로 제 호흡이 거칠어 지는 것을 느꼈다. 속은 건가? 속은 거겠지? 지금 제 속을 들킬 바에야 말도 안되는 농담으로 공작을 기만한 사람이 되는게 나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레쉬블을 슬쩍 쳐다본 순간,

" ... 하아, "

그가 난감하다는 얼굴로 한숨을 내뱉었다. 루블라일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속였다는 생각과, 정말로 속여버렸다는 생각이 어지럽게 섞여서 저절로 눈꺼풀이 파르르 떨려온다. 그것도 잠시, 이제 됐다고 결론내리며 무어라 더 말을 붙이려는데, 그런 그녀의 말을 끊고 레쉬블이 말했다.

" 정말로 장난입니까? "

" ! "

못 속였구나.

루블라일은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그러다가도, 어떻게든 속이기 위해 억지로 마음을 다 잡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 네에.. "

그러나 개미만하게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는게 최선이었다. 그 기색을 레쉬블도 눈치 챈 건지 그의 미간이 좁혀진다. 루블라일은 왠지 싸한 기분이 들었다.

" 폐하께 진심으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

" 그, "

뭐라고 해야하지?

루블라일은 혼란스러운 머릿속 때문에 부정해야할 타이밍을 놓쳤다. 여지껏 배웠던 예법 교육과 평정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법 따윈 이미 저 멀리 던져버린지 오래였다. 루블라일을 가르쳤던 교사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이 저절로 떠올랐다. 사람이 너무 혼란스러우면 엉뚱한 생각이 난다더니 지금이 딱 그 꼴이었다. 하지만 한 치의 딴 생각조차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듯 레쉬블이 그녀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어두운 눈동자에, 누가봐도 혼란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이 비춰보이자 루블라일은 흠칫 떨리는 몸을 막을 수 없었다. 반사적으로 입술을 달싹였지만, 뻐끔거리는 입술 사이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레쉬블의 눈동자에 비춰보이는 루블라일은 울상을 지었다.

" 그, 러니까. "

아, 틀렸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할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루블라일은 결국 간신히 열었던 입을 다물고 레쉬블을 마주 바라보았다. 공작님한테 민폐 안 끼치게 속여야 된다는 생각과, 그와 상반되는 감정 때문에 루블라일의 속은 울렁였다. 이걸 꺼내어 봤자 공작님은 하네르를 사랑하니 대차게 거절당할 것은 물론이요, 어줍잖은 마음으로 괜히 공작님을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반드시 숨겨야만 하는데...

" 영애. "

" ... "

제대로 말을 할 때까지 납득할 수 없다는 저 얼굴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정말...

" 끄흡! "

왜 이렇게 잘생겨서!

루블라일은 결국 분통을 터뜨렸다!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울음소리에 루블라일 앞에 있던 레쉬블은 물론이고 황궁 안에서 흔하지 않는 소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고용인들이나, 귀족들까지도 화들짝 놀라 모두 루블라일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미 벽에 집어던진 토마토마냥 터져버린 루블라일은 크아악 괴성을 내지르며 자리에 털썩 쭈그려 앉았다.

" ! 영애, 어디 몸이 안좋으신... "

" 그래요! 맞아요! 좋아해요! "

" 헉, "

그런 루블라일의 모습을 보고 순식간에 사색이 되며 걱정하는 레쉬블에게, 루블라일은 폭탄을 집어던졌다. 레쉬블은 갑자기 저를 강타한 거대한 폭탄에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헛숨을 들이켰다. 루블라일은 울상을 지으면서도 다다다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루블라일의 축 처진 눈꼬리에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렸다.

" 제가 무슨 폐하 장단을 맞추겠어요. 사회생활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

" 영애 사교계의 꽃... "

" 춤 좀 췄다고 그런 호칭 붙은 거에요! 실상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평정심도 유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혼자서 폭주한다고요! "

아악! 루블라일은 제 결좋은 하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내면적 고통으로 인해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더 이상 떠드는 걸 멈추고 차라리 도망이라도 쳐야 할텐데 한번 말하기 시작하니 이 미친 주둥아리는 끝을 모르고 나불대기 시작한다. 루블라일은 이미 제 입이 주인의 이성을 배반하고 프리덤을 외치며 자유를 향해 내달리는 것을 구경할 수 밖에 없었다.

" 아니 누가 조금 잘생긴 수준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랬냐고! "

" ㅇ,예? "

" 얼굴만 잘생긴 것도 아니야! 왜 사람이 인성마저 잘생겨서! 쓸데없을 정도로 착하고! "

배은망덕한 요 입은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될 루블라일의 무의식까지 술술 내뱉어주며 움직였다. 루블라일은 반쯤 미칠 지경이었으나, 누가 마치 마법이라도 쓴 것 처럼 입은 전혀 다물어지지 않았다.

" 그래서 신경쓸까봐 일부로 조용히 마음 정리 하려고 했던 건데, 왜... 왜 들쑤셔요 왜! 공작님 쓸데없이 착해서 제 마음 신경쓰면서 힘들어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숨길려고 했더니, 폐하도 안도와주고 공작님도 들쑤시고! "

결국 루블라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려던게 아닌데, 이기적인 스스로는 또 남탓만 해대고 있다. 루블라일은 환장스러움에 미쳐 돌기 직전이었다.

" 끄흑, 아니! 공작님 잘못이란 건 아니에요! 굳이 공작님한테 잘못이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죄 밖에 없겠지! 흐으윽! "

" 영, 영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 "

" 말하지마세요! 어차피 공작님 저 안좋아하는 거 제국 사람 모두가 알테니까! 어차피 차이고 공작님만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정말 말 안할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진짜, 제가 전에 당당하게 말한 것처럼, 공작님하고 아무 사심없이 같이 놀려고 막 친구처럼, 그러니까... 여튼 그렇게 될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

루블라일은 서러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 빡센 후계자 수업을 올클리어 한 이유가 다 망가져버렸으니, 서럽지 않을 리가 없었다. 또 한번 눈물이 핑 돌았다. 루블라일은 고개를 푹 숙였다.

" 이젠 다 몰라... 몰라... 모두 알라고 해요 제가 공작님을 좋아한다는 걸... 흐으윽...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아해서 미안해요... "

끅, 끄윽, 울음을 삼키려 노력했지만 울음은 쉽사리 그치지 않았다. 드디어 고백했다는 해방감과 동시에 이로 인해 레쉬블을 신경쓰이게 만들었다는 죄책감도 밀려들어왔다.

"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저도 몰랐는데, 끅, 아 진짜, 잊으려고 별 짓을 다했는데도 너무 좋아해서 어떡하지.. "

" ... "

이제 곧이어 들려올, 레쉬블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영애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 루블라일은 숨죽여 울었다. 꾸역꾸역 울음을 삼키며 곧 자신에게 내려올 선고를 기다리는데,

어째 조용하다.

설마 내 고백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할 말을 잃은 건가? 갑자기 퍼뜩 든 생각에 루블라일은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미쳤어, 루블라일. 그러게 왜 고백해서! 그냥 끝까지 숨기지! 루블라일은 결국 억지로 참았던 울음을 서럽게 토해내며, 자책했다. 그렇게 한참을 울어도, 주위는 계속 고요하기만 하다.

그렇게 혼자서 고개를 쳐박은 채 한참 울던 루블라일은, 계속되는 정적에 정말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뚝뚝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리고 맞닥뜨린 것은...

" ────... "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인 채, 떨리는 눈동자로 루블라일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레쉬블이었다. 그 모습이, 어째, 희한하게도...

공작님을 생각하며 거울을 보던 제 얼굴과 너무 똑같아서.

" ... 어? "

루블라일은 멍청한 소리를 내뱉었다.

레쉬블로서는, 이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웠다. 좀 더 까놓고 말하자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원래 분명히 자신은 루블라일의 마음을 거절할려고 했다.

정말 거절할려고 했다.

그래, 정말로.

왜냐하면 레쉬블은 아직도 자신이 하네르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이러한 레쉬블의 생각을 충직한 그의 호위기사인 애그스와 트레르가 알았더라면 통곡을 금치 못하며 대환장의 스텝을 밟았을 것이다. 최근 루블라일을 신경쓰고 있었긴 했지만, 그건 단순히 레쉬블이 힘들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루블라일이 레쉬블을 짝사랑하고 있단 사실을 듣고 자신처럼 이루어질리 없는 사랑을 하게 된 그녀에게 안쓰럽고 미안해서 신경 쓰고 있을 뿐이라고 치부했었다.

테이거스가 하네르를 모욕했을 때도 조용히 조아리던 머리가 루블라일을 모욕했을 땐 반쯤 이성을 잃고 날뛰었을 때조차 말이다. 루블라일이 버럭 소리치며 집무실의 문을 박차고 나간 순간에는 왠지 모를 감정이 차올라 저도 모르게 루블라일을 쫓아갔지만, 그게, 그게...

자신 스스로도 자각 못한 연심 때문이었을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레쉬블은 아까부터 진정하지 못하고 미친듯이 쿵쾅거리는 심장이 버거워 손으로 제 가슴께를 꾹 눌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꽂힌 것은 자각하고 있었지만, 레쉬블은 제 마음 하나 제대로 진정시키지 못해 다른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레쉬블은 혼란스러워 이리저리 시선을 옮기다 하필,

" ! "

물기가 잔뜩 어린 루블라일의 녹빛 눈동자와 딱 마주치고 말았다. 자신을 향해 올곧게 뻗어 있는 눈빛에, 레쉬블은 나직히 헛숨을 들이키며 무어라 말을 잇지 못했다. 화끈한 열기가 뒷목을 타고 올라왔다. 루블라일의 눈을 마주하자 자동으로 방금 전의 일이 떠올랐다.

'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저도 몰랐는데, 끅, 아 진짜, 잊으려고 별 짓을 다했는데도 너무 좋아해서 어떡하지.. '

루블라일의 입에서 새어나온 흐느낌과 열렬한 고백을 다시 곱씹자 쭈뼛, 하고 저절로 머리 끝이 곤두섰다. 아직도 눈물이 가득한 눈동자에는 누가봐도 혼란스러워 하는 제 모습이 비춰보였다.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게 무례란 걸 알면서도, 레쉬블은 누군가 제 입술 위에 묵직한 철근을 올려놓은 것마냥 어떠한 말소리도 내뱉을 수 없었다.

" 어? "

왠지 자신의 얼굴을 보고 루블라일이 무언가 소리를 낸 것 같았지만, 레쉬블은 자신만의 상념에 빠져들어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얼굴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계속 루블라일의 울먹이던 얼굴이 눈 앞에 어른거린다. 맙소사, 설마 거기서 울음을 터뜨릴 줄이야. 자신이 너무 몰아붙인거 같아 죄책감이 생기는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알 수 없는 희열로 속이 일그러지는 기분이 들었었다.

잘게 흔들리는 새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발갛게 물든 눈가와 덜덜 떨며 저를 좋아한다 내뱉는 소리. 레쉬블은 또 한번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는 얼굴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자각해? 웃는 얼굴도 아니고?

" ... "

잠시만, 이거 변태 아니야?

레쉬블은 좋아하던 것도 잊고 정수리부터 싸해지는 것을 느꼈다. 루블라일이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저를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레쉬블의 눈동자는 마치 풍랑을 만난 배마냥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네르에게 반했었던 계기는 분명 그녀의 티없이 맑은 웃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루블라일한테는...

우는 얼굴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려?

사람들이 안다면 식겁할만한 일이었다.

아니, 사람들이고 나발이고 레쉬블을 좋아한다고 열렬하게 고백한 루블라일조차 이 사실을 안다면 기겁할 지도 몰랐다. 레쉬블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다. 레쉬블은 본능적으로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 ... 공작님? "

루블라일이 당황했는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나 레쉬블은 마음을 굳게 먹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무언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걸 감지했는지 그들을 바라보던 이들이 숙덕대는게 언뜻 들려왔다. 레쉬블은 울렁거리는 속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목넘김만 계속했다.

" 공작님, 괜찮으세요? "

눈을 질끈 감아 보이지 않는 시야 덕에, 루블라일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돌변한 레쉬블의 태도가 당혹스러우면서도 그런 그가 걱정된다는듯 한껏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저 걱정을 담은 목소리가, 자신의 끔찍한 속내를 깨닫게 된다면 걱정이 아닌 경멸이 담길까 두려워 레쉬블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꾸욱 입을 다물었다.

" 공, 작님... "

그런 레쉬블의 반응을 무언가 다르게 착각한 건지, 루블라일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물기가 어렸다. 레쉬블은 아차 싶어 퍼뜩 두 눈을 떴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루블라일의 얼굴이 자신의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허억, 하고 헛숨을 들이켰다. 빌어쳐먹을 양 뺨은 상황파악도 못하고 또 한번 열기를 품은 채 달아올랐다. 레쉬블은 한껏 들이킨 숨을 내뱉을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숨을 멈추었다. 언제 영애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지? 그렇게 의문을 막 가질려는 찰나,

루블라일이 그런 그의 속을 꿰뚫었는지 시원스레 눈가를 휘어보였다.

" ────, "

레쉬블은 이제 정말, 딱 죽고 싶은 심정이 되어버렸다. 얼굴이 너무 뜨거워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맙소사, 바로 눈 앞에서 마주한 루블라일의 미소가 너무 파괴력이 강해 레쉬블은 저도 모르게 비틀거렸다. 그와 동시에 우는 얼굴을 보고 연심을 자각했다는 말을 내뱉는다면 저 미소가 급속도로 사라질 것을 새삼 깨달으며, 비틀거림을 추진력 삼아 황급히 루블라일에게서 떨어졌다.

" 영, 영애. "

그리고 억지로 루블라일의 미소에서 눈을 떼며 간신히 그녀를 불렀다. 루블라일은 그 부름에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그를 바라보는듯 고요한 시선이 느껴진다. 항상 레쉬블을 향해 한껏 부산을 떨어대던 모습과 사뭇 달랐다. 레쉬블은 그 시선을 느끼며 또 한번 뒷걸음질 쳤다.

안돼, 안돼. 이걸 들키면 답도 없다. 이미 무언가 반쯤은 들킨 거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레쉬블은 굳게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 죄송합니다! "

레쉬블은, 마치 단말마마냥 외치며 그대로 몸을 돌려 튀었다. 이 분위기에서 거절의 말을 내뱉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 루블라일이 뒤에서 경악의 헉 소리가 내뱉는 것을 어렴풋이 들려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쉬블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루블라일은 입을 쩍 벌린 채 멍하니 레쉬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입에서 비명이 튀어나올 뻔 했지만, 다행히 입에서는 흐억! 하는 경악의 숨소리만 흘러나왔다. 그러는 와중에도, 레쉬블은 착실히 루블라일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레쉬블의 다급한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밤하늘빛 머리카락이 시선을 잡아챘다.

그 머리카락들을 보며, 루블라일은 정지하고 있던 사고가 갑자기 빠릿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지금 예상과는 다른 전개에 당황할 때가 아니었다. 루블라일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지금 레쉬블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걸!

루블라일은 그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던졌다. 예쁘게 세공된 구두가 바닥과 맞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뱉었다. 그 소리를 신호로, 루블라일은 허리를 숙이며 두 다리에 힘을 빡 주었다. 그리고...

" 공작님 멈춰요! "

" !?!?!?!?! "

사자후를 내지르며, 총알처럼 뛰쳐나갔다. 그 미친 추진력에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도망가던 레쉬블마저 식겁하며 입을 쩍 벌렸다.

" ..!?! "

그리고 그렇게 의문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루블라일은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레쉬블의 등 뒤를 쫓으며 인상을 팍! 찡그렸다. 아니 저렇게 필사적으로 튈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분명 각이 섰는데! 차원을 넘어선 짝사랑만 1431351년! 공작님의 말버릇까지 다 꿰고 있는 루블라일에게는 아까 레쉬블이 자신에게 무심코 드러낸 표정이 무슨 뜻이었는지는 굳이 입 아프게 말하지 않아도 눈치 챌 수 있었다.

그런데 왜!

도망치는 건데요!

루블라일은 파다닥 레쉬블을 쫓아가면서도 원통함에 크흑! 하고 소리를 내뱉었다. 벌써 황궁 소유의 넓디 넓은 정원까지 추격전을 하고 있었다. 곱게 정돈 된 잔디밭 사이로 피어있는 꽃들이 마치 그런 루블라일을 약올리듯 살랑살랑 흔들렸다. 루블라일은 괜히 심통 난 기분에 예쁜 꽃들에게서 팩 눈을 돌렸다. 구두를 벗어던진 탓에 맨발이 잔디를 짓이겼으나, 다행히 푹신한 느낌만이 들 뿐이었다. 황궁 잔디에 솜 성분이라도 있는 건가? 의미 모를 생각을 하며, 루블라일은 빠르게 다리를 놀렸다.

" 영애, 따라오지 마십시오! "

맨발로 여기까지 따라온 루블라일이 걱정되었는지, 레쉬블은 뛰면서도 뒤쪽으로 고개를 돌려 루블라일의 발을 흘끔 바라보더니 다급하게 외쳤다. 그 염려 어린 눈길을 기가막히게 캐치한 루블라일은 힘껏 목청 높여 대답했다.

" 싫어요! 공작님이 멈추세요! "

" ! "

그 대답에 결연한 의지를 느꼈는지, 레쉬블은 잔뜩 당황한 얼굴을 내보이더니 다시 고개를 앞으로 하고 더욱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아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달려 루블라일이 지쳐 나가떨어지게 할 속셈인 것 같았다. 젠장! 공작님! 이 잘생긴 사람! 돌아버리겠네!

루블라일은 제 이마를 빡 치며 파다닥 날아가듯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굴존잘에 이어 피지컬 존잘이기까지 한 레쉬블은 제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기라도 하듯이 루블라일과의 거리를 점점 벌릴 뿐이었다. 루블라일은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 후계자 수업이고 나발이고 체력 단련만 뒤지게 할 걸! '

따흑!

공작님이 멀어지는데 잡을 수가 없어 비참맥스가 되어버린 루블라일은 딱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진짜 이대로 놓치면 안되는데! 루블라일은 조급한 마음에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 어? "

기우뚱, 몸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며 그대로.

쿠당탕!

루블라일은 화려하게 넘어졌다. 푹신한 잔디조차 그 거친 넘어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루블라일을 버리고 말았다. 루블라일은 무릎부터 그 아래까지 전부 화끈한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다. 쓸려도 거하게 쓸린 건지, 루블라일은 찡하게 올라오는 쓰라림에 얼굴을 와그작 구겼다. 갑작스럽게 닥친 고통에 덜덜 떨며 땅을 짚고 일어설려는데, 갑자기 루블라일의 시야가 어두워졌다.

" 영, 애. "

레쉬블이 숨을 몰아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루블라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조각 같은 얼굴에 루블라일은 흡헙 헛숨을 들이키며 순간적으로 고통조차 잊어버렸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제 양뺨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숨.. 몰아쉬는 거..

섹시..

흠칫.

루블라일의 얼굴에서 엄청난 음흉함이 이라도 발견한 건지, 레쉬블의 몸이 떨렸다. 그 떨림에 루블라일은 헛! 하고 정신을 퍼뜩 차리며 잽싸게 손을 뻗었다.

" 잡았다! "

" ! "

레쉬블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칠려는 듯 팔에 힘을 주었지만, 어째서인지 루블라일의 얼굴을 보고는 비틀거렸다. 루블라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위험한 짐승마냥 호로록 레쉬블의 팔을 감쌌다. 레쉬블의 몸이 움찔움찔 떨려오는게 루블라일에게도 느껴졌지만, 그녀는 다급한 마음에 눈치 채지 못했다. 그리고 버럭 외쳤다.

" 공작님! "

" 예, 예! "

" 저 좋아하죠! "

" 예!? "

거듭된 공격에 레쉬블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는지,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인 채 이리저리 시선을 피했다. 루블라일은 그런 레쉬블의 모습에 심각한 심장팝핀증상을 느꼈으나, 어떻게든 결판을 내야한다는 사실에 크윽! 하고 비장하고 제 가슴께를 쥐며 다시 한번 외쳤다.

" 저 좋아하죠!?!?! "

" 아, 그, 저, 아니, 그! "

맞잖아! 좋아하잖아!

더듬더듬, 차마 부정도 못하고 긍정도 못하고 우물쭈물 거리는 레쉬블의 모습에 루블라일은 지금 제 손에 술병이 있었다면 자신의 머리를 내려쳤을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아... 아! 공작님! 당신,... 당신... 당신 정말.,

귀여워!

근데 왜 부정해 대체!

" 따흐흡! "

결국 루블라일의 입에선 흐느낌을 빙자한 오열 소리가 흘러나왔다. 루블라일이 결국 두 손에 제 얼굴을 묻자, 레쉬블의 안색이 눈에 띄게 새하얘졌다.

" 영애... "

" 저 좋아하는거 아니에요? "

여전히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로, 웅얼거리듯 묻자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이 정적이 끔찍해 루블라일은 고개를 치켜들었다. 레쉬블의 시선은 딴 곳을 향하고 있었는데, 무언가 걸리는게 있는 사람처럼 잔뜩 딱딱하게 굳은 표정이었다. 그게 뭔가,

예전에 그를 쫓아다니던 루블라일를 꺼려하던 얼굴과 비슷해서.

루블라일은 입을 꾹 다물었다. 내가 착각한 건가? 그냥 막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대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붉힌 것 뿐인가? 아닌데.. 분명히 아까 전 새빨갛게 달아올은 얼굴은 분명 좋아함을 가득 담은 얼굴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 뭐가.. "

" 예? "

" 뭐가 걸리는게 있는 거죠! 그렇죠! "

루블라일은 다리가 아픈 것도 잊고 벌떡 일어났다가 찌르르 올라오는 고통에 크허헉 하고 털푸닥 다시 쓰러졌다. 레쉬블은 그런 루블라일의 모습에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했다. 여봐! 걱정하는 거 보면 날 좋아하는게 분명한데! 루블라일은 다시 한번 강력한 확신을 갖고 외쳤다.

" 저 약혼자 같은 거 없어요! "

" 네? "

" 요즘 후계자 수업한다니 뭐니 소문 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당연히 약혼 같은 것도 한 걸로 아신 거죠!? 저 인간관계 완전 깨끗해서 그런거 없어요! "

.. 잠깐, 뭔가 말을 하면 할 수록 비참한 기분인데?

흠. 루블라일은 말을 내뱉다 말고 머쓱함에 제 턱을 매만졌다. 그리고 슬쩍 레쉬블을 쳐다보았는데, 레쉬블의 얼굴이 마치 대단한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뻣뻣했다. 마치 아... 맞아 약혼자! 이런 얼굴이었는데, 아니 그럼 걸리는게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루블라일은 대체 레쉬블이 뭘 걸려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머리를 열심히 굴렸다.

그런데 굴려도 안 나온다!

대체 뭐야!

끄응, 순간 하네르를 아직도 잊지 못한 건가 싶었지만 왠지 제 안의 직감이 그것 때문은 아닐 거라고 시끄럽게 외쳐댔다. 루블라일은 결국 답이 나오지 않아 앞에 있는 레쉬블의 손을 꽉 잡았다. 흠칫, 레쉬블의 몸이 잘게 떨렸다. 하지만 루블라일이 잡은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내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루블라일은 확실히 안정된 마음을 느끼며 입술을 달싹였다.

" 공작님. "

루블라일은 비장하게 속삭였다.

그 비장함에 동화되기라도 한 건지, 레쉬블도 진지하게 눈을 내리깔며 루블라일을 바라보았다.

" 뭘 그렇게 걸려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

잡은 손에 힘을 바짝 주었다.

" 좋아해요. "

오직 그 한마디만을 던지고는, 루블라일은 레쉬블의 밤하늘 같은 눈과 마주했다. 짙고, 푸른 눈동자에서는 루블라일 자신의 발갛게 달아오른 양 뺨이 비추어보였다. 레쉬블의 눈가가 일그러지며 비춰보이던 루블라일의 모습이 사라졌다.

" 영애. "

" 네. "

" 그러니까.. 이걸, 이걸 영애가 알게 된다면 저한테 많이 실망하실 지도 모릅니다. 아니, 실망하실 겁니다. "

"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릴. "

" 예? "

" 아.. 아닙니다 마저 말씀하세요. "

세상이 뒤집어져도 루블라일이 레쉬블에게 실망할 일은 손톱만큼도 없을 거란 장담하에 루블라일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으나, 레쉬블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찔끔거리며 제 말을 물렸다. 레쉬블은 그런 그녀를 고요히 내려다보다가 이내 결심하기라도 한 건지 나직히 속삭였다.

" 제가 영애를, 연모하고 있습니다. "

끼

야

아

아

악!

드디어 레쉬블의 입에서 튀어나온 진실에 한껏 방정맞은 소리가 튀어나올 뻔 했지만, 왠지 이 말이 다가 아닐 것 같아 루블라일은 황급히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미 심장은 기쁨으로 인해 오지는 비보잉을 선보이고 있었다. 진정이 되질 않았다.

" 하지만... "

" 하지만? "

레쉬블이 긴장한 건지, 꿀꺽 침 삼키는 소리 너머로 루블라일의 눈에 그의 목울대가 움직이는게 포착되었다. 미친... 미친 너무 섹시하다... 역시 우리 공작님이다... 어느새 마음 속 호칭도 공작님에서 '우리' 공작님으로 진화된 걸 아는지 모르는지 루블라일은 그의 목울대에 시선을 고정했다.

" 제가 영애에 대한 마음을 자각하게 된 계기가... "

쫑긋.

그러는 와중에도 울리는 지져스섹시보이스에 귀가 쫑긋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루블라일의 심장은 여전히 현란한 비보잉을 하고 있었다.

" 영애의, 우는 모습을 보고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

" ? "

순간적으로 루블라일의 머릿 속에선 레쉬블 앞에서 울었던 기억들이 파라락 스쳐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중에 어떤 거지? 우리 공작님 앞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이 중에 어떤 건지 감도 안 잡혀!

심지어 방금 전에도 울었잖아!

루블라일의 그런 표정을 뭐라고 해석했는지 레쉬블의 얼굴이 삽시간에 어두워졌다.

" 압니다, 저도. 우는 모습을 보고 연심을 자각하게 되었다니. 얼마나... 변태처럼 보일까요. "

" ? "

단정한 레쉬블의 입술 사이로 튀어나온 단어에 루블라일의 눈이 휘둥그레 떠졌다. 변태와 레쉬블. 이 단어 둘이 얼마나 안 맞는 단어인가 새삼 자각하게 되며 루블라일은 제 경악한 얼굴을 숨길 생각조차 못했다. 그리고 그걸 본 레쉬블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다.

" 영애가 절 경멸한다고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

말끝이 흔들렸다.

루블라일은 벌떡 일어났다. 쓰라린 다리가 아프다며 열심히 자기주장을 펼쳤으나 지금 그딴 건 루블라일에게 신경 쓸 가치도 못되었다. 루블라일은 창백하게 질린 레쉬블이 안쓰러우면서도 기가 막혀 입을 떡 벌렸다.

" 아니 제가! "

공작님을!

" 경멸하면 사람새끼가 아니죠! "

" ?! "

너무나 기가막힌 마음에 제법 험한 말이 튀어나왔으나, 그 말을 수습할 생각이 들진 않았다. 루블라일은 솔직히 그게 변태면 자신은 뭐가 되냐고 소리쳐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수많은 나날들이 루블라일의 앞을 스쳐지나간다. 나무 위에 끙챠끙챠 올라가 창문 너머 공작님을 훔쳐보았던 일... 연회에서 춤을 추기 위해 공작님이 손을 잡아줘서 씁하씁하 거친 숨을 내뱉었던 일... 심지어 공작님의 호위기사의 도움으로 공작님의 땀을 닦고 묵혀뒀던 손수건을 돈주고 산 일...

심지어 그 손수건 아직도 모셔두고 있는데!

이 구역은 변태는 나라고! 당신이 아니라!

빡!

새삼 드는 자괴감에 루블라일은 제 이마를 거세게 내려쳤다. 루블라일의 돌발적인 행동에 레쉬블이 화들짝 놀라 그런 루블라일의 손목을 붙들었다. 그러고는 본인이 더 움찔하며 황급히 루블라일의 손목을 놓았다. 루블라일은 떨어지는 레쉬블의 손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팍 인상을 찡그렸다. 그리고 외쳤다.

" 공작님, 잘 들으세요. "

" ... 네. "

마치 루블라일이 당장이라도 어마맛! 공작님이 그런 변태였다니! 상종도 못할 쓰레기군요! 라고 외칠 것만 같았는지 레쉬블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 그건... 변태 축에도 끼지 못한답니다. "

" ... 네? "

" 정말이에요! 공작님.. 공작님 같이 맑고 순진한 사람이 모르는게 당연하겠지만... 세상엔 정말 무궁무진한 변태가 쌓여있어요. "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나고.

차마 내뱉지 못할 뒷말을 속으로 씹어삼키며 루블라일은 필사적으로 말했다.

" 아니 뭐 사람이 살다보면 우는 얼굴 보고 반할 수도 있는 거죠! "

" ... "

" 그렇게 따지면 저도... "

소설 속에서 공작님이 하네르 못 잊고 우는 거보고 머리 깼었는데요... 넘 슬픈데 넘 좋아서...

" 그러니까 막 변태니 뭐니 생각하면서 자괴감 가지지 말고! 공작님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셔봤자 저보단 못할 걸요!? "

어떻게든 레쉬블을 진정시키기 위해 튀어나온 말이 어째 자폭이다. 레쉬블은 생경한 얼굴로 루블라일을 쳐다보았다. 그 얼굴이 또 잘생겨 루블라일은 아찔해졌다. 왠지 레쉬블이 안도했다고 느껴지는 건 자신의 착각일까? 그래도 방금 전 창백하게 질린 얼굴보다는 어느정도 나아진 것 같아 루블라일은 에라 모르겠다 싶어 마저 말을 이었다.

" 그, 공작님도 아시잖아요. 저 막 공작님 쫓아다니고... 막.. 어... 쫓아다니고... 아 이런 젠장... 한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할 수가 없네... "

짙은 현타가 루블라일의 온몸을 거세게 때렸다. 차마 레쉬블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지금 경멸당해야 될 건 공작님이 아니라 나 아닌가... ? 눈을 감아 깜깜한 시야 속에서, 갑자기 나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흘러들어왔다.

" 영애,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부웅, 하고 떠올랐다. 깜짝 놀라 눈을 뜨니,

" ... ! .. ! "

이 이건!

이건! 이것은!

" 일단은... 에스티론 저택으로 가는게 좋겠어요. 다리도 이렇게 다치셨으니... "

미친염병허으허공주님 안기!진짜로공주님안기진짜완전백퍼센트공주님허억허억안기!

" 따흐헉! "

" !아, 영애. 싫으셨다면... "

" 당장 이대로 갑시다! "

루블라일은 거칠게 뿜어져나오는 콧김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 미쳤나봐 진짜 공작님이 나 좋아하나봐! 진짜! 아 어떡해! 아! 잘 다쳤어 내 다리! 아악! 너무 좋아! 루블라일은 레쉬블의 품 안에 안긴 채로 너무 좋아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던 와중, 무언가 시선으 느껴져 슬쩍 눈동자를 굴리니.

레쉬블과 따악 눈이 마주쳤다.

레쉬블은 잠시 멈칫 했다가도, 이내 루블라일을 향해서 부드럽게 미소지어보였다. 눈꼬리가 단정하게 휘는 모양새가 선연히 눈에 박혀 들어왔다. 루블라일은 숨을 멈췄다.

" ... 영애.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

그렇게 말한 레쉬블은 고개를 올려 정면을 바라보고 걸었는데, 그의 목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있었다. 그걸 본 루블라일의 얼굴에도 열이 올랐다.

" 아가씨이이이! "

에스티론 저택은 통곡에 휩싸였다. 아니 아가씨 다리가! 다리가! 에스나의 절절한 외침을 시작으로 고용인들의 비명이 한번씩 울려퍼졌다. 루블라일의 상처가 깊은 편은 아니었으나, 넓은 면적이 화려하게 다 까져있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써는 퍽 호러틱한 꼴이었는지 고용인들은 난리가 났다. 흐헝헝! 필피가 엉엉 울며 약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뛰어왔다.

레쉬블은 그 와중에도 침착하게 루블라일을 소파 위에 앉히며, 어느새 가까이 온 필피에게 제 손을 내밀었다. 일개 고용인일 뿐인 필피는 레쉬블이 저에게 뭘 원하는지 몰라 울던 것도 멈추고 당황했다.

" 약품 상자는 두고 가게. 내가 영애를 치료할테니. "

" ... ! 헉, 네넵! 알겠습니다! "

필피는 황급히 상자를 레쉬블에게 건네며 눈물을 소매로 쓱 닦고는 루블라일을 쳐다보았다. 루블라일을 쳐다보는 필피의 눈빛은 마치,

' 아가씨! 드디어! 설마 드디어! '

였고, 그에 답하듯 루블라일은 환하게 웃으며 필피에게 텔레파시를 쐈다.

' 네가 생각하는 그게 맞다! '

" ! "

필피는 기쁨에 겨운 얼굴로 절대 방해하지 않겠다는 듯 조용하고 빠르게 사라졌다. 루블라일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졌다. 필피... 이번 보너스는 두둑하게 챙겨줘야겠군. 그런 루블라일의 상념을 깨고, 침착한 레쉬블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 실례하겠습니다, 영애. "

톡. 톡톡.

약이 발라진 솜이 루블라일의 다리 위를 훑고 지나갔다. 그 특유의 따끔한 느낌이 몸서리치도록 싫었지만, 지금 이 약을 발라주는 이가 레쉬블이란 걸 알고 있으니 루블라일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루블라일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심각한 얼굴로 제 다리에 약을 발라주는 레쉬블을 내려다보았다. 집중한 얼굴도 잘생겼다. 루블라일은 저도 모르게 툭 내뱉었다.

" 그럼 저희 오늘부터 1일인가요? "

덜커덩!

레쉬블이 약품을 상자에 넣다 말고 크게 들썩였다. 콜록, 콜록! 심지어 그는 격하게 기침까지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세가 심상치 않아 말을 꺼낸 루블라일이 찔끔할 정도였다.

" 영, 영애는 어디서 그런 말씀을... "

" 아. "

지금 이 시대에 쓰기엔 좀 앞서나간 말이었나? 흠! 그럼 어느 정도 돌려서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루블라일은 레쉬블을 바라보았다. 레쉬블은 고개를 돌린 채였는데, 그의 목이 아까 전처럼 빨개져있었다. 아니 공작님 정말!

팡!

루블라일은 귀여움에 덜덜 떨며 거세게 소파를 내려쳤다. 여튼 방금 전 1일 선언에 대해선 레쉬블이 퍽 마음에 들어하는 기색이었으니, 루블라일은 이제 거리낄게 없었다.

" 여튼 저희 오늘부터.. 맞죠? "

떨림을 가득 담은 목소리에, 레쉬블은 돌렸던 고개를 바로 하며 루블라일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루블라일을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다.

" ! "

루블라일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는 루블라일의 손등에 제 볼을 가져다댔다. 루블라일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아랫입술을 거세게 깨물며. 자신의 전신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미친 공작님! 아니 공작님! 루블라일은 희열로 인해 곡소리를 내뱉을 것만 같았다.

꾸욱. 말랑한 볼의 감촉이 루블라일의 손등 위로 느껴졌다. 짙은 밤하늘 빛 머리카락이 내려와 손등을 간질였다.

" 헉... "

결국 루블라일은 영혼을 내뱉었다. 너무 환장하게 좋으면 소리도 안나온다더니 딱 그꼴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얼굴에서 김이 뿜어져 나오진 않을까 걱정되었다.

" 루블라일. "

!

속삭임이 귓가에 닿자 루블라일은 딱 머리를 바닥에 박고 싶었다.

" 루블라일이 괜찮다면, 오늘부터 부디... 옆을 허락해주십시오. "

레쉬블의 볼을 붉었고, 진심을 내뱉고 있었다.

아악!

" 당연하죠! 우리 오오오오늘부터 지짖짇진진짜 1일입니다! 이거 절대 못 물러요 진짜 절대! "

축배를 들어라!

루블라일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제 손을 잡고 있던 레쉬블의 손을 그대로 끌어당겨 레쉬블을 꽉 껴안았다. 안 놔줄거야... 레쉬블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루블라일이 허헝하고 오열하며 웅얼거리자, 레쉬블도 감정이 북받쳐오른 눈빛으로 웃어보였다. 행복한 웃음소리에 루블라일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 ... 그래? 그렇구나. 둘이 그렇게 됐다니 정말 다행이네. "

하네르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아주 작은 중얼거림이었기에,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시녀는 네? 하고 되물어봤고, 하네르는 별 거 아니라며 옅게 웃어보였다.

" 그런데 그... 폐하께서 나에 대해 말씀하신 걸 들었다고 했지? "

" 네, 그렇습니다. "

" 혹시 무어라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 "

" 아, 그건... "

시녀의 얼굴이 당혹스러움에 물들었다. 하네르는 여전히 옅게 웃는 얼굴이었다. 시녀는 우물쭈물거리며 이걸 고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얼굴로 곤란함을 내비쳤다.

시녀는 무례하게도, 감히 황후를 걱정하고 있었다. 하네르는 그런 시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네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려앉았다.

" 괜찮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돼. 폐하께 말할 생각이 아니야. "

" ...저, 저는 그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고... "

" ... 알아. 날 걱정해준 거지? 착하기도 해라. 하지만 정말 괜찮단다. "

시녀는 이걸 정말 입에 담기도 싫다는 듯이,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재빠르게 내뱉었다.

" ... 인형. "

" ... "

" 순종적이고, 귀여운 인형이라고 황후 폐하를 칭하셨습니다. "

일순 정적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시녀는 제 치맛자락을 세게 쥐었다. 알게 모르게 고용인들을 신경써주는 황후가 상처 받지 않았음 좋겠다. 시녀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하네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 그랬구나. 그래, 알겠어. 너는 이제 가봐도 좋아. 말해줘서 고마워. "

" 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

하네르의 말은 지나치게 평이했기에, 시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평민 출신인 황후는 알게 모르게 여태껏 감정을 제대로 숨길 줄 몰라 그녀의 상태는 금방 알아채기 쉬웠다. 제 생각보다 황후께서 상처를 받지 않은 것 같아 시녀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물러갔다.

" ... 인형. "

침실의 문이 닫히고, 하네르는 그 말을 되새기듯 푹 고개를 숙였다.

" 루브. "

끼요오옷!

이제 어느정도 들어본 호칭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고 있었다. 루블라일은 양 뺨에 올라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 손부채를 열심히 부쳤다. 그런 루블라일의 모습을 지켜보던 레쉬블은 옅게 웃음을 흘렸다.

" 흠! 크흠! "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에스나는 죽을 지경이었다. 저기요! 여기 사람 한명 더 있습니다! 를 열심히 피력했으나, 이미 둘만의 세계에 빠져버린 루브와 레브의 고막에는 닿지 않았다. 에스나는 절망했다. 우리 아가씨가 원하는 바를 이루셔서 너무 기쁜데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런 에스나를 구원해주듯, 필피가 예의 없이 노크도 생략한 채 응접실의 문을 거칠게 열어재꼈다.

" 아아아가씨! 특보입니다! 특보! "

" ? 뭐, 뭐야! "

뭔 놈의 특보인데 감히 공작 아 아니 우리 레브와의 시간을 방해해! 루블라일은 나름 극대노를 하며 자리에서 몸을 벌떡 일으켰으나, 필피의 말이 한층 더 빨랐다.

" 화화, ㅎ, 황후 폐하께서 황제 폐하에게 이혼을 요구했대요! "

" !?!?! 뭐요!? "

루블라일은 그 말을 듣고 기겁하며 털썩 주저앉았다. 레쉬블 또한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쳤다.

요즘 한동안 지속되었던 평화는 그렇게 개박살 났다.

붉은 색의 꽃밭에서, 쓰러져있던 남자를 데려와 치료했었던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남자는 하네르의 치료를 받고 일어나 하네르에게 노골적일 정도로 호감을 표했었다.

남자의 외양은 너무나도 화려했기에, 하네르의 부모는 남자가 혹 귀족이 아니냐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럴만도 했다.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찬란한 금발에, 하늘을 담은 듯한 푸른 눈을 하고 하네르에게 우아하게 말하는 남자는 누가봐도 귀족이었다.

마을의 여자아이들은 소식을 듣고 하네르의 집을 기웃거렸다. 그리고 소문의 남자를 마주친 아이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

귀족처럼 보이는 이에게 호감을 받는 하네르를 질투하거나,

아님 숭상하거나.

" 넬리는 좋겠다! 그 사람, 얼굴 봤어? 전에 제시가 들고 왔던 소설의 왕자님처럼 생겼어! "

" 귀족인가? 아님 진짜 왕자님일 지도 몰라. "

반짝이는 눈빛들. 하네르의 행운에 감탄하느라 바쁜 입들. 하네르가 자연스레 달콤한 상상 속으로 빠져들기엔 충분했다. 그런 하네르의 상상을 지지해주듯, 몸을 회복하기 위해 하네르의 집에 머물던 남자의 행동은 더욱 더 달달해졌다.

" 애칭이 넬리라던가? 마치 그대처럼 부드러운 애칭이야. "

" 아, 그... "

훅 던져진 남자의 말에 하네르의 양 뺨은 쉴 틈도 없이 빨개지기 일쑤였다. 하늘을 닮은 눈동자에는 하네르를 향한 호의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이 제국의 황제라고.

높은 신분의 사람이란 건 눈치챘지만, 황제일 줄 누가 알았겠어. 얘기를 전해들은 하네르의 부모님들은 흥분으로 인해 얼굴이 시뻘개졌다. 넬리, 얘!

" 이건 기회야! "

" 기회라고요? "

" 당연하지, 황제라고, 황제! 맙소사 넬리. 어쩌면 좋니! 너한테 이런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다니! "

출세라며, 하네르의 아버지는 함박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하네르의 손을 덥썩 잡았다.

" 넬리! 여튼 폐하께서 우리 집에 계시는 내내 너한테 관심을 표하셨잖니? 한번 수도에 데려가 줄 수 있겠냐고 슬쩍 물어보렴. 응? "

" 네? 아, 네... 그럴게요, 아빠. "

" 아유! 우리 딸 정말 착해! "

어머니, 아버지의 호들갑에 하네르는 덩달아 들뜬 마음이 들었다. 집으로 향하는 하네르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하네르는 남자, 테이거스가 있는 방의 문을 벌컥 열었다.

" 테이! "

무려 황제의 애칭을 허락받았다는 사실까지는, 아직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테이가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했으니까. 하네르의 눈꼬리가 사랑스럽게 휘어졌다. 테이거스는 그런 하네르를 바라보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 넬리. "

" 테이, 이제 몸은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행이다! "

확실히 테이거스가 맨 처음 하네르의 집에서 간호를 받았을 때보다 확연히 나아진 모습이었다. 하네르는 밝게 웃어보였다. 테이거스는 그런 하네르를 귀엽게 바라보며, 이내 성큼성큼 하네르를 향해 다가갔다.

" 다 네 덕이지. 너에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혹시 원하는게 있나? "

" 네? 원하는 거요? "

하네르의 눈이 커졌다. 부모님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스쳐지나갔다.

" 있어요! "

" 뭐지? "

" 테이랑 같이 수도 구경을 가고 싶어요! "

" ... 그리고? "

" ? 그게 끝이에요! "

" 끝이라고? "

하네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의 말대로 테이와 같이 수도 구경을 함께 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았기에. 테이거스는 그런 하네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 맙소사, 넬리. 정말 너란 여자는... "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네르를 데리고 수도로 떠났다. 그리고 약속은 단순히 수도 구경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테이거스는 하네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도에서는 감히 하네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졌다.

귀족 영애들의 질시를 한 몸에 받으며, 황궁에 거주하고, 무도회에 나가고. 테이의 사랑을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무려 공작인 레브의 사랑까지도.

하네르의 친구였던 제시가 보여준 소설과 똑같은 상황들. 여주인공을 질투하는 여인들과, 그런 여주인공을 보호하며 사랑해주는 남주들. 그래서 하네르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웃을 수 있었다.

악귀처럼 달려들던 메쉬트에게 맞아도, 몇번이나 죽을 위기에 처해도, 오물 속을 진창 굴러도.

왜냐하면, 소설의 여주인공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끝에 행복해졌으니까.

남주인공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그런데 이게 뭐지?

' 순종적이고, 귀여운 인형이라고 황후 폐하를 칭하셨습니다. '

' 나의 귀여운 넬리. '

' 귀여운 인형이라고 황후 폐하를... '

쨍그랑!

하네르는 거울을 향해 보석함을 집어던졌다. 마치 악역인 메쉬트가 할 법한 짓을 해버린 하네르의 얼굴은 엉망진창이었다.

아니야.

거울과 맞부딪혀 뚜껑이 열린 보석함은, 거센 힘을 이기지 못하고 뚜껑이 열려 수많은 보석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하네르는 고요히 보석함을 내려다보았다. 테이가 준 선물들. 처음에는 분수에 맞지 않다며 덜덜 떨었었지. 지금은...

저도 모르게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꽤나 아릿한 느낌이 입술을 타고 올라왔으나, 하네르는 멈추지 않았다.

' 나의 귀여운 넬리. '

아니야.

' 황후 폐하, 들으셨어요? 황제 폐하께서 요즘 르가 백작 영애에게 관심을... '

' 아니야, 분명 쉐르폰 자작 영애에게 꽃을. '

아니야.

' 순종적이고, 귀여운 인형이라고 황후 폐하를 칭하셨습니다. '

아니야!

깨진 거울 사이로, 하네르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춰보였다. 아무리 목에 무거운 목걸이를 걸어도, 귀에 큼지막한 다이아몬드를 걸어도, 온갖 보석이 박힌 티아라를 머리에 얹어도.

왜 행복하질 않지?

아니잖아. 행복해야만 하잖아. 왜냐하면, 나는, 테이는,

분명 주인공인데...

" 윽. "

섧은 울음소리가 입술을 비집고 튀어나왔다.

하네르는 떨리는 손으로 보석들을 손에 한가득 쥐었다. 가녀린 팔은 그 보석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들파들 떨려온다. 예전에는, 당근이 한 가득 담긴 상자도 거뜬히 들었었는데.

결국 하네르는 보석들을 바닥에 떨구었다.

이 비싼 것들을 어떻게 함부로 제 몸에 걸 수 있냐며 긴장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네르는 울다 말고 엷은 웃음을 흘렸다.

' 나의 귀여운 넬리. '

나의 귀여운 인형.

툭. 하네르는 힘없이 벽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리고 두 눈을 감았다. 무슨 짓을 해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다. 평민으로서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네르는 전처럼 웃을 수가 없었다. 내가 어떨 때 즐거웠더라? 즐거운 기억을 들춰볼려 노력했으나 이미 탈진한 몸은 제대로 된 기억조차 꺼내질 못했다.

하네르는 고요히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어둡게 가라앉은 호박빛 눈동자는 음울한 빛을 띄고 있었다.

소설의 끝에서, 주인공은 행복해야만 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렇다면...